

책 소개

이 책은 제1장 성 신부님 어머니의 편지, 제2장 성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보내신 편지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성 신부님 어머니의 편지”는 1999년 9월, 성 신부님 서재에서 발견된 것으로 유소연(비안네) 자매님이 번역을 하였다. 편지의 문체가 필기체이고 편지 자체가 낡아서 보기 힘들었으므로 유소연 자매님이 정자체로 정리하였다. 이 글에는 1950년부터 선종하시기 직전인 1952년까지 성 신부님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와 어머니의 선종을 알리는 가족들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제2장 “성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보내신 편지들”은 2001년에 김 임마꼴라따 수녀와 김 미리암 수녀가 성 신부님 비디오 제작을 위해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 신부님의 여동생인 리제뜨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리제뜨가 가지고 있던 성 신부님 편지들을 복사하여 인명이나 연대별로 정리하여 번역한 것이다. 가족들에게 쓰신 편지 가운데에서 일본에 파견된 여동생인 테레즈 수녀에게 쓰신 편지는 일본 수녀원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누락되었다. 제2장에 수록된 편지들은 우리가 모르는 성 신부님의 일상적인 생활 내용이 수록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성 신부님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과 성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관심과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 가족 사랑 안에 숨겨져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은 성 신부님 아버지의 유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57년 동안 보여주셨던 성 신부님의 선교사로서의 열정과 신념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하느님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가족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 례

책 소개 3

제1장 성 신부님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 11

- 에맹, 1950년 3월 6일 / 11
- 에맹, 1950년 4월 1일 / 15
- 에맹, 1950년 11월 22일 / 18
- 에맹, 1950년 12월 26일 / 22
- 에맹, 1951년 1월 18일 / 25
- 에맹, 1951년 2월 15일 / 28
- 에맹, 1951년 3월 30일 / 31
- 에맹, 1951년 5월 16일 / 34
- 에맹, 1951년 6월 28일 / 37
- 에맹, 1951년 6월 28일 / 39
- 에맹, 1951년 9월 20일 / 42
- 에맹, 1951년 10월 23일 / 46
- 에맹, 1951년 12월 10일 / 49
- 에맹, 1952년 1월 18일 / 52
- 에맹, 1952년 2월 9일 / 54
- 에맹, 1952년 3월 19일 / 57
- 에맹, 1952년 5월 24일 / 60

성 신부님 어머니의 임종을 알리는 가족들의 편지 / 62

에땡, 1952년 5월 25일 / 62  
에땡, 1952년 5월 30일 / 63  
에땡, 1952년 6월 3일 / 65  
에땡, 1952년 6월 11일 / 69  
1952년 6월 18일 / 70  
1952년 11월 10일 / 77

제2장 성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보내신 편지 79

1. 부모님께 쓰신 편지 / 79

1949년 / 79

2. 동생 마르그리트 수녀님께 쓰신 편지 / 80

1955년 7월 13일, 논산 / 80

1956년 7월 2일, 논산 / 83

1956년 12월 19일, 논산 / 86

1957년 7월 9일, 논산 / 88

1958년 1월 3일, 논산 / 91

1958년 6월 27일, 논산 / 94

1958년 7월 18일, 논산 / 97

1959년 1월 9일, 논산 / 98

1959년 5월 29일, 논산 / 102

1959년 12월 20일, 논산 / 105

1960년 9월 10일, 논산 / 107

1962년 12월 8일, 바 또랑(Bas-Thorenc)에서 / 111

1963년 10월 25일, 파리 / 112

1964년 5월 8일, 페낭 / 114

1964년 6월 1일, 홍콩에서 / 116

1964년 8월 24일, 홍산 / 117

1964년 12월 15일, 홍산 / 119

1965년 5월 3일, 홍산 / 122

1965년 9월 9일, 홍산 / 124

1965년 12월 10일, 홍산 / 128

1966년 9월 2일, 홍산 / 131

1966년 11월 24일, 홍산 / 134

1967년 7월 12일 / 136

1968년 1월 15일, 홍산 / 139

1968년 10월 2일, 홍산 / 140

1969년 1월 1일, 사제관에서 / 144

1969년 12월 1일, 서울 / 147

1970년 1월 5일, 서울 / 149

1970년 9월 23일, 서울 / 151

1971년 8월 5일, 서울 / 154

1972년 6월 8일, 서울 / 157

1974년 1월 7일, 서울 / 159

1974년 5월 4일 / 162

1974년 7월 13일, 서울 / 164

1975년 1월 27일, 서울 / 166  
1975년 8월 9일, 서울 / 168  
1975년 11월, 서울 / 170  
1976년 12월 6일, 서울 / 172  
1977년 12월 1일, 서울 / 174  
1979년 2월 4일, 파리 / 176  
1979년 2월 19일, 서울 / 178  
1979년 4월 23일, 서울 / 180  
1979년 9월 24일, 서울 / 181  
1979년 12월 5일 / 183  
1980년 12월 1일, 서울 / 186  
1981년 10월 7일, 서울 / 188  
1982년 12월 15일, 서울 / 190  
1984년 5월 31일, 서울 / 192  
1984년 8월 22일 / 193  
1984년 11월 7일, 서울 / 194  
1985년 5월 3일(혹은 5일), 서울 / 196  
1985년 9월 17일, 서울 / 197  
1985년 11월 1일, 서울 / 199  
1986년 10월 30일, 서울 / 200  
1987년 3월 26일, 서울 / 200  
1988년 5월 5일, 서울(어린이날) / 203  
1989년 3월 13일, 서울 / 204  
1990년 12월 28일, 서울 / 205  
3. 여동생들에게 쓰신 편지 / 206  
1952년 12월 31일, 논산 / 206  
11월 2일, 논산(연도미상) / 207  
1953년 1월 28일, 논산 / 210  
1956년 3월 15일, 논산 / 213  
1958년 10월 4일, 논산 / 215  
1959년 5월 29일, 논산 / 217  
1961년 11월 11일, 논산 / 220  
1964년 4월 15일, ‘라오스’ 호 재판에서 / 221  
1964년 4월 22일, ‘라오스’ 선박 위에서 / 223  
1965년 2월 8일, 홍산 / 226  
1965년 2월 16일, 홍산 / 227  
1966년 3월 18일, 홍산 / 229  
1966년 9월 1일, 홍산 / 232  
1967년 12월 1일, 홍산 / 234  
1968년 7월 31일, 홍산 / 237  
1968년 10월 2일, 홍산 / 239  
1968년 11월 1일, 홍산 / 243  
1969년 4월 4일 성금요일, 홍산 / 248  
1978년 4월 12일, 서울 / 250  
1979년 4월 15일, 부활축일에 서울에서 / 251

1981년 7월 2일, 서울 / 253  
1981년 8월 6일, 서울 / 255  
1981년 9월 19일, 서울 / 256  
1981년 12월 1일, 서울 / 257  
1981년 12월 1일 / 259  
1982년 5월, 서울 / 260  
1982년 9월 7일, 서울 / 263  
1983년 8월 23일, 서울 / 264  
1983년 9월 12일, 서울 / 265  
1983년 9월 29일 / 268  
1983년 12월, 서울 / 270  
1984년 3월 9일, 서울 / 271  
1984년 7월 24일, 서울 / 271  
1984년 8월 21일, 서울 / 272  
1984년 10월 8일, 서울 / 273  
1984년 11월 21일, 서울 / 275  
1985년 1월 13일, 서울 / 276  
1985년 1월 25일 / 277  
1985년 2월 22일, 서울 / 278  
1985년 4월 1일, 서울 / 280  
1985년 6월 8일, 서울 / 281  
1985년 7월 10일, 서울 / 282  
1985년 7월 22일, 서울 / 283  
1985년 10월 6일, 서울 / 283  
1985년 11월 20일, 서울 / 284  
1985년 11월 30일 / 285  
1986년 1월 6일 / 286  
1986년 2월 1일 / 287  
1986년 2월 6일, 서울 / 288  
모두에게 / 289  
엘리사벳에게 / 289  
안느 마리에게 / 290  
1986년 2월 1일 / 291  
1986년 3월 1일 / 291  
1986년 4월 24일, 서울 / 292  
1986년 7월 9일, 서울 / 293  
1986년 9월 30일, 서울 / 294  
1986년 10월 19일, 서울 / 295  
1987년 1월 30일, 서울 / 295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 296  
4. 기타 편지 / 298  
1936년 3월 16일, 서울 / 298  
1938년 12월 31일, 제물포 / 299  
1941년 6월 10일, 서울 백동 성당에서 / 305  
1948년 11월 30일, 파리 모원에서 / 310

1951년 3월 5일, 보베르에서 / 315  
1967년 11월 30일, 홍산 / 316  
1985년 2월 2일 / 320  
1985년 5월 1일 / 321  
1985년 9월 25일 / 322  
1986년 2월 13일, 서울 / 324  
1986년 11월 10일 / 325  
1988년 1월 26일, 서울 / 325  
1988년 11월 10일, 서울 / 326  
1989년 1월 12일, 서울 / 327  
1989년 5월 19일, 서울 / 329  
1991년 2월 23일, 서울 /330

### 제1장 성 신부님 어머니께서 쓰신 편지1)

에댕, 1950년 3월 6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이 날을 꼭 기억하거라! 이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련을 보내셨구나….

이 편지는 한 사제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아빠를 어느 날엔가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제인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어제, 3월 5일 낮 12시 15분경에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 아빠는 공소에서 분주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너의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칭송 받을 만한 공소 순방이 아빠에게 고통을 거의 겪지 않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죽음, 안락한 죽음을 선사했구나.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떠나셔야 했나보다!… 아이들은 더 할 나위 없는 복된 임종을 맞으신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빠는 3주 전부터 조금씩 병세를 보였는데, 협심증으로 숨이 막혀오고 가슴 부위가 아픈 증세였단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지했고 그저 안느 마리가 열심히 간호하고, 아빠도 늘 그랬듯이 활동적이라 잠시도 눕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강제로 2~3일 방에 올라가 계시다가는 다시 집안 일을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해를 두고 간호해드리면 나올 병인 줄 알았단다. 드와앵 신부님이 아빠를 만나러 오셨다가 아빠에게 주일미사에 나오지 말라며 성체를 모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방문하겠노라고까지 말씀하셨단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신 분이니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기만을 고대하셨겠지. 토요일이면 하루 종일 피약벌에서 앞마당을 거닐곤 하셨다. 이는 다음날 주일미사에 갈 수 있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당신의 건강은 그럴만한 형편이 못 되었단다. 딱하기도 하시지….

일요일에 당신은 병석에 누워 룩셈부르그 라디오 방송을 따라 병자를 위한 미사를 보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면도를 하고 아주 정갈하게 단장을 하시고 아래층 부엌에 혼자 있던 나에게 내려오셨기에, 말라가

2) 한 잔을 드렸더니 마시고는

“몸이 피곤해. 당고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모양이야. 몸이 안 좋아. 심장이 너무 너무 빨리 뛰어.”

“저런, 곧 가라앉을 거예요. 내게 기대봐요.”

그런데 아빠의 손과 안색이 점점 죽어가고 눈동자가 금새 돌아가더구나… 나는 비명을 질렀고 왜 그랬을까? 루르드 성모님 우리를 위해 빌으소서… 여보, 내 말 들려요? 들리면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핏기가 돌고 혈색이 보이기에 나는 한 숨 들쭉다 싶어서 “당신 늙혀 드릴 게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했는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바닥으로 그냥 쓰러지셨다. 난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 어서 성당에 가서 안느 마리와 드와앵 신부님을 모셔오라고 했다. 드와앵 신부님이 브레빌리에로 가신 바람에 보좌 신부님이 와서 종부성사를 주셨고, 내가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의사가 이미 도착했는데 의사는 결국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확인해주었을 뿐이었다.

아빠는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모셔두었다. 당신이 이미 정갈하게 단장을 하시고 면도까지 하셨기에 그 모습 그대로 누워 계신다. 당신 스스로 눈을 감으시고 입도 다문 채... 그야말로 선종하셨다고 아이들은 말하는구나.

포콩 의사가 그의 자녀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다음 번에 옮겨 적어 보내주마. 아빠가 늘 지갑에 넣고 다니시던 편지인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라고 당부하셨단다. “그 사람은 내 친구야,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거든” 하셨지.

46년 간을 같이 살면서 아빠는 얼마나 많은 미사를 봉헌했는지 너도 잘 알겠지. 또 주일마다 성체를 모셨는데... 하느님은 더 이상 주일미사에 아빠를 원치 않으셨다. 아빠는 채비를 갖추고... 그토록 원했는데... 토요일이면 미사에 가리라는 희망으로 하루 종일 피약실에서 걸음걸이를 연습하셨는데... 기도해다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렴.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마침 리용에서 폴이 아들을 얻어서(피에르라고 이름을 주었다) 피에르가 영세를 받고 차끄가 대부를 섰단다. 착잡하구나. 어제 저녁 전보를 받고 폴이 방금 도착했고 차끄는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다. 끌로드가 어제 삼촌들과 주느비에브를 데리고 왔다.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다오.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가야 할지 두렵기만 하구나!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저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나에게서는 착한 아이들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를 더욱더 사랑하는 엄마가

피에르에게, 엄마의 편지에 덧붙일 말이 없구나. 우리 모두 모여있단다. 아빠는 거실에 임종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 계신다. 세수 단장을 방금 끝낸 듯 곱게 차리신 모습... 하느님께 보이시려고... 평온한 모습, 정말로 선종을 맞으셨다. 목요일에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차끄와 지네뜨 그리고 너와 테레즈가 이 자리에 없지만 모두 모여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아빠는 행복해 하실 거야. 혼자 그곳에서 가슴앓이를 할 너를 위해 기도한다.

다행히 그곳에서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니.

마르그리뜨

아빠는 하늘로 올라가실 모든 준비를 하신 채 엄마 품에서 그렇게 가셨으니 참으로 복되게 돌아가셨어. 르네와 내가 마르그리뜨를 즉시 데려왔어. 르네가 집 안의 모든 남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었어. 아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줘. 우리 모두의 인사를 전하며, 아빠 곁에 너의 사진이 있으니 너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마들레느

막 태어난 피에르의 탄생 소식을 며칠 후에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모여있듯이 지금 이 순간 너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 알아다오.

폴

오빠가 우리와 함께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해. 아빠 침대 머리말에 오빠의 사진을 두었어.

아빠는 너무나 평온하게 잠드신 모습이야.

우리 모두의 애정 어린 포옹을 전하며, 리제뜨

피에르, 사랑하는 피에르, 우리가 늘 아빠의 표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자끄

에맹, 1950년 4월 1일

사랑하는 피에르,

3월 18일자 너의 편지를 이미 받아보았다. 너무나 힘겨운 소식을 전해 듣고 강하게 다시 일어난 너의 모습을 편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네 아빠의 바람대로 너는 그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너의 아빠를 생각하면 그분으로서도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구나!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간다.

솔랑주, 장을 데리고 묘지에 다녀왔다. 마리아가 도와주어서 안느 마리가 아빠의 묘비를 깨끗이 닦아 놓았고 가장자리에 팬지꽃을 심어 놓았더라. 아빠는 내 부모님의 지하 매장터에 안치시켰다. 안느 마리와 르네가 보는 앞에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의 유골과 이젠 한 줌 흙밖에 남지 않은 자네뜨의 유해를 모아서 아빠의 것과 함께 작은 상자 안에 넣어 지하 매장터에 모셨다... 이제 그분의 유해가 안식할 곳이 바로 그곳이며 나도 그 옆으로 가겠지... 차후에 우리 땅에 지하 매장터를 다시 마련하려고 한다. 묘지는 더 늘어나겠지...

이 편지가 부활 대축일에 너에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일 예정인데 아빠를 위한 아침 8시 특별 미사에서 장이 첫영성체를 한다. 너도 그 날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삶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너 역시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 분명 아빠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갑작스런 아빠의 임종이 내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가 얘기했던가, 임종 보름전부터 아빠는 자리에 누우셨고 미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내가 아빠 침대 곁에 놓아둔 병자를 위한 미사책으로 미사를 대신 하셨다. 그 날, 아이들은 모두 11시 대미사에 참례하러 갔고 나 혼자서 집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서 세수를 말씀하 하셨더라... 아빠가 이른 시각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12월말부터 1월에 들어 벌써 허리 둘레에 증세가 보였는데 그 나이에는 나쁜 징조인가 보더라... 아빠는 내 곁으로 내려오셔서 아페리티프를 달라고 해서 네스토 성인 축일에 받은 말라가산 포도주가 있기에 식욕을 통 잃었던 터라 아페리티프가 식욕을 좀 돋구리라 생각되어 한 잔 드렸더니 아빠는 그걸 마시고 내가 식탁을 차리는 것도 도와주었다. 갑자기 아빠가 위층에서 당고를 먹었는데 그게 아페리티프와 섞여서 그런가 몸이 안좋다고 그러시는데 안색이 정상이 아니었고 맵소사! 예삿일이 아니었어. “상태가 영 안 좋아. 심장이 두근, 두근, 두근 너무 빨리 뛰어” 하시기에 나는 아빠보고 머리를 내게 기대 보라고 하자 당신도 내 어깨 위에 머리를 얹으셨다... 그리고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사지가 마비되었지. 나는 미친 듯이 외치며 루르드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내말 들려요? 좀 움직여봐요...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쓰러지셨다.

그제서야 전화로 의사를 부르고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드와앵 신부를 부르고 보좌 신부님이 도착하셨고... 만일 내가 아빠의 임종을 놓치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종부성사를 받으셨다면 아마 슬픔이 더 컸을 것이다. 그 전날에 미사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오후 내내 집 주위를 조금 걸으셨는데 미사에 가려면 세 배는 걸어야 할거라며 거리를 계산하시더라.

그래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온 식구가 장례를 준비했지. 아빠는 생전에 장례를 조출하게 치르라고 하셨지만, 드와앵 신부님은 온 정성을 다해 치르고 싶다며 목요일 11시 미사에서 예외적으로 강론까지 해주셨다. 강론은 아빠가 생전에 얼마나 열심한 신앙인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었다.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다. 집에서 58명이 점심을 먹었고 의례적으로 부조 후에 자리를 뜨지만 조문객들은 깊이 감동을 받고 금방 자리를 뜨지 않았단다. 그 날의 강론내용은 나중에 보내주마. 오늘은 아빠의 서류가방에서 발견된 그분의 영적 유서를 전하러 한다. 언제인가 아빠가 내가 죽거든 당신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시며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지. 포콩 의사의 마지막 편지란다. 내

친구인데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하셨지...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리고 아빠의 서재에서 달력이 나왔는데 거기에 너희들 모두의 이름과 너희들 하나 하나를 위해 매달 3번의 묵주기도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노랗게 퇴색되어 닳아버린 묵상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로 인해 아빠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지금에서야 감지되는 소소한 일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병으로 쓰러진 후에도 언제나 그토록 겸손 하셨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우리는 약혼시절과 전쟁 중의 편지들을 모두 태우기로 해서 아빠가 편지들을 다 읽어본 후 모두 태워버렸기에 지금 남아있는 아빠의 편지는 한 통도 없다. 너무 안타깝구나. 다행히 옛 여인들처럼 ‘마음을 드높이(Sursum Corda)!’ 하는 생활원칙에 습관이 들어서 견딜만 하구나.

네가 전해주는 소식이나 테레즈, 마르그리뜨의 편지들로 내가 힘을 얻는다. 내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구나. 마리 끌레르는 깊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렸고, 우리는 아빠의 사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애는 쓰지만 힘들 것 같다. 일주일에 하루 이들은 사람을 쓰려고 한다. 아빠가 정원을 잘 정돈해 두어서 그것도 돌보아야 하고, 어서 가게도 정식대로 채워야 하고 손님도 끌어야 하고... 너무 염려는 말아라.

우리 소유지를 보존하려고 애는 쓴다만 그게 얼마나 같지?... 현재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난 상태라, 어쩌면 조만간 너의 서명이 필요할지 모르니 항공편으로 보내주어라. 장레비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세금이며, 아빠가 생전에 당신 혼자 맡았던 그 모든 짐들이 내게 남겨졌으니,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는 일, 쌓여있는 피혁들 등등...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작년에 내 건강으로 그토록 아빠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지금은 나의 건강은 괜찮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기쁜 일이나 실망한 일이나 우리에게 자주 전해주어라. 너의 소식을 듣기 위해 마르그리뜨는 우리 집에 와서 나흘을 보낸다.

이제 아빠는 우리 정원에서나 찾아볼 수 있겠지. 아빠의 관에 눈꽃을 함께 넣어 드렸다. 그 옆에 아빠의 71세 생신 전날에 받은 너의 사진과 테레즈의 사진, 늘 옆에 두고 바라보시던 그 사진들을 함께 넣어 드렸다. 아빠의 인물사진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 만드는데 2,500프랑이 든다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아빠의 가장 최근의 모습을 담고있는 사진은 46년 성탄일에 폴이 찍은,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서 포즈를 취하고 찍은 것인데 확대시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구나. 폴과 지네뜨가 자주 소식을 보내온다. 손자 피에르는 잘 자라고 있고... 마들렌느가 내일 신랑과 같이 올 것이고 아마 일주일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갈 것 같다. 집 문제는 아마 임시 해결된 것 같은데, 그저 꿈이 아니라 어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갖고 싶은 모양이다. 르네는 자리를 잡는데 여전히 힘든 모양이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늘 싸워야 하고 늘 힘겨운 나라이다!

너를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엄마가

에댕, 1950년 11월 22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너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10월 27일에 부쳤더구나. 편지가 올 줄 알았단다. 우리는 외방전교회를 통해 네가 너의 임지로 돌아갔고 너의 성당이 건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너도 알겠지... 애야, 네가 큰 일을 치르는 동안 나는 마음으로나마 너와 함께 있었다.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늘에서 아빠 역시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분명히 너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아빠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나보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여전히 웃으면서 “내가 죽으면 안느 마리와 열심히 살아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에게 편할 것이요” 하기에 내가 “애들은 다 쫓아 버릴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해요, 그것으로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걸 믿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그런데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결국 거의 너 혼자 이 곤경을 헤치고 나왔구나. 를뢰 신부, 리샤르 신부 그리고 몰리나르 신부들이 9월 24일에 대전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교자들을 생각했다. 너의



편지에서 페랭 신부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나는 그가 벽촌에서 마을 주민들처럼 빠져 나오기를 늘 고대했건만 결국 그가 너무나 모든 걸 하느님께 내맡긴 나머지 그분과 함께 계시게 되었구나!.... 어쨌든, 어쨌든 피에르야, 너만은 거기 살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종종 소식을 전해주어라. 내가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전해 줄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네가 보내달라고 한 씨앗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생 모르에 사는 아주머니를 통해 테레즈에게 아빠의 옷가지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보냈다. 아빠는 새로운 옷을 입혀서 모셨다. 테레즈와 연락이 되어 물품들을 받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외방전교회에 검정색 모직 윗도리와 팬티 한 장, 목도리, 장갑, 안느 마리가 만든 방한모들을 맡겼다. 모직 윗도리는 비탄에 빠져있는 한 소자산가 여인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너를 위해 만들었는데 수고비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주어라. 네가 그 옷들을 성탄절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라리보 주교님 편으로 가능할까?... 그분은 돈을 마련한 다음 떠나고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도 할 의향이더라.

그분에게서는 소식 한 자 못 받았다. 파리에 들렀을 때는 보지도 못했다. 10월에 폴의 집에 가서 보름 동안 지내다 왔는데 아기가자기한 살림에 어린 피에르 2세는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그리고 외방전교회를 들려서 제라르 신부를 만나 소식을 들었는데, 코요 신부와 함께 북한으로 납치된 공베르 신부와 82세의 빌모 신부가 돌아가셨다고. 적어도 그 연세에, 외무부의 추측이 아닐까.... 룰루 이모가 너에게 보내는 돈을 외방전교회에 두 번에 걸쳐 36,500프랑과 1,000프랑을 맡겼다. 제라르 신부의 말이, 일본이 곧 상품으로 그곳을 침입할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한다. 그 전에 아라스에 있는 가게르와 연락을 했는데, 그가 너를 위해 5,000프랑과 멋진 성작 하나와 그리고 교구의 사제들이 너를 위해 내놓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외방전교회에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본당에서 선교회를 위한 바자회를 통해 하루동안에 모아진 물품들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물품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드와앵 신부가 그것들을 파리로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그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드와앵 신부가 너를 위해 파브렐 양에게 제의를 짓도록 했다는데.... 너의 누이나 형제들에게 각각의 몫으로 한 꾸러미씩 주었지만 너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려고 한다.

난 여전히 큰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고 나를 너무 잘 보살펴 주어서 나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도 수술 후 큰 충격으로 많이 늙었구나 싶다.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다오. 난 아직 너나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리제뜨는 드디어 우뜨로로 발령을 받고 기뻐한다. 내일 그곳으로 떠날 예정인데, 다 파괴된 도시 뒤편에 임시로 만들어진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구며 의자, 식탁 등 필요한 살림도구를 가지고 갈 것이라. 혼자 지내기에 너무 큰 집이라 처음엔 썰렁하겠지만 그 아이가 일하는 보건소 분위기는 밝고 좋아서 거기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그 아이에게 맡겨진 일들이 쌓여있단다. 가끔 그 아이에게 여자 형제 한 명을 보내 주어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돕도록 해주어야겠다. 불로뉴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지내고 갈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황이란다. 그 아이가 세균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결과를 기다리는 지난 석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한동안 그 아이도 침체되어 있었고 큰 병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 잊었다.

쟈끄네는 모두들 잘 지내고 이브도 그의 선생을 무척 좋아하며 만족해하는데 휴가 때까지 너무 길다고 동생들을 보내달라고 한다. 마들렌느도 잘 지내며 이제 집도 생겨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듯하다. 르네는 르 아브르의 CIM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너무 잘못 대우하였기 때문에 큰 보상금을 받지는 못해도 올 한 해 동안 그 아이가 다른 일자리를 찾느라 들었던 비용만큼은 발령시엔느에 있는 CIL에서 보상받으리라 생각한다. 안느 마리는 요즘 파리에 있는 퀘뵈르씨 댁에 가 있는데, 그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또 안느 마리 역시 그에게 도움도 주고 말벗도 해주고 있다.

폴 가정은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심지에 아파트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폴도 덜 피곤하고 특히 지네뜨에게도 활기를 줄 것이다. 적어도 도심지에 있으면 지네뜨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나도 살아보니 아이를 돌보아줄 처녀가 오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무튼 하늘에서 아빠가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너의 수녀들이나 갈멜 수녀들과의 애로 사항들, 네가 지내는 생활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라.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엄마가

확대한 아빠 사진은 보았니?

에댕, 1950년 12월 26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지내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리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공격군이 또 다시 후퇴하고 전쟁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잔혹한 일들, 사람들은 외교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전 세계가 은총을 외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방어하지 못하는 쪽을 공격하기 위해 교전을 기다리고.... 어쨌든 너에게 이런 비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될 뿐이지 신중하여라. 한 번 일어났던 일은 조만간에 다시 재발되는 법이니....

네가 보내준 인쇄물이 너무 커서 거기에 맞는 봉투가 없어 내가 만들어 보았다. 드비쥬 신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가 1월 4일에 떠난다고 하기에 네가 부탁한 씨앗들을 알아서 골라 사라고 500프랑을 주었다. 신부가 너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테레즈에게 아빠의 속옷 몇 장과 짧은 외투, 마스크, 방한모를 부쳐달라고 했는데 지금쯤은 받았으리라 믿는다.

너에게 무엇을 부치려 해도 어떻게 부쳐야 할지를 몰라 매우 힘들다. 드와엥 신부의 부탁으로 84세의 파뷔렐 양이 너를 위해 아주 멋진 제의를 짓고 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주느비에브에게 돈을 주어서 좋은 면을 사오게 하여 크리스틴과 사빈느가 제의끈을 만들고 있단다. 네가 끔찍한 역경 속에 처해 있으리라 짐작된다. 겨울을 맞아서 더욱 힘들겠지. 성탄절 기간 동안 네 생각을 더 하게 되는구나.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짐을 지고 있으려니 마음이 더욱 고되겠지....

1950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잔혹한 해였다. 내 기력을 완전히 소진시켰고 어찌나 긴장했던지 겨울이 되어 추워지니 꼼짝을 못하겠고, 류머티즘까지 있어서 소파에 앉아 꼼짝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너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를 잃은 것도, 내 아이들을 멀리 떠나 보낸 것도 모두 희생으로 주님께 바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이것뿐이고 기력이 되살아나지 않는구나. 다행히 곁에 안느가 있어서 그 아이가 나를 잘 보살펴 준다. 마리 끌레르는 3주 전에 발랑시엔드로 떠났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나 돌아올지.... 이 큰 집에 아빠가 안 계시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빠가 집안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구나.

리제뜨는 주말마다 우뜨로에서 와서 월요일에 돌아가곤 하는데 그 아이에게는 잘 된 일이지. 왜냐하면 임시로 지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데 바닷가에서 거의 500미터 가량 떨어지기는 했지만 동네가 바닷가로 트여있어서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불로뉴로 일을 나갈 때는 거기서 몸을 녹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추워서 곧장 잠자리에 든다. 그래도 몸은 아주 건강하단다. 이브가 오늘 저녁이면 도착할 것이다. 자끄네 사내녀석들은 모두 내일 올 것이다. 이제 다 큰 사내녀석들이 모두 함께 몰려다니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 하지만 자정미사를 보고 축일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몰려다니는 것이니까, 사는 게 그런 것이지. 자끄와 그 아이의 처와 딸 아이들은 일요일에 왔다. 오늘 저녁 마리 끌레르와 발랑시엔느의 아이들이 와서 3, 4일간 있다 갈 예정이다. 그 아이들에게 이곳 에댕은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가 되는 셈이지. 아이들 부모가 와서 데려가겠지.... 폴은 새해 2일 밤에 혼자 오기로 했다....(미판독)도 세상을 떠나서 이곳 지하묘지에 안치했다. 장례도 무사히 치렀고 임종 전에 신부님을 두 번이나 볼 수 있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 일을 맡아 해준 앙드레 덕분이다.

12월 27일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쌍둥이들이 부이오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들은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고, 알레 신부로부터 네가 1일에 서울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많은 숫자의 천주교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라진 선택받은 사람들은 남골당에서나 찾아 보아야 할 지경이니... 너의 수녀들은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세상 어디나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하고 특히 정직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니... 왜냐하면 언제나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안느 마리가 테레즈의 원장 수녀를 파리에서 만났다. 비행기편으로 파리로 돌아왔는데 나흘밖에 안 걸렸다. 11월 14일에 한국에서 배가 도착한 날 테레즈와 함께 있다가 마침 너를 만났다는 샬트르회의 한 수녀를 만나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 그 아이도 너보고 조심하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예전의 김 신부는 만났니? 김 신부와 함께 지내니? 90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하시다. 겨울은 지내기 힘들어서, 이제 등 뒤 상처 난 곳에 앉은 딱지가 깊이 자리잡아 알코올로 닦아내야 하는데 잠깐 동안인데도 참기 힘드신지 소리를 지르시곤 한다... 말년이 서글프시다.

피에르야, 내년 51년은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자. 이미 세상을 떠난 너의 소중한 동료들이 그곳에 남긴 공덕을 봐서라도 나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으니 너도 그분께 의지하여라. 우리 모두 너를 극진히 사랑하니 혹시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없으면 망설일 것 없다.

온 마음으로 너를 껴안으며, 엄마가

상속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모든 것이 아빠 명의로 되어있어서 길어지고 있으니 반은 내 이름으로 또 반은 가족들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 하겠다. 너무 염려 말아라. 내 머리는 아직 믿을만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요즘처럼 힘겨운 기간 동안 얼마나 네 생각이 간절했는지. 우리는 네가 일본까지라도 와서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썰렁한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곳에 있는 너는 물론 더 출게 보내겠지.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한 번 모이면 온 집안이 뒤죽박죽이 된다.

엄마는 무척 고단해 하셨는데 차츰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고, 우뜨로에 있는 리제뜨는 주임 신부가 너의 옛 교수라고 좋아한다. 우리 모두 너를 아끼며 기다린다.

안느 마리

에맹, 1951년 1월 18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논산에서 쓰기 시작하여 1951년 1월 2일에 대전에서 끝을 맺은 너의 편지를 받고 또 한 번 조이던 마음을 놓았다. 어떻게 해야 나와 연락이 닿겠니? 드와앵 신부님도 너에게 편지를 했었고 나 역시 지난번 편지에서는 너의 한자 이름을 적어서 보냈지만 그 편지들이 모두 분실된 모양이다.

이제 말하지만 나는 너무 걱정되어 편지에 “네가 그렇게 일찍 떠나는 게 아님데, 다시 떠나는 게 아님데” 라고 거듭 말했다. 우리들 모두는 그 끔찍한 전쟁의 경과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는 라디오에 귀기울였고,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는 뻔히 내다 볼 수 있지. 너의 총장 신부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미리 너에게 알려주셔서 화를 면할 수 있었으니 총장 신부님의 선견지명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른다. 그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분께 순명해야 하며 너의 첫 경험은...(미판독)한 것이었다.

너의 아빠 속옷을 부친 것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부산에?... 테레즈에게 부친 것하며 모직 짧은 외투 한 벌, 방한모, 목도리... 조금 전 생 모르의 아줌마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당분간 일본으로 떠날 기회

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그분에게 외방전교회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 편지를 넣었거든. 제의 한 벌이었는데, 겉은 검정과 금색이고 안은 흰색과 초록색인데 드와앵 신부가 파뮈렐 양에게 부탁해서 지은 제의다. 84세의 파뮈렐 양이 지은 것이니 내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드와앵 신부가 성체포도 여러 장 주었고 나도 몇 장 만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테레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한다. 너에게 보낼 씨앗들을 파리에서 좀 사달라고 드비쎬 신부에게 500프랑을 주었는데 테레즈가 조만간 드비쎬 신부를 만난다고 한다. 그 신부는 원래 1월 4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던단다.

이사는 잘 했는지? 그 나라 국민들이 그토록 험한 시련을 겪고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모두가 걱정한다. 진실로 전쟁은 대재앙이다! 풍파가 심한 너의 생활을 우리에게 좀 더 적어 보내다오. 물론 하느님께서 그런 네 인생에 복을 주시겠지만... 네 형제들과 누이들에게 너의 소식을 알려다오. 그 아이들 모두 너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너를 위해 기도했다. 평생을 하느님께 너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드린 아빠에게 나는 매달린다. 그리고 네가 가슴속에 안고 있을 외로움을 생각하며 모든 순교자들께도 매달린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잘 지낸다. 시간이 흐르면 그저 익숙해지나 보다. 너로 인해 겪었던 지난 날의 풍파들을 아빠는 겪지 않으셨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나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느라 애쓰지만 어떻게 되겠지. 필립이 너와 테레즈를 대신하여 너희들 명의를 갖아서 잘 처리하고 있다. 르네는 레종도뇌르 훈장 수훈자로 임명되었다. 그집 가족들은 여전히 발령시엔느에 살고 있으며 르 아브르의 CIM에서 소송에 이겼으나 큰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단다. 자끄는 말 한마디 없이 인도차이나로 떠났다. 손자들은 귀엽기만 하고 생모르의 학교 솔랑주 반에 들어갔다. 수사들과 함께 지내는 장은 아주 기쁘게 살고 있다. 다만 르네가 모든 것을 잊으려고 일에만 파묻혀 있어서 점점 더 일찍 집에서 나가고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니 마들렌느가 불만이 많은데, 그건 르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아이들 문제는 엄마 혼자만의 짐이 아니거든. 너도 알겠니? 자끄도 잘 지내고 이브도 신학교 생활에 만족하며 그르노블에 있는 손자들도 잘 지낸다. 자끄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이 생겨 장갑 제조업체에서 다시 일을 얻었다.

크리스틴느와 사빈느에게 돈을 좀 주어서 너의 제의를 만들라고 했다. 드와앵 신부가 준 제의도 좀 있다만... 폴이 지네뜨와 어린 피에르를 데리고 내일 샤프르 아주머니 댁에 차를 마시러 가기로 했다. 그 집은 여전히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다. 리제뜨는 우뜨로에 정착해서 혼자 잘 해나가고 있으며 언제나 불운 앞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단다.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임시로 지은 집은 빠 드 깔레를 마주하여 막힘 없이 트인 집이라 그야말로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안느 마리가 지나칠 정도로 나를 잘 간호해 준다. 나는 기력이 없어져서 내 자신을 종종 자책한다만, 추위가 내 건강을 해치니 어찌겠니? 내 나이 66살이고 더군다나 수술까지 받았으니...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마리 끌레르는 여전히 고약하니 네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그리고 장사는... 올 한해까지 내가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단골 손님들도 너무 비싸다는 등,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니 다 없어졌지, 수공업자들도 다 손을 떼었지...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와 함께 있는 엄마가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너와 함께 있으며 네 생각이 우리를 떠날 때가 없다. 일본에서 너의 소식 듣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도 너만큼이나 안전하지 못하단다. 테레즈는 기회가 닿는 대로 너의 주소를 받았으면 한다.

엄마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걱정이 많아 몸에 많은 무리가 가서 힘들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고 또 네게서 좋은 소식을 받고는 훨씬 좋아지셨다.

너를 포옹하며, 안느 마리

에맹, 1951년 2월 15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네가 보낸 1월 25일자 편지를 손에 들고 있다. 너에게 좀 더 일찍 답장을 쓰지 못했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 그 이유를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듯이, 너도 한줄기 햇살을 기다리듯 우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텐데... 그래, 그 햇살을 받았니? 그나마 너에게 주어졌던 최소한의 생활마저도 잃어버린 채 네가 보냈을 고통스러운 지난 겨울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어쨌든 네 주변에 일어난 그 모든 불행들을 생각하면 너는 그래도 보호를 받았다고 느낀다. 아빠의 속옷들을 넣은 소포를 받았는지... 그리고 베르나르씨의 제복과 모직 반코트와 목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복이며 드와앵 신부의 속옷들이며 보내줄 것이 많은데 언제,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성당에 필요할 성작수건, 성체포들도 만들고 있단다. 드비쎬 신부는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너를 위해 씨앗들을 가지고 갔다... 근데, 그것들을 사용할 수나 있겠니? 네가 새로 시작한 일들을 생각하며 네가 진실로 보호받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네가 너무 일찍 떠나는 바람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전쟁은 아직도 금방 끝날 기미가 안보이고...

북한과 분위기가 풍습들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화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너보다도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나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면 이번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도 직전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우리 모두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다행히 리제뜨는 자기 생활이 있고 안느 마리 또한 그 아이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다만 마리 끌레르가 걱정이 되는데...

그곳에서의 너의 생활은 어떠니? 드와앵 신부의 말에 의하면 네가 승낙하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네가 판단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특히 그 민족이 너를 적으로 여길 것이므로 너에게 자비심이 필요할 것이다. 너에게 오락이나 기분전환거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나. 오랫동안 포로 수용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에 하는 말이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하며 서로를 저항하는 모습을 네가 보았더라면...

가능한 한 자주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네 가슴속의 괴로움들을 털어놓고 우리와 함께 너의 고통을 나누자. 보름 전 여기서는 큰 일을 겪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오랜 친구인 블롱씨가 돌아가셔서 월요일에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빨리 너의 아빠 뒤를 따라갈 줄이야. 그 사람은 아빠보다 고통을 더 겪고 가셨다. 아빠처럼 그 사람도 눈물을 담고 떠났다. 처음엔 감기로 시작되더니 곧 평소에도 상태가 좋지 않던 간으로 옮겨가서 2주일 전 월요일엔 심하게 몸을 용트림해서 의사를 불렀고 났로 의사가 그 자리에서 검진을 해보더니 당장에 병원으로 싣고 가서는 X-레이 촬영을 하고... 북막염증세라고 해서 코로 고무 호스를 넣어 가득 찬 위를 비우고, 그리고는 폐니실린 주사를 놓고 배 위에 얼음을 얹어 놓고... 그 사람이 너무나 불행한 것이, 자식들이라고 겨우 한 시간 정도 옆에 있다가 간호도 하지 않고 갔으니 아무 것도 모르고...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사람들 앞에서 의사만 체면이 선 셈이지. 안느 마리가 임종까지 간호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남기고 간 말이 더 많았다... 너에게 그 말들을 전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수요일에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목요일에 성체를 모셨는데 그 날 밤에 드와앵 신부가 성사를 주러 왔을 때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그 사람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집으로 모셔왔다. 장례는 월요일 12시에 치렀는데 자식들은 그 날 저녁으로 가버렸어. 그 아이들 뒤로 닫히는 문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는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집은 가정부가 부활절까지 관리를 하겠지만, 그 다음엔... (미판독) 분명 모두 팔아버리겠지. 내 인생의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갔구나. 그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각이면 우리 집에 와서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있다가 가곤 했지. 낮엔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거나 그저 정원을 구경하러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 주곤 했는데... 인생이 그렇다.

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시지만 여전히 살아 계신다! 어쨌든 며칠 동안 할머니 곁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장례식 때 차끄와 주느비에브, 르네, 마들렌느를 보았다. 르네는 일주일간 블로뉴로 가야한다고 떠났고 마들렌느도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떠났는데, 르네가 돌아오는 길에 꼭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일요일에 와서 자기 차로 발령시엔느로 가자고 한다. 애들이 저마다 나를 생각하고 돌봐주려 하는구나. 일주일

전부터 나도 자리에 누워있는 바람에 불롱씨도 보지 못했다. 상황은 늘 같단다.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좋던 기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그런 거지... 아직 바깥 출입은 못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잘 먹으려고 한다. 여름까지는 일어나야 할 텐데... 남아있는 일들하며 걱정거리들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일어나야 할 텐데...

너 없이 치르고 있는 상속문제들은 나중에 말해주마... 그 누구도 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내 방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내며, 어디를 가든 아늑한데 이 아늑함을 너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손자들은 모두 잘 있다. 그런데 장이 요즘 학교에서 들고있는 기관지염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고, 피에르는 이 치료를 받고 있고.

테레즈하고는 연락을 하니? 이 편지가 3월 5일 생일 전에 도착하겠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는 너를 위해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계속 기도드린다.

수천 번의 뽀뽀를 전하며, 너의 엄마가

에댕, 1951년 3월 30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구나. 그동안 집에서는 나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이젠 너에게도 알려야 될 것 같구나. 성금요일 아침 9시경에 너의 외할머니께서 90세하고도 반년이라는 긴 여생을 마감하셨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천천히 생명이 꺼지더니 급기야 말씀도 전혀 하지 못하셨다. 3달 전 이미 종부성사는 드렸기에 성수요일에 보좌 신부님이 오셔서 복음서를 읽어주시고 기도를 드렸다. 할머니는 알고 계셔서 그랬을까?... 할머니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마리 루이즈나 내가 할머니를 간호하고 마실 것을 드릴 때나, 안느 마리가 옛 성인들(성 브느와 라브르나 성 바스트, 성녀 오스튀베르트) 얘기를 해드리면 할머니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래” 하시는 것 같았지. 할머니가 아무런 고통 없이 떠나신 것은 아니다. 이틀 동안 열이 너무 심해서 온 몸을 떠셨다. 그렇게 튼튼한 심장이 한 순간에 멎더구나. 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를 위해 30일간 미사를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로마로 떠난 베르르와 신부님이 30일 미사를 시작하였는데 로마에 가서서 계속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 할머니로 인해 점점 더 버릇이 없어져버린 마리 루이즈가 큰 일이겠지. 다행히 요 며칠 동안은 미미도 있고 세 아이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새로운 세대, 어린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 너의 편지는 잘 받았고 다음 번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내린 결정을 축하하며, 아빠가 늘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어쨌든 몸은 괜찮은 거니? 실로지 신부는 테레즈를 만났니? 근간에 생 모르의 아주머니가 비행기편으로 동경으로 떠난다며 드와앵 신부가 너를 위해 마련한 제의며 장백의를 전해주겠다고 한다. 고마운 일이지. 비행기를 타려면 짐이 무거우면 안 된다고 하던데. 테레즈에게 너의 새 주소를 보내주어라. 너의 바뀐 주소는 여러 면에서 복잡하던데.

베이유에서 있었던 콜랭 신부 추도 미사 중 데뎡브 신부의 추도문을 “아시아의 선교사들”에서 읽었다. 그분은 너의 영적 안내자이셨는데 이제 순교하셨구나. 나는 너를 아는 모든 새 순교자들에게 너와 너의 제2의 고향이 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드린다. 지금으로서는 해결이 된 듯 보이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앞일을 누가 알겠니?...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요새는 마리 끌레르가 마들렌느네 아이 3명을 데리고 와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개학을 하니 일요일에 이모와 함께 보내야 하겠다. 마리 끌레르가 어쩌나 못되게 구는지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단다. 거기서도 마들렌느가 그 아이를 위해 일을 찾고는 있지만 찾아질까... 저도 도와야 하는데 남의 일처럼 군단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할머니 장례 때문에 풀이 다시 돌아왔고 지네뜨는 오지 못했지만 여름 방학때 피에르를 데리고 올 예정이란다. 손자녀석 피에르는 잘 크고 있다.

이곳의 주택난이 어쩌나 심한지 너는 모를 것이다. 온통 암시장이 성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 부어야만 하고 아직 준공도 안 된 아파트가 층 당 수백만 프랑이 된다. 그러니 꽤 번다고 하는 젊은이들에

게도 짐이 될 지경이니... 젊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서 집 값이 안정돼야 할 텐데... 지네트는 변두리로 안 가겠단다. 나도 가 봐서 그 아이 맘은 이해한다. 리제트는 보건소로 다시 돌아갔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거기서 환영받고 일도 있고 하니 말이다... (미판독)는 작년엔 다녀 온 루르드의 기적의 성모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자리에 누워있지만 올해도 루르드에 갈 예정이고 유대인인 의사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더라. 그 사람은 도무지 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래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여전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설명 좀 해봐요... 당신은 모든 것이 수수께끼군요...” 이런 소리만 한단다. 리제트가 가끔 그녀를 찾아보는데 그 처녀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난, 참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다리 류머티즘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기는 처음이다. 마들레느가 나를 데려가 발링시엔느에서 3주를 보내고 왔는데 갈 때는 지팡이 두 개에 의지해서 갔다만 올 때는 지팡이 없이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다시 통증이 와서 의사가 와서 나를 눕히고 8일간... (미판독)에서 다시 병치료를 해주어서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주 좋아졌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젠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다니까... 할머니를 위해 마리 루이즈가 매일 이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 차로 나를 데리러 왔단다. 안느 마리가 내 방하며 난방, 가게 등, 이 모든 것을 한 달 동안 많이 도와주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마스끌리에씨가 의향이 있던데, 그가 인수할 때까지는 내가 가게를 유지해야 할 텐데... 그도 일을 한다만, 자끄몽 가에 있는 집을 아직 비우지 못하는 바람에 방을 구할 때까지 나 보고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제 종종 너에게 편지하마.

너의 엄마가

안부를 전하며, 솔랑주, 안느 마리

에댕, 1951년 5월 16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너의 편지가 이곳에 도착하는 데는 보름밖에 안 걸렸는데, 그곳으로 보내는 데는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구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곤 한단다.

“그는 그의 포로들을 떠나서 그의 벽촌으로 돌아갔다” 라고 네가 너의 일기를 끝마쳤을 때 너의 세 번째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잖니... 좋은 소식이 있는 이후로 별일이 없었기를 바란다. 거의 평화를 되찾았는지도 모르겠다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너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곳의 가련한 백성들은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 드비쎬 신부편으로 전한 돈을 받았단다 다행이구나. 그 돈으로 네가 뭐 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기쁘다. 드와앵 신부가 84세의 파뮈렐 양에게 시켜 만든 장백의와 제의가 아직 있는데 그것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신부들 편으로 보내겠다.

너의 일기는 진정 흥미로우면서도 슬프구나! 네가 치르고 있는 그 고약한 생활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렴. 너에겐 적어도 위로가 있지 않느냐고 드와앵 신부는 말하더구나.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너에게 용기를 주는 것 외에 내가 달리 할 것이 없구나. 너는 너의 교우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정신적 힘을 줄 것이다. 너의 본보기를 따라 교우들은 어쩌면 매우 빠르게 다시 일어서겠지. 그토록 많은 사치와 그럴 가치도 없는 것들이 빈번히 성공을 거두는 것이 측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미판독)하는 것은 늘 힘들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법이고 이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누누이 말하듯이 세월이 지나면 알겠지만 결코 버림받은 적은 없을 뿐더러 십자가는 늘 빛나게 남아있는 거라고.

네가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 3월 28일자 편지에는 외할머니의 임종소식을 써 보냈다. 외할머니는 성금요일 아침 9시에 돌아가셨다. 알게 모르게 살아온 순교자의 삶을 마감하셨다.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다오. 할머니 말씀대로, 너는 그래도 할머니를 다시 뵈었잖니. 올 겨울은 초입부터 힘들더니 그 이후로 기관지염 때문에 3주를 자리에 누워지냈는데 류머티즘에 열까지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누워야

했다. 벌써 3달째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방 안에서 세월을 다 보내는 것만 같구나. 하지만 나의 이 고통을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 바치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안느 마리가 나를 보살펴주고 여러 면으로 도와준다. 가게는 아직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마스끌리에 씨가 인수하기로 했으나 자끄몽 가게 있는 방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고, 가게에서 일하기로 되어있는 점원은 곧 결혼하여 방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는구나. 게다가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너에게 그토록 기도를 부탁하곤 했던 마리 끌레르는 요즘 들어 도저히 같이 지내기가 불가능해졌다. 신경쇠약이 극도에 달해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아래층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초췌한 모습으로 내려와 빵에 버터를 발라서 과일이며 치즈며 초코렛이며... 숨겨 갖고 들어간다. 어떤 때는 밤늦은 시각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행선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느 일요일에 아쉴 삼촌이 자끄네와 같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좀처럼 아래층으로 내려오질 않더구나. 온 가족이 의논한 결과 4월 마지막 일요일에 마들레느와 르네 그리고 자끄네 가족 모두가 왔다(그 전 날에 그 아이가 안느 마리 머리에 큰 조개를 던지고 생수병을 들고 달려들어 안느 마리를 죽이려 했다.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나도 전에 머리에 물건을 맞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요일에 모두들 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의사를 불러 진단을 받고 아이를 억지로 눕여서 주사를 놓고는 자동차 두 대로 그 아이를 실어갔다. 르네가 아이들 모두를 태우고 갔고 자끄가 지네뜨와 마들레느, 마리 끌레르, 리제뜨를 태우고 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바람에 저녁 8시경에 생 브낭에 있는 정신병원에 실어다 놓았다. 그래서 거기에 보름째 있단다. 그 다음 일요일에 자끄가 면회를 갔더니 보려고 하지 않아서 의사만 만나고 왔는데, 의사 말로는 먹지 않아서 몸이 말랐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주에는 리제뜨가 작성해 간 서류들을 참고로 그 아이를 더 두고 보더니 전기 충격 치료법을 쓰기 시작한 모양이다. 끔찍한 일이지!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까? 리제뜨는 몸을 달달 떨고 서있다가 병원 내 성당에서 나오는 그 아이와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다시 눕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냥하게 리제뜨를 맞이했다고 한다. 나한테도 잘못했다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주 냉정하게 대했지. 답장에 너는 이제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겨졌고 너의 회복 여부는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써보냈더니 내 편지를 받고 온종일 울었다고 한다. 가족 품을 떠난 지 꽤 되었으니 이제 그 아이를 퇴원시키려고 한다.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레만호 근처에 있는 산으로 데려갈 예정인데 거기에 신경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있단다. 거기서 작더라도 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그 아이가 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련만...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하겠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노년에 내 걱정을 좀 덜어준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많은 기도를 해다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엄마가

에맹, 1951년 6월 28일

사랑하는 테레즈에게,

답장을 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구나.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음처럼 되어주질 않는구나. 좀더 기다렸다가 너에게 마리 끌레르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랬단다. 마리 끌레르는 생 브낭의 병원에서 퇴원해 자끄가 데려다 줘서 발령시엔느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왔다. 병원에서 벗어나자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르네와 마들레느는 그 아이가 몸은 건강해졌는데 기분은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하더라. 아이들도 잘 데리고 노는데 거의 아이들 방 안에 숨어서 지냈단다. 그 아이에게 열등감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때의 일들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단다. 더욱이 그 아이는 전기충격요법으로 인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과 강제로 입원해 있었던 일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이따금씩 눈에 눈물이 고이곤 한다. 지금은



퐁스팡스 호수 근처에 있는 디본느 레벵에 혼자 가 있다. 거기에 신경증환자들을 위한 요양소가 있거든.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겠고 일도 많이 겪어야겠지. 의사가 단호하게 말하더구나, 더 이상 엄마나 형제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 혼자서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세워 삶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물론 나로서는 그 말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그 아이가 알아서 찾고 또 쉬도록 간섭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 아이에게 그것을 설득시키고 또 그 아이를 못 본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나 어쨌든 그렇게 했다. 어제 그 아이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았는데, 잘 있다며 불평은 안 했으나 다만 거기에 도착한 이후로 줄곧 비가 내려 무료한 모양이더라. 그래도 그곳은 산책하기에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다. 나는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 좀 절룩거리기는 하지만 열은 없어졌고 다시 원기가 회복되는 듯하다.

마들레느가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로리앙으로 떠나서 안느 마리를 마들레느 집으로 보냈다. 아이들 모두가 좀 편하라고.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이유가 여기 와서 자고 매일 저녁을 나와 함께 먹으며 점심 때는 마리 루이즈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리고 마리아나 테레즈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있다. 일요일이면 늘 리제뜨가 온다. 그래서 안느 마리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옛 친구들 모임이 있는 끌르넬레에 가서 마르그리뜨를 보았다. 갈 때 어린아이 딜루를 데려갔는데 1시쯤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탁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 꼬마 여자아이가 딜루를 데리고 나가더니 3시경에 점심들을 다 먹고 나서야 딜루가 보이기에, 점심 맛있게 먹었냐고 물었더니 부끄럼을 잘 타는 아이라 “못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집에 가서 저녁을 두 번 먹으면 돼요” 하더라. 어른들인 자기들도 배가 고파 식탁으로 몰려들었으면 무엇보다 아이들을 먼저 먹여야지, 안 그러니?

마르그리뜨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며 7월 13일에나 퐁데뜨에 도착할 거란다. 끌로드느 화학 학부 리상스 수료증을 획득했고 쌍둥이 자매 중 하나는 문헌학을 또 하나는 그리스어를 전공했는데, 둘 다 아직 구술시험이 남아있어서 어쩌면 그르노블까지 또 가야 할지 모르니 귀찮은 일이지... 장 피에르는 오늘과 내일 바칼로레아(대학 입학 자격시험)를 치러서 조용하게 놔두려고 일요일에 우리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릴르에서 부를 때까지 여기서 쉬게 할 생각이다. 피에르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 있어서 편지 왕래가 더 힘들어졌구나. 본당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서 일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라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한다. 성체첨례를 맞이해서 외교인들을 모으고 교우들에게는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근사하게 성체 거동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사실 피에르의 말로는 이교인들이 여러 종파로 갈라져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단다.

더위가 한 창인 때 아니니? 항상 건강하게 지내거라.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제2의 시기를 맞은 마리 끌레르가 확고해지도록, 그 아이의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고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다오. 지금까지는 그곳의 주변사람들이 모두 환자들이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출발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샤누안느 페꾸르 씨가 정원 일을 맡아하는데 많이 연로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구나.

너의 원장 수녀님께 안부인사 전해 드려라.

엄마가

에맹, 1951년 6월 28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편지가 너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척 까다로워진 모양이다. 이곳으로 배달되는 데에는 정상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 번 편지에서는 성체 거동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과연 행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기를 바라며 운이 따라주어서 너에게 영광을 안겨주었기를 바란다. 나는 언제나 청빈한 삶 속에서 풍요로운 공적을 쌓아가는 너의 삶을 따르려고 더욱 더 노력하지만 속세의 삶에서는 힘든 일이다. 모두들 관심

을 쏟고 있지만 나도 요즘은 평화협상의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도대체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기예? 어쨌든 너는 항상 경계하도록 하여라.

베르낭 씨가 이것저것 넣어서 큰 소포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용없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용할지 모르니... 잘 받았다는 답장을 써 보내야겠다. 그런데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너에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마련한 성체포들도 있는데... 파리로 가는 인편을 기다렸다가 알레 신부에게 전하도록 하겠다. 그 신부는 너를 잘 아니까 알아서 처분해주리라 믿는다.

너에게 답장이 좀 늦어진 까닭은 이곳의 좀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리 끌레르는 6월 10일에 생 브냥 병원에서 퇴원했다. 자끄가 퇴원시켜서 마들레느 집에 데려다 주어 발령 시엔느에서 며칠을 보내게 했단다. 르네와 마들레느는 그 애가 몸은 아주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서,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하고만 어울리고 밖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 자끄와 헤어지면서 울었단다. 나는 그 아이를 못 봤는데, 의사 말이 더 이상 어머니 언니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며 본인 혼자서 길을 가도록, 삶과 맞서서 스스로 자신의 균형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그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되며 지난 과거 일에 대해서 언급해서도 안 된단다. 다행히 전기충격요법으로 그 아이는 모두 잊은 모양이더라.

나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거리지만 마음이 훨씬 안정되어서 기운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 아이는 디본느 레 뱅으로 혼자 떠났는데, 그곳은 주네브에서 15km 거리에 있는 스위스 국경과 인접한 고장으로 근처에 콩스팡스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 같다. 어제는 그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딱하게도 거기에 도착한 날부터 줄곧 소나기가 퍼부어서 산책도 못하고 있단다. 그곳에 있는 신경증환자 요양소에서 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있으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환자도 아니라고 한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해서 좀 평탄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주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다오. 쉬면서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말은 했지만, 당연히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이제 그 아이도 인생을 혼자서 부딪혀야만 한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에야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알겠지, 나도 이번에 그 아이를 위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람 잘 날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발버둥치며 지내는구나. 아빠의 재산 처분은 아직도 끝나질 않았고 외할머니의 것들은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한다. 뉘뚜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 리제뜨는 여전히 우뜨로에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너를 닮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안느 마리는 며칠간 발령시엔느로 떠났고 마들레느는 자기 남편이 출장이 있는 브르파뉴로 갔다. 모두들에게 기분 전환도 될 것이고 다 좋은데 요즘 전국적으로 날씨가 안 좋다. 안느 마리는 이번 기회에 옛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마르그리뜨를 만났다는데 마르그리뜨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더라. 안느 마리는 날 혼자 놔두고 떠나는 것이 영 맘에 걸려하던데 나는 혼자 있을 새도 없이 늘 내 곁에 마리아도 있고 주이유가 매일 저녁 여기 와서 저녁을 먹고 자고, 마리 루이즈가 점심 때면 차를 보내 날 데리러 오곤 한다. 자끄네 끌로드느 화학 리상스 수료증을 획득하고 쌍둥이들은 하나는 문헌학을 또 하나는 그리스어 학부를 마쳤는데, 그리스어를 전공한 폴레뜨가 10월에 문헌학 구술시험이 재시험에 걸렸고 테레즈는 10월에 그리스어 전 과목을 재시험 보아야 한다. 이브는 여전히 신학교 생활에 만족해하며, 장 피에르는 오늘과 내일 바카로레아 일부 과목을 시험본단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조용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릴르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여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자끄네 회사가 요즘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모리스는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고... 자끄는 위탁 판매를 담당하는데 적성에 안 맞는 모양이다. 폴의 가족들은 7월 7일이나 8일에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블롱 씨 집은 매각되었고 가구들도 모두 팔렸다... 인생유전이란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엄마가

7월 7일과 14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을 맞아 미리 축하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마.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라리보 주교님께서 이 달 말에 비행기 편으로 한국으로 가신단다.

에맹, 1951년 9월 20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I. 너에게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겠지. 지난 번 편지를 보낸 이후 오늘까지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 같다. 대전 교구로 보낸 편지는 받았는지... 편지가 잘 들어갔는지 늘 염려되는구나. 베르낭 신부가 보낸 소포 꾸러미와 드와앵 신부가 입던 제의를 르네를 시켜 파리로 부치게 했는데 알레 신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 물건들이 이미 마르세이유에 도착했으며 9월 28일에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프랑스 신부 편으로 보내질 거라고 알려왔다. 그래서 그 편지를 베르낭 신부에게 전했다. 알레 신부의 말로는 조제 신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조제 신부가 8월 31일에 대전에서 너의 방문을 받았을 때 너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으로 기뻐다... 지난번에 보낸 너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웃었다. 주교관에서 너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 역시 그렇고, 다만 나라가 다르면 풍속이 다른 법인 것을, 네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된 것이지... 네 큰 조카들도 웃더구나. 나는 늘 무슨 보복이나 없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가 아직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네가 새로 정착한 곳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다오. 물론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겠지만 네가 만족해할 만한 아주 작은 기쁨거리라도 있겠지. 나는 다시 고열로 한바탕 앓았는데 이제 열은 내렸으나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약은 내가 구해보는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보내는 길을 찾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봐라, 난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잖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끔씩이라도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내 기운과 내 위로를 어디서 구하겠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고통스럽다. 이번 주에는 혼자 리제뜨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기회에 콩테뜨에 있는 마르그리뜨도 보고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단념해야 할 것 같다. 너의 선교사업을 위해 네가 늘 건강하고 많이 걸을 수 있도록 내 고통을 아무리 바쳐도 힘겹지만 한 것 같구나. 난 아빠를 잃으면서 많은 걸 잃었다... 내일이면 모든 걱정거리가 나에게 쏟아지고, 할머니 앞으로 나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반갑기는 하지만 현금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빠의 상속 문제에서 내 권리의 일부가 차단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너희들 몫은 다 분배되었고, 다행히 내 아이들이 다 착해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지금은 진정되었다만 한 달 내내 머리 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다.

또 다른 걱정은 마리 끌레르 말인데, 생 제르베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데 자기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버는지 아주 당당해져서 나한테 아무 것도 부탁하지 않는다. 벌써 3주째 소식이 없다. 이 제나 저 제나 소식이 올까 기다리는데 정말이지 답답하구나. 그곳에서 몇 달을 더 보내고 시간이 모든 일을 지워주면 좋으련만, 가족에게 침묵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가족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도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달 1일에 마들레느는 르네의 친구가 빌라를 빌려 주어 장과 솔랑주와 함께 샬모니에 가 있다. 감기를 앓고 난 후라 휴식과 맑은 공기가 필요했겠지. 이제 다 나왔단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마리 끌레르를 만났는데 아직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지는 않더란다. 폴과 지네뜨, 피에르가 이틀간 지내러 거기를 갔으니 그 아이들이 오면 새로운 소식을 들을까. 어제 파리외방전교회의 회지 <아날>을 재미있게 읽었다. 회지는 잘 만들었더구나. 어느 신부가 베트콩들을3) 피해 숲 속에서 일 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무슨 손실이나!! 가련한 신부님들... 어제 신문에서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 페루슈 씨의 사진을 보았는데 건강한 모습이었고 소련에서 도착한 그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 보이더라. 누가 또 아니? 신부들도 그럴지?

너와 마찬가지로 테레즈도 이번 여름 더위로 고생을 했는데 이곳은 늘 춥고 날씨가 우중충했다. 네 호박들을 절대로 얼게 놔두어선 안 된다.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먹던 것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다음부터 종종 소식 전하마. 곧 여름 휴가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나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겠구나.

엄마가 뽀뽀를 전하며

II. 방금 베르낭 씨가 보낸 상자 하나를 또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또 마르세이유로 보낼 엄두가 나지 않는구나.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색의 옛날 레이스로 짠 감실 앞 가리개와 자수 제대보 몇 장 그리고 손으로 짠 레이스 몇 장과 야등 따위가 들어있는데, 더욱이 야등은 유리이기 때문에 소포로 부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너에게 쓸모있을 사제 망토와 사제 삼각모자…. 이런 것들이다. 미셀 삼촌은 외할머니의 유산에서 거액의 상속인으로 올려놓기 위해 드디어 여기서 나가는데 나로서는 짐에서 벗어난 것 같아 “휴!…” 하고 한 숨이 나오고 드디어 근심거리가 푹 떨어져 나갔다.

오늘 아침 마들레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일주일 더 샤키에 머물 것이며 아이들이 그곳을 아주 좋아한다. 그 모든 것이 마들레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르네는 마들레느를 보러 거기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을 한바탕 했는데 이제 다 나았고, 마리 끌레르가 수요일에 그곳으로 가는 모양인데 나에게는 여전히 소식 한 자 없다.

현재는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찾아오고…. 애야, 기도 많이 해다오.

나 역시 늘 좋은 생각 안에서 너를 생각한다. 너는 네 생활에 대해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서신 왕래가 아직도 그렇게 힘드니 안타깝기만 하다. 부탁한 약(산토닌)은 내가 구해보도록 하마. 그런데 망토는…. 도대체 내가 그것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나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목도리며 장갑이며…. 겨울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집 근처의 빌람 드 마르폰느 사유지는 학교 부지로 주교관에 기증되어 곧 요셉 학교가 세워질 것 같다. 기숙생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잘 되었으나 시내에서 통근하는 학생들은 어쩔지 모르겠다. 끌로드르는 여전히 릴르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쌍둥이 자매도 그르노블을 떠나 릴르에서 학교를 다닐 모양이다. 테레즈는 동시에 시옹에서 한 과목을 더 공부하고 끌레르씨는 비서학과를 다닌다. 둘 다 예쁘기도 하면서 용기들이 대단하다. 이브는 아라스에 있고 장 피에르는 총명하나 가장 힘든 공부를 한다. 자끄는 여전히 끌로드에게 혹독한 태도로 대하고 특히 모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장남 미셀은 다시 집으로 들어갈 모양이고 아쉴 삼촌은 가능한 한 표면에 나서지 않으려 하고…. 미셀은 아주 착해서 자끄가 아무 걱정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이제 난 모든 이들의 근심거리를 떠맡았다.

너의 뽀뽀를 전하며, 엄마가

지난 9월 13일에 너를 생각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거라.

에맹, 1951년 10월 23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경탄할 만한 야채밭을 일구었다고 했는데 부추며 강낭콩을 섞어 호박죽이라도 맛있게 해먹겠구나…. 씨앗은 잘 보관해야 하며 절대 얼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조금은 귀찮겠지만 건강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몸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렴. 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과 경험을 줄 것이다. 요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휴전 협상 중에도 왜 계속 싸우고 있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네가 공소로 떠나기 전에 내 편지를 받는다면 좋겠는데…. 네가 어디서나 환영받고 많은 결실을 맺는 훌륭한 공소 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너에게 당장에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 있다. 본당에서는 너를 아직 잊지 않고 있더구나. 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선교사의 날로 정하고 오직 너만을 위한 헌금이 있었는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많은 액수가 걸렸단다. 그전에 보좌 신부의 짙막한 강론이 있었는데 너도 잘 아는 그 보

좌 신부는 내가 보낸 편지들을 참고로 강론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다. 알겠니,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의 선교사이다. 내년에는 슈느완느 가게르 신부가 직접 와서 선교사의 날을 진행할 것이란다. 드와앵 신부는 얼마나 기뻐던지 당일 저녁에 나를 찾아와서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걸힌 현금 액수가 26,000프랑이나 된다고! 그 현금은 직접 외방전교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말이 해마다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현금이 가장 많이 걷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다는데!... 그리고 파뷔렐 양이 지은 제의를 드디어 받았다니 우리 모두가 기뻐다.

파뷔렐 양은 84세인데 언제나 당당하단다. 제의가 너무 짧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길이를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네. 다음 번에 좀 더 길게 하면 되지” 하더라. 파리에서 출발한 한 신부가 있는데 모든 성인 대축일 때쯤이면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 신부가 너에게 꾸러미 하나를 전해 줄 터인데, 베르낭 신부가 보낸 물건들하며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제의들을 보냈다. 그런데 일전에 보낸 모직 코트며 목도리 장갑들은 도대체 받았는지 영 궁금하구나. 어쨌든 단단히 챙겨 입도록 하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거라.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니. 베르낭 씨가 보낸 꾸러미 하나를 더 파리로 보냈는데 그 짐은 언제나 떠날지 기약이 없다.

너에게 일반 우편물로 잡지 하나를 보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치 Match>라는 그 잡지에 한국 하늘에서 찍힌 그리스도의 얼굴이 사진으로 나왔단다. 나는 그것을 보고 희망과 믿음이 생기더구나. 그렇게 흥미로운 잡지는 아니지만 사진이 담긴 시사지인데, 미 공군 폭격기 조종사가 찍어서 필름을 인화하도록 그의 가족에게 보냈는데 구름 전체의 모습이 영낙없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형성하고 있구나. 모두들 하느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서 미국에서는 특집호까지 찍어낸 모양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그 안에서 순교자의 땅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아직도 가방 안에 사진을 갖고 있는 페랭 신부와 신부의 고아들, 폴랭 신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안느 마리와 나 그리고 리제뜨는 다 같이 주말을 함께 보냈다. 마리 끌레르에게서 편지를 받지 못한 지 두 달이나 된다... 그러니 그 아이는 달라진 것이 없구나. 마들레느가 장과 술랑주와 함께 샬모니에서 5주를 보내고 왔기에 그 아이를 통해서 마리 끌레르의 소식을 들었다. 공휴일마다 마리 끌레르가 와서 함께 지내고 갔고 거기서는 귀엽성있게 굴터란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10월 15일에 문을 닫게 생겼으나 그 아이 말로는 자기는 거기서 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당당해서 나한테 보내달라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또 그동안 그 아이가 자리를 바꾸었다면 새 주소도 모르는 셈이지. 전적으로 그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니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한다. 그래서 며칠 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혹시나 그 아이의 과거를 건드려서 마음을 다치게 할까 염려되어 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했지. 내 편지에 이곳 주소를 적어 보냈는데 아직 내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오지 않는 걸 보아 그 아이가 답장을 보낼까?

마들레느의 집은 늘 똑같고 하녀와의 갈등도 다 정리되었고 세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은 영리하다. 마들레느는 샬모니에서 얼마간 지낸 것이 건강과 정신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제는 전혀 불평을 하지 않으니까 르네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쟈끄네는 올해 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 아홉이 모두 학교를 다니잖니! 그래도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끌로드 말이, 쟈끄는 7월에 시험에 붙으면 휴가도 없이 곧장 일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부모를 도울 것이라고 한다. 쌍둥이는 릴르에서 학업을 계속하는데 테레즈는 시옹에서 2개 과목을, 폴레뜨는 사립학교에서 몇 시간 수업을 받으며 회계와 타이프라이터 속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브는 올해 성탄절에 수단을 입게 되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올해는 내가 쟈끄를 도와줘야 한다. 갑자기 지출이 클 테니 말이다.

나는 여전히 다리를 절룩거리지만 안느 마리가 나를 늘 돌보아 주어서 열은 없어졌고 기운도 조금은 회복했다. 그러나 이제 밖에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드와앵 신부가 수고스럽게도 내 방까지 성체를 모셔다 주었는데 덕분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던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럴 때면 난 너를 생각한다. 너는 고기도 못 먹고 지내니 힘이 부칠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난 움직일 수가 없다. 너희가 어렸을 때 “아빠 한 입 “ 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피에르 한 입...” 한다.

걱정 말아라, 의사나 불리 신부 모두가 나보고 아주 건강하다고 했어.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안느 마리도 안부 전한다.

엄마가

에댕, 1951년 12월 10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우리는 네가 많은 위안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소에서 돌아왔으리라 짐작한다. 나는 생각로나마 매일 매일 너의 행로를 함께 했다. 이 편지가 너의 성탄일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너의 계획을 잘 아는지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1월에 어떤 사람이 소포와 함께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파리의 일간지인 <르 피가로>지에서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군인들을 위한 의연금을 모금했다. 당연히 나도 기부금을 보냈고 그 참에 너의 이야기를 하며 네가 35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으며, 현재 임지에 정착하기까지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긴 사연을 알리면서 그동안 네가 그곳에서 프랑스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난 모르지만 너를 방문해준다면 너무 너무 기뻐할 거라고 했다. 의연금은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너에게 소포 하나를 전해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다만 너에게 보낼 소포가 있는데 보낼 길이 막막하다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약품도 접수해 보내준다면 네가 꾸려가는 무료 진료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니 이는 꼭 종교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해주었다. 알고 보니 마들레느도 나하고 상의 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 바람에 나는 피가로지로부터 근사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의약품이며 씨앗들이며 책들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알려왔다. 영광스럽게도.... 만일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위해 준비하겠단다.

한편으로 알레 신부에게 편지를 써서 너에게 좋은 망토 하나를 사다 주라고 8,000프랑을 위탁했으며 성당 헌금함에 너를 위해 건헌 1,500프랑은 네 구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했다. 이 달 말에나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사들 편으로 보내질 것인데 너에게는 언제쯤이나 닿을지 모르겠다. 네가 망토를 받을 때쯤이면 겨울은 다 지나갔을 테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바람막이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니.

이 끔찍한 전쟁은 언제나 끝날지 모를 일이다. 안느 마리가 선교회 본부에 들렸는데 장 신부가 이따금 거기에 들리나 보더라. 일에 너무 시간을 끄니까 못 마땅해 하더라고. 안느 마리가 파리에 가서 며칠을 보냈는데 왜 그런지 아니? 생 제르베에서 마리 끌레르가 아프다고 한다고 나보고 좀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석 달 동안 편지 한 통 없고 그래도 내 쪽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답장도 없더니만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지. 다시 신경 쇠약이 재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폭로해버렸단다.... 그러니 어린이집 원장이 얼마나 놀랐겠니! 가겠다는 등,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 이러쿵저러쿵.... 안느 마리가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원장 말로는 지난 녁 달 동안 흠 잡을 데 없이 일했는데 보름 전부터 울기만 한다는 거야. 이제 그 아이 이력서에 별이 하나 더 늘은 셈이지!!!

두 자매가 리용에 있는 폴의 집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파리의 마들레느 캐르비 집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유명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마리 끌레르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안느 마리는 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동생을 나한테로 데리고 왔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다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지. 스테븐 의사는 정직한 사람인데 그 아이가 식사는 잘 하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니까, 잠은 잘 자느냐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선불리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만일 그 아이가 우울해하고 울면 즉시 치료를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그 아이가 치료를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성질을 부리는 즉시 그 말을 그 아이에게 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은 안다만 다른 모든 형제들도 그 아이가 다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지 않아서 모두들 짜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아빠가 떠나신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다오. 아빠도 살아 계셨으면 지금 우리처럼 하셨을 것이다. 어제는 자끄와 지네뜨가 왔었는데 그 아이는 말도 안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아

이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말도 하지 않았단다.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도의 노력은 하더라.

나는 좀 좋아졌지만 바깥 출입은 여전히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건강해졌고 기운을 되찾고 있다. 드와앵 신부가 성금요일과 12월 8일 토요일에 직접 성체를 모셔다 주었다. 너무나 외롭던 차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애야, 내가 내 고통과 내 기쁨, 모두를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테레즈나 마르그리뜨에게서 종종 좋은 소식을 받는다. 리제뜨는 일요일마다 여기 와서 보내고 가는데 결핵 전염율이 너무 높고 블로뉴 기후가 너무 나빠서 보건소의 일이 많은 것 같다. 벌써 일 년이 지나가도록 그 아이는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나는 걱정이 더 하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엄마가

오백의 본당 신부가 바뀌었고 우리 보좌 신부인 도메 씨는 블로뉴로 발령받았다.

에댕, 1952년 1월 18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지난 13일 일요일에 태어난 폴과 지네뜨의 딸, 너의 새 조카 엘렌느가 오늘 영세를 받는다. 너에게 해줄 말이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잘 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탄생이라는 것이다. 손자 피에르는 벌써 생기 발랄하고 아주 귀여운 꼬마녀석이 되었구나. 안느 마리는 오늘 영세 받는 아기의 대모를 서주러 그곳으로 떠났고 대부는 지네뜨의 형제들 가운데 루이가 서기로 했다. 마리 끌레르 혼자 나하고 집에 남았는데 유순하고 집안 일도 하려고 애쓰며 많이 노력한다. 물론 그 아이의 본 성품은 눈감아 주어야 하겠지. 인사라고는 한 번도 하는 적이 없고 생전 편지 쓰는 법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의 형제 자매들이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새해 선물을 했는데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이제 집에 애착을 가지는 모양이지만 그 아이가 변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겠지. 주말마다 여기서 보내고 가는 리제뜨나 종종 찾아오는 룰루 이모하고는 친해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원하는 바대로 그 아이를 일하게끔 만드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너도 이해하겠지.

너에게서 곧 편지가 있을 거라고 드와앵 신부가 편지로 알려와서 너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드와앵 신부는 강론 시간에 너의 편지를 읽어주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

룰루 이모가 너에게 준 새해 선물로 1,000프랑과 내가 주는 1,000프랑, 그리고 네 앞으로 들어 온 미사 예물들은 다음 기회에 보내주마. 피가로지에서 보냈다는 소포는 받았는지 내가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하지 않겠니. 그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나에게 편지를 써보냈던지... 그 사람들이 보낸 의연품들이 한국에 도착했다는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보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좋은 망토 한 벌도 보냈는데, 알레 신부의 말로는 1월 말이면 네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 아직 남은 겨울 추위에 요긴하게 쓰이리라 믿는다. 좀 더 일찍 보내고 싶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럴 기회가 너무 드물잖니...

참! 필립이 입던 조끼와 이제 작아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있어서 손 좀 보게 해서 보냈으니 거기서 어떤 용도로든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식구들 모두의 손을 빌어 움직이고 밖에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번 달엔 그나마 거의 누워지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두 번이나 병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온 몸에 마비가 오는 줄 알았다. 다행히 안느 마리가 강하고 온갖 치닥거리를 다 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한 탓에 위가 상해서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내가 못 먹는 이 음식들을 맛없는 것은 빼고 모두 너에게 바친다고 말해서 식구들 모두를 웃기기도 했다. 어쨌든 좀 나아졌고 그래서 안느 마리도 내 걸을 떠나갔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방을 못 벗어나고 방 안에서 여위어간다. 그런 것도 다 내게 필요했던 모양이지.

너의 서명을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서류 문치가 제법 무거우니 배편으로 우송하겠다. 지난 1월 1

일 날짜로 가게는 정리했다.

얘야, 난 매일 네 생각을 한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얘기해다오. 가스페 주교와 페랭 신부가 추방되어 홍콩에 와 있다. 폴 데드리는 아빠와 거의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 데드리 집 여자들은 이미 임종을 예견하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 사람들은 늘 너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

너에게 따뜻한 뽀뽀를 전하며, 엄마가

에댕, 1952년 2월 9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기다리던 너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1월 27일자 편지인데 벌써 도착했구나. 지금쯤은 피가로지에서 보낸 소포를 받았으리라 믿으며 조만간 누구 편으로 전해질지는 모르지만 좋은 망토 한 벌도 도착할 것이다. 망토는 때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필립이 입던 조끼 한 벌과 신발들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물건들이 잘 도착한다면 너나 나에게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신발들은 네 발에 맞도록 내가 손을 봤단다.

리제뜨가 너의 편지를 제일 처음으로 받아 읽었다. 마침 주말을 보내러 불로뉴에서 방금 도착했거든. 그리고 마르그리트에게도 편지를 쓸 예정이다. 테레즈가 통 너의 소식을 모르고 있다고 하던데 테레즈에게 편지는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미셀 삼촌의 집일은 이렇게 된 것이란다. 필립이 저의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배우자감을 혼자 정하자(곡물 저장소 집의 크리스티안느 르페르인테) 미셀 삼촌이 크게 화를 내며 반대했다. 필립이 시험 때문에 좀 허송세월을 하자 결국 미셀은 아들 필립이 그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그 두 사람을 묵인하면서도 정식 부부로는 인정하지 않았단다. 그렇게 지내는 게 꽤 오래 되었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도 누그러졌고 필립은 저의 부모에게 아주 순종하고,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그러는데... 필립은 다시는 법률 사무소로 돌아가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서 현재 덩케르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 중인데 그 변호사가 몇 년 후면 그만둔단다. 어쨌든 두 달 후에 상여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미셀이 어서 법률 사무소를 그만두는 것이 필립에게는 이로울 텐데. 미셀도 점점 힘들어하던데 말이다. 틀림없이 마크 르메르가 미셀 뒤를 이을 것이지만 아직 법률 사무소 서기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했으니 그동안 삼촌들 중 하나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 테지. 조금씩 모든 게 변하고 있구나.

레이몽 신부는 몰려나서 천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프란시스코회의 페꾸르 신부 역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인데, 내 생각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연세가 74세란다.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지...?

보메 신부는 생 마르탱으로 발령이 났고 오뱅 본당 신부는 멀리 바뽀므 쪽으로 떠났고 까브롱 본당 신부 역시 바뀌었다. 시골 본당을 맡는다는 것이 힘들지. 도메 신부는 본당 신부와 같이 사는데 도메 신부가 내게 말하기를 자신은 나가서 혼자 살 거라고, 그게 나을 거라고 한다. 요즘은 오랑주 총서에서 나온 <주교>라는 책을 읽는데 아주 흥미롭다. 불어로 번역된 미국 서적인데 책값이 950프랑이나 되니... 비록 저자는 서문에서 충분한 이유를 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지금 형편으로는 너에게 보내 줄 수 없구나. 너도 알고 있는 스펠만 주교의 생애를 소설로 엮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읽었다. 시험삼아 너에게 <마치> 몇 권을 보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다.

얘야, 나는 너의 새 업무를 축하해 주고 싶구나. 그것이 대단히 큰 짐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그래서 너처럼 염려한단다. 한 단계의 승진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너에게 과해지는 것이니 네가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너도 성숙한 나이다.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읽고 라리보 주교가 무세 주교를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읽겠지. 전쟁이 끝났으면 분명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기대해 볼만하지 않겠니. 몰리나르 신부의 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순교한 형의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너에게 편지를 띄웠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편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네가 상세하게 적어 보내 준 편지말고는 외방전교회로부터 아주 간단히 알려 온 순교 소식만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 것인지는 내가 이해한다. 그 사람을 위해 몇 마디 적어 나에게 보내다오.

네가 말하듯이 잘 늙어야겠지... 너는 한 단계 승진했는데, 맵소사! 나는 초췌한 늙은이가 되어 가고... 나는 늘 같은 상태이구나. 겨우내 침대 아니면 방 안에서 지내고 딸들이 잘 보살펴 주는 덕에 난 모든 걸 그 아이들에게 내맡겼지. 여전히 고열을 동반한 류머티즘에 시달려 식욕마저 완전히 잃는 바람에 아주 쇠약해졌어. 지난 일요일에 자끄가 왔다가 나를 보고 걱정이 됐던지 화요일에 레이몽 스테븐 의사와 제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왔더구나. 의사가 꼼꼼히 진찰을 해보더니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자끄는 안심하고 돌아갔어. 늘 같은 치료로 통증이 다시 가라앉았고. 여름에는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드와엥 신부가 2월 11일 월요일에 영성체를 집에서 해 주겠다고 한다. 안느 마리는 지금 리용에 가 있는데, 폴, 지네뜨 부부가 지난 1월 13일에 딸을 낳았거든, 이름은 엘렌느라고. 안느 마리가 이번 주에도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전화했는데, 별일은 없으나 지네뜨가 아직 두 아이를 돌볼 만큼 몸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야. 리용은 날씨가 아주 춥단다. 그런데 성급하게 바깥 출입을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났단다. 첫 아이 때처럼 중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류 문제는 네가 현명했다. 그리고 흰 종이에 너의 서명을 넣어 두 장 보내다오.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한다. 양식에 필요한 문구는 미셸 삼촌이 내게 일러줄 것이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속문제로 너를 귀찮게 하는구나. 상속이 끝나는 대로 이 묶은 너희들에게 줄 예정이다. 나는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충분하니까. 아빠가 돌아가실 무렵 대략 64,000프랑이 너희들 앞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분명 더 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이름으로 17,000 내지 18,000프랑이 있다. 아직은 은행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쿨만은 되찾기 위해 법적인 수속을 밟고 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네 앞으로 보관하려고 한다. 아빠의 유해를 장의 지하 매장터에 모셨다가 작은 상자에 옮겨 모셨었는데, 이젠 상자 안에 아무 것도 남은 게 없기에 고인들의 이름을 새긴 석판을 안에 넣었다.

가족 모두의 안부를 전하며, 엄마가

에맹, 1952년 3월 19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네가 공소 방문 때에 보냈다고 한 편지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어제야 도착했구나. 네가 전해 온 소식에 한시름 놓았고 너의 사진을 보니 아주 건강해 보이더구나.

어느덧 봄이 되었고 날이 풀리니 네 생활도 좀 덜 고생스러우리라 믿는다. 계속 잘 해나가기를 기도한다.

피가로 신문사에서 보낸 소포가 분실되었다니 유감이구나. 신문사 사람들이 내게 너무도 정중하게 편지를 써와서 네가 소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대로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네가 직접 써 보내도 체면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소포 하나가 또 가고 있는 중이니 조만간 받을 것이다. 아마도 필립이 신던 신발 한 켤레와 조끼와 보슈 지방 산 망토 한 벌이 들어 있는 소포인 것 같다. 그리고 소포 한 덩어리를 또 준비했는데 보내는 게 여전히 힘들어... 베르낭 신부의 제의와 향로 그리고 성합 등 자잘한 물건들과 돌아가신 폴레뜨 씨의 모자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너에게 소용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소용이 있지 않을까.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폴랭 신부와 꼬요 신부가 국가 원수의 세비 수혜자 명단에 들었다니, 그 기쁜 소식을 알래 신부에게 어제 당장 알렸다.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잘 된 일이니! 하지만 언제쯤이나 될까? 언제나 제자리걸음이고 이 곤경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이 우울한 전쟁은 언제나 끝날까... 인도차이나 반도 역시 같은 상황인가 보더라. 뒤보멜 신부의 생사를 모르는 지 벌써 오래 되었고 도무지 감감 무소식이니 말이다.

외방전교회가 몇 해째 불운을 겪고 있구나.

너의 친구에 관해 슬픈 소식을 들었다. 앙드레 프루아썬르가 처와 8명의 아이들을 남기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너도 알다시피 유가족들은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다가 토지도 없는데... 정말이지 안됐구나! 일전에 레이몽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막 그만두고 나서 사망했다. 그래서 또 한 가족이 이 고장을 떠나는 바람에 애당도 많이 변하고 있다. 미셀 삼촌도 법률 사무소를 그만두었고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보내려고 파리에 아파트를 구하는 중이다. 아직 아파트를 구하지는 못했으나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고 어쨌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지.

내가 병이 도진 이후로 마리 루이즈가 거의 매일 찾아오는데 우리 둘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고립된 듯 살아간단다. 다행히 리제뜨가 주말마다 와주는 게 고맙기만 하다. 마리 끌레르는 정말이지 큰 십자가다. 그 아이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니! 필립은 덩케르크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하여 작은 소송들을 맡아 하는데 곧 다른 한 변호사와 동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직을 맡든지 할 것이란다. 필립의 결혼 문제가 발단이 되어 미셀 삼촌과 마리 루이즈 숙모가 파리로 이사를 가려고 결심한 것인데, 부자지간의 성격을 잘 알기에 미셀 삼촌이 자기가 이곳을 뜨기 전까지는 아들의 결혼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들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여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하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미셀 삼촌의 잘못이야. 벌써 여러 해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나아질 게 뭐 있겠느냐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이고.

신부감은 상냥하고 부지런하며 바카로레아도 통과하여 기본 교육도 받았으니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다만 흠이라면 오빠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것인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너나 마르그리트, 그리고 테레즈의 아빠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필립이 여전히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각자 다른 몫으로 분배된 것을 재통합했다가 다시 바꾸는 등등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필립이 너의 몫을 상환했다가 다시 파는 등... 지금 너에게 설명해봐야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저 최상의 방법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거라. 갓난아이 엘렌느는 배추처럼 쭈뼛 자라고 지네뜨도 다 회복이 되었다. 다만 집 문제로 애를 먹는데 집을 장만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 없는 젊은 부부들이 수백만 프랑의 담보를 넣어야 집을 장만할 수 있으니 올해 8월에 집을 비워야 하는 자끄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지. 생-오메르의 외할머니 집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모리스 삼촌이 2백 5십만 프랑에 내놓았고 또 계속해서 보수해야 할 곳도 있고. 생-오메르 전체가 심하게 폭격을 맞아 집주인들이 모두 집을 내놓아서 전셋집이 없단다. 앙드레 부비에도 딸을 낳았다. 이름을 주느비에브라고 지었다고 한다.

생-오메르로 편지를 쓸 때마다 네가 사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미셀, 베르나데뜨, 에띠엔느이고 어린 안느는 죽었다. 딜루는 3월 23일 일요일에 발령시엔느에서 첫영성체를 할 예정이기에 안느 마리와 리제뜨가 그리로 간다 하고, 나는 기운을 좀 차렸다 해도 외출할 수 있는 형편이 여전히 못된다. 그동안 마리 끌레르가 내 시중을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애정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해주겠지. 저 자신이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는 참으로 서글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아이를 인내하고 기다려야겠지. 저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래도 그 아이가 조금이나마 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페니실린 주사를 17대나 맞고 난 후로 고열은 가셨는데 이제는 칼슘 주사를 맞는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부활절을 잘 보내거라.

엄마가

에댕, 1952년 5월 24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한국으로부터 회소식을 담은 2통의 편지를 받았으면서도 너에게 빨리 답장을 보내지 못해 부끄럽구나.

네가 그렇게 내 걱정을 하는데... 괜한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정말로 우환이 생기는 바람에 너에게 편

지를 쓰지 못했다. 10여 일 전에 테레즈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날로 너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할 수가 없었지.

그 우환이란 것이, 성주간이 시작되면서 내가 황달을 얻어 그나마 있던 기력마저 잃었는데 이제 그것은 지나가서 좀 나은가 싶더니 폐에 물이 차서 의사가 그 물을 뺏는다. 그때의 “고통의 희생”을 너에게 바쳤다.

요즘 루르드 50주년 대회를 맞이하여 루르드 행 기차표와 경비가 주어지는 복권이 발매되었는데 그 행운은 불레 아줌마에게 돌아갔다.

너의 늙은 엄마에게 아직 너를 포옹할 힘이 있다. 네가 멀리서나마 마리 끌레르에게서 마귀를 쫓아낼 수 없겠니?

엄마, H 생제르 까르핑띠에

깜박 잊었구나. 나는 두 천사의 치유를 받았는데 특히 제1천사의 치유를 받았다.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엄마는 오늘 병세가 좀 회복된 듯해. 우리는 이 상태가 오래 가기를 바라지만 기적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네가 바친 수많은 희생의 힘으로 역경에 처해있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겠다. 엄마는 의지도 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시지만 겨우내 자리에 누워서 지내셔서 몸이 쇠약해지셨고 뜻하지 않은 황달까지 겹쳐 더욱 기력을 잃으셨어.

마리 끌레르는 두 달째 엄마 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식구들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그 아이로 인한 슬픔으로 엄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너에게 따뜻한 포옹을 전하며, 온 식구가 다 함께 모여있어야 할 때인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더욱더 간절히 생각하고 있으니 네가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안느 마리

성 신부님 어머니의 임종을 알리는 가족들의 편지4)

에맹, 1952년 5월 25일

피에르에게,

어제 안느 마리와 리제뜨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제 저녁에 달려왔다. 엄마가 폐에 고인 물을 빼내는 주사를 맞으시고 피곤해 하셨는데 오늘은 훨씬 편안해 하시며 잠이 드셨고 호흡도 훨씬 고르다. 하지만 벌써 여러 달째 음식을 잘 못 드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구나. 어제는 엄마를 잃는 줄 알았단다. 오늘은 좀 안정된 기미를 보이지만 얼마나 같지? 엄마는 의식이 뚜렷하고 심지어 평소처럼 우스개 소리도 하시고 당신 방에, (너도 기억하는지) 동으로 만들어진 큰 그리스도상 옆에 너의 사진과 아빠 사진을 나란히 놓아두고 계신다.

마르그리뜨는 어쩌면 성신강림 대축일 때에 올 것 같다. 리제뜨는 언제나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그 아이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 소망이다. 정말이지 좋은 신부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될 텐데 말이다. 수녀가 된 그 아이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 수녀가 의사들을 많이 알거든. 그리고 너도 아는 드 루팅제 아주머니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분의 딸 샹딸이 의사와 결혼했거든. 사회사업을 공부한 리제뜨에게 의사 신랑감이 잘 맞지 않겠니. 안느 마리가 온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 우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으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 끌레르가 제일 골칫덩어리로 여전히 반감을 지니고 눈에 안 띄게 혼자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나 먹으러 나오고, 나한테 따귀를 한 대 맞은 이후로는 엄마도 절대로 안 보려 한다. 내가 몇 번이나 충고

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내 아이들 앞에서 보란 듯이 억지를 부리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한 대 때렸지. 드와앵 신부님도 그 아이는 따귀 한 대 맞아야겠다고 엄마에게 말하셨단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지만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때린 것은 아니야. 엄마는 지금 곤히 잠드셨어. 너의 기도로 엄마와 우리 모두를 도와다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너 뿐이다. 남편 르네와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잘 지내고 어른들도 잘 지낸다. 모그딜르가 첫 영성체를 했는데 너에게 사진을 보내주마. 그 애의 재물이 우리의 기쁨이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누나 마들레느가

에맹, 1952년 5월 30일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저녁 5시, 임종을 앞둔 엄마의 머리 밑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지난 일요일 엄마는 폐 안에 가득 찬 수종을 뽑아 내는 주사를 맞으셨고 수요일 오후에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10시경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경에야 엄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을 꾸미는 것은 인간이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니? 간밤에 리제뜨, 안느 마리와 함께 앉아서 밤새 괴로우신 듯 몸을 뒤척이는 엄마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지켜보았다. 다음날 아침 미사를 참례하려고 갔는데 안느 마리가 드와앵 신부님을 모시러 달려 왔더구나. 그래서 집으로 뛰어 와 엄마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았더니 엄마는 수녀 딸을 품에 안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나를 통해 너와 테레즈의 모습을 보시는 듯하더구나. 단 몇 초 동안이었으나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드와앵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주시자 엄마는 당신이 아빠보다 더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듯 뚜렷한 의식으로 아주 겸허하게 이 은총을 받아들이셨어. 아침내 술렁이던 마음의 동요들은 마침내 엄마가 노자성체를 모시면서 가라앉았는데 성체를 모시는 엄마의 신앙심은 어찌나 놀랍던지! 그리고 엄마 옆에 아빠와 너, 그리고 수녀복 차림의 테레즈 사진들을 갖다 놓아 드렸더니 엄마는 그 사진들을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셨다!

오후에 엄마는 자끄와 주느비에브, 마들레느와 르네, 폴과 지네뜨를 여러 차례 불러모아서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너희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빈다. 너희들에게 마리 끌레르를 부탁한다” 하셨어. 용감한 마리아가 마리 끌레르를 엄마 곁으로 데려왔어. 부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다오.

우리는….

편지가 중단되었구나…. 점점 숨결이 낮아지고 있는 엄마의 곁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룰루 속모와 미셀 삼촌은 지난주 갑자기 과리로 이사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만 이곳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다. 자끄와 주느비에브 부부도 떠나게 되자 이 모든 일들로 인한 서운함에 엄마가 더욱 기력을 잃으셨는지 오늘 아침부터는 의식은 뚜렷하신데 전혀 말씀을 못하셔서 우리는 엄마의 입술 움직이는 모양을 읽고 그것이 “태중의 아들” “은총이 가득하신” “저희가 죽을 때에” “기적의 성모님” 등을 속삭이시는 것을 알았지. 오늘 우리는 엄마와 함께 백여 번이 넘도록 성모송을 바쳤고 또 엄마가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마니피캇을 불러드렸어. “하늘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 성모님을 뵈오리니…” 엄마는 같이 노래를 부르시려고 애만 쓰셨고 “이제 곧”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을 가리키셨어.

지금 엄마의 숨결이 아주 약하게 들려 와. 오늘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어. 엄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드리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엄마를 지치게 할 것 같아 불가능하고. 이따금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리아를 찾기도 하신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오래 동안 주시더니 오늘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 하시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마지막 눈길에….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담긴 채…. 얼굴은 점점 더 평화

로워지셨고…. 마지막 미소를 보이시며 너무나 고요하게 떠나셔서 우리는 숨을 거두시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 엄마는 미소를 머금고 당신께서 직접 두 눈을 감고 그렇게 떠나셨어.

다음에 상세한 편지를 띄우마.

엄마는 5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5분에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다. 큰 거실에 엄마를 모셔 놓았는데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5분 후에 우편 배달부가 지나갈 시간이라 우체국으로 서둘러 가야겠다.

하느님 곁에 계시는 엄마의 뽀뽀를 대신 전하마.

우리는 밤을 꼬박 새워서 지쳐있다.

마르그리뜨

에댕, 1952년 6월 3일

소식이 며칠 늦어졌다고 너무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요 며칠 동안 너무 경황이 없어서 편지를 쓸 수 없었던단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금요일 저녁 아빠의 집에서 운명하셨고 아빠와 먼저 가신 조상님들 곁으로 가셨다. 마르그리뜨가 엄마의 임종 소식을 이미 너에게 알렸겠지만 네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리라 생각되고 또 우리가 지켜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에도 서로 조금씩은 다를 테니까.

올해 1월 13일에 엘렌느의 탄생을 기다리느라 작년 성탄절에 에댕에 오지 못했다가 올해 부활절에 와서 며칠을 지내고 갔다. 그때 이미 엄마의 모습이 많이 변해있었고 항상 옆구리가 결려 고생하시며 조금만 힘을 써도 점점 더 피곤해 하시더구나. 그러나 지난주에 엄마가 리용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새로 받고 있는 치료법이 아주 믿을 만하시다며 당신의 올해 여름 계획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미 늑막 쪽에 물이 차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당연히 그것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겠지. 안느 마리 말에 의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의사가 물을 빼다고 했다. 그 이후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당신도 이미 예견하셨는지 금요일에 병자성사를 요청하셨다.

그러나 맏소사! 병세는 너무 빨리 악화되어 화요일에 종부성사를 드려야 했다. 수요일에 리용에 있는 우리에게 전화를 주어서 지네뜨와 나는 야간열차를 타고 다음날 정오에 에댕에 도착했다. 노랗게 뜬 안색과 더 야위어 깊이 패인 주름살,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채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뵈었을 때 가슴이 저미었다. 그 날만 해도 엄마와 몇 마디 나눌 수 있었기에 나는 엄마에게 갑자기 통증이 발병한 것뿐이라고, 다만 이번에 좀더 통증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아빠도 여러 차례 겪으시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지. 엄마도 할아버지의 경우를 상기하시며 내 말에 수궁을 하셨어. 엄마가 아직 희망을 가지셨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 목요일 오후는 너무나 슬펐고 고통스러웠다. 그 날만 해도 엄마는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의식은 너무나 또렷했지.

우리는 엄마와 함께 기도를 많이 바쳤고 마르그리뜨는 조금씩 임종을 준비시켜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는 갯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두렵다, 두렵다” 하시며 임종을 거부하시더구나. 엄마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래서 내가 그 손을 꼭 잡고 다시 따뜻하게 해드렸지.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으나 불규칙했어. 밤에는 엄마를 혼자 쉬게 해드렸는데 밤새 두 번이나 마르그리뜨가 우리를 깨웠어(엄마가 우리보고 가서 자라고 내보냈거든). 우리는 다시 기도를 많이 바쳤고 그때 한 번은 엄마가 “아름답구나,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 멋지구나” 하셨어. 엄마와 함께 마니피캇을 노래했고 목주기도를 바쳤는데 엄마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셨지. 우리는 성가 “성모님을 뵈오려 나는 가리니”를 노래했고 그때 엄마도 가끔 입술을 조금 움직이셨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른 누이들은 어찌면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만 나는 엄마가 시선은 움직이지만 이미 의식을 많이 잃으셨다는 것을 알았지. 우리는 다시 목주기도를 드렸고 가끔 엄마도 “성모 마리아” “태중의 아들” “은총이 가득하신” 이 몇 마디를 따라하셨어. 하지만 그 날 아침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엄마는 “오! 라라, 오! 라라” 하고 신음소리를 내셨다. 아침에 차끄가 어린 브뤼노를 데리고 도착했는데, 엄마는 브뤼노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고, 그것이 내가 본 엄마의 마지막 의식 있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나서 정오경부터는 눈동자는 움직였지만 벌써 초점이 많이 흐려지셨다. 그 전에 엄마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엄마에게 안경을 씌워드리려 아빠와 테레즈 그리고 너의 사진들을 여러 차례 보여드리며 엄마는 하느님께 두 자녀를 바쳤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냐고 말씀드렸다. 룰루 숙모님과 미셸 삼촌이 목요일 오후에 도착하셨다.

금요일 오후도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진통제 좌약 2알로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으나(의사는 혹시 모르핀 주사에 거부반응이 일어날까 염려하였다), 엄마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어렵게 숨을 몰아쉬시며 말은 전혀 못하시고 더 이상 의식도 없는 듯 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물론 잘 알지만 참으로 우울했다. 엄마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마들레느 캐뵈르 아주머니가 그 날 오후에 도착했다.

이제 엄마는 아무 것도 마시지 못하셨고 오후 5시경에는 속에 있던 물이 입안으로 넘어와 입안에 가득 물이 고였으며 7시 반에서 8시 15분 사이에 엄마는 입을 다무셨고 코로 숨을 쉬었고 맥박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는 몇 차례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이 조금 움직였는데 미소를 지으셨는지 아니면 그저 근육의 움직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리제뜨가 엄마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다고 했는데 잠시 후 엄마는 눈을 감으시려고 애쓰시기에 우리가 눈을 감겨드리고 안경을 씌워드렸다. 그리고 엄마는 입술을 조금 움직이셨는데, 리제뜨는 엄마가 “이제 곧”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저 근육 운동으로만 보였다.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겠으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식구들 모두가 모여서 장례는 수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하고(성령 강림 대축일인 월요일에 우편물 배달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로 미루었다) 월요일 아침에 입관을 했다.

르네와 자끄 그리고 내가 합심해서 마리 끌레르에게 일을 시키려고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안느 마리가 혼자 여기서 너무 오래 동안 있는 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편지로 얘기하마. 여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올 예정이다. 테레즈에게도 같은 편지를 보낼 것이니 이 편지를 테레즈에게 보낼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들, 피에르와 엘렌느는 잘 자라고 있다.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폴

에댕, 1952년 6월 11일

친애하는 신부님,

“그 누가 저에게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솔직히 말해 줄까요?” 라고 신부님은 지난번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신부님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신부님께 펜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와의 작별을 준비하시라고 신부님께 써보냈지요. 그때 편지를 보내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불러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님께서 받은 충격은 그나마 조금은 덜했을 테니까요.

그분은 생전의 성품대로 아주 잔잔하게 조용히 운명하셨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고 종부성사와 사제의 축복을 큰 신앙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손에 손을 꼭 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시며 좋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면서도 입술은 성모송을 암송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임종을 맞기 전 날 밤, 마니피캇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작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울면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충실한 종에게 영원한 복락을 지체없이 선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제와 두 수녀님의 어머니께 어울리는 엄숙하고 영예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입관 예절

에서는 제가 신부님을 대신하여 신부님의 이름으로 강복했습니다. 장례일 전 날 밤에는 모두 모여 밤샘을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해 신부님의 가족에게 위문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고인의 생전의 아름다운 덕행들에 대해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 원고는 타자본으로 옮겨지는 대로 즉시 신부님의 아버님 때의 원고와 함께 신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소중한 유언 자료가 되리라 싶습니다.

신부님의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아버지 짐은 비었습니다. 미래를 헤아릴 수는 없으나 신부님의 누이들이 그 집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성레끄 삼촌 가족이 파리로 떠나게 되자 안느 마리도 에맹에 남아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에맹은 언제까지나 신부님의 본당으로 남을 것이며 생제 신부님은 우리의 선교사이므로 신부님만 괜찮으시다면 에맹의 사제관은 언제든지 신부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위해 저는 많은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님과 일본에 계신 신부님의 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바칩니다. 마음에 입은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보여 주셨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종과 큰 믿음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고인이 저 높은 곳에서 이제 신부님의 아버님과 함께 계시며 신부님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신부님, 저의 간곡한 기도와 미사성제로서 조의를 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드와앵 신부

1952년 6월 18일

사랑하는 테레즈에게,

(에맹)집에서 너에게 보낸 편지는 정말로 두서가 없었구나! 좀 더 침착하게 쓰려고 했었는데... 경황도 없었고 끊임없이 손님들을 치르고 장례 준비로 집안을 정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옷 입는 것 도와주고... 너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려고 첫 우편물 차시간에 맞추느라 끝맺음도 못한 채 보냈었지... 그때 내가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너는 이런 저런 내용들을 상세히 알고 싶겠지. 이제 너도 엄마가 떠나셨다는 것을 조금은 실감하리라 여기며 우리 모두의 형제애를 전한다.

어제부터 우리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은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답들인지 아니면 ‘송아지는 멍멍, 돼지는 음메’ 라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리로 답안지를 보내고 나면 사흘간 숨 돌릴 시간이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목요일 아침부터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날 아침부터 형제들이 하나씩 차례로 도착해서 아침부터 고단하고 술렁거렸는데 7시 반에 중부성사를 받으시고 10시에 노자성체를 모신 엄마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없는 식구들 사진들을 들여다보시며, 차례차례 도착하는 식구들을 반갑게 맞으시며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생활고들을 염려하셨다. 심지어 은행에서 보내 온 2통의 서류에 서명까지 하셨다. 낮 12시 반에 내가 엄마 곁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엄마는 온 힘을 모아서 나에게 마리 끌레르 얘기를 꺼내셨어. 왜냐하면 엄마는 거의 말씀을 못하시고 간신히 토막토막 몇 마디 이어가셨는데 그나마 알아듣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를 비롯한 우리 형제 모두가 마리 끌레르를 보살필 것이며 결코 저버리지 않고, 엄마 표현을 빌자면, “한도 없이” 돕고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또 그것이 당연할 테고... 엄마는 그 아이가 안느 마리와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교회 단체에 맡겨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 일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두고 보기로 하고 당분간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하계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까!... 기도해야지. 마리 끌레르

가 고분고분 따라와 주지 않으니 참으로 무거운 짐이며 숙제거리다. 게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치료도 받을 수 없는데, 의사 말로는 작년 경우로 보아서 정신병이 결코 아니며 성격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오후에, 엄마는 하늘로 떠나실 준비를 하셨던지 두 세 차례 “무섭다” 라고 하시기에 나는 엄마가 평생 하나님께 많은 공덕을 바치셨으니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가 무섭냐고 하면서 성수를 뿌려드렸다. 그 다음부터 그 소리를 안 하셨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이 이끄시는 단체의 회원들이 루르드 성지 순례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특히 부탁했던 루르드 묵주를 기다리셨다. 마침 한 회원 아주머니가 고맙게도 순례지에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어. 하루종일 애타게 묵주를 기다리시던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온 힘을 다해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지... 그러더니 그때까지도 엄마의 정확한 성격이 남아있어서 “얼마를 드려야 하죠?” 하시며 200프랑을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셨다. 엄마는 그 묵주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그 시간 이후로는 오직 루르드 기적수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저녁 11시에 미셸 삼촌과 룰루 숙모님이 도착했어. 그분들은 이제 애댕을 떠나 파리 르노드가 3번지, 꽤 큰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 집에 와서 묵고 가신다. 엄마는 기운을 모아 숙모에게 손을 내밀며 “별 일 아니에요” 하셨지. 밤새 우리는 두 명씩 교대로 엄마 곁을 지켰는데, 엄마는 밤인지 낮인지 더 이상 구분을 못하시고 우리 모두를 찾으시면서 곁에 안 보이면 부르고 해서 결국 모두가 엄마 곁에서 밤을 새웠다. 우리는 엄마와 함께 기도를 했고 내가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총,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기쁨, 감사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자 엄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미소지으며 “나는 넘치도록 받았지” 하시더라.

“우리가 파니스 안젤리우스 불러 드릴까?”

“아니.”

“아! 알았다... 마니피캣!”

그리고는 우리는 모두 엄마 침대 옆에 빙 둘러앉아 마니피캣을 부르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를 불렀는데 엄마도 따라 부르려고 하셨지. 그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묵주기도를 부탁하셨고 묵주기도 한 단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또 “태중의 아들”, “마리아여...”, “기적”, “기적의 성모님 “ 하며 속삭이셨어.

금요일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엄마의 혀를 적셔드렸고 아직 의식이 뚜렷한 엄마는 시선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셨으며 누구이건 간에 엄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는 놓지 않으셨다. 정오경에 의사가 진통제 하나를 드렸고 오후 2시경에 엄마는 좀 가라앉은 듯 편안해 하셨고 오후 6시에 엄마를 보러 온 마들레느 블롱을 알아보시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셨다. 룰루 숙모님은 미어지는 가슴으로 떠나야 했다. 저녁 7시쯤에는 엄마의 호흡이 더 부드러워지며 평온해지셨다. 낮에 엄마가 “삶을 사랑...” 하시며 낮게 말씀하시더니 그리고는 곧 좀 더 힘을 모아 “이제, 죽음의 시간”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 엄마는 몇 번이나 눈으로 마리 끌레르를 찾으셨던지! “마리 끌레르는...”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또 마리 끌레르를 보시고... 우리 모두가 엄마께 약속해요, 우리가 마리 끌레르를 도와줄게요, 마리 끌레르도 우리말을 잘 듣겠다고 엄마께 약속한 대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를 불러드렸고... 단 한 번의 몸짓, 그래, 우리가 성가를 부르는 동안 엄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저 높은 곳” 을 따라 부르시려고 애쓰시면서 간신히 팔을 들어 우리에게 하늘을 가리키셨다. 네, 엄마!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랑 자노랑 할머니 모두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엔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거예요! “예수 마리아 요셉 성인께서는 저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같이 해주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굳게 믿사옵니다.”

엄마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두 줄기 굵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오! 엄마는 우리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으셨어. 진통제를 맞기 전 ‘간암’ 의 그 지독한 고통 중에서도 엄마는 우리가 당신의 오른 팔을 움직여 마지막 성호를 긋도록 그냥 놔두시더니, 마지막 미소를 보이시고 세 차례 거듭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더니 우리가 모두 엄마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엄마는 너무나 잔잔하게 숨을 거두셔서 우리는 엄



마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다.

프란치스코회 수녀님들이 수의를 입혀드렸고 큰 거실 벽난로 맞은 편에 침대를 놓고 엄마를 모셔놓았으니, 엄마는 온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안식을 취하시는 듯 노랗게 된 안색이 아니면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꽃으로 가득 채워져, 평소 엄마가 아끼시던 우리 정원의 꽃들과 마리아 아줌마가 당신 정원에서 한 송이도 남김없이 꺾어 온 꽃들과 주이유의 꽃들, 슈발리에 딸들이 가져온 꽃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마리아 아줌마가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엄마를 보살피 주셨는지... 엄마는 그 고마움에 정이 듬뿍 들어 마리아 이름만 들어도 감았던 눈을 뜨실 정도였으니 오로지 마리아 아줌마만이 엄마에게 수프를 해드릴 권한을 받았고 오로지 아줌마가 만든 수프만이 맛있다고 하셨지... 우리는 아줌마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엄마가 비록 당신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실 것이라고 여겨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으셨으나 우리가 아줌마를 꼭 생각하겠노라고 약속드렸다. 우리의 바램이라면, 이 토지를 사게 될 새 주인이 아줌마가 사시는 이 작은 집과 정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밤에 우리는 부고장을 준비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우편배달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지.

토요일, 앙드레 삼촌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트레포의 마리아 숙모님이 오셨다. 숙모님도 많이 늙으셨더구나. 그분의 고집과 막힌 생각들은 여전히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졌더구나. 그때문에 그 며칠 동안 우리의 놀림 대상이 되었지만, 그 숙모님도 걱정이 적지 않게 있더구나.

월요일 아침 10시경에 입관 예절을 했고, 아빠 때와 마찬가지로 드와앵 신부님이 예절을 주관하셨고 마지막으로 다같이 묵주기도를 바친 다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키스로써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각자의 사진 한 장씩을 넣어 드리고 마리아 아줌마의 꽃들과 엄마의 묵주를 넣어드렸다. 루르드 묵주는 안느 마리가 갖고 있다.

수요일 11시에 장례식을 치렀다. 수많은 이들이 참석해서 아빠와 엄마에 대한 애정을 표해주었다. 파리에서 외방전교회 신부님 한 분이 오셨고 세키르의 아줌마 한 분이 오셔서 자끄와 함께 상주 노릇을 거들어 주셨다. 드와앵 신부님께서 엄마의 생전의 공덕들을 기리는 추모 강론을 해주셨다. 강론내용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맹의 회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자신의 희생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평생을 희생의 길만을 생각했으니 그분의 삶은 복음을 그대로 실천한 삶이었다고! 신부님의 추모 강론 원고를 못 받았다면 내가 보내주마. 내가 신부님의 원고를 받아서 즉시로 옮겨 적어놓았다.

모두들 쇼미에르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애들을 데리고 주이유와 뿔레뜨, 레이몽과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지에서 다시 한 번 모였고 그리고는... 모두들 헤어졌다.

룰루 숙모와 미셸 삼촌, 필립은 필립의 결혼식 때문에 떠나야 했는데 성당에서의 결혼식은 다음날 파리에서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는 모양이다. 잠시 후에 마끄 르메르가 필립의 증인으로 가면서 폴과 지네뜨를 파리로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숙모님과 삼촌께 축하인사를 띄울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라. 필립이 그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신부는 에댕 고장의 처녀인데 크리스띠안느 르페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부친은 역 근처에 농산물 저장소를 맡아 하는 분이고 그 가정은 우리 가정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모양이더라. 필립은 부모님이 덩케르크 법원 옆에 아파트를 사주어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린단다. 마끄 르메르가 미셸 삼촌의 법률 사무소를 인수받았는데 공증인 자격을 아직 취하지 못했으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야만 할 거란다.

생-오메르의 삼촌과 제느 숙모, 사촌 베르나데뜨 모두가 돌아왔다. 사촌은 아주 온순하고도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다시 모였다. 자끄 말로는 우리 각자에게 60,000 내지 80,000프랑이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리제뜨나 나나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리 끌레르에게 이야기해서 마리 끌레르와 안느 마리는 파리로 가기로 했고 리제뜨도 같이 합류하기로 했다. 정든 집은 몇 달 후에 팔기로 했고 지하 가족 매장소는 한 달 후에 정리해서 6개의 함을 만들고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 댁의 지하 매장소에 모시기로 했다. 옛날부터 살아온 이 집에서 온 가족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여름 방학인 셈이다. 자끄는 자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아셀 삼촌 댁 건너편에

새 집을 보아둔 것이 있어서 10월에 아보사에서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기만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 일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너는 모른 채하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린 다음 폴, 지네뜨 부부와 마들레느, 르네 부부와 그 집 아이들 그리고 자끄와 그의 아이들이 떠나갔는데 자끄네 어린 브뤼노는 그야말로 어린 광대란다. 나는 안느 마리와 리제뜨, 마리 끌레르 그리고 마리아 숙모님과 집에 남았다. 숙모는 내일 1시에 떠나신다.

마리아 아줌마 집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신 후 다음 날 9시에 나는 떠나왔다. 시간표를 잘못 안 탓에 나는 작은 우편물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여행객은 나 혼자였고 7, 8명의 승무원들이 이 ‘여행객’이 탑승하자 모두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정든 고장이 나에게 아듀!를 전하는 모습 같았다

1952년 11월 10일

존경하는 신부님,

신부님의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전해 받고 저의 애도의 뜻을 담아 문상 편지를 신부님 가족들에게 서둘러 보냈습니다. 신부님께는 너무 늦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미 비슷한 시련을 겪은 제가 신부님과 그 고통을 한껏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는 날부터 이미 이러한 시련은 약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저희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받아 주십시오. 언젠가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한 자리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교전 소식을 신문에서 상세히 읽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이나 분명한 것은 수많은 참해와 파괴와 사망자를 내면서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불행의 짐을 덜어 주시려면 신부님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의 골고타 언덕은 언제나 끝날까요?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데 그가 가서 휴전 조약에 조인을 맺어 교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쌍방은 조약에 조인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요. 그건 내일이 되어야 알겠지요. 만일이 바램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혼란스러운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진정의 기세를 가져다 줄 텐데요.

신부님께서 건강하시어 무리 없이 풍성한 성무 집행을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분들을 더욱 생각하게 하기에 우리는 그리운 형님의 사진이 놓여있는 형님의 묘를 찾아 우리를 위해 모두를 바치신 선교사 형님께 특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경백(敬白).

Th. 물리나르

제2장 성 신부님께서 가족들에게 보내신 편지5)

1. 부모님께 쓰신 편지

1949년6)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이제 저는 또다시 고아가 되었군요! 아니, 저는 부모님의 사랑 이외에 인간적인 사랑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는 영원한 아들입니다. 좋은 휴가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용기를 보여주시고 무조건적인 수고를 해주시니 이 모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두 분의 삶에 감사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지금껏 부모님들께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온 마음으로 부모님과 또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포용합니다.

피에르

## 2. 동생 마르그리뜨 수녀님께 쓰신 편지

1955년 7월 13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그리뜨에게,

너의 4월 19일자 편지를 받은 지 오래되었건만 오늘에서야 답장을 띄운다! 내가 나를 너무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 미국 우편 편에 맡긴 너의 편지가 내게 도착은 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부터는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어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 가톨릭 선교부 피에르 생체 신부 앞.

이렇게 하면 편지가 도착할 것이고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동봉해 보내는 작은 종이 쪽지를 봉투 한 부분에 붙이려무나. 한문으로 적은 내 주소인데 다만 그것을 거꾸로 붙이거나 비틀어지게 붙이지 말아라,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너는 여전히 학교 선생이구나. 겸손하도록 노력하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겸손에 대해 더 없이 감사할 것이다. 항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명하는 마음과 비우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하여라. 그래도 너는 동료도 있고 책도 있고 잡지들도 있어서 너를 유지해 주고 너의 관심거리도 채워 주고 하니 너는 그리스도적인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곳에서 나는 때로 그것이 힘들 때가 있다. 잡지도 없고 소식도 못 받고 교통도 너무나 힘들어 동료를 만나러 갈 마음도 안 생긴다. 공산당들이 쳐들어 왔을 때 책들을 거의 다 잃었으니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너도 이해가 갈 것이다. 거기다가 내적으로 마귀의 유혹, 외적인 어려움, 때론 힘겹다는 걸 너도 이해할 테니 너의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지난 6월 12일에는 대단한 성체행렬을 했는데 교우, 외교인 할 것 없이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시제단도 훌륭했고 물들인 모래로 마련한 길, 성가대 아이들은 딱딱이를 치며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며 행진했고 심지어 경찰들마저 우리의 행진을 돕느라고 대로의 버스들을 통제시켜 주었다.

내가 이곳의 생활을 짐작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있는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매일 2,000여 명이나 된다! 학부모들, 어른들, 교우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900명, 유치원 아이들이 70명, 거기다 예비자 교리반 학생이 100명, 그리고 내게 우유를 만들어 내는 시설이 있으니까 매일 그것을 마시러 오는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 우리 양로원의 노인들이 매일 우유를 32통 만들어 주거든! 아이들이 우유 한 대접씩 받아 들고 있는 걸 보면 기쁘다... 특히 기쁨이라곤 그것밖에 없을 때에는.

나는 이곳에 젊은 사제 두 명과 같이 있는데, 한 명은 작년에 이곳에 온 제제(Jeze)라는 브르타뉴 출신의 고집불통이고, 또 한 명은 폴란드 신부 시에라장(Sieradzan)인데 그는 온 지 두 달 됐는데 벌써 강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먹이는 일,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등등, 모든 것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구나! 전후세대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서 종종 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작년부터 다리의 통증을 앓던 것을 너도 알겠지만 통증은 여전히 있다. 내가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이게 좌골 신경통인지 아니면 류머티즘인지. 약은 먹고 있어서(비타민 B12) 좀 효과는 있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대로 걸으면서 성무일과를 바칠 때면 금방 피곤해지니 이제는 노인네처럼 소파에 앉아 바쳐야 할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나를 얼마나 울적하게 만드는지 너는 모를 거다. 현재는 내가 불평할 게 아무 것도 없다. 사도직도 잘 되어 가고 분위기도 좋고 예비자도 많고, 나처럼 행복한 선교사도 드물 것이다.

여기는 며칠 후면 방학이 시작될 터인데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겨우 한 달간이다.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 방 안 온도가 35도인데다가 장마철이기도 하고 바로 그 시기에 교우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성

모승천 대축일이 들어 있다. 버스 한 대를 빌려서 성가대 아이들과 소풍을 갔으면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혹시 불행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니!

네가 마리 끌레르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기쁘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올까? 의심할 여지없이 그 아이는 환자다, 중환자야. 마들렌느 누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폴은 아들을 낳아 자비에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기쁜 소식을 보내왔다. 생-오메르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게도 통 소식이 없다. 최근에 수도원장 신부7)가 예뻑 교우 30여 명을 데리고 루르드에 가서 내게 엽서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모든 교우들이 사인을 넣어 보냈다. 그것을 받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 기회에 답장을 보내려고 한다.

4명의 새 선교사가 가을에 도착할 예정인데, 9월 28일에 마르세이유 항을 떠나겠지. 그들은 렌느 교구의 페트렐(Petrel), 베르사이유 교구의 베르트랑(Bertrand), 롬구(Rohm랏oux) 그리고 아미앵 교구의 그젤라(Gzella)이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너희 학생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렴. 안타깝게도 이곳의 학생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리반 아이들과 고등학교 학생들, 맏소사! 그 아이들 모두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걸 나 혼자선 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선하신 하느님과 동정 성모 마리아,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고 나는 바보짓만 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렇지 않니!!! 안녕.

1956년 7월 2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그리트,

요즘에 자유시간이 조금 있어서 너와 함께 반 시간 정도를 보내고 싶구나. 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며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건강이 최고의 상태이며 한 번도 앓지도 않고 조금도 아픈 곳이 없구나! 이가 약간 상했을 뿐 그게 전부다. 네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나도 역시 여전히 분당에 있으며 선교사들 중에 가장 행복한 선교사이며(그래도 골칫거리들은 있지만 그 정도야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나날의 시련이겠지),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축복 받은 선교사인데이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일이지. 왜냐하면 너의 오빠가 얼마나 가련한 인간이며 열심이지도 못하고 등등. 그걸 안다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 한 무리의 영세자들, 엄청난 수의 고해자들, 나에게 걸려든 백여 명의 아이들, 4-5,000 명의 성체 행렬자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있겠니! 요즘에는 공사가 한창이란다. 양로원은 거의 끝나서(내부에 벽지도 발랐다) 이 달에 개원식을 할 예정이고 남학생 학교는8) 지붕을 올리는 데까지 왔으니(교실 여섯에 이 층이라 내년엔 어찌면 또 증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 내벽, 외벽의 초벽과 소목일이 남아있다. 몇 년 후에 모든 게 마무리되면 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게 내게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근심을 안겨 주고 있는 나는 심지어 은행에서 1,500,000환을 빌렸다! 그래서 매달 22,000환씩 이자를 내야 한다.

너야 수녀원 안에 있으니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넌 늘 너의 불쌍한 오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하며 기도를 청해다오. 수도원 안에 있는 너는 조용하게 규칙과 수도원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들 속에 살아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들으며, 아직 전반적으로 외교인 국가 안에 살기에 이 나라에서는 죄가 죄 같지도 않아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면 오히려 바보 취급만 당하며... 죄를 습관처럼 여긴다. 예수님은 강생하시면서 죄만 빼고 인간의 모든 결점들까지 취하셨지만 나는 내가 한국인으로 강생한다면 죄까지 갖고 강생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너의 오빠이며 대부인 나를 위해 너를 희생해야9) 한다. 내가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리스 파크(Maurice Facques)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힘 좀 써주어라. 그에게 필히 편지를 써야겠다.

6월에는 무엇보다 굉장한 성체행렬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제들 피정 지도를 했다. 거의 모두로부터 편지를 받았지만 마들렌느 누님과 마리 끌레르만은 침묵을 지키는구나. 폴은 매우 행복한 것 같고 자끄 형님도 조무래기들과 행복한가본데 신학교를 떠났다는 이브의 소식은 나를 슬프게 한다. 신학생들에게 시키는 그 모든 연수들이 잘못이다. 끌로드느 결혼 전에 나에게 지극히 친절했던 편지를 써보냈더구나. 너

의 수녀원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너는 물론 결혼식에 참석했겠지. 이제 넌 전처럼 아르들로(Hardelot)로 휴가를 떠나겠지. 불리 신부는 어떻게 됐니? 아르들로에 살던 프랑스의 유명한 수맥 찾아내는 사람말이다. 제자들은 남겼다는? 죽기 전에 또 찾아낸 것은 있다고 하니?

이곳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해서 철의 장막은 아주 가까이 있고 여차하면 (전쟁이) 또 다시 시작 되겠지. 나라는 여전히 빈곤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살지만 한 쪽에선 기아상태에 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미국 가톨릭으로부터 쌀 300포대와 우유 260상자 그리고 버터-기름 45상자를 지원받을 예정이라 일종의 극빈자 구호 사무소까지 만들어야 했는데, 모두가 다 극빈자라고 하는 바람에 극빈자들 중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10) 마귀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하루는 보좌 신부 하나가 아침식사에 늦게 왔기에 “왜 늦었소?” 하니까, “아, 막 병자성체를 주고 오는 길입니다… . 맘소사!!!!11) 수 킬로 떨어진 곳엘 말이죠” 하는 거야. 네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어라, 다들 웃을 거다.

새 성당 건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겠어. 지금 성당이 정말로 너무 비좁아서. 에맹의 수도원장 신부가 또 공짜로 설계도를 만들어줄 만한 건축 설계사를 하나 찾아주면 좋으련만. 요 며칠간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 더운 날씨에 할만한 일이지, 다른 날엔 너무 바쁘고. 어제는 주교님이 예고 없이 오셔서 내 폴란드 보좌를 데려다가 다른 본당 주임으로 말령내겠다며 내게는 블랑이라는 사제를 주었다. 그는 네가 파리에서 분명 만났을 베르디에 추기경처럼 로데즈 사람이다. 조금 아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사기를 한 번 돌렸다. 이제는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서 늘 보여달라고 조른다.

좋은 휴가 보내고, 이 가련한 인간과 나의 교우들과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다오. 신축공사가 끝나면 6개 빈 교실이 생기니 내년에는 여학교도, 그것도 중·고등부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누구에게 맡기나… . 자비회 자매(수녀)들은 한국에 도착했는데 생모르 자매(수녀)들은 오지 않을 거란다.

다정스럽게 너를 포옹하며 너의,  
피에르

1956년 12월 19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가뜨에게12)

즐거운 성탄과 거룩한 1957년을 맞이하기를. 네가 보낸 두 통의 좋은 장문의 편지는 잘 받았다. 고맙다. 너는 건강한가 보구나, 모두들 그렇게 말들 하던데. 너도 어느덧 중년 티가 나겠지… . 너의 사진을 한 장 갖고 싶다. 더욱이 네가 새 옷을 입었다니까… . 학부모들 중에서 선명하고 밝게 네 사진 한 장 공짜로 찍어 줄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래, 세상이 들끓고 있구나. 예전에 열등국민으로 여겨졌던 국민이 이제 머리를 들고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그 상황을, 열등감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다 전쟁이다 벌이고 있으니. 다른 나라 국민들을 볼 때 프랑스는 국민수가 보잘 것 없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들 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 프랑스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 우리도 프랑스 사람 못지 않게 잘났어.” 난 정치에 대해서 논쟁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그래도 이런 논쟁 속에서 이제는 가톨릭적인 발상이 정치, 인본 차원에서도 통하고 있는 걸 보니 기쁘고 그거야말로 진짜 소득이다.

아직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권리와 의무도 평등하다” 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게다가 세상이 완전한 일치를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 예전에 프랑스가 여러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의 프랑스를 형성하고 있잖니… . 세상이 아직은 작은 나라들로 수없이 나뉘어 있지만 조만간 모두가 한 나라가 되겠지. 오늘날의 국가들은 예전의 지방 하나만도 못하잖니! 지금은 프랑스와 브라질 사이의 거리가 예전의 아르뚜아와 아키텐느 거리만큼도 못하니까… .

옛날에 아르뚜아 주민들이 부르고뉴를 알던 것보다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더 잘 안단다… . 영화, 라디오, 출판물, 학교, 교통 수단 등등의 현대 발명품들이 국가 간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하나가 될 수밖에… . 국가라는 것이 지방에 지나지 않는구나. 우리 종교인의 아름다운

소명의 현대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 세계 일치의 진정한 일꾼들이니, 어느 곳에 서나 일치와 사랑을 설파하며 교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한데 모으고 있잖니.

오늘은 내가 너에게 너무 철학적인 얘기들을 장구하게 늘어놓는구나. 입을 다물어야지. 이곳의 나는 여전히 본당을 맡아서 일과 예비자들에 묻혀서 지낸다. 성탄절에 40명이 넘는 영세자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의 영세자 수가 벌써 107명이다! 수많은 예비자들이 사방에서 찾아오고 공소 수도 꾸준히 늘어나며, 다행히도 현재 있는 보좌 신부와의 뜻이 잘 통한다. 요즘에 본당 고해자들이 연례 교리시험을 치르러 오는데, 매일 같은 일이 계속되니 지겹다. 단 1분이라도 쉴 시간이 없다. 밤중을 제외하고는 단 5분도 내 방에서 혼자 있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할 것이며 책이라도 읽으며 여가 선용이나 공부를 할 시간이 있겠니. 1월 5일에는 오래 전부터 부탁받은 성가회 수녀원에 가서 피정을 지도할 것이다. 그래도 기쁘기만 하다. 이 모든 일들 덕분에 나는 어쩌면 행복한가 보다.

우리 교우들은 착하고 단순하다. 가난하지만 사랑스런 사람들이다. 지난 번에(요즘은 마지막 수확철인데)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 오셨는데, 팔이 한 쪽밖에 없는 그 할머니는 당신네 집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쌀 1부아쏘(13)를 가져오셨다. 자녀가 다섯인 또 한 과부는 내게 1,500환(600프랑)을 갖다 주고 생활의 어려움들을 앞에 두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돈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울기만 했다.... 어렸을 때 쓰러졌다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난한 식구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 날 저녁으로 곧장 묻으려 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인 과부 며느리가 정성껏 모셔왔던 그 할머니를 위해서 본당에서 어떤 이들은 미사 봉헌금을 내주고, 어떤 이들은 수의 값을 내주고 또 어떤 이들은 시신을 장지까지 실어다 주었다. 봐라, 세상 어디에나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있는 법이구나.

너의 오빠 피에르가 애정 어린 뽀뽀를 전하며

1957년 7월 9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고똥(14)

그래, 그 요란한 세귀르(Segur)의 50주년 행사는 잘 치루었니? 네가 그것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구나! 해마다 해온 것처럼 지금쯤 너는 아르들로(Hardelot)를 떠났겠지.... 바다 가까이, 에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묘지 옆을 지나갈 때면 차를 멈추지는 않겠니?

난 여전히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있잖니, 올해 내가 낸 성인 영세자 수가 벌써 162명에 달한다. 봐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네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키더니 네가 성과를 거두었구나! 그렇게 계속해 주렴, 그리고 신입 교우들의 꾸준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청한다. 요컨대 처음에 신입 교우들을 얻는 건 그래도 쉬운 편이나 그들을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부족하다. 혹시 교리 교육에 관한 나의 의견을 알고 싶으면 <가톨릭 선교: Les Missions Catholiques> 5월호를 읽어 보아라, 거기에 네 오빠의 장문의 기사가 실렸으니까.

그래, 너는 덕분에 아름다운 랭스 지방을 여행하는구나! 너희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나는 겨우, 그것도 간신히 내 큰 본당 구역을 돌 시간밖에는 없다. 내 편지를 안느 마리에게 보여주어도 괜찮다.... 있잖니, 안느 마리가 나보고 더 이상 상투적인 소식일량 보내지 말라고 하잖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니, 성당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으니 세상일도 모르고 프랑스에서 신문 한 장도 못 받고 있는데! 아! 나한테 항공편으로 <라 크르와 La Croix>지 하나 보내줄 사람 없을까! 그러니 난, 매번 건강이 좋다, 주관하는 일도 잘 되어간다, 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만 써보낼 밖에....

지난달에는 큰 일을 당했다. 우리 지부장이신 무세 주교께서 선종하셨다.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주교님이시다보니 장례도 신경써서 해야 했고, 결국 그분의 장례는 크게 잘 치러져서 조문객이 최소한 20,000명이나 되었다. 나는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문상 편지까지 받았다. 부지부장에다 내 본당까지 그리고 현재 임시 지부장까지 소화해야 하니 전보다 편지 써야 할 일이 더 생긴 셈이지. 어서 새 지부장이 와서 이 짐을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가족들 소식이라고는 형제, 누이들이 전해준 소식만 알고 있단다. 가끔은 희소식들도 들려오는구나, 뱅

쌍 탄생 소식 같은.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소식도 있는데, 테레즈가 3년이나 살았던 수녀원을 나왔다는 구나. 만일 그 아이에게 수도 성소가 있다면 다른 곳에도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이고 당연히 내가 그걸 직접 써보낼 일은 아니다. 장 피에르와 특히 동생 끌레르를 생각하면 울적해 진다….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고, 고향집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프랑스에 갈 생각이 나겠니, 간다 해도 누구 집에서 머물겠니? 이 집 저 집으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가서 잠잘 곳, 먹을 것, 씻을 곳 등등을 부탁해야 하니 난 그럴 용기가 안 난다. 2, 3일간이라면 몰라도 여러 달을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고역을 치르는 걸 보는 것도 끔찍한 일이다. 엄마라면 그렇지 않지. 엄마에게는 그게 고역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여기서 심심하지는 않다. 때때로 배교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야 어떤 일을 맡고 있어도 따르는 거니까. 가끔 미미는 보니? 아주 용기도 있고 경탄할 만한 사람인데, 요즘 터널을 지나는 모양이다. 하지만 잘 빠져나올 거다. 며칠 후에 그녀에게 편지를 쓸 예정이다. 올해 내가 지어서 지난 6월 19일에 주교님이 축성해 주신 두 개 작은 성당 사진을 최근에야 안느 마리에게 보냈다. 안느 마리에게 사진을 달라고 해서 미미와 장에게도 보여주어라. 언제나 나에게 보내주는 그림들과 우표들, 수녀 처지로서는 큰 선물인 셈인데 고맙구나. 여기는 시골이라 우리 아이들이 우표 수집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림들은 아주 좋아한다. 테레즈에게는 그게 쓸모가 있으니 테레즈에게 보내주고 내게는 그림들만 보내다오.

현재 나는 또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했다. 물론 여러 해 동안 헌금과 절약이 요구되는 일이다. 지금 있는 성당은 교우수에 비해 너무 비좁아서 성당을 하나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설계도 하고 부지도 마련하고, 모든 게 잘되면 내년해야 겨우 공사를 시작할 텐데… 하지만 수백만이 있어야 한다. 동료들은 지금의 성당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본당을 하나 더 시작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들 한다.

좋은 휴가 보내고, 너희 수도원 동반자들과의 큰 우정과 열렬한 마음을 기원하마. 너의 선교사 오빠를 위해 많이 많이 기도해다오. 정말이지 마귀는 단 하루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보니까 마을 옆에는 마귀가 하나 있는데 수도원 옆에는 마귀가 천이나 있다고 했다더니… 성인이 놀라서 왜 그럴까 하고 자문해 보았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쉬우니까 마귀 하나면 족하지만 수도원에서는 그게 훨씬 어려우니까 마귀들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 마귀와 맞서 일하려고 애쓰는 선교사, 나를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지. 요즘 저녁마다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했는데, 아주 놀랍고 내게 여러 성과를 가져다 준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58년 1월 3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그리뜨,

내 사랑하는 누이, 내 거룩한 누이에게 좋은 한 해,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내가 너를 잊겠니? 그건 염려 말아라! 열중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말이다. 내 ‘장사’는 잘 되어가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8년 전만 해도 교우가 겨우 1,500명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3,500명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하느님의 은총과 네 기도 효험으로 성인 영세자 수가 323명이며 어린이 영세자와 임종 대세자까지 합하면 모두 600명이 넘을 것이다! 봤지, 내가 괜히 선교지로 왔겠니?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께서 나를 많이 도와주시나 보다. 일이 이렇게 확장되니까 더불어서 짓고 또 지어야 하는 엄청난 부수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는구나. 작년에는 작은 성당 두 개를 짓고 앞으로 본당을 지을 부지를 사놓았다. 앞으로 내 본당을 분할하게 되면 성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그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또 학교 건물의 한 측면도 지어야 할 텐데… 하느님 말씀사, 그 일을 어떻게 다 해낼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되겠지.

루배(Roubaix)에 있는 너는 용이한 점이 많은 편이야. 교통 수단만 해도 버스, 전차, 기차가 있어서 신

속하고 편히 앉아 갈 수도 있고 깨끗하고 냄새도 좋지만, 여기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안에서 찌부러 지겠고, 차에 오르면 차장이 승객을 안쪽으로 밀어 넣느라고 두 손으로 등을 밀고, 기차는 종종 가축 우리 수준에 불과하고 기차 안도 춥다. 너희는 전기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전기도 너무 약하고 고장도 잦다. 상점들이라고 해야 별 것 없고 거기서 파는 것도 고작 날림으로 만든 물건들이다. 고기를 살 때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겠다고 정할 수도 없고 주인이 주는 만큼 받아야 하며, 고기도 돼지고기나 늙은 한우뿐인데 여기서는 송아지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다.

버스나 기차를 타려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걸인들, 불결한 옷차림을 한 소상인들, 전쟁 상이군인들이 폐를 쓰며 잡지, 연필, 휴잉검들을 사달라고 붙잡아 옷이 더러워진다... 석탄을 사려고 해도 부대에서 훔쳐내 온 석탄뿐이라 그것을 사야만 한다. 난로 하나를 사다 놓으면 사흘이 지나면 고장이 나버리고 자물통도 보름 후면 고장이 나고... 그러니 물건들을 프랑스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 최근에 내가 아는 사람이 택시를 하려고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사려고 했는데 세금을 3백만 환을 물리더라!!(약 백 오십만 프랑에 해당한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통과권 소유자에게 뇌물을 주면 모든 것이 통과가 되니 조세 불법 수렴인 셈이다.

알겠지, 내 나라는 아직 문명화되기에는 요원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다른 나라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든 간에 나는 여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한다.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아של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다. 그분은 참으로 끈고 선하시며 정직한 분이셨지. 우리는 그분이 자랑스러웠지. 좋으신 하느님께서 그분을 위해 결정하신 것은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삶이 고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셨던, 당신 생전에 늘 그렇게 부르시던 당신의 “링크”를 다시 만나러 가신 것이다. 나는 즉시 그분을 위해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했고 모리스 삼촌에게 편지를 써서 주느비에브 형수께서 해 주신 헌신에 감사를 드렸다.

다행히 공소 순방을 다 치렀고 그 유명한 아시아 독감에도 걸리지 않았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지난 20년 동안 공산당을 피해 다니던 2, 3일을 제외하고는 미사를 한 번도 킬한 적이 없다. 20년이 넘도록 미열 한 번 있는 적이 없고 작은 상처 한 번 난 적이 없으며 가끔 치통과 좌골 신경통을 좀 앓은 것이 고작이다! 봤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 너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나도 내 건강에 놀랄 정도이니, 좋으신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내게 그런 건강을 주셨나보다.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2년만에 심각하게 아프고 수술도 받았으며 그때 나는 내 병명에 ‘결핵’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1960년 7월 7일에 내 사체수품 은경식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성가회의 수녀들은 이제 백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그들의 생활난인데 수녀들이 잘 알아서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손을 도와야 할 텐데. 수녀들은 거의 4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며 노인들을 돌본다. 테레즈는 내게 자주 편지를 보내오는데, 테레즈 말에 의하면 너한테서 구유를 만드는 틀을 구했다고 하면서 나보고도 너에게 그것을 청하라고 하니, 말이 나왔으니 너에게 신청해야겠구나. 만일 네가 너의 장상에게 청구할 돈이 없으면, 내가 미사 예물이든지 파리의 경리부를 통해 지불할 테니 그것을 잘 포장해서 보내다오. 1월 21일에 알레(Haller) 씨가 파리를 떠나 한국에 들어오고, 3월에는 마르탱(Martin) 신부가 들어오니 ‘ME 128 rue du Bac Paris VII, pour le P. Singer de Coree’ 라고 적어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내다오. 구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야 하니까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동들, 양들, 소들, 당나귀, 낙타의 틀을 다 보내야 한다. 우리 수녀들이 그 틀로 수십 개 아니 백여 개를 만들어 얼마 간의 돈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이 기회에 양탄자를 짜는 설명서 책자 하나도 구해주었으면 한다. 그것도 수녀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너에게 일을 시켜서 미안하지만 너의 장상이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으리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게 다 하느님을 위한 일이고 또 너도 20년이 넘게 학교에서 봉사했으니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내게 재미있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 내게 주는 모든 소식에 감사한다. 너를 힘껏 포옹하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전한다.

피에르, 생제



1958년 6월 27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그리뜨에게

네가 지난 4월 17일에 보낸 편지를 어제서야 받았으니 편지가 두 달이나 걸린 셈이다. 네가 그것을 배편으로 보냈으니까 그렇지. 항공편으로는 8일정도 걸리고 가끔은 5일만에 도착한다!

그래, 너는 학생들하고 멋진 루르드 여행을 하고 왔다고. 그 여행으로 너는 들떠 있는 것 같던데, 왜 안 그렇겠니. 네가 행복해 하니 나도 기쁘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 여행이 너와 동반했던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익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가 보내준 그림들도 고맙다.

프랑스의 사건들이 너에게 너무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훨씬 전부터 프랑스는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 같고 또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져와야 가난한 부모 꼴밖에 되지 않겠니. 프랑스의 유일한 명성은 프랑스 국민의 지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뿐일 것이다. 루베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매우 강한 건지? 그들의 수가 여전히 증가하는지?

마리 끌레르가 루르드에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기쁘다. 그 아이가 거기에 갈 때면 우리 모두 제발 그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논산에 있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난 모를 거다. 6월 30일에 이미 성인 영세자가 256명, 교우 자녀 영세자가 90명, 고해자가 7,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성공은 그 대가를 치르는 법. 내가 선교사가 된 이후로 이렇게 고통을 겪은 적은 없었다! 건강은 여전히 좋으니 그것은 걱정 말아라. 문제는 반대 세력이 거세다는 것이다.

1. 학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학교에는 800명의 학생과 25명의 교사가 있다. 공립학교 같으면 교사를 바꾸는 것이 수월하나 우리 학교처럼 사립학교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교사에게 “떠나라”고 말할 수밖에.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 정도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니요, 배우고 친구들도 있는 사람이고, 또 만일 재정난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른 자리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한다.... 그런 일이 우리 학교에도 벌어졌다. 교육부에서 전문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왔고, 그래서 7명을 해고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 7명이 즉각적으로 보복하고 교장을 무너뜨리려고 라디오, 신문, 전단들을 통해 주민과 권위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장에 반대하는 신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속은 학생들은 이틀이나 수업을 거부했다! 그 모든 일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측도 방어와 협상을 벌여야 했고, 수사를 하기 위해 나온 경찰들의 습격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무튼 내가 옳았으므로 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장은 매일 성체를 모시는 훌륭한 교우인데, 그 사람은 너무 착하고 너무 온순하고 그리 단호하지 못하지만 그런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점수를 탄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공격할 차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감옥에 넣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내게 있지만 사제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탐탁지 않아 그저 교우 교사 두 세 명을 더 해고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르간 반주자이며 성당 성가대 교사가 포함되어 그것이 좀 곤란하지만 그들도 음모에 가담했으니 별 수 없지. 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학교에 신물이 났다는 거다. 나로서는 본당이며 학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맡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남자 수도회에서 그것을 맡아 일해야 할 것 같다.

2. 교우와 예비자가 너무 많아 본당을 분할해야 하기에 새 본당을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아주 큰 군부대 옆에 넓은 부지를 매입하여 2층 짜리 사제관을 지어 1층은 사제가 쓰고 2층은 임시 성당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게 든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업자가 나를 속이려 들고 이미 일부는 잘 속여먹었다. 그래서 그가 고소하겠다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나 혼자 일을 추진했다. 정말이지 집 짓는 사람은 고생이란 말이 맞다! 한 달 후에는 모든 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현재 제대와 제의를 넣어 둘 가구와 고해실, 기도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3. 내게 일 잘하는 보좌 신부가 있었는데 주교님이 그를 빼앗아가서 다른 곳의 주임 신부로 임명했다. 그리고는 한국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새 보좌를 내게 보냈으니, 미사와 영세식을 제외하면 그는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그를 기분전환을 시켜주어야 하고 가르치느라 그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그는 마르탱(Martin) 신부이고 베르사이유 출신이다. 그의 나이는 33살이고 19살에 영세를 받았단다! 아직도 외교인들인 그의 가족은 그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그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들은 만큼 고정 관념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동성이 훨씬 덜 하겠지.

봐라, 모두 저마다의 근심을 갖고 있구나. 구유를 만들 틀에 대해서인데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으니 서둘러 주어야겠다. 꼭 구해서 계산서를 보내주면 파리를 통해서 너에게 지불할 테니 걱정 말아라. 서둘러서 항공편으로 보내다오.

너를 힘껏 포옹하며 또 너에게 건강과 용기와 점점 더 커지는 열심한 마음을 기원하며 이만 마친다.

생제 피에르

1958년 7월 18일, 논산

마르그리뜨에게

드디어 구유를 만들 틀을 받았다. 너와 너의 장상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가회 수녀들에게 소식을 알렸으니 수녀들이 와서 가져갈 것이고 바라건대 수녀들이 성탄 전까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십자고상 틀을 첨부해 주어서 고맙다. 나도 여기서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군부대 옆에 있는 소성당은 마침내 완공되어 모레, 주일부터 미사를 집전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요즘에 너무 더워서(내 방 안 온도가 33도가 넘는다) 연로하신 주교님은 지금 축성하는 걸 포기하시고 좀더 후에 날씨가 시원한 9월에 오셔서 축성하시기로 했다. 성당의 후보 성인은 베드로 성인이다. 아직 여자 식복사가 있을 작은 집을 지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주교님께서 사제를 누구도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다. 여기서는 여자 식복사와 사제는 떨어져서 거주해야 한다. 나는 이곳 논산에서도 새 성당 건립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년 후에 끝날지 나도 모른다.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니까! 알베르 파크(Albert Facques) 말인데, 사람이 싱겁구나. 그의 동생에게 미국에서 후원자 몇 명 구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동생 모리스의 주소를 그에게 부탁했었는데 헛수고만 하고 그 쪽은 다 틀려버렸어. 사진은 훗날 너에게 보내주마.

마르탱이라는 새 보좌 신부가 왔다. 그는 18살에 영세를 받았단다! 지금 나이는 33살이고. 그는 의기충천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녹녹할 것 같다.

학교 문제는 마무리지어진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그로 인해 여과가 크게 남아있으니 수도회에서 학교를 맡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여기서는 분명 성공을 할 것이다.

여전히 예비자들이 많은데 마르탱 신부가 말을 할 줄 모르니 거의 나 혼자인 셈이라 내가 너무 바쁘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를 바라며, 바다가 가까워서 좋기는 하겠지만 분명 너는 수영을 하지는 않을 테니 바다가 네게는 시큰둥하겠지. 며칠 후에 나는 성가대 아이들과 하루 소풍을 가려고 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고. 나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끝까지 충실하도록 또 내가 나의 교우들과 나의 아이들을 참으로 초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다오.

피에르, 생제

1959년 1월 9일, 논산

마르그리뜨에게

벌써 195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여러분에게 복되고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저를 위해, 제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그토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본당을 맡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항상 할 수는 없게 됩니다. 특히 성탄절과 같이 일이 많은 축일 끝에는 휴식도 좀 취해야 하고 교우들의 영적 노트도 정리해야 하고 주교관에 보고서도 올려야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참으로 좋고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의 물질적 상황은 호전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날이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사성체를 집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지향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건강해서 작은 병도 앓지 않으니 단 며칠도 쉬지를 못합니다! 저는 늘 저의 운명에 만족하며 착한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와 공로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저의 허다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저의 일을 축복해 주시나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과연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루르드 성모님은 제 본당의 주보성인이십니다) 701명이나 되는 영세자를 수확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성인이 395명, 교우 자녀 166명, 임종 대세자 140명) 저로서는 이러한 숫자에 달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천국에 오른다면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재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 저는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고 얼마나 많이 글씨를 썼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산과 평원을 삼복더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로 달렸는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이렇게 행복하니 여러분과 함께 저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 폭탄이며 인공 위성 따위들에 마음을 쏟고 그런 것에 최면이 걸린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말할 시간도 없으며 차라리 그것이 평화를 간직하는데 훨씬 나을 것이며 영혼들을 구하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참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이곳에도 불편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 난방, 전기, 교통수단, 물품 구입, 이해 받지 못하는 것, 우리 교우들의 극빈함,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 이런 단점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뛰어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야겠지요.

이제는 마을마다 10여 명의 외교인들의 서명이 담긴 요청 편지를 통해 저를 부릅니다!!! 예전엔 한 명씩 찾아왔었는데 말입니다. 아, 골짜기에 버려진 이 마을들을 찾아가 불심지를 밝힌 저녁, 방 안 가득히 채운(방문까지 열어 놓아야 할 정도로 아래에서 위쪽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들과 눈들만 보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은 없으니 정말이지 저는 제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저는 두 달 전에 제게 방문을 요청한 산 마을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신입 교우들은 벌써 서로 분담하여 초가지붕의 집 한 채를 매입하여 성당으로 꾸며놓고 저를 위해 작은 방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날 밤 저는 거기서 1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들 중 몇몇이 어디에서 영세를 받고 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는 기쁨 속에서 그들은 교회의 규칙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함께 기도문을 암송하고(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당에는 올 수가 없기에), 교리를 공부하고 여가 시간도 거룩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외교인들은 그들을 비웃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요! 그들은 “비난하기 전에 잠자코 첫 수확이나 기다려 보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수확은 풍작이었고 주일에도 일했던 사람들의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비웃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만 그래도 너그러운 처사가 아니었지요!!

1958년 한 해 동안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굵직한 일을 잘 끝마쳤습니다. 그 일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우선 본당이 분할되었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본당이 참으로 너무나 벽쌌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 업무 외에도 30개의 공소와 두 학교를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군부대 근처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넓은 부지를 매입해 두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붉은 벽돌의 멋진 사제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가난하시면서도 저를 도와주셨고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1층은 벌써 발령 받은 한국 신부의 사제관으로 사용되고 2층은 임시 성당으로 사용됩니다. 이 신부는 현장에 있는 만큼 성당 건축 공사를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성인께서 이 새 성당의 후보성인이시니 성인께서 잘 돌보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딸” 하나를 시집보냈습니다. 휴우!

두 번째 중대한 일은 이것입니다. 저의 현재 성당은 현재 교우 수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많은 교우들이 성당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식구를 생각해서 이 은총의 시기를 이용하여 저는 어떻게 하든 더 넓게 새 성당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필요한 비용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제나 일이 성사될지 모르겠기에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된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만을 빕니다. 또한 루르드에 가시는 복을 지닌 분들께서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2단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생기는 대로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지요!

황폐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에 있으니 이 나라에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프랑스에서 멀리 있다 보니 프랑스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편지를 후원자가 되어 줄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랑스인이 아닌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프랑스인들은(먼저 들어왔으면서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아프리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버림받은 느낌이고 또 저희는 가끔 물질적으로도 밑바닥 상태에 놓이게 되어 남몰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무엇보다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 인구의 거의 반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리며 예수 마리아 성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경의와 초성적 애정을 표합니다.

피에르, 생제

이것은 공동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소식을 듣잖니. 난 쓸 말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며 너와 너의 겸손한 일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너를 포옹하며.

1959년 5월 29일, 논산

마르그리뜨에게

내일, 5월 30일이 우리 엄마의 기일이니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너에게 향하고 오늘만큼은 오빠로서의 내 모든 느낌을 너에게 한 마디 다시 적어 보내지 않고는 안될 것 같다. 내일 아침 아빠와 엄마를 위해 미사를 드릴 것이고 물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도 마리 끌레르를 포함해 파리에 있는 동생들에게 편지를 쓰던 참이었는데 마침 네가 5월 20일에 부친 편지를 받았단다! 리제뜨가 얼마 전에 내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와 마리 끌레르에 관한 상세한 소식을,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완전히 타락을 했지, 술에 취해 지낸다고! 그 아이가 다른 건 안 하니? 그 아이에게 방금 엄마 얘기를 썼다. 그 아이에게도 썼다시피, 프랑스 여기저기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내게는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도 많고 수백 명의 착한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아이 때문이다. 그렇게 낙오자가 된 그 아이를 본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나는 차라리 25년 전 내 첫 미사 때의 그 아이의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싶다. 그 아이에게 아주 다정스럽고도 슬픈 편지를 써보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나머지는 해주시겠지.

너의 기도와 너희 학생들이 모아준 기부금에 감사한다. 그것을 rue du Bac 128, C.C.P. 22. 294 파리의 방전교회 생제 신부 앞으로 보내다오. 너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다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다오. “너희들은 집 가까이에 성당이 있어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교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성당에도 오지 못하고 신부도 일 년에 두 번 밖에 보지 못한단다.” 내가 방문을 해도 집이 없어서 밖에서 미사를 드려야 해서 추울 때는 교우들이나 나나 고생을 한다….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 두개(TOU KAI) 교우촌을 맡긴다는 말도 전해다오. 거기에는 막 시작한 교우촌인데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은 곳이며 특히 열심히 의지를 갖고 배우고는 있지만 아직 학습이 충분치 못하여 영세를 주지 못했다. 그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공부한다… 그 아이들은 순진한 믿음에서 돈을 모금하여(작은 성당조차도 없어서 어느 할머니가 빌려준 방에 모여 공부한다) 끔찍한 종을 하나 샀다!… 그 집 옆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꼭대기에다 말뚝 4개를 박아 종을 매달았단다! 영세자가 나오면 너에게 말해 줄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다오. 여기에는 그 아이들의 길을 헛갈리게 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이 거의 그들처럼 하려고 한다.

그래, 요즘 난 걱정이 엄청나게 많다. 내 보좌 신부가 신경 우울증에 걸려서 한 달째 잠을 못 자고 있으니 일사병에 걸리거나 앓을까 걱정된다… 그리고 내 본당 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현재 크립트(성당의 지하실)와 제의실, 예비자 교리실을 짓고 있는데 충분한 돈도 없고 7월 초에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지만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꾸어야겠지. 게다가 우리 학교 교장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급한지 재정 조건도 충분치 않으면서 학교의 한 측면 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니 교사들 월급은 무엇으로 주려고 하는지, 해고당할까 조심해야 할 걸. 나도 사제 일에 다 이 모든 걱정거리까지 겹치니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다!

편지를 중단했다가 다시 쓴다. 나의 장상이 방금 오셔서 보좌 신부를 한 달 이상 바다 근처의 포항에 휴양을 보내기로 하셨다.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다오, 나의 영혼과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기도해다오. 난 정말이지 요즘엔 이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만 안녕하고 뽀뽀를 전한다. 미미에게 안부 전해 주고 내가 그녀를 많이 좋아한다고 전하고 또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느님과 그녀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다오.

피에르, 생제

1959년 12월 20일, 논산

사랑하는 마르고똥,

너의 9월 4일자 편지를 최근에야 받았으니 편지가 내게 오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구나. 그러니 답장이 오래 걸린다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답장이 빨리 가도록 항공편으로 부칠 것이니 이 편지가 새해에 너에게 도착해서 이 오빠의 애정과 새해 인사를 전해주기를 바란다. 고해성사 중에 막간을 이용해 이 편지를 쓴다. 어제부터 성탄 판공이 시작되었거든.

성탄 대축일은 매년 항상 너무나 피곤하다. 너도 알다시피 매년 모든 교우들을 개인 면담을 하는데, 교우 수첩을 손에 들고 그들의 가족 상황을 참고하며 필요한 권고의 말을 주고 그 다음에 교리 시험을 치르게 한다. 올해에는 150명 이상에게 40문항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그저 그렇다 아니라고 답하는 단답형이었다. 요즘처럼 한파라도 닥치는 날엔 고해성사를 주는 것도 달갑지 않다. 정말이다. 성탄 때에 40여 명에게 영세를 줄 것이다. 신년 편지들과 주교님이 요구하신 연말보고서를 모두 끝마친 다음에 동경에 가서 생모르(St. Maur) 자매(수녀)들에게 해줄 피정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그 덕분에 우리 테레즈

와 며칠을 같이 보낼 수 있겠지만 테레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려고 같은 때에 피정을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알려왔다.

학교 때문에 큰 걱정이 생겼다. 결국 교장을 해고해야만 했는데, 그는 좋은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무능해서 평화나 화해나 규율을 가져오지 못한데다가 재정은 적자가 되었다. 그가 내게 큰 빚만 남겨놓았다. 사실 내가 선교지에 온 후로 늘 재정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지. 나는 주교님께 내게서 학교라는 짐을 덜어달라고 몇 번이나 청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다행히 학교와 본당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기에 내년에는 본당의 3단계 공사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데 그게 뭐냐 하면 성당 둘레에 4개의 멋진 돌기둥을 세우고 입구 계단을 만드는 것이다. 벽과 지붕은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

너희도 자율 교육 문제로 걱정이 많은가 보구나. 정부가 그 문제는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든 협상해서 타결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니 가톨릭 쪽만 배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정부가 뭔가를 줄 때면 그것을 감시할 권리도 갖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지금껏 허용해왔던 자유를 일부 그쪽에서 빼앗아가는 셈이지. 정교조약(政教條約, concordat) 때에도 거의 그랬었다. (정부와) 같이 하는 것보다 없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너는 어떤 면으로 미미가 가까이 있어서 행복하겠나. 둘 다에게 위로가 되겠지. 너는 프랑스에 매년 증가하는 아이들 수를 얘기했다만, 그것은 큰 소리로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 이곳의 인구 증가율을 안다면 너 아무 말도 못 할 걸! 이곳 논산 시내만 해도 인구가 25,000명이고 초등학교가 3개나 되는데 각각 학생수가 1,500명씩이니 모두 4,500명의 아이들이 있고 4개의 중고등학교에 1,000명씩 있으니 4,000명 학생이 되고, 그러니 모두 8,500명의 아이들이 있잖나! 한 번 상상해 봐라.... 우리 학교에는 창유리가 없는 교실도 있다! 이 추위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아이들은 이 한파 시기를 피해 1월 말까지 곧 방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2월에도 자주 강추위가 온다.

마리 끌레르의 삶은 그야말로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슬프다. 그러나 어떡하겠나? 불쌍한 엄마가 생전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그래도 엄마가 저 위에서 당신 딸이 그 습관에서 빠져 나오도록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옛날에 아르들로(Hardelot)에 막대기 하나로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곤 하던 불리(Bouly)라는 유명한 사제가 있었는데, 나도 이제는 막대기 하나로 물줄기를 찾아내고 깊이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벌써 여러 마을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단다.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요즘 내 방에는 새 여덟 마리나 나를 쥐에서 보호해 주는 고양이 두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봤지, 나도 친구가 있단다! 그놈들이 늘 깨끗하질 못해서 내 식복사 아주머니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셋째 주면 우리 총장 르매르(Lemaire) 주교님께서 한국에 오시니 그러면 분명 논산에도 오실 테지만 내게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것은 그분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의 주교님께서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75세의 우리 주교님은 거의 방에만 계신다.

새 보좌 신부가 왔다. 13번째다! 바스크 출신의 로페페(Lop렛? 신부인데 충실한 타입이라 내 생각에 너의 불쌍한 오빠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선교사가 될 것 같다. 난 언제 프랑스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피곤해서 프랑스에 정말 가고 싶다. 다만 그건 돌아온다는 마음 없이 완전히 자신을 내놓은 선교사의 정신에는 거스르는 것이고, 또 모두들에게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가도 벌어들인 돈도 없으니 내 숙박비를 무엇으로 대겠어.

너를 힘차게 포옹하며 또 너에게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전하며 이만 마친다. 우리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자.

피에르, 생제

1960년 9월 10일, 논산

마르고똥에게

6월 20일자 편지와 8월 25일자 편지를 잘 받았다. 나의 사제수품 25주년 기념을 기억하여 기도해 준 너의 형제애에 많은 고마움을 전한다. 너의 산문과 같은 편지를 보니 너도 훌륭한 강론을 할 줄 알고 또 네가 아주 시적인 영혼을 지녔다는 것을 알겠더구나. 축하한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선생’으로서의 소명에 자리가 잡혀있음이 보이니 아주 잘된 일이다. 야망을 지니지 말고 그저 너에게 요구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무나. 삶의 목적은 명령하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하며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오르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순명, 그것만이 훌륭한 일이고 사랑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다.

우선 너에게 항공 봉함 엽서로 편지를 써보내게 되어 미안하다만, 우리의 가난한 한국은 선거운동이며 도둑들, 나라의 분단 등으로 돈이 얼마나 딸리는지 일반 항공편지 한 통 값이 거의 500환이나 되는데 그것은 미국 돈으로 반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고 미사 한 대 예물에 해당하는 돈이라면 내가 쉽게 이해하겠지!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으니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고 내 고용인들에게 지불하는 것도 힘들다. 항공 봉함 엽서는 덜 비싸서 130환 밖에 되지 않거든. 너에게 속물적인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어찌겠니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어서 성당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다오. 만일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게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시메온의 노래(nunc Dimittis)’ 를 부를 거야!

나는 일본에 갔다 왔고 테레즈도 만났다. 내게 방 두 개를 마련해 주어서 테레즈가 나 있는 곳으로 와서 늘 같이 식사를 했고 정말이지 으제느(Eugene) 원장 수녀가 더 할 수 없이 친절하게 해주었다. 온갖 훌륭한 식사들과 선물들로 호사를 했다. 그 목록을 낱낱이 대면 너는 기절하고 말 걸! 심지어 비행기 안까지 꽃다발과 화초를 가져다주어서 그걸 가져와 심었더니 자리는 잡았는데 올 여름 날씨가 너무 덥고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은 말라 죽었나보다. 나는 강론을 20번 했고 성시간을 한 시간 했다. 테레즈는 피정은 안 했지만 강론 때마다 참석했는데 그 장난꾸러기가 애매에 있을 때처럼 미소를 지어서 강론의 맥을 놓칠 뻔했단다!

일본에 가서 나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구경했고 황궁 바로 근처에 있는 소위 ‘시네라마’ 라고 하는 영화관 구경도 했단다. 이곳에 돌아와서 나의 25주년 기념을 가족끼리, 그러니까 동료들과 피정을 하며 지냈고 6월 29일에는 교우들과 지냈다. 모든 것을 성대하게 준비해 놓았는데 불행히도 이틀 전과 전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이 끊기는 바람에 많이 오지를 못했다(그 비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름 비였고 그 다음 비는 9월 4일이나 왔단다!). 교우들이 고마웠고 많이 와서 영성체를 하고 선물도 많이 받았다. 서울에서 우리 수녀들도 20명이 와서 흰 수단 두 벌과 검은 수단 한 벌, 흰색 클레지 셔츠 한 벌과 다른 잡다한 것들을 갖고 왔다. 봤지, 나는 행운아다! 요즘 수녀들은 서울 근교에다 5층짜리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이다! 수녀들은 여전히 고아들하고 지내느라 돈이 딸릴 텐데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내 성당 공사에 부족한 돈을 구할 수가 없구나. 학교에서도 나만 보면 늘 돈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 무섭다.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 60명씩 6학급을 받았으니 360명의 신입생을 받은 셈이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껏 우리의 적이나 다름없었던 경찰들이 어제는 나를 요청해서 경찰들에게 천주교에 관한 강론을 해주러 갔다 왔고 다음주에 또 거기에 가야 한다!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지.

라리보 주교님은 프랑스로 떠나셨고 오늘 편지가 왔는데 10월에나 들어오시겠다고, 그런데 들어오시기 전에 파리에서 ‘대식구’ 로 모여 사는 내 동생들을 만나 보시겠다고 한다. 주교님은 11월에 이곳에 오셔서 견진성사를 주시기로 했다. 아마 견진자는 300명쯤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이제는 승리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저 쪽 당에서 탈락한 사람을 이 쪽 당에서 후보자로 내세우고, 또 저 쪽 당에서 자기네 후보자를 내세워(장 요한이라고 옛날 내 서울 본당 교우인데 그의 자녀 셋이 신학교에 들어왔다), 그가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겨우 과반수를 넘은 탓에 바람 잘 날 없고 논쟁이 그칠 날이 없어서 그 동안 일을 많이 못했다.

미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왜냐하면 미미로부터 100프랑을, 옛날 프랑으로 따지면 1,000프랑이나 되는 거금을 받았으니, 집안 살림도 어려워지면서 나를 위해 무리를 한 것 같다.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전해주고 나도 조만간 빨리 편지를 쓰려고 한다. 누이 동생들이 예전같이 자주 편지를 보내지는 않는구나.

하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바빠지고 책임 맡은 일이 많으니 여기저기 편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편지 쓸 일이 생길 때마다 신물이 날 정도다. 모두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만일 라리보 주교께서 내게 돈을 충분히 갖다 주시면 성당을 짓고 프랑스로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프랑스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모금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쉬러 갈 것이며 내 본당은 다른 이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 임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생도 했고 또 아빠, 엄마의 임종 소식을 들은 곳도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돈이 생기면 성당 축성 후어나 휴가를 떠날 것인데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만, 안녕하며 건강과 용기와 끝까지 영혼의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끝까지”라는 말이 우리 테레즈와도 마지막 인사였다. 깜빡 잊고 너에게 말을 안 했는데, 도쿄에 있는 동안 르두 부인의 방문을 받았었다. 수의사 부인을 기억하니? 안녕.

피에르, 생제

1962년 12월 8일, 바 또랑(Bas-Thorenc)에서

마르그리뜨에게

그래, 난 이렇게 잡동사니 속에 묻혀 살아.... 조끼며 광택제며 그림 엽서 등등.... 내가 사달라고 청했던 것들을 내가 직접 사야겠어. 정말 진력이 난다! 게다가 간단한 팜플렛도 준비하고 있으니, 비록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은 호전되어서 허리에 피곤함을 훨씬 덜 느끼니까 좀더 오랫동안 서 있을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어서 장을 보러 니스(Nice)까지 나가는 것은 어렵도 없다. 난 이곳 원장 신부님이 뭘 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치유도 더디고 또 이곳의 분위기도 그리 유쾌하지 못해서 종종 향수에 젖는다.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한 탓인지 구토를 느낀다. 3달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주 조금이야.... 아, 어쩌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선교사에게 이다지도 가혹하실까. 선교지로부터 멀리, 동료들로부터도 멀리, 모든 것에서 멀리 떠나와 있어야 하니.... 그래도 순명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 경우에는 순명을 너무 오래 요구하는 것 같다. 우리 성가회의 수녀들로부터 종종 편지를 받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그 어린 수녀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잖니!

내가 얘기한 마리아 아줌마 소식 말이다.... 참 안됐더라.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성사도 못받고 돌아가신다고 내가 벌써 얘기했었는데 말이다.... 심지어 어머니를 그렇게 혼자 놔둔 앙드레도 망신을 살 거라고 미리 알려줬건만.... 어쨌든 그분은 개성이 강하셨고 착하시고 성모님께 기도도 열심히 바치시고 마지막 날까지 남편에게만 충실하셨던 분이셨어. 하느님께서 그분께 은총을 내리시리라 믿으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고 또 엄마가 분명히 내게 미사를 청하실 테니 미사도 드려드릴 것이다.

16일에는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네가 어린히 준비를 잘 시켰겠냐마는. 이곳에서는 첫영성체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첫영성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기도문 7개와 교리문답 15항이 들어 있는) 작은 교리문답집을 암기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묻는 다양한 문제에 책 없이 혼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는 부모들한테 훌륭하게 잘 배운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첫영성체를 받는 날에 양쪽에 엄마와 아빠를 동반해서 한 명씩 제대 앞에 나와 영성체를 한다.

너를 힘껏 포옹하며 너의 기도를 청한다.

피에르

1963년 10월 25일, 파리



마르그리뜨에게

어제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8일간 야코 형의 집에서 머물고 또 에댕(Hesdin) 고향 마을에서 8일을 머물며 선교주일에는 미사 3대 내내 내가 강론을 한 다음 연회실에서 에댕 주민들에게 한국에 관한 강연을 하고 왔다. 아빠, 엄마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난... 그것을 확인하러 간 셈이 됐구나. 나는 에댕의 시장 장례미사에서 부제(副祭)를 맡았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고 장례미사는 무척 장엄했고 영성체자도 많았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너의 편지가 와 있더구나. 편지 보내주어서 고맙다. 또 미미(Mimy)의 편지도 고맙고. 선교회지 이번 호에 실린 기사(15)를 따로 뽑아서 보내니 편지와 함께 미미에게 보여주거라. 그러면 내가 포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거다!

마리 끌레르에 관해서는, 내가 생외스타슈(St. Eustache)에 갔더니 거기서는 정중하게 승락을 하더라만, 내 생각에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구나. 그저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번에는 덩케르크(Dunkerque)쪽으로 해서 카셀(Cassel), 릴르(Lille) 그리고 루배(Roubaix)를 돌아 북쪽지방을 한바퀴 돌아볼 생각이다. 그때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쓰마. 미미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용기와 건강을 기원한다. 미미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인사 전한다.

피에르

내 건강은 그럭저럭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지치고 기운도 없다. 솔랑주는 1/2점 차이로 구슬시험에 실패했다! 솔랑주는 에댕에 갔다가 바미에르(Bammi뤼에)와 프루아짜르(Froissart)도 같이 갔단다. 심한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무사하고 소형 전기자동차만 여기저기 부서졌단다. 르네가 그를 데리러 갔고 그는 지금 브르파뉴에서 쉬고 있단다. 나도 아직 아무도 만나질 못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모르겠다.

1964년 5월 8일, 페낭

안느 마리, 리제뜨, 마르그리뜨에게

마르그리뜨와 리제뜨의 편지를 반갑게 받았고, 너희들의 한결같은 애정에 고맙다. 나는 예정대로 4월 27일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5월 1일 아침 7시 15분 비행기로 다시 출발하여 9시에 여기에 있지만 불행하게도 구름 때문에 별다른 것은 볼 수 없었고 하늘 높은 곳에서 하얗게만 보이던 강들만 볼 수 있었다. 지금 나는 페낭에 와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더위가 극심한 탓에 꿈쩍도 할 수 없다. 숨통을 막는 연일 계속되는 이 엄청난 더위를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최소한 서너 번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갈아입을 옷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아 세면대에서 빨아 입기는 하지만 삶지 않아서 때가 그대로 남아있고 땀 냄새도 나고 옷이 금새 몸에 달라붙어 온 몸에 땀투성이다. 밤에도 역시 끔찍해서 모기장 안에 있으면 금새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하는데 그렇다고 선선한 바람을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놔두었다간 장염에 걸리기가 쉽고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다소간 열병환자들이다.

이 더위만 아니라면 너희도 이곳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거의 지상 천국이란다! 야자수, 바나나나무, 종려나무 등의 열대나무들이 울창하고 빨강고 하얀 꽃나무들이 사방에 있고 파리의 샬레들만큼이나 아름다운 집들하며 해변가, 해변 곳곳에는 넓은 정원과 주위에 잔디밭이 있고 길가에는 거대한 나무들로 덮여 있고 자갈을 깔아 놓았으며 새끼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길 양쪽의 인도에는 잘 손질된 초록 잔디들이 덮여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가난함을 엿볼 수 없고 그들은 행복하고 깨끗한 인상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닌다. 차에서 내려 바다를 따라 걷노라면 장관을 이루는 해안이 깎아 놓은 듯 모래사장과 함께 펼쳐지고 바위들과 말레이 빌라들이 번갈아 나타난다. 일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다. 섬 주민이 모두 300,000명인데 그중 200,000명이 아직도 조지타운이라고 불리는 페낭시에 몰려있다.

나는 생 모르 성모회(Les Dames de St. Maur)에 가서 두 번 미사를 집전했는데 한 번은 학교와 고아원이 있는 큰 건물에서 미사를 했고 또 한 번은 바닷가에 있는 별장에 가서 했다. 두 번 모두 그녀들이 나에게 멋진 차를 보내주었다. 거기서 이나시우스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반가워했다. 나는 약속대로 4일간 11명의 가난한 작은 자매회 수련자들에게 피정을 지도해 주러 갔었다. 18일에서 22일까지 또 한 번 가서 공동체 전원에게 피정을 해 주기로 했고 5월 23일에는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25일에 베트남 배를 탈 것이다. 더위 때문에 수단 차림으로 피정 지도를 하는 것이 꽤나 힘들기는 했지만 이 작은 자매들은 정말 교화적이었다. 그녀들은 남·녀 250명의 노인들이 있는 호스피스를 운영하는데, 작은 자매들이 매일 구걸해온 양식만으로 그들을 먹이고 있다. 거기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다. 40명의 수련자들이 휴식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실내를 오가는데 그것이 특별히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자매들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또 그 결실을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의무적인 구걸로써 겸손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섭리에 의탁하며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도 엄청난 선행을 하고 또 심지어 외교인들에게도 애공의 기회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공로를 쌓게 해준다. 애덕이 너무나 생소하던 이 나라에서 그녀들의 본보기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심지어 승려들까지 그녀들을 방문하러 온다. 이곳의 신학교 생활 역시 교화적이다.

두 번의 대미사에 참석했었는데, 한 번은 15명의 부제 서품식 때였다. 미사 예절은 전례가 아주 풍요로웠으며 성가도 잘 살렸으며 지극히 경건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검은 수단에 중백의까지 입고 있었다... 신학생들은 교내 식당이나 강의실에서 흰 수단을 입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반바지에 가벼운 셔츠 차림을 한다. 자유시간 동안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배구를 하며 보낸다. 이 신학교는 300년의 역사를 지니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신학교로 있었기에 우리 한국의 첫 사제들도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러나 살인적인 더위로 말미암아 금방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지금 있는 신학생들은 주변 국가에서 온 사람들뿐이다.

지금으로서는 건강상의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잘 먹고 음료수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별로 맞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고지대 또령(Thorenc)에서 지낸 후라 이 곳의 기후가 맞지 않아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배 위에서 만난 호텔 지배인이 어떤 생체 수녀에 대해 말하면서 그 수녀가 매우 인상적이기에 메뉴에 나오지 않는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나는 웃으며 듣고만 있다가 결국 그 수녀가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말았다.

이 더위를 무릅쓰고 장문의 편지를 쓴 용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또 써야 할 편지였으니까. 그 동안 옆에 놓인 수건으로 얼굴을 몇 번이나 닦아야 했다. 이젠 샤워를 하러 가야겠다. 안녕하며,  
너희의 피에르

1964년 6월 1일, 홍콩에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더위로 좀 지치고 땀과 옷이 자꾸 달라붙어 자주 갈아입어야 하기에 귀찮기는 하지만. 이곳 파리의방전교회의 내 방은 높은 곳이고 홍콩 섬 연안 쪽에 위치해서 바다와 십여 개의 섬들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멀리 중국산들이 보인다. 그리고 뚝단배들과 중국 정크들이 태양 아래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오가며 고기를 잡는 모습도 보이는데, 참으로 장관이다. 시내에는 웬 건물들이 그리도 많이 올라가는지... 부자, 가난한 사람, 웬 사람들이 그리도 붐비는지... 그리고 산허리의 엄청난 판잣집들...

목요일에 고베에 도착할 것이고 테레즈가 마중 나올 것이다. 테레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벌써 받았다.

페낭에서 너희들의 편지를 받고 아주 반가웠다. 내 자동차는 ‘베트남호’ 갑판에 있다.

사이공에 있을 때 저녁이면 멀리서 대포소리가 들려오더구나. 프랑스인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비록 반가톨릭 움직임이 있다 해도(거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었다), 우리로서는 모든 골칫거리들을 피하고 통행에 있어서 좀 특혜를 얻는 데에 사제의 수단보다 더 좋은 여권은 없구나.

온 마음으로 너희들을 포옹하며,  
피에르

이 편지를 마르그리뜨에게 전해다오.

1964년 8월 24일, 홍산

사랑하는 기뜨,16) ‘존경하올 원장 수녀님’ 께

그야말로 희소식이며 너에게 적격인 소식이구나! 파리에서 생-오메르에서 도쿄에서, 사방에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왔단다... 그 소식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양이야. 나도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너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새 가족 가운데서 풍성한 사도직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원하는 나의 바램을 받아다오. 솔직히 말하면 너는 그것이 그토록 달갑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숨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특히 수도자의 삶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니. 순명만 하면 되는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도 갖고 온갖 잡다한 근심과 책임 같은 것도 없지. 그러나 이제 너에게도 너의 몫이 주어졌고 그 몫이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을 맡고 결정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쩔겠니,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쳐야 하고...

(이하 중략)17)

나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지낸다(내 탓 때문이지. 더위와 요즘의 내 건강상의 문제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거의 나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도쿄에 가서는 테레즈를 보았는데 여전히 잘 지내더구나. 거기서 안느 마리와 리제뜨에게 편지를 보내며 너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너는 아직 편지를 받지 못한 모양이구나. 안느 마리와 리제뜨로 하여금 너에게 편지를 쓰게 하느라고 일부러 그랬던 건데...

요즘 내 일요일 하루 일과표는 이렇다. 5시 30분 기상. 6시 고해성사. 6시 30분 미사. 7시 30분 아침식사. 9시 30분 고해성사. 10시 30분 미사. 12시 어른 아이 예비자 교리. 1시 점심식사와 휴식. 8시 성체강복(이 시간은 저녁기도 시간으로 대체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미사는 두 대인데 미사 때에는 성서구절 독서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강론을 한다. 10시 30분 미사 전에는 기도문을 다 배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 모든 교우들 앞에서 그들에게 예비자 카드를 주고 그들을 공동체에 소개시키며(이것이 세례식 전 반부인 셈이다), 그리고 훗날에 진짜 세례식을 한다.

내 건강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이질 때문에) 그래도 지탱은 하고 있다. 소변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군도 없다고 했고 두 번째 검사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이 ‘스프루’ 18)때문에, 지리를 타는 이 혀와 소화관이 신통치 않아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 네가 늘 이 오빠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안다. 나도 너를 잊지 않고 매주 수요일 미사 때마다 언제나 가족을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너의 새 주임 사제가 바코그(Wacogue) 씨인 줄 아는데 네가 그와 큰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바란다. 여기 그의 옛 제자인 올리비에 떼이에(Olivier THELLIER) 신부가 와 계신다(그의 부친이 47, av de Paris Boulogne ....(미판독)에 살고 계신다. 식료품상을 하는 분인데 너에게 유용할지 모르니 주소를 갖고 있어라. 올리비에 신부는 나와 같이 이곳에 나와 있는 유일한 아라스 교

구 출신 사제이다). 올리비에 신부가 내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는 내 이웃이 될 거란다. 오빠로서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너는 내 생각 속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다시 한번 밝히며 이만 편지를 마치려다.

피에르

1964년 12월 15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누이에게 복되고 즐거운 성탄과 복되고 거룩한 새 해가 되기를!

비록 내가 말 그대로 세상 끝 한 구석에 버려진 채 있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잖니. 너는 ‘원장 어머니’가 된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 운영에다 너희 수녀원을 꾸려가자니 많은 일상적 근심들이 있겠지... 수녀들은 몇 명이나 되니? 학생은 몇 명이고? 네가 운전 면허증을 땀다는데, 정말이니? 너를 보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없어서 너를 찾느라 불로뉴까지 갔었잖니. 건강은 좋은 거니? 바다 추위와 바다 바람이 고생스럽지는 않은지?

내가 있는 고향은 콩데뜨(Condette) 정도의 주민이 있을까,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이 10,000명 되는 면(面)이 3개 있고 따라서 6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중 6개 마을에 교우들이 있다. 이번에 성무집행을 끝마치느라 6개 마을을 방문하여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냉담자들이 적지 않다. 내 전임자는 미국 가톨릭 구호기관에서 나온 밀가루 덕분에 많은 영세자를 배출했지만 이젠 밀가루가 끊기자 교우도 생기지 않고 또 나도 처음인지라 엄격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 성탄절 영세자가 두 명뿐이다.

이곳에서 나도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 구유를 하나 샀는데, 우리 교우들은 생전 처음으로 구유가 될지 구경하겠지. 그리고 양탄자도 하나 샀다. 맨 땅바닥에서 미사를 드리거든. 그런데 걱정이 된다. 그것을 사서 주문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도착하질 않는구나. 나는 “성대한 의식 거행”을 준비했다. 장백의 차림의 4명의 독서자가 앞으로 나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한 글을 읽을 것이다.

1. 원죄와 그로 인한 결과들(도둑, 살인, 전쟁, 기근, 죄, 실업, 빈곤, 병 등의 모든 항목들을 나열함)
2.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약속하시다: 모든 예언서들이 구세주를 예고했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3. 구세주께서 오시다: 가브리엘 천사, 목동들, 동방박사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께서 이곳에도 오시지 않겠는가?

젊은이들, 소녀들, 부인들, 아이들이 미사 집전을 위한 모든 준비물들을 가져다 놓는다... 예) 제대, 제대보, 꽃, 제대초, 십자가, 성서, 빵, 포도주, 물. 그러면 사제가 나와 미사를 시작한다. 생 쉴피스에서처럼 근사하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는 것. 내가 조카 크리스띠엔느와 테레즈에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백만 프랑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일 프랑도 안 되는 것이므로 생 쉴피스의 자정미사가 백만 일 프랑짜리라면 홍산의 자정미사는 백만 프랑짜리겠지.

르네와 자크 형님께 집으로 사진 몇 장을 보냈으니 네가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겠지.

이곳에서의 내 근심은 이미 있는 교우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 주일미사 때 강론하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좋은 표양을 보이려고 권고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만 참으로 유일하고도 효율적인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냉담 교우들과 배교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큰 걱정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내 이름을 대며 교우들이 종종 그들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는 적다.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외교인들인데... 그들에게는 도대체 근처에도 못 가겠고 편견에 젖어 있는데 그게 다 내 주위에 둘러싸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때문이다(비교적 작은 테두리 안에 최소한 7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유인하기에는 게시판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교우들의 글도 게시하고 호교 포스터도 붙이고 내가 질문도 작성하여 붙이고 근사한 큰 컬러 사진도 설명

을 달아 붙이고... 마음대로 읽고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눈치채지 않게 그들에게 가톨릭 바이러스 접종을 시키는 것이지. 네가 나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가톨릭에 관한 멋진 사진들이나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들을 보내다오.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들 경우 내가 한글로 그 포스터의 사진의 의미를 적어 넣어 여백은 남기게 하거라. 그렇게 해서 너는 내 포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지.

내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곳에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주 고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다. 그 어떤 것에도 고통받지 않고 심지어 허리둘레의 류머티즘과 이질도 사라졌다. 여전히 우리 주교 자리는 공석이고 새 발령이 있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 오래 지체하지는 않겠지.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만 마친다. 우리가 영원히 다시 모이게 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피에르

1965년 5월 3일, 홍산

마르그똥에게

그래, 부활 대축일이 지나갔구나. 그러나 축일 후에는 언제나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법. 3월에는 포항에 가서 10일 동안 300명의 수녀와 수련자 수녀에게 피정을 지도했고(거기엔 또 한 번 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8일간은 교우촌을 방문하며 예전처럼 그들과 먹고 자고 지냈으며 그리고 내 본당에서 부활 대축일을 준비했다. 모든 예식 준비는 거의 나 혼자 했다. 성인 영세자는 5명밖에 얻지 못했고 성령강림절에 2명 더 얻을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사이인데 매 주일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오고 종종 외교인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그 이후로는 물질적인 삶이 다시 시작되어서 농사, 수리 등등으로 돌아갔다.

다가오는 5월 11일에는 우리의 한국인 새 주교, 황(HOANG) 주교님의 취임식이 대전에서 있을 것이다. 오전 10시경에 기차역에 도착하면 주교님은 행렬을 이루어 대성당으로 모셔져 주교 서품식이 이루어지고 곧 이어서 취임식이 거행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식사로써 예식은 끝날 것이다. 나는 내일 모레인 5월 13일부터 피정을 시작해서 19일에 끝내고 홍산으로 다시 돌아와 조용한 내 생활을 다시 하겠지. 내 자동차로 여행은 좀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고, 내가 외떨어진 곳에 있다보니 아무도 나를 찾아 주는 이가 없으니, 그것이 섭섭하다. 늘 내가, 이 “늙은이”가 이동해야 한다. 한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스무 살 안팎이란다! 새 주교는 그가 어린이 성가대였을 때 알았던 사람이다!

내 본당 교우들이 이제 나를 알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들을 알기 시작했다. 적어도 성당에 나오는 교우들은 말이다. 냉담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물질적인 이유로 영세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기에 이제는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까지 받고서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나간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또 걸리는구나! 자기들의 신학이나 겨우 아는 작은 목사들은 한국말을 잘 하고, 그들에게는 생활이 걸린 문제이니까(여기는 실업난이 심하고 그래서 한 마을에서 십여 가구만 확보하면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종종 우리에게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다. 너희에게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내 성당 근처에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2개나 있다... 그들은 매일 새벽 4시 30분과 저녁 9시에 노래를 부르고 주일이면 그 횃수가 더 잦으니 정말 화가 난다! 너처럼 에멩(Hesdin)의 수도원장 신부가 내게 우울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소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써보라며 장문의 답장을 써 보냈다.

운전면허를 얻었다니 장하다! 그리고 수녀원 원장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그것도 주님의 섭리에 의한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곤란들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으니 장하다! 나는 하느님의 섭리와 도움으로 수녀원을 하나 창설해서 거기에 약 200명의 수녀들이 있지만 여기 내 곁에는 단 한 명도 없구나! 하다 못해 제의실 봉사라도 잘 해주련만. 그러나 내가 수녀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 감히 수녀를 요청할 수도 없구나. 하지만 내게는 아주 넓은 전답이 있다. 우리 집 주인보다 더 넓은 전답을 갖고 있어서 굉장한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러나 매입해놓은 그 부지는 미래의 성당을 위한 것이

다. 그 땅에 농사라도 좀 지어서 돈을 만들어보고 싶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 와 땅을 조금씩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고 공연히 미움만 사고 냉담자나 만들어낼까 겁난다. 지난달엔 꽃이며, 나무, 감자, 콩, 토마토 등 적지 않게 심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싹이 트지를 않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내리고 날씨도 춥다.

작년 이맘때쯤엔 폐낭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피정을 지도했던 생각이 난다.... 아래에 내 집을 그려 보았다. 내 방은 위층에 두었다. 그래서 여름에 바람은 잘 통하지만 모기가 어찌나 많은지 요 며칠 동안 창문과 문마다 돌아가면서 방충망을 설치했다.

안녕하며, 너의 편지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조카들이 놀러오면 그들에게도 나의 안부를 전해다 오.

피에르

1965년 9월 9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네가 지난 8월 27일에 부친 편지를 아주 반갑게 받아 보았다. 한 공동체의 어머니로서의 걱정, 학교 교장으로서의 걱정, 수녀원 총장으로서의 걱정, 모든 일의 사정을 환히 알아야 하는 걱정 등등, 매일 같이 산더미 같은 걱정에 싸여 있으니 심심할 겨를이 없겠구나. 나는 그 모든 근심거리들을 끝까지 지니고 애쓰며 또 그렇게 해내는 너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본단다. 장하다!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예전에는 나 역시 엄청나게 근심거리들이 있었건만 이제는 반대로 근심거리가 없어서 불만이구나! 정말이지 이 본당에서는 본당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교우가 적고 꽤나 먼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서 주일 예나 오고 또 다수의 교우들을 일 년에 두 번 가정방문 때만 보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교리를 가르치도록 외교인들에게 나를 데리고 가 주는 수녀도 없고 회장도 없으니 별 뽕족한 수가 없다.

8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나는 신학생 4명과 함께 25명의 어린이들에게 교리 교실을 했다. 내년에는 시간을 좀 늦추어서 시간이 일러 올해는 오지 못한 먼 곳에 사는 아이들도 오도록 강경히 요구해야겠다. 성탄 때부터는 냉담자들을 권고하고 예비자들을 데려오며 또 내 농사를 지어줄 유급 회장과 복사를 겸할 기사를 한 명 채용할 예정인데 어디서 그런 보배를 찾아낼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임지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한국 주교인 황 주교께서 회의 차 어제 떠나면서 발령장 많이 이동시킬 의향을 갖고 있는 듯한데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만일 임지 이동이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북쪽에서 온 사제들이(당연히 그들은 우리 교구 출신이 아니지)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겠지!

음력 8월 보름이었던 어제(프랑스의 고인들을 위한 축일과 버금가는) 이곳은 큰 명절이었다. 이 날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받고 그 옷을 새해 명절 때까지 입게 된다. 모두들 집에서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이 날뿐이란다. 어디나 휴무를 하고. 많은 이들이 산으로 가서 조상묘 앞에 햅쌀밥을 바친다. 마치 우리네가 꽃단지를 가져가듯 말이다. 이러한 풍속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날 아침 이곳에서는 본당의 고인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렸다. 주일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왔는지 나 자신도 놀랐다. 그 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라 버스나 기차의 좌석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들 고향을 찾아 하루 이틀을 지내고 간다.

서울에서는 요즘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다. 국회가 길고도 벽찬 회기를 마치고 결국, 1910년 조약을 맺고 한국을 점령했던 일본과 우정의 조약을 맺는데 서명을 한 것이다. 이 협정은 일부 국민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특히 야당과 학생들에게는 그랬다. 총 170여 명의 국회의원 중 60명이 반대하고 110명이 정부의 결정에 찬성을 표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다수의 찬성 앞에서 그들의 반대 의견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모두 사임했고 그래서 국회에는 110명의 의원만 남았다. 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대학교 문을 완전히 닫았다.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단다. 그럴 가치도 없지만 너에게 기도를 청한다. 게다가 이 오빠를 위해서 네가 바치는 기도들, 그 기도에 대해서 너에게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임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그는 이 본당의 약사인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또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돕기는커녕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인 사제의 누이인 어느 여교수와 결혼을 했지. 그는 프로테스탄트인지라 여자를 얻기 위해서 소위 개종을 하였고 영세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고 특히 견진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배운 여자라 다른 한국 여자들처럼 자신이 종처럼 취급받는 것이 싫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다... 어쨌면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약간은 자부심을 가졌던 모양이다. 어쨌든 가정생활은 평탄치 않았고 불화가 있었고 폭력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다 열심한 프로테스탄트였던 베드로의 어머니(시어머니)가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으니 말이다. 베드로는 한 번도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아내와 맞서느라고 교회를 반박하고 우울함에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니 이곳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천주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의 처가 그 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마들렌느(그의 아내 세레명이다)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그녀가 이곳에서 살기에는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너무 배웠다는 것뿐이다... 너에게 이 가정을 부탁한다. 만일 그들이 열심해지고 좋은 표양을 보인다면 그들이 이곳에서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시어머니도 개종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게 되겠지.

이 휴가철 끝 무렵에 폴과 그의 식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자끄 형과 주느비에브 형수님, 도쿄에 있는 테레즈, 누이들, 마들렌느 누님까지, 어쨌든 모두들 항상 잘 결합하고 대체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는가 보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마리 끌레르만이 언제나 그 모두에게서, 그 모든 것에서 동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며 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나!

주일인 내일의 계획은 이렇다. 별로 바쁘지는 않고 6시 30분에 첫 미사와 강론, 약 30명이 미사에 참석하겠지. 10시에 두 번째 미사와 강론, 약 200명이 참석할 것이며 그때에는 성가를 좀 불러야겠지. 저녁 8시에 묵주기도와 저녁기도, 약 40명이 참석할 것이다. 아이들 떼이 놀러 오겠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늘 혼자란다. 책을 좀 읽으려고 해보지만 어디 그게 사는 거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논산에서처럼 예비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방문하며 장례미사와 혼배성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인데 아무 것도 없단다. 혼인도 없고 장례도 없고 그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하다.

올해의 이곳 주민의 농사는 아주 흉작이다. 연초에 가뭄이 극심해서 모심기도 나뻐는데 거기에 홍수가 나고 태풍에 태풍이 연달아 이어진데다가 해충까지 겹쳐 작물이 병들어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할 말이 생긴 셈이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배를 굶기 시작한 그들이 끄떡이나 하기는커녕 올해에는 한 술 더 떠서 코방귀만 뀌고 있단다. 가난한 나라가 있는 법이지만 종종 이 가난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요소나 사건들이 있는 것 같다. 십여 가지의 기계 일을 하려면 경운기를 다루는 것을 배워야 할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든 도움이 되겠지. 그래도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탄할 것이 없는 셈이다.

두서없는 이 편지를 이만 마쳐야겠다. 지금껏 건강은 아주 좋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나는 잘 먹고 잘 잔다. 어제는 여기서 겨우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느 다방에 쳐들어가 말싸움을 벌이다 유리창을 모두 부수었다는데도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잤으니 말이다!

안녕하며, 용기를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고맙다.

피에르

1965년 12월 10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성탄을 앞두고 모든 본당 사제들은 너무 바쁘니까,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오늘부터 너

에게 편지를 적어 나의 형제적 사랑을 전하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의 인사를 전하려 한다. 이번 성탄 축일이 너와 너의 공동체에 영적으로나 건강에 유익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에서 다시 활기차게 재출발하려면 때로 며칠 동안의 휴식이나, 만남, 용서, 좋은 결의가 필요하다. 내가 건강하기를, 또 너희 공동체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너희 가족 모두에게 나의 추억과 존경과 기원을 바친다. 학교는 잘 되어 가는지? 이제 네가 학교로 인해 걱정을 갖게 되었구나. 나도 지난 15년 동안 논산의 학교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지. 그 학교에는 다 큰 사내아이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고 30여 명이나 되는 교사들이 있었지. 그들은 모두 한 집안의 가장들이었고 말이다! 이제 내게 학교가 없으니 정말이지 짐이 훨씬 가벼워졌다.

정말이지 여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살림하는 것만 빼고는 말이다!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잘 자고 잘 먹는다. 사제로서의 일도 논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교우들이 빗나간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예비자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그들은 너무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지. 농사도 잘 되어서 새 성전 건립을 위해 이익을 좀 보기도 했는데, 휴! 언젠가 또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해야 할 텐데. 나는 내 차로 가끔 외출도 하고 중부성사를 주러 가기도 한다. 살림은 마땅한 식복사를 찾기가 어렵다. 있던 식복사를 두 번이나 내보내야 했고 세 번째 식복사가 조만간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다행히 한 엘리사벳이라는 45세의 동정녀 회장이 내 살림을 해주는 데... 어쩌면 그녀가 너무 식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식복사가 나갔는지도 모르지.

한국 신문을 보니까 드골이 재투표를 하게 생겼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와 공산당과 연합한 미테랑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기권이란 것이 이럴 때 있나 보다. 양심상의 비극이랄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라고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러시아 측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드골은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표를 얻을 만도 할 텐데 그들이 등을 돌리니! 원래 그들은 공산당이 아닌 정권에는 늘 반대를 하니까. 또한 오늘 신문에서 교황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과문을 풀어 주었다는 소식을 보았는데, 이 소식은 그야말로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지.

공의회가 끝났다. 2000년 이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분위기나 경쟁심 없이 또 평신도의 힘이 비하되지도 않은 채 전 세계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롭게 끝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들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징계하지 않고 대신 서로 모이고 평화를 조성하려고 애썼으며 모두를 위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익을 찾으려고 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는 분명 전 세기의 가장 위대한 공의회로 남을 것이며, 오랫동안 그 결과를 살게 될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 갈 젊은이들은 복이 많구나.

올 성탄을 위해서는 천주교에 관한 8쪽 분량의 소책자를 인쇄하여 우리 4면(面)의 모든 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성서에 나오는 종들처럼 나는 그들을 잔치에 초대할 것이니 그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자기네들을 초대할 적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에맹 본당에서 전교 주일에 헌금을 해서 보내 준 돈으로 만들 것이다. 1쪽에는 우리 성당 사진과 소개의 글을 넣고, 2쪽에는 그리스도 성상과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간략한 설명을 넣고, 3쪽에는 교황의 사진과 그분에 대한 설명, 4쪽에는 한국 주교의 사진과 그분과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 5쪽에는 내 사진과 사제에 대한 설명, 6쪽에는 몇몇 중요한 권고의 글, 7쪽과 8쪽에는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넣을 것이다.

내 교우 수가 너무 적고 너무 분산되어 있으며 너무 가난해서 여기는 죽은 곳 같다. 예비자들을 구해야지 아니면 전출자들 때문에 난 영양실조로 죽게 될 거야. 게다가 이곳에 있는 4개 교회(외교인들 눈에는 내 성당까지 합해서 교회가 다섯이라고 하겠지)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도 내 쪽에서 응수를 해야지. 그들은 분명히 가톨릭이 겁나니까 성모 마리아를 흠송한다는 등, 사제가 독신이라는 등 틈만 있으면 우리를 헐뜯는다.

가족으로부터는 꼬박꼬박 편지를 받고 있어서 언제나 반갑다. 너는 마리 끌레르에게서 소식을 받니? 내게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그 아이야말로 무거운 십자가요 밖으로 말이 나갈까 겁난다.

요새 모두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에맹의 마리아에게까지. 가을 공소방문은 다 치렀고 이제 교우 영적 노트만 작성해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성탄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안녕, 내가 사랑하는 마르고똥, 잘 지내고 공로도 많이 닦고 이 오빠를 위해 언제나 기도 많이 해다오... 내가 말한 약사는 여전히 냉담 중이고 그의 처와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더 많은 기도를 해다오.

피에르

1966년 9월 2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며칠 전에 너의 8월 2일자 편지를 받았다. 고맙다. 이제 내가 답장을 할 차례이구나. 너는 비로 인해 여름을 망쳤다고 했는데 여기는 7월 한 달이 잘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날씨가 무척이나 더울 때인데 올해엔 잘 견딜만 했고 며칠은 약간은 선선한 날도 있었다. 7월의 굵은 빗줄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더니 8월 들어서, 맑소사, 째통 더위라니! 심지어 나이든 사람들은 병까지 얻었다. 나는 이런 날씨에 오륙십 명의 아이들에게 영사기를 보여 주며 매일 교리를 가르쳤단다. 23일에는 차를 한 대 빌려서 모두 바다로 나갔는데, 나는 거기서 햇볕에 탄 바람에 며칠 후엔 목이며 팔, 다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아직 장딴지엔 화상이 남았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너의 편지를 읽으니 너는 활동이 많아서 심심하지는 않겠더구나. 공동체 생활에 학교 교장,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짐을 지고 정원이며 자동차, 아이들 여름 교실 등등. 게다가 여기서 회기를 치르라 저기서 회합을 가지라 또 피정까지(피정이 나왔으니 말이지 피정 지도는 네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그것까지 했다간 이 오빠는 너에게 압도당해서 꼼짝도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너의 수녀원 가족에 무관심하지 않아서 식구 모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어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성공을 모두 알아주는구나. 장하다. 네가 부럽다. 나는 선교사 삶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 편지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볼 기회가 이제는 없단다. 나의 선교사 삶은 예전의 선교사 삶과는 많이 다르지만 ‘선교’가 모든 것이니,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옛날의 위대한 선교사들만큼이나 공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삶이 젊은이들에게 그리 바람을 넣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인 주교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는 뒷전을 차지하고 있지. 인간적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영혼들이나 성체는 초성적으로는 다 똑같기에 하는 말이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6일, 주교가 계시는 시내에서 있을 세미나에 초대되었다. 프로그램을 보니 강연이 두 개 있더라. 하나는 주교가 사제와 공의회에 관해 강연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옛 신학생이며 논산 본당 후임자가 평신도 사제직에 관해 강연할 것이다... 스승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학생들이 되었구나. 순명으로 그리고 좋은 표양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내키질 않는다.

요즘 내 본당을 위해 수녀 두 명을 청하였더니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수녀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기에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녀들이 있으면 예비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올해 나 혼자 벌써 30명의 성인 영세자를 얻었다. 우리의 주교가 원하는 것은 감동적인 영세자 수이며, 그들이 열심한 이들이든 아니든 교리를 잘 배웠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의 은총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늘 천천히 가는 사람이 확실하게 간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곳의 부지는 약 1헥타르나 되는 꽤 넓은 땅인데, 올 겨울부터는 거기에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들었다... 걱정도 너무 많고 식복사 아줌마가 매일 일꾼들 밥 해주라 감독하라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니 일이 많다. 땅을 빌려 줄 예정이다. 그러면 소득은 훨씬 줄겠지만 나는 훨씬 자유로워지겠지.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는 꽤 곤란을 겪을텐데. 미사 봉헌도 없고 주일 헌금도 고작 신프랑으로 5프랑 정도며, 가끔가다 10프랑이나 될까! 게다가 연말에 교구 납부금도 그만큼이나 되니, 맑소사. 네가 미사를 받아서 내게 보내준다면 고맙겠다. 단 예물 액수가 너무 작은 것은 말고.

내 건강은 최고이니 그 점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자서 이제는 그것이 큰 결

점이 되었구나. 힘은 쓰지 않고 아주 게을러졌단다.

최근에 내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배운 가정 출신의 한 수녀가 수녀원에서 돌아 왔다. 그녀는 약간 히스테릭해지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이는 큰 불행이다. 열심히 열성적이고 신중했던 그녀였는데... 수녀 생활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나이 많은 수녀들 곁에서, 능력이 거의 없는 원장 수녀 밑에 있다 보니...). 그녀는 수녀복을 입고 돌아와서는 오로지 다시 돌아갈 생각만 하니, 내가 그녀에게 이제 끝났다고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나는 수녀원에 편지를 써서 교회법상 병은 수녀를 돌려보낼 사유가 되지 않으며(서원 3년차이므로) 또 3번의 계고도 알리지 않았노라고 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는 답장이 없다.

자, 이만 안녕하자. 잘 지내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수련자들을 아베 그레구아르(Abb?Gr?oire) 거리로 보내려무나! 힘껏 포옹하며,

피에르

1966년 11월 24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너에게 편지를 띄운 지도 까마득하니 너는 투덜투덜 하겠지. 그래도 너는 한 다발이나 되는 긴 편지를 보내주어서 잘 받았다. 그나마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오는 바람에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탄 무렵에는 잡다한 일들로 분주할 것이고 또 추위가 나를 경직시킬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앞당겨 오늘 새해 인사를 쓰는 편이 낫겠구나. 즐거운 성탄과 복되고 거룩한 1967년이 되기를 기원하마.

아,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아득한지! 이제 우리는 모두 전 세계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만날 기대도 쉽사리 갖지 못하는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을 지니지 못했다면, 만일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결합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면 이걸 슬픈 일이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희망을 지녔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잖니. 리제뜨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더구나. “우리가 콩테뜨(Condette)에 가 보았더니 마르그리뜨 언니가 직접 자동차 핸들을 잡고 대장처럼 척척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야! 언니가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직접 봐야 해. 신학기 때 아이들이 모두 108명인데 내년 부활절 때 더 들어올 거래.” 봤지, 나도 소식을 다 전해 듣는다. 어쨌든 네가 장하다.

이곳에 있는 나는 무리 없이 내 작은 소임을 맡아 하고 있다. 올해 외교인 50명 정도를(교우 자녀들은 제외하고) 영세시키려고 희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100명은 영세시키려고 한다. 이제서야 수녀들이 생기고 보니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요즘에 수녀들을 위해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지난 16일에 찍은 사진을 너에게 보낸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우리 수녀원에서 온 수녀들인데, 아직 별다른 소임은 갖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맡은 일은 오로지 본당 구역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예비자들을 교육시키고 냉담자들과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외교인들을 권고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임종자에게 대세를 베푸는 것이다(오늘도 두 명에게 대세를 베풀었다). 그 수녀들은 물론 본당의 제의실과 어린이 교리반도 맡았다. 수녀원은 3주만에 지어졌고 공사비는 7,500프랑이 들었는데 공사비의 대부분은 아빠,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에맹(Hesdin)에서 온 것이고 거기에는 물론 수도원장 신부의 고마우신 말씀이 도움이 된 것이다.

에맹에서는 앙리 랑드리외(Henri LANDRIEU)가 시장이 되었다고!

본당에서는 수도원장 신부만이 유일하게 내게 자주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분도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 나도 내 걱정이 있다. 한국인 주교님 밑에 있게 된 우리의 새로운 처지는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집처럼 여겼던 주교관에 이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질 않게 되었다. 주교님은 당연히 한국인 사제들을 언제나 감싸는데, 어떤 사제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우리 같으면 감히 절대로 맡기지 않을 큰 직무를 그래도 그들에게 맡기니 우리는 옛날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버렸고, 그러니 뭘 하겠니? 사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선교사들을 현지인

재량 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선교사들의 영역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독립된 영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교만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한마디로 팔을 잘라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토요일에는 젊은이처럼 7곳의 공소를 치르러 다시 떠난다. 올해부터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새로 바뀐 전례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교우들도 점차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으니 잘 진행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것만 해도 그렇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심지어 수도원장 신부님도, 많은 곳에서 서로 경쟁하며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내게 말하더구나. 우리보다 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평만 일삼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처지가 정말이지 난감하다. 이제 그 위신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자문해 본다. 젊은 시절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아니면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도 든다! 내가 너무 심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로 이곳에 철도가 놓여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홍산에도 기차역이 생기는구나! 한국의 정치는 꽤 고무적이고 교각, 공장들을 건설하며 사방에 철도를 놓는 등 현재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역력히 느껴진다. 한국은 오랜 적수인 일본에 비해 극도로 처져 있다는 체면문제로 자극을 받고 있다.

성탄 전야 미사나 부활 미사 전에 뭔가 재미있는 것을 꾸며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혹시 네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니? 내게 좀 알려다오. 다시 한 번 나의 기원을 전하며 또 너를 위해 기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힘찬 포용으로 안녕해야 하겠다. 나는 매주 수요일 미사 때면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피에르

1967년 7월 12일

마르그리뜨에게

요즘 너는 휴가 중이겠구나, 아니 어쩌면 거꾸로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작년에 있었던 가스 폭발 이후로(파리 크르와 잡지에서 읽었다) 조심하고 사고를 겪은 수녀들 모두가 불편함을 딛고 회복되었기를 바란다. 그 모든 일들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걱정은 말아라. 이제 너는 모든 회합이며 세미나, 강연, 피정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다 보니 그 모든 사정에 환하겠구나. 오, 너는 현대 교회의 딸이며 현대 프랑스의 딸이로다! 너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이고 이제는 현재 용어의 사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늙은이다.

지난 6월 29일, 내 영명 축일에 홍산 교우들이 성의껏 축하를 해주었다. 저녁 미사 때(4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체를 모신 후 조출한 감사의 말과 선물 증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부모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19가지의 춤과 노래와 찬구를 내게 선물했다. 교우들은 동료 사제 6명의 식사를 위해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제대 뒤쪽, 십자가 밑에 드리울 초록색 휘장을 비롯하여 담배, 초, 바지 두 벌, 라이터 등을 선물했다. 잔치 끝 무렵에 내가 모두에게 과자를 조금씩 선물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써 교우들에게 서로 모여 가족처럼 지내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수녀들이었다.

올해 우리 주교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한국인 성직자와 함께 피정을 했다. 그래서 피정을 완전히 망쳤다. 우선 피정이 3일간이라 너무 짧았고, 한국말로 한 주교의 강론은 우리를 졸리게 만들었으며 침묵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품 기념일이 피정 기간에 끼는 바람에 또 하루의 오후를 휴가로 지내는 등... 저녁에는 한 시간 토론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나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처음으로 성무일도, 묵주기도, 미사 등을 같이 바쳤다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니, 그 나머지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해주시겠지...

때로 우리는 돈 걱정 없이(총장은 예외겠지만) 평수사 혹은 평수녀로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꿈꾼다. 그런데 방금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고 너에게 옮겨본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는

냐” 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거기에서 베드로의 권한, 교황의 권한의 의미만을 보았는데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보상은 양떼들, 군중들 가운데로 가는 것이며 그것이 곧 사도직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현존으로써, 사랑의 증거로써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래서 너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상아탑이 아니라는 것이지!

봄에 그토록 고생시켰던 다리는(류머티즘이었던가?) 요즘은 잠잠해졌지만 어느 날 분명히 또 다시 오겠지. 아마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허리 때문에 또렝(Thorenc)에 있는 의사가 절대로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에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있다. 솔랑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너는 사진을 보았는지?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 소르본느 대학생인 오딜르는 스카우트팀들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한단다! 작년에는 터어키와 팔레스타인에 갔다오더니.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놀랍지!

여기서는 공식적인 여름 휴가가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이다). 내일이면 나의 네 명의 신학생들이 내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본당 어린이들 차례가 되겠지. 삼복 더위일지라도 교리반은 해야 할 것이고, 나는 거기서 빠져도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이 제 시간에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게다가 아이들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반씩 나누어 번갈아 오진반, 오후반으로 수업을 하니 나로서는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다.

성모승천 대축일에는 몇 명이라도 영세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해는 백여 명에 이르러 되겠지. 그런데 훌륭한 교우들을 만드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주임 신부의 열의가 부족한데 교우들은 생활고에 푹 젖어 있어서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로서는 꽤 어려운가 보더구나. 종종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맨 먼저 섬겨야 할 분이 아니라 두 번째이며, 급한 일, 집에 찾아오는 손님, 사장의 명령, 선생의 명령, 윗사람의 명령이 하느님의 명령보다 우선이다. 내가 그토록 얘기를 해도 그들은 순명할 줄도, 자기들의 믿음을 방어할 줄도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하느냐 하면 요즘 농사일이 한창인 시기라 많은 교우들이 미사를 쫓고 있거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자, 이만 안녕하자.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빈다. 너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너를 포옹하며 이만 헤어지자.

피에르

1968년 1월 15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간단히 한 마디만 적는다. 방금 파리에서 신프랑으로 100프랑을 받았는데, 너는 대답하게도 그 큰 돈을 보내 주었구나. 고맙다는 말을 즉시, 꼭 전해야겠기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토록 도와주고 사랑해주니 마음이 훈훈하다. 요즘 나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계속 되어서인지…. 독감이 오려는 징조인지…. 요즘 허리 통증이 좀 재발해서인지…. 겨울 방학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녹이느라 십여 명의 아이들이 내 방에서 보내서인지.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내 작은 본당이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성탄 때 30명의 영세자가 나왔으니 부활 때도 또 그만큼만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우리 한국인 주교는 교구를 분할하여 최고 연장자에게 맡기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하나를 맡기고 게다가 나를 주교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했다. 한 달에 한 번 주교관에 가야 하는데 여행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데, 내 생각에 우리 선교사들은 항상 깨끗하지만은 않은 고문단의 그 모든 음모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야 하며 더욱이 고문이 10명이나 되니 비밀이 보장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모두 한국인 8명에 프랑스인 2명 그리고 주교가 있다.

올해 총회 때에는 우리 선교사들의 입지가 투명해질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현지인 성직자 가운데 있으나 두서너 본당 내에 서너 명의 선교사가 있는 것이 현재 보다 훨씬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여러 명이 너무 떨어져 있게 되니까.

신년 휴가를 잘 보내고 이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겠지. 나는 이곳에서 수호천사에 대해 말할 때면 종종 너에 관해 말한다. 네가 트뤼블랭 트럭에 치었을 때 너는 아무 데도 다친 곳이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났잖니! 기억나니?

너의 오빠이며 대부가 뺨 인사를 전하며,  
피에르

1968년 10월 2일, 홍산

마르그리뜨에게

존경하올 원장 수녀님이신... 사랑하는 동생 마르고똥아! 어떻게 지내니? 너에게서 편지를 못 받은 지가 영원한 시간이나 되는 것 같구나! 분명 동료 수녀들과 또 조무래기들과 지내느라 무척이나 바쁜 모양이지? 나도 그렇단다! 건강은? 너도 나처럼 늙기 시작하고 세월의 무게를 느끼겠지...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이 아니란다. 나는 58살이고 너는 54살이구나! 로드리게가 그걸 알았겠니, 시멘느(19)가 그걸 믿었겠니? 집에서 같이 장난하고 셴느(Chene)의 노트르담에도 가고 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그런데 셴느(20)에는 떡갈나무도 없었지...

나는 별로 잘 지내지를 못하고 있다. 비타민 B와 C가 결핍되어 장애 탈이 일어나는 스프루라고 불리는 일종의 괴혈병에 걸려서 매일 아침 설사를 쏟는단다... 그래도 나는 잘 자고 잘 먹지만 종종 피곤을 느낀다.

최근에 특별히 바쁘게 보냈다. 우선, 교구 내의 전 수녀들을 위한 모임을 열어야 하는 책임을 맡았기에 (모임 자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피곤하다) 8월 6, 7, 8일 삼복 더위 중에 치렀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피정 지도를 맡아서 8월 18부터 24일까지 22회의 강론을 해야 했다! 그리고는 9월 13일에 있는 견진성사를 위해 191명의 견진자들을 준비시켰고(노인들이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누구신지 설명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올해는 140명이 넘는 영세자를 얻었다!)... 지금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공소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걱정이 많다. 양쪽을 맞출 수가 없구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야.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미사봉헌은 없고 내 생활비와 식복사, 그녀를 보조하는 사람의 생활비는 물론 수녀들과 기타 잡비 지출은 들어가야 하고... 이 문제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시작한 (젊은 시절에 낡은) 서울의 성가회 수녀들이 오는 1월 10일이면 창설 25주년을 맞이하기에 (미사와 식사, 강연 등이 있을 것이다), 내가 총장 수녀에게 편지를 써서 테레즈가 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구나.

교구 수녀들의 모임 때문인데, 본당 사목 수녀들을 위한 연구서적들을 내가 좀 추천해 주겠니? 여기서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은 교육자 수녀나 병원 사목 수녀들보다는 그쪽이 훨씬 낫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국제 회의 보고서 정도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가족 모두로부터 여전히 편지를 잘 받고 있다. 마들레느와 르네는 오딜르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자끄와 주느비에브 부부는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드디어 아이들이 모두 취직을 하게 되어 한숨 놓게 되었다. 꼭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들은 아니지만 어찌겠니. 폴의 대식구는 영국으로 갔는데, 내 생각에 그는 가족들을 신식으로 꾸미고 품어주는 진정한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최고로 잘 한 것 같다. 안느와 리제뜨는 그 큰 파리에서 용감하게 어려움들과 맞서 지낸다. 오직 너에 장애를 가진 마리 끌레르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니 나는 차라리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아이를 보느니 죽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 아이에게 선종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빈다!

오늘 여기는 일년 중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이다. 여기서는 매달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닷새마다 장이 선다. 오늘은 추석 전,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 전 마지막 장날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그 날(위령의 날) 조상의 묘를 찾아가 햅쌀로 지은 밥 한 공기를 조상들에게 바친다. 그 기회에 가

죽들은 서로 모여 호식도 하고 새 옷을 입는다. 그 자체로 훌륭한 이 명절을 그리스도교화 하기 위해서 나는 교우들에게 성묘를 하라고 권했고 10시에는 죽은 이들을 위한 대 위령미사를 드릴 것이다.

오는 부활 시기에 올리비에 페이에(Oliver TELLIER) 신부는 프랑스로 휴가를 떠날 것이다. 이제 우리 휴가는 더 가까워진 대신 짧아졌다... 8년마다 갖던 휴가가 6년으로 당겨진 반면 6달 휴가는 5달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나는 1970년에 프랑스로 갈 수 있겠지.

방금 거지 세 명이 내가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 방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며, 그것도 상당한 액수를 달라며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그사이에 가버렸다! 이곳의 걸인들은 나쁜 족속들이다. 그들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돈을 쥐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단다... 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수가 많더라도 모두 돈을 주지만 그들이 나를 알잡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네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가혹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 같이 보이겠지만 너도 그들을 꺾어 본다면... 여기 수녀들은 아주 질색을 하거든.

너는 모든 전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우리는 4개의 미사 전문 아니, 4개의 성찬식을 갖게 되었다. 너희 사제는 그 리듬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교우들은 책도 필요없게 되었고 그저 듣기만 하면 되니 개인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 가정마다 성서를 구입해서 가정에서 성서 읽기를 절대적으로 권해야만 할 것이다. 예전의 모든 기도서들이 빠졌으면서도 대체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

10월 6일에 로마에서 24명의 한국 복자 시복식이 있다는 것을 너도 물론 알겠지. 그중에 7명의 파리의 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미앵 출신의 다블뤼 주교는 일을 가장 많이 한 분이시다... 베르뇌 주교, 그분은 두 번이나 순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안남에서 순교하실 때에는 프랑스 선박 덕분에 살아났지만 한국에서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여기서는 교구 사제 3명을 비롯한 132명의 한국인을 태우고 특별기가 떠났다. 그들이 우리가 갖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시련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늙었다는 이러한 느낌, 구세대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힘겹다. 이 젊은 이들은 자기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고 있으니... 그들이 한데 뭉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 소쿠리의 너절한 녀석들! 선교지에, 내 몸을 묻을 의향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양로원으로 물러나야지. 나는 아비뇽 근처의 로리(Lauris)나 툴루즈 근처의 몽베평(Montvetton)으로 가야지.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다. 모든 일에서 복을 기원하며 오는 10월 17일, 마르그리뜨 성녀 축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피에르

1969년 1월 1일, 사제관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

마르그리뜨에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게 꿈만 같으니 행복하다는 말은 새삼 할 필요도 없겠지. 태양은 빛나고 창 밖으로는 온통 흰 눈으로 덮인 산들이 보이고 한 쪽엔 산 밑에 있는 초가 지붕의 초라한 집들이 또 다른 쪽으로는 가난한 집 사이에 있는 가난한 성당이 보여 아이들은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며 노는데, 아이들은 웬만큼 건강해 보인다. 우리가 좀 조용한 시간을 갖으면서 편지도 쓰느라고 피에르 오빠가 아이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거든.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서재와 방에 한가득 들어와 바닥에 조용히 앉아 놀기도 하고 몸도 녹이고 한다. 오빠는 아이들의 친한 친구야. 심지어 아이들이 우리 식사 때에도 같이 앉아 식사를 했는데, 내가 세어보니 35명이나 되더군!... 나는 깜짝 놀랐지만 피에르 오빠는 그냥 놔두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게 먹는 법도 배워야 하고 또 밥과 김치 말고도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릎이 헤진 바지나 껌맨 속바지를 입고 있

으니 양말은 말할 것도 없이 입을 벌린 채 도대체 무슨 색깔의 양말인지 모를 정도야.

내 비행기 여행은 경이로워서 2시간만에 끝났어. 일본을 출발하니 태양이 빛나는 구름 바다 위로 후지산 홀로 불쑥 모습을 드러내더니 도착할 즈음엔 대륙 위로 구름은 걷히고 한국 땅이 마치 입체 카드처럼 아름답게 눈에 들어왔다. 비행장에는 피에르 오빠와 작은 꽃다발을 든 총장 수녀를 비롯한 4명의 수녀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나는 당나귀처럼 짐을 잔뜩 들고 어깨에 걸치고 수건은 거의 벗겨진 채... 저녁에 우리는 수녀원으로 자리 갔는데 수녀들이 저녁 식사 후에 28명의 지원자들과 14명의 청원자 16명의 노비스와 원장 수녀와 23명의 수녀들이 환영식을 준비해 놓았어. 수녀원 건물은 이제 막 완공되어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수녀들이 최근에 입주한 상태이다. 수녀들은 개방적이고 열심히 보였으며 현재 서원 수녀가 186명에 임지는 25개를 갖고 있단다. 작년에는 2명의 수녀를 벨기에에 보내 프랑스어를 배우게 했다고... 그 얘기는 나중에 편지로 써보낼게.

이곳 홍산에서 지난 주일에는 교우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열심히며 아이들이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어제 12월 31일에는 캄캄한 밤중에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에 왔으니, 상상이나 되는지. 오빠는 한 달에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교우들에게 6개의 상을 주었다. 오빠는 파리에 있을 때 처럼 회복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채 이곳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이며 신학생이 5명이나 된다 (대신학교 4명에 소신학교 1명). 사제관도 잘 지어졌고 물건들이나 서재는 폴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오빠는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나를 맞을 준비를 해 놓았어.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가난한 생활이 보이기에 약간은 부르주아적인 내 생활이 부끄러울 정도야. 가장 힘든 건 집 안에 물이 부족한 것과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가려면 추운 밖으로 나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데 나야 8일간만 견디면 되지만 오빠는 평생을 그래야 하니! 성당의 성합과 성작은 털옷을 입혀 놓았을 정도이니 상상을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금방 얼어버릴 테니까.

오빠는 바뀐 전례 양식을 신속히 따르고 있어서 교우들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지 배웠다기보다는 핏속에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미사 봉헌을 보내 주어서 오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미사 봉헌을 전혀 하지 않거든. 나는 학년 말이어서 학생들로부터 잔뜩 받은 것도 있고, 게다가 자비의 클럽으로부터 받은 것과 또 총장 수녀님이 제한된 무게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게 일의 편리를 보아주시고 또 내가 청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셔서... 가져온 것들을 모두 나누어주니 좋아할 하고, 내가 손이 열 개였다면 좋았으련만...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는데, 요즘 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야, 일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서 성 아돌프 약전도 써야 하고 순명으로 위임된 임무를 위해 일도 해야 하고... 11일에 돌아가면 12일에는 위원단 회의가 있고 그리고 15일간 방학이 있고 그런 다음에야 일부가 끝나겠지만, 그것도 내 바람이고... 게다가 12월 결산과 6개월간의 파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어쨌든 하루의 수고는 그 날로 족한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1969년이 복되고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을 잊었네. 모든 일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며 너무 무리는 하지 않기를... 오빠와 나는 마리와 오딜에게 간단히 몇 자 적어서 보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저기 앉아서 착한 학생처럼 편지를 쓰고 있다. 논산을 들러 오면서 오빠가 지은 멋진 성당과 학교를 보았는데, 어찌나 아름다운 작업이었는지. 성당은 크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자리 잡았고, 종탑은 어찌나 많은지 상상도 못할 걸. 그런데 그 종탑의 3/4은 프로테스탄트들의 것인데 여기만 해도 오빠의 성당 하나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다섯이지만 오빠 혼자 교우가 다섯을 모두 모은 것보다 더 많아. 어제 저녁에는 어느 목사의 아들이 여기에 왔어...

끝이야, 다시 한 번 복된 새해와 많은 용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칠게. 다음 번 우리의 편지는 언제가 될지?

테레즈가

마르그리뜨에게!

이 장문의 편지이다, 조금 남은 여백에 무엇을 덧붙일까마는! 우선 너와 너의 공동체와 너의 일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너의 긴 편지와 또 보내준 책들에 감사하며, 잘 받은 책들은 분명히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10대의 미사 봉헌금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나는 테레즈와 함께 있으면서 편지도 쓰고 얘기도 나누고(특히 테레즈가 말을 하지만) 구경도 시켜주면서 만족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둘 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크나큰 은총으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식구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다. 애석하게도 요즘은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라서 테레즈가 고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요즘 한국의 기후는 시베리아 대륙성 기후인데 일본은 언제나 해양성 기후이거든. 하지만 테레즈에게는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겠지... 일본인들은 훨씬 다듬어져 있고 보다 예식적이며 보다 문명화되었고 보다 양칼진 반면 한국인들은 훨씬 촌스럽고 훨씬 솔직하고 훨씬 자연스럽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 아, 네가 우리와 함께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 법이니 그것을 희생으로 바쳐야 하겠지.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주일 헌금 때에 아이들은(돈이 없는 아이들은) 희생 쪽지를 넣도록 했단다. 물론 그것이 더 가치가 있지!

피에르

1969년 12월 1일, 서울

복되고 거룩한 새해를 기원하며 당신께 존경과 감사의 기억을 전하오니 받아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동료 수녀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연말에 저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크나큰 어려움 속에서 본당 사제로 지내오다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성가회 수녀원 지도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몇 배의 몫”으로 일을 해야 하며 오늘날 참으로 힘겨운 임무를 띠고 있는 “사도들”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수녀원은 저에게 낯선 곳이 아니며, 26년 전 한창 전쟁 중에 이 수녀원을 창설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본당 주임이었던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갈망하는 젊은 여자 몇 명을 모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씨앗이 자라나서 오늘날 수녀들은 약 200명에 이르고 거기에 50명의 수련자, 청원자, 지원자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녀원에서는 현재 5개의 병원과 4개의 고아원, 호스피스 한 개, 중고등학교 하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처녀들을 위한 양재·편물실, 전쟁 미망인들을 위한 양재소, 초등학교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 3명씩 짝을 지어 15곳의 본당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성적으로 지적으로 심지어 물질적으로(비록 이 문제는 총장 수녀가 맡아 할 일이지만) 지도한다는 것은 제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명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20년 전 제가 다른 교구로 일하러 가느라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수녀들이 저를 부른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편지를 당신의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어 저의 후원자를 찾아주십시오. “사도를 돕는 사람은 사도가 받을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한국의 103위 순교 복자께서 당신을 조명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피에르, 생제

1970년 1월 5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6년간을 시골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5백만 주민이 있는 대도시의 시민이 되었구나! 그래, 우리 주교님은 내가 젊은 사제였을 때 불행하게도(?) 창설한 이 수도회 지도 신부로 나를 파견하셨다. 그 수도원은 나날이 날아오르듯 발전을 하더니 수녀들이 나를 불렀단다. 그로 인해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직도 나는 향수를 느낀다. 성탄 전에 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우들을 만나서 성사를 주었고 아이들과 예비자들에게는 교리시험을 치르게 했고 그리고 성탄 축일에는 마지막으로 26명에게 영세



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꾸려 트럭 한 대를 빌려서 12월 29일에 이곳 수녀원에(홍산에서 250km의 거리) 도착했다. 너는 웃겠지만, 홍산을 떠나는 날 교우들은 초상이라도 난 듯이 한국식으로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나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것이, 홍산에 있을 땐 비록 불편해도 나는 주임 신부요, 대장이요, 농사꾼으로 지내며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두루두루 살펴 보았고 또 매일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열 명에서 스무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내 식탁을 둘러싸고 나를 바라보며 재잘거리곤 했는데... 이제 여기는 전혀 달라서 공간도 없고 전답도 없고 자유도 없고... 물론 도시 한복판에 내가 창설한 커다란 수도원을 바라보면 위로는 되지만 그래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갇혀 있고 이제는 주인도 아니라서 총장 수녀가 정해진 시간에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바쳐야 하고... 보이는 건 여자들뿐이고, 여자들이 시시때때로 내 방 안에 들어와서 곳곳을 뒤지고 이것저것 만지고 내가 정리해 놓은 것을 다른 곳에도 갖다 놓고, 내 물건을 내가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는 화를 내버렸다. 온종일 내 시중만 드는 수녀가 한 명 있는가 하면 또 한 수녀는 아침마다 청소를 해주고... 나는 마치 딸들한테 떠받들어져 사는 아빠 같구나... 시골이나 베트남에서 고역을 참고 견디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면 나는 내가 창피하다!

그리고 심심할 것 같아서 TV도 한 대 사려고 한다! 서울의 추기경님과 계약을 맺고 이곳에 왔으니 온당하게 하자면 3년 안으로는 프랑스에 가질 못할 것이니 조만간 너를 만나러 가는 기쁨은 미루어야 하겠다.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시골에서 내 교우들과 병자들을 보러 가던 걸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허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변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BK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병은 류머티즘일 뿐이란다. 집안 내력이지.

홍산에서 나의 마지막 일은 닭을 1,000마리 칠 수 있는 큰 닭장을 짓는 것이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임자가 계속 마무리를 짓겠지. 이곳에서 나는 수녀들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신앙 생활을 형성해 주어야 하니, 이곳에서야말로 너의 의견과 충고가 필요하다. 여자인 내가 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여기에는 50여 명의 노비스들이 있는데 나를 맞이하던 날 흰 두건을 쓴 18명의 노비스들이 18개의 기타를 들고 나를 위해 연주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벌써 기타로 미사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러 왔단다! TV나 라디오, 영화, 잡지 덕분에 오늘날에는 아시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 못지 않게 진보되었다... 서울에는 미니 스커트나 비트족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내가 크게 마음을 쓰는 것은 수녀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큰 사랑을 심어주는 것인데, 한국에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느님은 아신다.

나에게 쓸쓸한 우울함을 주는 일이 있는데, 바로 동료들의 사고방식이다... 부러움에 질투가 나서 그럴까? 수도생활을 앞잡아 보는 어리석음이란,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기가 마음이 아프다. 내 주소를 적은 종이 몇 장을 동봉해 보내니 그것을 그대로 보고 적거나 아니면 내가 편지나 소포를 부칠 때 이 쪽지를 봉투에 붙이면 된다.

내 동생아, 나는 네가 필요하구나. 본당, 병원, 학교, 애덕 사업, 사회 사업 등의 소임을 맡고 있는 200여 명의 이 수녀들을(50명의 노비스들과 청원자, 지원자까지)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잡지가 가장 좋은지 네가 알아봐서 나에게 알려주렴... 작년에 네가 보내준 “교육 사목/본당 사목” 잡지 몇 권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는데 어떤 기사들은 흥미로웠지만 이곳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 같다. 홍산에 있을 때는 아이들하고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아이들이 내 무릎 위에 앉기도 했고 나는 그 아이들을 쓰다듬고 껴안아 주기도 했었지. 그 아이들은 자기네 집에서 사랑의 표현을 거의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수녀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래도 과감하게, 남자답게 해야 하겠지.

동생아, 이만 너와 헤어져야겠다. 새 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렴.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1970년 9월 23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너의 편지를 받아본 지도 어느덧 오래 전 일인데도 아직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더워 때문인데 30도가 넘으면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일만 한다! 그런데 그런 더위가 두 세 달이나 지속되니.... 요즘 들어서야 선선한 날씨가 조금씩 돌아오니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너는 다시 콩테뜨(Condette)로 돌아갔다니, 축하한다. 너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온 마음을 실어서 그 일을 하고 있겠지.

휴가를 얻어서 친지들도 두루 방문하러 다닌다고 하니 생각 잘했다. 나는 여행이라고 해야 도쿄에만 갔다가 거기서 테레즈와 조카 두 명만 만나고 왔다. 도쿄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방 안에만 있고 좀처럼 나가질 않았다. 그리고 귀국해서 9월 2일에는 나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큰 환갑잔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풍습이다. 자끄와 누이 동생들 그리고 폴에게 이리저리한 설명과 함께 사진들을 잔뜩 보내주면서 너에게 보여주라고 당부해두었다. 너에게 직접 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 필요하다면 얼마 동안 그 사진들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려무나.

극동 아시아에서는 아직 유교가 모든 풍속 안에 스며들어 있다. 그것에 있어서 완덕의 절정은 믿음도 아니요, 희망과 사랑도 아니며, 그것에 있어서는 효성심만이 유일한 거룩함이다. 그래서 사람이 60살에 이르면 그 사람은 세월의 한 주기를 돌아 온 것이라(우리네가 12달 각각의 이름이 있듯이 60년 동안 해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다), 그는 소원을 성취한 것이다. 그럴 때 효자라면 그 기회에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예복으로 차려 입고 아버지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아버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 다음에 또 큰절을 올린다.... 이렇게 절을 올리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이제부터는 편히 쉬시며 즐겁게 사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한국 수녀들은 어떤 의미로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므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똑같이 해야 했으니, 나중에 네가 사진으로 보면 어땠는지 알 것이다. 이곳에서의 내 생활은 본당 생활보다 훨씬 조용하고 어린 수녀들이 나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착수한 일은 성서 강의만 맡아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듯 수녀들에게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도 거의 끝나서 지금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수녀들의 규칙에 관한 해설도 해주었다. 구약이 끝나는 대로 좀더 어려운 강의를 시작해서 영성과 묵상에 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이다 보니 사제들이 와서 신학과 성서, 교회사에 관한 강의를 해주고 노비스 수련장이 다른 강의도 하고 있다. 5월에는 10여 명의 청원자들이 들어왔고 10월에 또 10여 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우리의 큰 병원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하루에도 200 내지 300명이 진료를 받고 있고 수술도 받고 있다.... 하지만 빛도 남아있고 승강기도 설치해야 하고 두 층 공사도 마쳐야 한다(외부공사는 끝났지만 내부공사가 아직 남아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내 사비로 버스를 한 대 빌려 모두 여기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순교자 무덤을 다녀올 예정이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겠지. 10월에는 피정이 있고(3년에 한 번씩 있는 피정), 그때에는 한국인 주교가 와서 피정을 지도할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동료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일전에 부탁했던 서적이나 잡지들에 관해서는 나도 어지간히 갖추고 있으니 너무 신경쓸 것은 없으나 그래도 네가 최근 잡지들을 읽다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기사를 보면 그 잡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보내다오.

나는 선의로 가득 차있는 수녀들과 지내고 있다. 하지만 수녀들은 네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적 격세유전 같은 것은 지니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아서 어떤 의미로는 옛날 식의 수녀 생활을 고집하여 의복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곳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아르망띠에르(Armentières) 출신의 45세 된 사제가 A·F·I 노비스 수련장과 결혼을 해서 신학교와 그 수도원에 물의를 일으킨 일이 생겼다. 내 생각에 그에게는 두 가지 결점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는 친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불행하다.... 프랑스인이면서 외방전교회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건 그 자신이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우리를 피했다.... 그래서 그가 흥금을 터놓을 얘기 상대는 한국인 밖에는 없었는데 두 문화

가 너무나 다르다보니까 양 쪽 다 통하질 않았던 것이지. 둘째는 현대 신학자여서 이성으로 믿음을 설명하려 애썼고 늘 주교들이나 교황을 비판해 왔다.... 믿음을 하느님으로부터, 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손에 힘을 주어서(공부로써) 얻는 것도 아니니, 간단히 말해서 겸손의 정신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셨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많은 좋은 것을 기원하는 이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2년 후에나 프랑스에 가겠지. 안녕.

피에르

1971년 8월 5일, 서울

마르고똥에게

지난 7월 13일자 의 길고도 다정스러운 네 편지를 반갑게 받아서 읽었다. 참으로 고맙다. 솔직히 나는 두 팔 들어 너에게 항복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써보내지는 못할 거야!

네가 콩테뜨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니 나도 행복하다. 너는 숨어서 작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일이며 너에게도 그럴 것이니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많은 공로를 쌓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가끔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 조카들을 만나니 소식만 들어도 기쁘구나. 휴가를 얻어 고국으로 갔었던 건강하고 기뻐하는 모습의 우리 테레즈를 만났는지. 나도 도쿄에서 테레즈를 만났잖니. 그 수녀원은 참으로 훌륭한 곳이지만 어쨌든 테레즈는 외국인이고 장상들이며 동료들은 모두 일본인이니까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고독하겠더라.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이 전부이신 그분께로 더욱 가깝게 가게 한단다.

여기 있는 나도 고독하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종종 내 딸들의 의지를 통해야만 하니.... 파리외방전교회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라서 내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과는 거리감이 있고.... 일전에 불로뉴의 텔리에(Tellier) 신부가 나를 만나러 와서 같이 미사를 집전했는데 미사가 끝난 후에 그가 수녀들 앞에서 내가 미사드리는 방식을 비평하였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누가 오라고 했소, 다른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되잖소...” 라고 응수해 주었더니 그가 나한테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는 가버렸단다.... 내 생각에 그는 조만간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이틀 후에 남쪽 부산으로 떠나서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에서 피정 강론을 할 것이다. 내 강론 프로그램은 이렇다. 너에게 흥미로울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3회 강론인데, 오전에는 덕에 관해 2회 강론할 것이고 오후에는 시사적인 주제에 관해 1회 강론을 할 것이다.

제1일: 우리의 목적 - 성화, 우리의 모델 - 예수 / 현재의 세상

제2일: 믿음 -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실천은.... / 인간의 의미 상실

제3일: 희망 - 희망 " " / 교회의 "

제4일: 사랑 - 사랑 " " / 하느님의 "

제5일: 가난 - 가난 " " /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제6일: 정결 - 정결 " " /

제7일: 순명 - 순명 " " / 수녀가 바치는 것은....

제8일: 위의 6가지 덕행의 모델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요즘에 나는 이 나라 안에 상당수 차지하는 빈민들을 돌보는 사목 쪽으로 수녀들을 밀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인구가 육십만 명이던 서울이 이제는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시듯 “메갈로폴리스”가 되어 오늘날엔 6백 만이 훨씬 넘고 판잣집이나 빈민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모든 것을 돌볼 수는 없지. 본당의 보조 차원을 떠나서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부를 용서받기 위해서 장애자를 위한 병원 하나를 제안했고 또 버스 차장 아가씨들

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서울에는 아직 전철이 없는 대신(현재 건설 중에 있다), 버스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은 서울을 “버스 도시”라고 부른다. 나는 수녀들이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 차장 아가씨들이 거기서 위험 없이 정말로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아침 5시 반부터 자정까지 일을 한단다!!! 그리고 그들이 쉬는 곳은 질 나쁜 남자들 때문에 종종 위험하기도 하다. 수녀들이 몇 명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또 자기네 친구들을 데려올 테고 그러면 공장으로 가는 것보다야 훨씬 낮고 훨씬 현대적이겠지 싶어... 그런데 자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요즘 난 미국에다 수천 통의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 성과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다오.

한국에는 대홍수가 나서, 매년 그렇기는 하지만, 옛날 내 본당이 있는 곳에는 몇 시간만에 320mm가 쏟아졌단다! 그래서 수천 가구가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병이 나돌곤 한단다...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을 겪는 국민들도 있구나... 파키스탄도 그 중의 하나고...

너희는 이제 총장 수녀가 스페인 사람이라고! 국제적인 수도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제는 어쩔 수없이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힘들겠지. 성녀 베르뜨(Berthe) 원장 수녀의 시대는 어디로 갔는지! 만일 이곳에서 총장 수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짐작할 만하다. 어디서나, 심지어 갈멜회에서도 민족주의 정신이 짙고 있으니 말이다. 벌써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에 대해서도 나에게 한 마디씩 하더라. 한 집에 9개의 다른 국적이 모였다고... 어째서 그런 문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아무튼 자기네들한테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자, 사랑하는 기쁘야, 우리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짐을 진 사람들은 아니니까 묵묵히 우리의 소임이나 하자. 올해 내 아이 두 명이 사제가 되어 그들의 서품식과 첫 미사 때에 참석해서 두 명에게 성작 하나씩을 주었다.

양 볼에 뽀뽀를 전하며 너의,  
피에르

1972년 6월 8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지난 3월 말에 너의 편지를 받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그 무렵 3월과 4월, 두 달 동안은 첫 서원, 유기서원, 종신서원을 앞둔 수녀들의 수련기간이었다. 5월 1일에 우리는 아름다운 예식을 가졌는데, 그때 추기경님께서 직접 오셨단다. 그 날 마치 사제서품식처럼 14명의 착복식이 있었고(이러한 예식은 더 이상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만 이 예식을 행했다), 13명이 첫 서원을, 30명이 유기서원을, 6명이 종신서원을 했다. 봤지, 우리 수도회는 점차 커가고 있으며 최근에도 14명이 새로 입회했단다... 샘 내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께 감사드려다오.

(중략)21)

지난 1월 편지에서 가톨릭계 학교들의 유용성에 대해 말하면서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찌겠니, 이 세상의 이념들이 많이 진보되고 있잖니... 생각해 봐라, 옛날에는 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제들이 다 사회 운동을하기를 원하고 있잖니... 금육과 단식도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대죄가 되었었는데 오늘날은 어떠니...! 그레고리안 성가도 가장 아름다운 성가였지만 오늘날은 어떠니... 가톨릭계 학교들도 마찬가지다. 옛날에야 비종교 학교들이 형편없었지만 오늘날엔 비종교 사상들이 진보되고 있는 바에야, 우리가 갖지 못한 재정과 능력과 마음을 지닌 비종교인 교사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다. 좀더 활력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너에게 말했던 것이다.

너는 편지를 통해 식구들 모두의 소식을 들려주었더구나. 그래, 앙드레가 우리 곁을 떠났구나. 그는 이생에서 너무 고통을 겪었지. 그가 좀더 행복한 젊은 시절을 가졌더라면 어찌면 더 살았을지도 모를 텐

데 말이다. 우리 집과는 달리 그는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는 것만 보았으니... 제느(Gene) 이모님은 점점 쇠약해 지신다면서? 룰루(Loulou) 이모님은 정정하시다니 외할머니처럼 장수하시겠구나! 미미(Mimy)의 불행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는가 보구나. 그녀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의 생각이 고정관념들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기에 말이다.

생각들이 모두 교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너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한 달 전 이곳에서 일어난 간단한 작은 일을 얘기해 주마.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자 정부는 10,000원권 태환 지폐(22)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제껏 가장 큰 단위의 태환 지폐는 500원짜리였거든. 그런데 그 새 지폐에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상 그림을 넣었잖니. 사람들이 당장에 들고 일어났지...

(이하 원문 누락)

1974년 1월 7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벌써 오래 전에 너의 지난 11월 23일자 다정한 편지를 받았다! 내가 나에게 해준 모든 말, 고맙다. 너의 기원도 고맙다. 너는 여전히 용감무쌍하고 영성적인 것 같구나. 물론 사람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기에 네가 너의 학교와 본당 문제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들은 항상 있는 법이니, 그럴 때에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 다른 이들도 종종 같은 근심을 갖고 있고 때로 성격에 따라 더 큰 근심들을 갖기도 하니 그들을 꾸준히 도와야 하고 우리끼리는 단결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대가를 요하는 일일지라도 나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낫다. 내 의식 안에서 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일들을 해가면서 날카로운 말보다는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나는 이곳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고백하건대 하느님께서 나에게 꽤나 즐거움을 주신다! 너도 이미 알다시피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이미 30년 전에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수녀가 되기만을 원했으나 그럴 수 없었던 10여 명의 처녀들을 모아 놓았잖니... 그리고 4년 후에 나는 논산 주임 신부로 가느라고 그녀들을 단념해야만 했지... 22년만에 나는 다시 그녀들 곁으로 돌아와 보니 수녀들은 성장하여 수도 많아졌고... 현재는 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녀원 중에 하나가 되었고 특히 거의 50여 명에 이르는, 정확히 말해 44명의 노비스들이 생활하며 일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지난 4일에는 서원자 7명의 은경축(서원 25주년 기념)을 지냈고 창설 30주년을 기념했다! 그 날 노비스들이 '모이세'라는 연극을 공연했는데 수녀들이 내 제의실을 몽땅 털어 가서 제의란 제의는 모두 사용했다! 특히 과라오 변장은 끔찍했었다! 하지만 우울한 모습의 수녀들을 보는 것보다는 밝은 모습이 훨씬 나았지. 1월은 혹한이 있는 시기인데 기름과 석탄이 모자라 수녀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어서 학생 수녀들은 내일부터 3주간 집으로 떠난다. 나를 위해 봉사해 주는 수녀도 떠나고 대신 다른 수녀가 봉사해 줄 것이다.

요즘 난 예비자 교리를 하는 수녀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영사기(슬라이드)를 돌릴 영사실을 만들려고 한다. 내게는 100여 편의 영화에서 발췌한 수천 장의 사진들이 있다... 카툰(파일)은 수천 장이나 사두었으니 이제 사진들을 슬라이드용으로 만들어 분리하고 번호를 붙여야하겠기에 두 명의 노비스가 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 주일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가장 장엄한 대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하루 종일 현시하고 밤기도는 한국어 노래로 찬미드린다. 수녀들은 이것을 매우 좋아해서 내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도 그녀들끼리 계속했다. 난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가끔은 이곳에 쉬러 오는 혹은 잘 먹으려고 오는 동료들의 방문도 받는다!

조만간 우리는 애덕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프랑스에서 모금해 온 돈으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내다보고 들쭉거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수녀들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소명을

실제로 완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한 도시 한가운데서 너무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외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부자라고 속덕이는 소리를 잠재우고 또 혹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토지 몰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수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유와 석탄이 부족한 관계로 잘 진행돼 가던 세탁소를 단념해야만 했다. 최근에 시카고(가톨릭 병원에서)에서 공부하던 수녀 하나가 귀국하면서 22살짜리 미국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키가 1m 95cm인 그 여자는 여기서 수녀가 되려고 왔다! 그녀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반대이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너무나 힘든 생활이기 때문이다(음식이나 사고방식, 가난한 생활... 등이 말이다).

지난 12월 8일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13명이나 되는 새 자녀를 얻었다! 논산 본당 시절 내 본당의 아이 두 명이 새 사제가 되었고 11명의 수녀가 착복식을 가졌다. 그 날 아침에 나는 우선 이곳에서 착복식에 참석하고 서둘러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시속 200km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두 사제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들이 첫 미사를 집전하는 논산으로 가서 나는 강론을 하고 어제 놓친 축하를 만회했다. 내 옛 성당을 다시 보는 기쁨이란... 교우들이 내 호주머니 안에 봉투(돈을 넣은)를 가득 쑤셔 넣어주지를 않나 담배갑들을 넣어주지를 않나...! 프랑스에 있으면 물론 생활이야 여기보다 훨씬 편하겠지만 이제 꿈쩍없이 내 인생은 여기에 있구나! 프랑스에서는 나는 이교도처럼 사는 것 같고 권태롭다... 오로지 미사를 집전할 뿐 종종 환영 분위기도 아주 불쾌하다.

5월에는 테레즈와 매다(Maeda) 부인이 여기에 와서 사흘간 머물고 갈 것이다. 너희 공동체 수녀들에게 내가 좋은 추억과 존경을 간직하고 있노라고 전해주고 새해 기원도 함께 전해다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시간경 기도 중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때에) 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피에르

너희 바자회 때 일본에서 물건을 좀 사서 부치라고 내가 테레즈에게 돈을 좀 부쳤단다.

1974년 5월 4일

마르그리뜨에게

테레즈와 나는 이 머나먼 땅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테레즈는 수도회 창설 25주년 기념 때에 이미 한번 온 적이 있었지. 그때는 시기를 잘못 택하는 바람에 춥고 눈도 오고 했지만 이번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때에 와서 한국에 대해 아름다운 인상을 가졌을 것이다. 이곳 수녀들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보살피 주면서 테레즈를 “고모”라고 부른다... 자기들 아버지의 누이니까!!! 그런데 원 세상에, 이 좋은 시절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5월 7일 2시 35분 출발 항공편을 확인해야 하다니. 이런 날들은 좀 더 길게 연장하고만 싶구나. 다행히도 날씨는 좋다.

우리는 시내 구경을 좀 했고 박물관에 가서 작품들도 보았다. 테레즈가 좀 살이 찼다고 너에게 살짝 얘기하면 그 아이가 빠치지는 않을까? 밥소사, 식욕이 어찌나 왕성한지 나보다도 더 많이 먹는구나. 테레즈는 여전히 명랑하고 대답해서 도무지 겁이 없더구나... 어제는 200명의 비구승이 있는 절을 방문해서 구석구석 돌아보지 않았겠니! 나는 프랑스에서 화초 몇 그루를 가져와 심었는데 푸크시아(수령초)는 아깝게도 죽었지만 나머지는 다들 자리를 잡아서 뒤팡루(Dupanloup)마당의 마로니에도 5그루 중 4그루가 자리 잡은 것을 보고 테레즈가 질투를 했다. 그 아이는 벌써 몇 번이나 가져다 심었는지 모르거든. 너희는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잘 되어가니? 동료들은 모두 건강하고? 그녀들에게 이 수도자의 추억을 전해다오.

너에게 좀더 쓰고 싶어도 테레즈가 쓸 여백을 남겨야겠구나. 너희는 조만간에 만나 보겠지만. 너의 휴가 계획은 무엇인지?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오빠가 말했듯이 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와서, 몇 년만에 처음으로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정원에 나가 아침 산책을 했어, 지난날 아빠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침에는 편지를 쓰고 점심에는 시내로 나가 재미있는 곳을 방문했어. 내가 도착한 다음날 미사 때는 35명의 수녀가 서원을 갱신하는 예절이 있었는데, 봉헌 시간에 총장 수녀님이 제대 앞에 앉고 수녀들은 둥글게 원을 그려서 서원문을 읽었고 오빠는 안쪽에 자리했지. 모두들 단순하고 개방적이고 행복해 보였어.

어제는 여기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고 2,3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도 방문했고 41명의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과 양로원(50명의 노인이 있는)도 방문했는데 올해 들어 그중 노인 8명이 돌아가셨다고... 거기야 말로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105세! 되신 할머니는 방문을 꼭 열쇠로 잠궈놓아야지 그렇지 않았단 그 할머니가 안 가시는 곳이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신다니... 그들은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과수원도 하고 돼지도 치고 야채도 가꾸고... 오빠가 언니에게 절 얘기를 했겠지만 그곳에는 가장 연로한 90세부터 우리를 안내 봉사해 준 22세의 비구니승까지 200명의 비구니승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녀보다 어린 비구니승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녀는 어찌나 평화롭고 어찌나 다정스럽고 어찌나 친절하지... 그녀의 말로는 4살에 거기에 들어왔다고... 이곳의 수녀가 내게 말해 주기를 그들은 흔히 비구승의 아이이거나 친척되는 아이들이라고... 이번 방문은 내게 감명 깊은 것이었어. 날씨는 일본보다 훨씬 추워서 일본에서는 이미 한 철 지난 벚꽃이 이곳에 만발했어.

나는 늘 프랑스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콩테뜨는 나의 근심을 덜어주는데, 왜냐하면 언니가 거기에 있으면서 기꺼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브누아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본원에서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직접 편지를 받지 못해서 걱정이 돼. 물론 여행사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지. 마르그리트 언니, 마지막 3학기를 잘 보내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래.

테레즈

1974년 7월 13일, 서울

마르그리트에게

축일 인사를 담은 너의 6월 25일자 편지를 아주 반갑게 받아보았다. 너의 기도와 함께 편지에 감사한다. 일전에는 우리 수도회를 방문하신 교황 대사와 함께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영광을 가졌다. 수녀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그것을 계획했다... 예년처럼 전 날에는 우리끼리 치하의 말과 선물과 짧은 오락 시간을 가졌다.

테레즈의 방문은 나와 수녀들에게 참으로 하느님의 축복이 되었다. 그 아이는 어찌나 상냥하고 특히 항상 웃음을 달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모든 이에게 기쁨의 선물을 매우 잘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다 구경했고 심지어 비구니들이 있는 절에도 가서 어느 젊은 비구니와 사진도 찍었다! 나이 어린 소녀가 마치 남자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의 동정을 지키기 위해 머리는 완전히 삭발하고 통 넓은 바지에 일종의 망토 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봐라. 왜냐하면 불교인들도 우리처럼 3가지 서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보다 더 잘 일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보다 쉽게 니르바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은 모든 욕망의 부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 너는 바이엘(Bailleul)로 떠나라는 새 순명을 받았다고. 그런 일에 있어서 너의 마음 아픈 심정을 내가 잘 안다. 10년이나 머물다 보면 조물들이나 풍경, 마을, 사람들, 습관들, 이런 것들에 당연히 집착하기 마련이지. 그러나 창조주께만 집착해야 하는 법이고 또 순명하는 수녀라면 확실히 창조주께 집착할 것이며, 우리는 쓸모 없는 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바이엘은 릴르(Lille)나 아르멩띠에르(Armentieres)에 가까워서 숲으로 나가려면 좀 멀겠지! 하지만 두고 봐라, 거기서도 금새 정이 들 테니까. 바이엘이던가 아니면 아르멩띠에르에 나랑 같이 덩케르크(Dunkerque)에

서 군복무를 했던 클로비스 바노벨(Clovis VANNOBEL)이라는 사제가 있다. 이 사제는 내가 들은 바로는 모범이 되지 못한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아르명띠에르의 극빈자 구호 사무소를 맡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는 리에나르(Liëart) 추기경님과 다소 관계를 끊은 모양이다. 추기경님은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를 가만히 놓아 두신단다. 그에 관해 정보를 물어보도록 하고 혹시 그를 만나거든 내 안부 인사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전해다오. 그를 방문하면 반가워할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200명의 수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해주렴. 분명히 그는 너에게 사랑만이 다가 아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의이다 등의 답변을 할 것이다. 최근에 100여명의 부제들과 독서자, 복사들의 수품식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날처럼 힘차고 젊고 억누를 수 없는 멋진 수액처럼 보인 적은 없었다!

떠날 날이 가까워진 테레즈는 아마도 신경이 곤두 서 있을 것이고 돌아가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 테레즈는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북극을 통해서 갈 것이다. 내게 수녀들의 소식을 들려주어서 고마운데, 너는 비관론자 같더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좋은 휴가 보내기 바란다.

너의 피에르

1975년 1월 27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너의 새 주소가 적힌 편지를 이제서야 받는구나. 너는 1월 4일에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바이엘(Bailleul) 우체국 소인은 1월 18일자로 찍혀 있고 나는 이곳에서 26일에야 받았다. 네가 기원해 준 다정한 새해 인사에 감사하며 나 또한 수녀들을 통해 너에게 전달한 내 것도 잘 받았으리라 믿는다.

올해는 성년이지만 이곳에서는 교구에서 모두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 외에는 별다른 행사 없이 지나갈 것 같다. 일 년에 한 두 번 모이는 수녀원에서는 그들만의 행사가 있겠지. 네가 전해준 가족 소식들은 어느 정도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행히 가족들이 모두 내게 편지를 보내주니까. 그래도 너의 편지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해주어서 보충해준다. 테레즈와 일본인 수녀들을 만나서 맞이했겠구나.

나는 너의 삶의 애로사항들을 아주 잘 이해한다. 그건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학위가 있다 한들, 그거야 고작 합당한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이나 경험, 필요한 균형들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비록 불완전하나마 수년을 오롯하게 지내보아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기대해도 되겠다는 것을 아는 법이니, 비록 학위가 있다 해도 젊은이들이 일하기까지 아직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너는 너의 시간을 다 치렀고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영원히 마련해 주신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또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너도 노비스 시절에 그 소리를 백 번도 넘게 들었겠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일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우리 프랑스와 같은 삶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너도 신문을 좀 읽어보면 눈치채겠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리고 이곳 아시아의 사제들은 다소 자국의 정부에 대항하여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정치 투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산당들은 대체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칠레에서는 예외였으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 다른 곳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도 똑같은 정신상태이다... 권력을 잡은 당은, 그 당이 공산당은 아니지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심지어 부정직하고 페어 플레이가 아닌 방법을 쓴다... 언론을 구속하지를 았나 죽은 이들이 투표를 하질 았나, 여당 사람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야당은 아무 것도 감시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그들은 반대편 사람들을 멀리 떼어놓느라고 갖은 애를 쓰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네에게 편리한 대로 예산을 첨가시키거나 다른 예산을 삭제하여 어떤 마을은 유리하게 만들고 또 어떤 마을은 불리하게 만드는 등... 어쨌든 아시아에서의 선거 분위기는 정말이지 야릇하기 그지없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우리 프랑스



인들에게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여기서는 정상적인 일들이다. 심지어 여당은 작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 야당에게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여주거나 혹은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이는 호사를 부리기도 한다. 이거야말로 웃다가 죽을 노릇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참을 수 없는 일이겠지. 우리의 주교님은 야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계시니 천주교인들의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내 생각에 조만간 주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한다. 요즘 이곳은 국민투표가 있는 위험한 기간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끈장 쫓겨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인간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참된 뜻을 담고 있는 나의 “자매”에게 용기를 빈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나는 ‘수녀들’에게 불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다오. 그 증거로 내 양떼가 250명이나 되고 지금은 수녀들을 위해서, 수녀들하고만 살고 있잖니.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1975년 8월 9일, 서울

마르그리트에게

어제 너에게서 받은 장문의 편지에 이렇게 간단한 항공 봉함 엽서로 답장을 띄워 우선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한다. 그 이유는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란다. 편지는 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내 편지를 보낼 곳이 많아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모른다. 오늘날 해도 일본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프랑스로 편지를 보냈거든. 무엇보다도 내가 이번 학년 말에 이웃 근접 나라들을 방문하고 또 마리 끌레르와 함께 폴의 집을 방문했다니 기쁘구나.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서는 허용되지 않는 좋은 휴식 시간이 모두에게 되었겠구나! 일전에 냉제쎬(Nungesser)가에 있는 수녀원에 커다란 사진을 보냈으니 거기에 가서 사진을 달라고 해서 잘 보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자, 청원자, 수련자들과 함께 성가회의 대부분을 담은 사진이거든. 그 사진은 특별한 기회에 찍은 것이란다. 로마에서 교황의 오른팔 격인 포교성성의 로씨(Rossi) 추기경이 서울의 추기경과 한국에 있는 교황 대사와 함께 우리를 방문한 적이 있단다! 나로서는 그것이 진정한 용인을 받는 것이었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래서 매우 자부심을 갖는다. 그 날은 모든 것이 밝아 보였지! 수도회의 어려움은 비단 금전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필요가 엄청나다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나 정말 가장 힘든 것은 외교인 국가에서 그것도 인구가 과도 밀집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우리 수도원에는 나무로 가득 찬 꽤 큰 정원이 있는데... 수도원 문밖만 나가면 집이란 집은 모두 작고 오밀조밀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나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좁은 길에서 놀아야만 한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어도 방학만 하면 학생들이 벽을 타고 이곳으로 넘어들어 오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쫓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부유하구나! 떠나는 수녀는 거의 없고 본당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수녀는 너무 없고, (어떤) 수녀들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일하지 않고 사도직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그 비용이 많이 든단다!

정치적인 근심도 종종 우리를 불안으로 밀어넣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하고 그만큼이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받는 요구는 많지만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쨌든 이제는 내가 백 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수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수 천에 이른다. 나는 혼자서 필름(도서)관을 만들었다. 구약, 신약, 다양한 교리들을 비롯해서 가능한 한 종교적인 모든 주제에 관해 슬라이드 필름을 만든 것이 적어도 90통은 되어 테레즈 덕분에 산 영사기로 돌렸더니 호응이 대단히 좋구나. 그걸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슬라이드용 필름을 직접 만들어야 했

는데, 가게에서는 필름만 팔지 슬라이드용은 팔지 않기 때문이지...

끌로비스 바노벨(Clovis VANNOBEL)이 그의 주교에게 다시 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혹시 그를 볼 기회가 있거든 그에게 내 소식 전해주고 또 내가 우정어린 추억을 지니고 있노라고 전해다오. 또 덩케르크 군복무 시절 역시 동료였던 블라랭켄(Blaringhem) 본당 신부인 샤를르 트록메(Charles TROCME)에게도 똑같이 안부 전해다오. 안느 마리가 성년을 지내러 로마로 떠난다니 기쁜 소식이구나. 폴이 아리에주(Arieje) 지도를 보내왔더구나. 오딜은 언제쯤이나 주님 곁으로 돌아올까? 장(Jean)의 아내는 교우이니? 이제 네 곁을 떠나야겠구나. 너의 긴 편지, 고맙다. 내 나이 65세이니 사제가 된 지도 어언 40년이 됐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늘 충실하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자.

1975년 11월,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한 달이나 미리 너에게 신년인사를 보낸다. 1975년(23)은 거룩한 해가 되기를 오빠의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달 말에 우편 요금이 오를 거라는 소식 때문이다. 석유 파동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 발발의 위협까지 가중되어 이곳의 생활비가 아주 비싸졌다. 그 때문에 보기도 딱한 일들이 많다... 소득은 별로 안 되는데 모든 게 또 오르기만 하고 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모금을 하니 돈지갑을 비우라고 하고... 여기는 천지가 군인세상이라 우리 사제들은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잠자코 있어야만 한다... 상황이 그런데도 우리는 소득을 좀 얻어서... 올해 이곳 서울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영세자를 얻었는데(인구가 약 칠 팔백만이 되는 서울에는 83개의 본당이 있다), 그 중에서 수백 명을 성가회 수녀들이 가르쳤다.

며칠 전 이곳에서는 12명의 새 지원자들이 청원자 수건을 받았고 7명의 청원자들은 수련자가 되었다. 현재 수련자 수는 모두 25명인데 내년 3월에는 이 가운데 10명이 첫 서원을 한다. 그들이 어찌나 행복해 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귀엽더구나. 끌로비스 바노벨의 소식을 알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다. 신문에 난 사진에는 같은 부대에 있었던 아제부룩(Hazebrouk) 근처의 주임 신부도 있더구나. 너는 이제 바이엘(Bailleul)에 만족한다고... 너는 뿌리로 돌아간 셈이다. 왜냐하면 생제 가문의 뿌리가 그 근처, 정확히 말해서 멜빌(Merville)이니까.

마리스타회 수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네 수련자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가기는 하지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버스로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수련자는 단 세 명이란다. 그들의 소명은 대단하므로 그들이 성공을 한다면 참 잘된 일일 것이다. 우리 수녀 두 명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성적은 일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니지만 중간에서 상위권이다. 너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급을 한 두 개 더 늘려야 했다면서. 여기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학교 학생수가 수백이 아니라 수천에 이른다. 원칙적으로는 한 학급당 학생이 60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70에서 80명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곳 우리 중고등학교도 학생이 2,400명이나 된다. 이 많은 학생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규율과 교육에 있어서 잘 해나가고 있다. 숙제반은 없고 6, 7시간의 수업만 있다(10분씩 휴식시간을 두고). 숙제는 각자 집에서 하고 숙제를 교정해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다시 한 번 신년 기원을 너에게 보내며 편지를 마치려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76년 12월 6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우선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1977년이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느님께서 더욱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가득한 키스를 보낸다. 너무나도 매력 있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가족과 또 고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일들과 종교계의 현대화 작업들을 알려주느라 너무도 고심해서 써 보낸 너의 편지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종교계의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소식이다. 하느님 덕분에, 또 너의 기도 덕분에 이 작은 성가회는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고 있단다... 너를 우울하게 만들까봐 말하기도 겁나지만... 11월 1일에 16명의 지원자들이 청원자복을 입었다... 2년만에 수련자 수가 30명이 넘는데, 그중 십여 명은 내년 2월 28일에 첫 서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가족이 되어서 올해는 그들만을 위한 집을 따로 지을 생각을 해야만 하겠고 또 그때문에 호스피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1층 - 휠체어나 이동 침대로 산책을 시켜야 하는 지체부자유 할머니들 20명 내지 30명이 거주할 것이다... 이는 넓은 우리 땅이나 견고한 우리 건물을 시샘하는지도 모르는 이웃 주민들에게서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 수녀들 어머니 가운데 특별히 불행하게 사는 어머니들을 우선적으로 모실 수도 있다... 2층 -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연로하신 수녀님들이 머물도록 한 칸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모원에서 사는 한 불평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수녀는 단 두 명이지만 세 번째가 나오게 생겼는데, 전 총장 수녀가 임종 직전에 있다. 3층 - 10여 명의 젊은 수녀들이 잘 곳이다.

우리의 병원은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은 병원에서 나오는 발산물들과 도로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자동차 가스와 소음들 때문에 분위기가 열악하지만 이곳은 정원과 나무가 있어서 훨씬 낫다.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수녀들을 이곳에 와서 자도록 할 것이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옥상 테라스를 둘 것이다. 길이 35m에 폭이 14m이다. 8월에 시공하였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 소소한 것 몇 개만 남았는데 흑한이 시작되었으니 공사를 중단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깝구나.

너는 분명 “피에르 오빠가 어떻게 그 돈을 다 모았을까” 하고 궁금하겠지? 선택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상당했고 그리고 물론 혼자서 헤쳐가야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이렇단다. 일단 우리는 아시아에 있잖니,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미사를 무척 잘 믿는다... 이교인들의 예식 행위들은 늘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미사는 정말이지 “아주 싼” 편이거든. 그래서 장례 때나 시험 때, 각종 기념일마다 미사를 봉헌한다. 나는 한 번도 미사예물을 안 받아 본 적이 없다. 또 그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잖니. 어제는 어느 부잣집 할머니가 칠순 잔치를 이곳에 와서 치르고 내가 미사를 드려주었더니 그녀는 수녀원 전체 저녁 식사비용을 대고 호스피스 건물을 위해 50,000프랑을 희사했다. 그러니 수녀들의 공도 있었던 것이다. 수녀들도 좋은 문을 두드릴 줄 안단다... 에탱(Hesdin)으로부터 30,000프랑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필요한 금액의 반을 원조 받은 것이다... 만일 내가 요청했다라면 아무 것도 받아내지 못했을 터인데 현지인이 요청한 덕분에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지...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란다!

사랑하는 누이야, 우리가 언제나 항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줄 것을 너에게 청하며 이 편지를 마치려나... 물론 더욱더 청해야겠지.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형제애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77년 12월 1일, 서울

마르그리트에게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하니?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 끝에 있는 너의 오빠, 내가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온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1978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펜을 들었다. 너에게 내가 첫 번째로 기원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전례시기상으로 는 늦은 셈이지! 너는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늘 불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하느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실 것이니 모든 경우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려무나. 내가 아는 환속한 사제들은 모두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적게 했다... 기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믿

어야만 한다.

나는 일이 잘 되어가고, 너무 잘 되어가서 이리다 뜻밖의 재난이라도 닥치지 않을지 겁이 날 정도이다. 너도 알다시피 올해 호스피스 건물을 완공했고 내년에는 또 공사를 시작해서 고아원을 지으려고 한다. 사내아이 3명과 여자아이 37명, 모두 40명의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이 좋은 땅에 자리잡고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다보니 이 지역 구청에서 그 자리에 집을 여러 채 짓기로 결정했고(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또 화재를 대비하여 소위 “소방도로” 라는 걸 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 땅을 통과하는 바람에 우리 집을 허물고 새로 옮겨지어야만 되게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40명의 아이들이 집을 잃게 되었으니 말이다. 설계는 이미 다 끝냈으니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지. 하느님을 위한 일이니 그분께서 늘 도와주셨듯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새 고아원은 여기서 20여km 떨어진 곳에 짓기로 했다. 내가 있는 사제관 뒤에 있는 호스피스 건물에는 앞을 못 보거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거주하고 사제관 앞에는 유치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80명의 아이들이 재잘거리고 외치고 뛰어다니고 오늘 같은 날에는 눈사람을 만들곤 한단다. 호스피스 쪽을 바라다 보면 젊은 수녀들이 노인들을 산책시키는 일에서부터 식사며 옷 입는 것, 심지어 역겨운 일까지도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아 내가 기적을 이루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서는 어느 여왕들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 틀림없을 거야...

며칠 전에는 저녁 9시에 어느 큰 기차역에서 폭발물을 실은 기차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경 500미터 내에 있던 모든 것들이 터지고 불타고 해서 60명이 사망하고 특히 유리 조각들로 인해 2,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지역의 주임 신부는 내 자녀이고 내가 논산에 있을 때 어린이 성가대 회장이었기에 그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가보았더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 운명의 시간에 그는 거기서 20km 떨어진 주교관에 있었단다. 그러나 사제관은 일을 당하고 말았지. 그도 건축선의 이유로 최근에 성당을 허물었다... 그 시간에 예비자 교리 수업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니! 모두 기적이라고 여긴단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한국 국민들에게 감탄한다. 그토록 역동적인 국민은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항상 힘을 잃지 않았고... 동쪽끼리의 이념 전쟁은 가장 잔인한 전쟁이지. 그들은 깨끗하게 버텼다. 원자 폭탄만 없을 뿐이지 그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이다. 게다가 나라가 분단된 지 25년 전만 해도(여전히 분단상태인데) 모두 폐허가 되었고 기술자도 없었던단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안 만드는 것이 없다. 전세계로 수출도 해서(올해 100,000대의 자동차, 선박, 유조선 등을 수출했다), 특히 벼락 경기 현상을 일으키는 최고의 시장인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심지어 유럽에까지 수출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9월에는 한 무리의 등반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으니, 그런 일은 프랑스인들도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잖나... 그러니 희망이 많다. 불행하게도 정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너무 보잘것없으면서도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노동을 하며 일요일도 없을 때가 태반이고 여자아이들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며 심지어 더 그보다 더 심하게 일하기도 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나의 애정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편지를 마쳐야겠구나.

피에르

1979년 2월 4일, 파리

마르그리뜨에게

내 출국날이 다가왔구나! 그런데도 울적하기만 하다! 2월 11일 일요일(다음주 일요일) 12시 비행기편으로 출발하면 이튿날 14시 도쿄에 도착한다.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서울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내가 말했던 대로 덩케르크와 생-오메르에 갔었다. 그런데 너의 집에는 갈 수가 없었다. 나도 무척 애석했지만 자동차도 없고 그렇다고 내 눈을 즐겁게 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비를 쓰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한테나 나한테나 다 복잡할 것도 같고... 미안하다!

올해 1979년은 테레즈가 이곳으로 오는 해이구나. 기왕이면 테레즈가 오는 것도 보고 우리 모두가 여기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좋으련만 안 되겠구나. 규칙이 있는 법이고 또 나로서는 내 소명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한 표양을 보이고 거짓말쟁이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나만의 법이 있기 때문이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집을 떠난다. 안느와 리제뜨가 나를 위해서 물질적인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었다. 일곱 달 동안 그 아이들이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네들의 사랑으로 날 세탁해주고. 내가 그 아이들의 노고를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리제뜨는 자기 방까지 내게 내주고 안느와 함께 지냈으니, 독신자로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더구나.

무엇보다도 마리 끌레르의 병 말인데, 그 아이의 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깊더구나.... 오빠로서 그걸 보자니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지. 그 다음에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온갖 잘못을 비판하는 소리를 사제로서 듣고 있자니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다.... 나야 묻는 말에 답변을 피하고 침묵을 지켰지. 그 아이들의 기질을 보아하니 선교사의 일 같은 것을 제안하는 모험은 감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생-오메르에서 주느비에브 형수가 내게 써오기를, 올케들은 아마도 마르그리뜨 너나, 테레즈를 위해서 이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올케들은 일종의 중개인과 같은 존재들로서 너희가 사도직을 행하는 데 마치 엄마처럼 너희를 돕고 있는 셈이라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구나. 그 아이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 그 아이들의 인생은 분명히 공로로 가득 찬 것일지도 모르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지. 하느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게 나를 울적하게 만든다! 오늘 솔랑주와 프랑수아, 로베르 그리고 스테파니가 니콜라와 합류하여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떠났다. 꼬마 아스트뤼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귀엽더구나.

마르그리뜨, 이제 펜을 놓아야겠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최상의 몫을 선택했구나.... 그러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꾸준히 머물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들이 모두 진리이다.... 아빠와 엄마가 옳았어.

오빠로서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79년 2월 19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내가 너를 잊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는 대로 급한 불일을 몇 가지 본 다음 너에게 편지부터 쓰는 거란다. 이런 걸 향수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좀 혼란스럽구나. 어쩌면 내 가족들을 본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 가난한 이 선교사가 그만한 여행비를 자주 쓸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참작해야 할 이곳의 수녀들도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니,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 게다가 마들렌느, 안느 마리, 마리 끌레르를 보면 그 아이들은 공손하고 순명하며 사랑스러운 교회의 딸들이 아니고 또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이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건만 그 아이들은 거의 매일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원칙에 대해 독기를 품고 신랄하게 공격하여 나를 무척 슬프게 하기에 차라리 이곳에 있는 것이 백 번이나 낫다! 말도 마라, 내가 여기에 저녁 10시에 도착해보니 수녀들이 타고 온 버스 두 대와 또 다른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울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니! 어떤 이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렸단다!

그래도 내 누이들은 나를 극진히 대해주었다. 심지어 마리 끌레르도 내가 떠나는 날에는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윗도리 주머니에 사탕과 잡지 두 권을 넣어주더구나....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몽땅 쓰려고 했던 안느 마리에겐 진 빚은 언제나 갚을 수 있을는지. 마들렌느는 맛있고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내 마지막 미사 때는(연중 제6주간 주일의 독서, 사도행전) 구약성서에서 나병환자들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호통을 쳤다.... 내 청으로 마들렌느가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거의

비아냥대듯 읽었거든…. 그게 내 마지막 가정미사 때에 가졌던 추억이다!

도쿄에 도착하니 테레즈가 마에다(Maeda) 여사와 함께 마중 나와 있더구나. 겨우 한 시간 정도 머물며 서로 포옹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나는 선물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안느 마리가 선물로 준 큰 소시지 두 개를 대가로 치러야 했는데, 일본 세관에서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 그들이 내 소시지를 훔친 셈이지!!!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하루 자리를 비운 것처럼 다시 내 생활을 시작했다. 심지어 이튿날 아침에는 내 문 앞에 있는 유치원 원아 80명에게 졸업장과 상장 수여를 맡았다. 이곳도 프랑스나 미국에서처럼 이란의 호메이니 새 정부를 부랴부랴 인정하고 있다. “석유 결핍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곳에서는 또 한 번 북측과 대화를 열었다…. 미국이 중국과 화해하기로 결심하고 외교관계를 맺기로 한 이상 두 나라를 위해 최소한 한국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진영인 소련 측으로서는 위협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 있다.

나는 요즘 치과에 다닌다. 파리에 있을 때 가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 아무 사회 보험이 없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우리 병원 치과에 가기로 했다. 그게 덜 복잡하고 훨씬 경제적인 것이다.

꽃씨를 가져왔단다. 올 봄에 꽃 심느라고 바쁠 거야. 잘 심어졌으면 좋겠다. 자꾸가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너도 기억하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땅은 훨씬 넓기는 하지만 흙은 훨씬 안 좋다. 그래도 나는 일꾼을 많이 두고 있는 셈이니, “수녀원 정원사”라는 훈장을 단 수녀들이 있잖니…! 수련장 수녀는 농대 학사 출신이라 어린 수녀들에게 꽃 사랑을 많이 가르치면서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돌아 온 이후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자고 전 생활에 다시 익숙해졌지만 언제나 모두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고 아니 이제는 여러 형제 집들을 생각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79년 4월 23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그래, 네 말처럼 1979년 부활절도 이미 과거가 되었구나! 부활 축일 때 이곳에서는 모든 지원자, 학생, 청원자, 수련자들이 모였었는데, 공식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우리의 부양을 받고 있는 그들은 65명이나 된단다!!! 정말로 이곳은 하느님의 시간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영세를 준 사람은 단 두 명인데, 모두 “안나의 집” 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에 있는 할머니들이다. 이 나이에 내가 또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았겠니!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가 안 하고 수련자를 시켜 부르게 하고 나는 혼자 조용히 읽어야겠어.

바이엘(Bailleul)에서 성무일도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났다는 너의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다. 이곳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4월 19일에 어느 마을의(백여 명 되는) 본당 신부의 사제서품 25주년(은 경축)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3명의 주교와 추기경을 포함한 50여 명의 사제가 왔다…. 나도 거기에 갔지, 왜냐하면 그를 신학교에 보낸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본당 교우들이 각출하여 주임 신부에게 선물을 했는데 뭐지 짐작이나 하겠니? 고급 승용차란다!!!!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이렇다!

내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아픈 데는 아무 데도 없다! 다만 언덕을 오르자면 숨이 좀 가쁜 게 마치 속이 텅 빈 것 같다. 보름 전부터 치과에 다닌다(우리 병원에서 두 개나 뺨질을 했고 아직 하나 더 해야 된다. 내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네 번째 이도 이미 했었다). 안느 마리가 하라는 대로 나는 다른 귀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내게 전에 결핵약을 먹은 적 없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이미 토렝(Thorenc)에서는 그 약이 청각을 앓아갔다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었노라며 그는 내게 그리 희망을 주지 못했다. 이제 안과 전문의까지 찾아가 봐야겠어.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는데 특히 저녁에 형광등 불빛에서 더 심하다. 봤지, 나는 이제 고물이 되었구나. 그래도 나는 자리가 있고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행복한 편이지.

프랑스에서 꽃씨를 가져와 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 내가 신부이다 보니 당연히 꽃시계덩굴(예수 수난 꽃)과 마리아의 심장 같은 꽃이 있지. 이런 꽃들의 이름을 번역해 주면 수녀들이 좋아하는

다... 너도 올해는 몇 번 외출을 하게 될 것이라니, 잘 됐구나. 그런 기회를 이용하거라. 너도 늙어 의자에 앉아 지내게 되는 날에는 추억으로 살 테니까. 이곳의 정치 생활은 여전히 고되고 프랑스보다 더 힘들다. 다른 동료 사제들처럼 나도 더 이상은 프랑스에서 살고 싶지 않다. 거기 가서 어찌나 당황했던지... 프랑스에서는 종교가 육신을 떠나 얼마나 관념화되었는지, 인간성을 상실했다! 이곳에는 성소자가 많은데도 성소자를 위해 애를 쓴다... 다음주는 성소주일인데 거기는 그 날 무엇을 하는지? 여기는 세미나, 전시회, 여러 수도회의 회합 그리고 심지어는 라디오, TV에서 강연까지 있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가능한 한 자주 동생들을 만나보아라, 그것만이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피에르

1979년 9월 24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테레즈가 여기에 와 있다! 그 아이는 지난 22일 토요일 저녁 5시에 도착했는데 24일 월요일 정오에 또 떠난다! 48시간도 안 되는구나!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지. 어제는 그 아이가 내 대미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수련자 5명과 약 25명의 수녀들이 참석했으니 꽤 참석자 수가 많은 셈이고 성가도 아름다웠다. 네 편지는 물론 르네, 주느비에브로부터도 편지를 받았다. 이제 휴가철이면 모두들 이리저리 어떻게나 돌아돌 다니는지. 좋지, 여행이 짧은 시절을 만드는 거니까!

이곳에서는 한 달 후면 수련기간으로 들어갈 15명의 청원자들을 3주 동안 집에 가 있으라고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올 때는 수도자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3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 어제 그 15명이 모두 돌아왔다.

이곳의 정치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정부가 경찰체제라서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한 명씩 호수천사가 붙어 있어서 우리의 행동은 다 드러나고 우리의 편지도 감시당하고, 혹시 우리가 JOC(가톨릭노동청년회)나 JAC(가톨릭청년농민동맹)에 관여하거나 정부와 관련된 그 무엇에 관여하게 되면 우리는 공산주의자인 것이다. 과리의방전교회 동료 사제이며 주교인 한 분은 추방의 협박까지 받고 있으나 교우들은 겁내지 않고 자주 시위를 벌인다!

나의 건강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잘 자고 잘 먹는다. 그런데 수술 이후 자꾸만 숨이 차고 또 머리 쓰는 일을 하거나 강론 준비를 할 때면 머리가 무겁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 베아트릭스 수녀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보살펴주고 그녀의 헌신은 지극하다. 나는 종종 코요(Coyos) 신부를 만나러 가고 그도 역시 자주 이곳에 온다. 70회 내 생일날에는 동료 신부 8명이 왔다! 테레즈에게도 자리를 남겨주어야 하니 너에게 다정한 뽀뽀를 전하며 이만 편지를 마치려다.

피에르

그리뜨 언니에게

난 피에르 오빠와 서울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는지 언니는 상상도 못할 걸. 오빠는 잘 있는 것 같아. 바이엘(Bailleul)에서도 신학기를 잘 시작했으리라 믿어. 공동체 모두에게 나의 좋은 추억을 전해주고 또 오딜(Odile) 수녀에게 편지와 엽서, 고맙다고 전해 줘. 특히 내가 오는 날 언니를 보내준 마르그리뜨 마리(Marg. M) 수녀에게 감사를 전해 줘. 나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나는 음반이며 책 등 그 모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잘 도착했어! 그런데 온 가족의 사인을 받은 엽서 한 장을 깜박 잊고 사진 앨범 속에 넣어둔 채 그냥 온 것 같은데? 혹시 언니가 그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보내주면 고맙겠어. 온 마음으로 언니를 포옹하며,

테레즈가

오늘 아침은 지원자, 청원자, 수련자, 학생 모두 80명이 노래부르고 기도를 드린 멋진 미사였다.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는지!

1979년 12월 5일

사랑하는 마르고똥에게

벌써 성탄과 새해가 시작되어 편지를 띄우는구나. 마무리도 잘 해야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니! 너에게 좋은, 그리고 기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훌륭하고 거룩한 1980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너의 오른쪽 왼쪽 양 뺨에 뽀뽀를 보낸다. 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러저러한 근심거리들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너무 큰 근심거리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영적 성화와 육신의 건강과 모든 사업의 성공을 허락하시기를 빌며 또 너희 아이들이 너에게 너무 걱정을 끼치지 않고 많은 위로를 안겨주기를 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느끼기 시작하겠구나. 았았다가 일어서려면 잠깐 휘청거리기도 하고.... 혈압이 200까지 오른 적이 있다! 약도 먹고 베아트릭스 수녀가 매번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어서 140정도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그것 말고는 잘 자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킨다. 여전히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도 계속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책을 적게 읽어서인지 착상도 예전보다 덜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거쳐야겠지. 마들렌느나 르네, 주느비에브는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가 보더라. 이제는 편지에다 건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걸 보니 우리가 늙긴 늙었나보구나.

지난 9월에 이틀 동안 테레즈가 와 있어서 그때 너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는 잘 받았겠지. 그 아이가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깔끔하게 해주었는데 너무 짧게 있다가서 어찌나 아쉽던지! 글썽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이틀 후인 월요일 아침에 떠났잖니!!! 그래도 그나마 아예 없었던 것보다 낫지만.

우리의 총장 수녀는 전세계 총장 수녀 회합이 있어서 11월에 로마로 떠났다. 그녀는 우리 성가회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수녀회 대표로서 참석했고 또 그 기회에 로마에 있는 “레지나 문디 (Regina mundi)” 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녀 4명도 만나려고 떠났다. 회합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열렸단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고 공동 쇼핑 시간에 나가서 나를 위해 노르망디산 까명베르 치즈를 사다 주어서 지금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다.

정치적으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너도 신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 남한의 대통령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며 고향 친구인 비서실장에 의해 살해되었다.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대통령은 두 명의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그가 많은 사람한테 어지간히 멸시를 받았던 모양이다. 교회는 그 대통령과 여러 차례 다투는 바람에 아직 3명의 사제가 투옥되어 있는데,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며 단지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는 그게 대역죄가 된단다. 석방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제들은 아직 출감하지 못했으니 아마 새 대통령 선출 때나 기다려보아야겠다. 차라리 그런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곳의 상황은 터지기 직전이라 북쪽 측과도 협상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협상을 준비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한단다. 내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권자 대표들이(약 2500명) 선출할 테니까....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지. 나도 너처럼 자끄와 폴, 르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그 신년 편지에 강복을 담았으니 그 편지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이곳에 딸이 300명이 되다보니 점점 일이 많아지는구나. 3월 19일에 2명의 지원자가 입회식을 가졌고 청원자 25명, 1년 수련자 15명, 2년 수련자 12명 해서 모두 54명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미 서원을 마친 수녀들까지 합하면 그렇게 된다. 일전에는 한 수련자가 머리 속에 낭종(囊腫)이 생겨 머리에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해야 했는데 비용이 1,500,000원, 새 프랑으로 15,000프랑이나 들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어쨌든 우리를 책망할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그녀를 수련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가장 힘든 게 난방인데... 이곳의 날씨는 무척이나 춥고 게다가 나무를 때는 난로는 없고 석탄은 턱없이 부족하고 프랑스처럼 난방유를 얻기란 힘들다. 나야 병원 덕분에 난방유를 좀 얻을 수는 있지만. 요즘 내 방의 난방 시설을 난방유로 가동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중앙 난방이 될 것이다.

한 달 후 성탄을 지낸 다음에는 새 총장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런 일을 앞두고는 늘 겁이 난다. 나야 지금의 총장이 계속 하기를 바란다. 지금의 총장 수녀가 일을 잘 하고 추기경님도 그녀를 무척 아끼신다... 그녀는 이곳의 수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수녀들에게도 호응을 얻는 바람에 “수녀 연합 총장”으로 임명되어 로마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글썄, 그녀가 거기서 내게 노르망디산 까망베르 치즈를 사다주었던단다!! 덕분에 난 요즘에 그걸 맛있게 먹는다. 테레즈가 여기 왔을 때는 이곳 수녀들이 하룻밤 만에 그 아이 몸에 맞추어 수도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주 잘 어울리더구나! 너희는 복장에 있어서는 많이 자유로운 것 같던데... 여기는 그런 자유는 부족하다. 청원자부터는 모두 복장이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수녀들이다! 너에게 아직 할 말은 많지만 이만 마쳐야겠구나.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내 주소가 인쇄된 봉투를 두 장만 보낸다. 봉투가 다 떨어져서 다시 인쇄를 해야 하거든.

1980년 12월 1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너의 11월 12일자 편지를 받은 지도 벌써 열흘 정도가 흘렀구나. 너의 편지는 언제나 어찌나 다정하고 어찌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지. 그래, 너는 여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제 사도 바오로께서 “이제 곧 밤은 지나가고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나는 월터(Walter)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도 나를 모를 것이다.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 수녀들이 수를 놓은 식탁보와 수건 6장을 세트로 보냈다... 그렇다고 그 결혼이 내 맘에 든다는 얘기는 아니다... 엘렌느는 이제 독일에 가서 살아야 할 테니 나하고는 끝난 것이지.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볼 것 같지는 않다. 네 말처럼 “유럽 건설을 위해선” 결혼만한 게 없겠지! 그래, 너는 이사를 했다고? 이사를 했어도 여전히 같은 집이고 다만 학생들과는 더 가깝고 선생들과는 멀리 떨어졌다니 그게 훨씬 좋은 거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마음을 다 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전해 준 베르트랑 소식은 희소식이더구나. 반면에 사비에르(Xavier)에 관한 소식은 우울하다 못해 가슴이 무척이나 아프다. 기도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빅 뉴스가 있다. 내가 12월 9일 저녁 6시 30분에, 거기 시간으로는 아침 11시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그것도 4등 레지옹도뇌르 훈장이 아니라 1등 공로 훈장을 받는다. 진짜 보석인 훈장은 대사가 직접 상훈국에다 돈을 내고(돈을 주고 사야겠지!) 산 것이다. 훈장값은 새 프랑으로 500프랑이다.

나는 다행히 병원 덕분에 병실(그리고 내 방도) 난방과 세탁용 기름을 하루에 한 트럭씩 얻을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베아트릭스 수녀가 마치 어미닭처럼 나를 보살펴준다. 요즘은 그 수녀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마침 서울에 사시니까 어머니를 뵈러 갔다 이곳으로 오곤 한다.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아서 꼭 필요할 때는 그 수녀를 대신해서 다른 수녀가 오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는 명이 짧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너도 나이가 66살이고 나는 70살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니! 제르멘느 숙모님처럼 오래 살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파리외방전교회 기념일에는 수도회 원장님이 내게 5,000프랑이

나 되는 큰 돈을 보내주셨다. 그게 다 엄마 아빠가 주신 선물이지. 올해는 수도권 건물 전체를 다시 지었다. 옛날 건물은 시멘트 벽돌로 지은 바람에 누수가 되었거든. 우리의 어린 수녀들은 점점 더 숫자가 불어난다. 내년 입회식인 3월 19일에는 벌써 20여 명이나 되는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3개월이나 더 남았지만. 일요일마다 오후 2시에는 수련자들이, 7시에는 청원자들이 내 방으로 TV를 보러 온다. 불행하게도 이곳의 TV 방송은 무척이나 통제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숫자가 꽤 많은(250개)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이 자유롭지만 그러나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이 정부는 불편한가 보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기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피에르

1981년 10월 7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그래, 네 소임이 바뀌었다구! 거의 40년 동안 네가 그토록 헌신했던 아이들을 떠나고 그 대신 이제는 너에게 노인들을 맡겼다고! 그건 완전히 다른 일이지, 하지만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라고 너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엔 백지 투표에 서명을 하는 것이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분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밝혀주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란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총이고 사랑이니까. 그러니 축하한다. 새로운 시기를 향해 전진하거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곳의 나도 역시 어린 수녀들과 함께 140여 명의 노인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지체부자유이고 맹인이고 불쌍한 행려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누이일 뿐만 아니라 동료인 셈이구나! 병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는 정신적 장애인들이다!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에 맞서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억울하니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중소,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하거라. 그래야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테니까!

네가 거기서 이사를 하는 동안 9월 1, 2, 3, 4, 나흘 동안 리제뜨가 이곳에 다녀갔다. 그 아이는 파리에서 정해놓은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내가 미리 일정을 잡아 놓았고 우리는 그대로 시간을 보냈으니, 정말 멋지지! 그 아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총장 수녀의 차에 태워서 공사중인 10층짜리 새 병원 건물과 한창 가동 중인 처음 병원 건물, 110명의 노인이 있는 양로원 건물 그리고 2,500명의 여학생들이 있는 중고등학교 등 4곳의 주요사업 현장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 다음에는 10여 년 전에 지은 병원 건물을 보러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근사한 저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서 공동체에서 준비한 환영식에서 수련자, 청원자들이 노래를 여러 곡 불러주었고 선물을 교환했다.... 9월 2일에는 늘 그렇듯이 미사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동차를 타고 옛날 내 본당이었던 논산으로 출발했다. 비록 비는 내렸어도 그 아이는 차 안에서 내내 산이 많은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다. 논산에 가서는 당연히 ‘내가 지은’ 성당을 보여주었고 남학생 1,500명, 여학생 1,500명이 각각 있는 나의 중고등학교 두 곳을 구경시켰다. 이 두 학교 덕분에 논산은 현재 본당이 둘이나 되어 교우가 모두 5,000명에 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튿날에는, 옛날 스카우트 친구이며 가르멜의 전 원장이었던 마리 리프랑(Marie LIFFRAN) 양을 만나러 대사관에 갔다. 그리고 리제뜨도 여자로 당연히 백화점에 들렀는데, 그 백화점은 파리에 있는 ‘봉 마르세(Bon Marche)’ 보다 훨씬 멋지더라.... 오후에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산에 올라가서 인구 8백만이나 사는 광대한 이 도시 위로 해가 지는 광경을 감상하고 왔다. 4일, 금요일 아침에는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판문점을 방문했다. 점심 때 집으로 돌아와 푸짐한 점심을 먹고 가방을 꾸리고 작별인사를 나눈 다음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명동 성당과 순교자 성당을 구경했다. 리제뜨는 일본을 관광하고 후지야마를 등반하겠다고 5시 비행기를 타고 나를 떠나갔다.

다음 번 세계올림픽대회는 1988년에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었나보더라! 경쟁지였던 나고야를 물리쳤으니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한 승리이지... TV에서는 온통 그 얘기뿐이란다.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다음 번 편지에는 너의 집 도면을 보내 주든지 아니면 축소한 도면을 그려서 보내주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거다. 보르도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식사 준비도 내가 하니? “믿음의 부인”이라니, 도대체 새로 생긴 그 명칭이 다 뭐냐?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네 오빠가 마르그리뜨 성녀의 축일을 축하한다!

피에르

1982년 12월 15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복되고 기쁜 성탄이 되기를! 또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수녀들 모두가 직천당 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네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적절한 말들로써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굳건히 강직하고 근심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지니며 슬픔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나 역시 수녀원 외에도 2개의 양로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 곳에는 110명이 있고 또 한 곳에는 40명이 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보기에 딱하고 처지가 안된 이들은 나이 많은 이들과 맹인들이다.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8명이나 있다.

너도 알 듯이 테레즈가 이곳을 다녀갔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더니만 결국 이 오빠를 보러왔구나.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구경시켜주었다. 보나마나 그 아이가 너에게 이미 여기 다녀간 얘기를 했겠지. 그 아이는 희소식도 가져왔고 또 나쁜 소식도 가져왔더구나(뽕쌈, 베르나르, 자비에에 관한 소식들 말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모두 60, 70세를 넘도록 살아있으니 이는 하느님의 큰 은총이란다. 벌써 15일 전에는 성 프란치스코 사비에르(St. F. Xavier)회에서 22명의 착복식이 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을 거란다! 나보고 그 착복식에 와서 강복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네가 그 현장을 봐야 하는데!!!

너는, 건강한 거니? 잠은 잘 자고 밥은 잘 먹니? 대도시인 보르도 시내를 가끔 구경할 시간은 있는지? 너는 혈압은 없니? 네 오빠는 혈압이 220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병원에 가서 재보니 140밖에 안 되더라. 어떻게 하니, 집에서 음식을 조절하라는데, 담배, 소금, 설탕, 버터는 더 이상 입에 대지 말라고 하니. 맛있는 것들만 끊으라니! 하느님의 은총이 한국 땅 위로 지나가시나 보다.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세레자들을 많이 만드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 한국인들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한다. 그들은 모든 자원을 끌어들이며, 대통령은 한국 물건들을 사줄 만한 나라들을 순방한다... 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란다. 의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 무기, 선박, 모든 게 국내에서 만들어진다. 그들은 특히 옛날 프랑스 식민지 나라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은 신속하게 재건되어 파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건물들이 이곳에 있으니, 서울역 앞에는 32층이나 되는 거대한 빌딩이 있다! 그들은 배운 경험을 잘 이용한다. 나 역시 (아니 우리 수녀들도) 침대가 480개나 되는 큰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학생은 어찌나 많은지 교사 한 명당 70명의 학생을 맡아야 할 형편이다!

다시 한 번 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천당에 가기를 기도하마. 뽕뽕이 담긴 인사를 전하며,

피에르

1984년 5월 31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나는 에댕(Hesdin)이나 혹은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기대할 수 없을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다! 교황 성하를 본 것이다. 네 말처럼 그런 뒤에 오는 허탈감을 짐작하겠구나. 자끄와 주느비에브도 만났다.

너도 보르도 대주교를 알지? 그이와 직접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이를 만났다. 그이에게 가서 내가 요한 마리(24) 수녀의 오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날만큼은 나는 그들이(프랑스인들) 순교한 지역의 본당 사제로서 있었으니 그런 말은 하지 못했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서울의 추기경님은 내게 앉아서 미사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럴 경우에 내 복사는 베아트릭스 수녀란다. 자끄와 주느비에브와 나는 논산에 있는 나의 옛 본당을 보러 갔는데, 여전히 튼튼하더구나! 그리고 판문점도 둘러보았다. 그들은 서울이 인구 8백만이 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거대한 도시라는 걸 실감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건물을 짓고 있는 서울은 거대한 도시다. 그렇다고 서울이 단조로운 도시는 아니다. 지하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고 근교에는 100개도 넘는 산이 있으니, 로마를 ‘일곱 산 도시’ 라고 한다면 나는 서울을 ‘백 산 도시’ 라고 부르련다.

나는 외출할 때면 늘 택시를 탄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한 번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을 8시간이나 기다렸단다! 반면에 아미앵(Amiens) 순례자들은 모두가 불만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어디서나 불평투성이였다... 뮐르(Leul) 주교의 순례객들이 그랬단다. 프랑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과 친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래서 각 버스 안에 M·E·P 사제 한 사람씩 타고 있으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되어 일어나겠지.

난 혈압이 높아서 다른 어려움까지 생겼다... 이제는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구나. 타이프라이터의 자판을 자꾸 틀리는 바람에 편지를 써놓고 보니 낙서장처럼 되어버렸어. 걱정도 되고 슬프기도 하다. 이곳의 의사가 잘 치료를 해준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4년 8월 22일

마르그리뜨에게

병원에서 퇴원했다. 한 15일을 입원해 있었구나. 오늘부터는 편지를 짧게 쓰려고 한다. 이제 내게는 너무 힘겨워진 정신적인 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열흘 전부터 찌는 더위가 계속되어(37도나 된다) 혈압을 재보니 8월 19일에는 140/80, 20일에는 130/80, 21일에는 140/70, 22일에는 130/85가 되는구나.

이곳의 수녀들은 거의 반이 시골로 떠났다. 이곳의 더위는 기승을 부려 오늘도 37도나 된다. 코요(Coyos) 신부와 아르망 뒤랑(Armand DURAND) 신부가 다녀갔다. 병원은 만원이라 매일 700건의 진료가 있다. 다른 수녀원의 수련자들이 와서 우리의 일을 도와준다. 나는 잘 먹고 잘 자니, 내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성식 때 너희 대주교를 본 것 같지만 그때 나는 게리 뮐리에(Gery LEULIET) 주교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그와 같은 행사는 유익한 것이지. 버스를 300대나 동원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것인데, 야외 공기야말로 건강을 준다. 서둘러 이 편지를 마쳐야겠다. 네가 하느님께 청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분께서는 매일 우리를 위해 제대 위로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에르

1984년 11월 7일, 서울

나의 착한 마르그리뜨에게

나도 일찍부터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병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날에는 베아트

릭스에게 무척 엄격하게 대하고 또 어떤 날에는 무척 개방적이다. 사제의 식복사들의 영원한 문제이겠지만, 나는 나를 그녀의 보호 아래에 두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네가 오죽하면 나에게 말했겠지만 정말 화가 난 것이란다!

보르도 교구에서는 루이 불리와 성인(25)의 축일을 합당하게 치른 것 같더구나. 그분이 썼던 큰 모자는 단지 한국에서 상(喪)을 당했을 때 장남들이 그 모자를 쓰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저 모자일 뿐이고 게다가 상복도 있다. 또 버팀목 2개에 의해 지탱되는 베일이 있는데 그 베일이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젊은 선교사들이 들키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게다가 상주(喪主)에게는 말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더욱 안전했다. 따라서 그것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만큼 젊은 선교사들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다.

로마에 갔던 사람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교황의 여행보다 더한 대가를 말이다! 그래서 질투들이 난 모양이고! 주교 3명과 사제 7명이 동시에 성인품에 오르니 그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니? 그런데도 여기에는 아직도 치유해야 할 병들이 많단다!! 그 모자 덕분에 교회는 한국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다. 너희와 니콜라에 관한 일은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자비로 치유의, 아니 기적의 은총이라도 허락해 주십사하고 한국의 103위 새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또 교황과 아빠, 엄마의 중재기도도 청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로는 우리 모두의 공로를 합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너의 늙은 모습을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구나. 너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너의 일정표 말이다. 오전 6시 미사, 6시 30분 묵상, 7시~8시 아침 식사, 청소, 기도, 성무일도, 기타 등등.... 이런 것 말이다.

룰루 숙모님을 뵙거든 내 대신 안부를 전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분도 아니며 실수를 하는 분도 아니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려라. 나는 이제 겁나는 것이 없다. 출발도 좋았고 이제 지원자가 약 90명이나 되는 겁나는 숫자이지만 난 앞날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1985년 5월 3일(혹은 5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너무 오랫동안 너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의 소식을 듣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구나. 나라도 너에게 편지를 써야만 할 텐데 편지를 쓴다는 일이 내게는 너무나 힘이 드는구나. 넌, 뭘 할 거니? 네가 일전에 찌꼬리 노래소리가 어찌구하더니 나도 오늘 아침에 또 그 새 노래 소리를 들었다. 성모성월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란다.

지난주에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이튿날로 장례미사를 드려주었다. 그런데 너는 올해 여름에는 어디로 갈 예정이냐? 거기는 볼만한 것들이 너무 많지. 선택할 것이 많아 고민해야 하는 너희들은 복 많은 사람들이구나. 루르드만 해도 항시적인 2개의 기적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사실 확인 사무실과 병자 대기실이 그렇지. 그 병자들은 바로 그들의 존재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니 말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종교와 무관한 명절이지만 모두에게 교육적인 날이다. 이 날을 빌어서 학위도 수여하고 상장도 주고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온통 그 말만 하고 경시대회를 열어 입상자도 내고 말이다. 며칠 후면 아버지의 날인데(5월 8일), 그 날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왼쪽 가슴에 종이꽃을 보란 듯이 달고 자랑하겠지. 노인들도 모두 그 꽃을 달 텐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평생 뼈빠지게 일을 하는가 보다. 최근에는 노동자 구역에 노동자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에 아주 민감하다. 우리는 공산주의자 취급을 당할 위험도 있으나 하느님께서 강복만 해주시면 그것은 출범하고 성장할 것이다.

너도 이렇게 해보렴, 내 금경축 기념일에 참석하느라 과감하게 허가를 신청했던 테레즈는 그것이 자기의 당연한 요구임을 단언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보렴. 어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잖니. 그래서 혹시 네가 오게 될 경우 혼자 오지 말고. “과감한 자들에게 행운이 온다”는 말이 진짜 맞는지

나도 알고 싶구나. 아시아를 보고 싶다는 게 너의 유일한 바람이잖니. 오로지 수련자들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노래와 춤,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력해봐라.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테니까. 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시들어 있는 너를 보는 것은 너무 끔찍할 테니 이 편지를 보내마.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또 살갓으로도 포옹하게 되기를 기대해보마.

피에르

1985년 9월 17일, 서울

사랑하는 기프 언니에게

언니는 피에르 오빠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겠지. 밥소사! 우리가 도착해 보니 오빠는 너무 많이 변해있었어.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힘겹게 간신히 하고 가벼운 풍이 왔다나봐... 어렵게 회복은 되고 있지만 회복이 아주 느려. 우리는 오빠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걷게 하고 말을 시키고 했지... 그래서 조금씩,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오빠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고 대화를 이어가기도 해. 우리가 오빠의 축일을 어떻게 보낼지 얼마나 염려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런데 다행히도 축일을 잘 보냈어. 추기경님, 교황 대사, 주교 아홉 분, 사제 오십 분, 옛날 본당 교우들, 모든 수녀회에서 온 350명의 수녀들 등등... 우리는 깜짝 놀랐지. 우리는 한복을 입어야 했고, 피에르 오빠도 한복을 입었어. 샴페인에 쇠고기... 우리는 프랑스식 당과를 만들었지. 그리고 수련자들이 한국 무용과 노래를 선사했는데, 그토록 전형적이고 그림 같은, 한국적인 잔치에 우리가 또 참석할 기회는 영영 없을 거야... 그리고 총장 수녀님께서 하루에도 열 번은 피에르 오빠를 찾아와 말을 하지. 모두들 우리에게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었으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피에르 오빠는 여전히 미사를 집전하고 여전히 좋으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를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지만, 오빠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오빠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만큼의 방문은 받지 못하겠지. 청원자, 수련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 주고, 또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님들도 방문해 주고, 코요(Coyos) 신부님은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고, 테레즈를 공항에 데려다 줄 때도 그가 같이 갔고, 오빠도 같이 갔어. 리제뜨와 나는 오빠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입이 단혀지질 않았는데, 오빠네 병원은 그야말로 놀랍기만 하니, 나중에 브르뜨뉴에 돌아가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또 오빠가 옛날에 있었던 본당에도 가보았고 한국 관광도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는 산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는 못돼. 한쪽에는 낙후된 구역이 있는데 그 곁에는 65층이나 되는 건물이 서 있는 새 구역이 있고, 교통은 그야말로 문제거리야.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웃은 화려하게 입고 있어.

이만 안녕하며,

안느 마리가

내 사랑하는 마르그리뜨에게

어떻게 지내니? (이하 원문 미판독)26)

언니는 좋겠네. 피에르 오빠가 5줄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처음 보내는 사람이 언니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이거든. 하지만 정말 오빠 본인은 기뻐하질 않는군. 집중을 하면 그만큼 피곤하니까. 테레즈가 떠나자 오빠는 무척 슬퍼해... 우리마저 떠난 다음에는 오빠가 어떨지 걱정이 돼. 우리는 내일 일본으로 떠나서 거기서 25일까지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10월 1일에 홍콩으로 떠날 거야. 오빠 잔치날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매일 비가 오네. 오빠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줘, 오빠가 편지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럼 안녕,

리제뜨가

1985년 11월 1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나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 잔치는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잘 치렀다. 서울의 추기경님, 교황 대사, 5, 6명의 주교, 대주교님들이 참석했고 총장 수녀는 능숙하게 하객들을 접대하고 또 모든 초대 손님들에게 기념 연필을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늘지게 만들었으니, 나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잃고 몇 마디 실언을 했구나. 그거야 전혀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만 이후로 너에게 자주 편지를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편지 한 통을 쓰고 나면 보름 동안이나 두통을 앓으니 의사는 편지 쓰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다. 편지 한 통에 보름이나 쉬어야 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네 편지를 보니 너도 결석이 생기기 시작했나 보더라.

오늘은 식구 모두가 산소에 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동료 신부들이 날더러 여자들하고 같이 산다고 다소 비난을 하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지. 어쨌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내가 지난번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을 알겠구나. 그러니 이제 개선가를 부르며 편지를 끝내야겠다. 온 마음으로 힘차게 너를 포옹하며,  
너의 오빠 피에르가

1986년 10월 30일, 서울

마르그리뜨에게

나는 잘 지낸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말아라. 너의 긴 편지 잘 받았고 그건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가족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교황께서 프랑스를 방문하신 소식을 뜨문뜨문 듣고 있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7년 3월 26일, 서울

예수 마리아 요셉

사랑하는 마르그리뜨에게

(피에르 오빠의 말을 받아 적을게)

“우울한 성인은 보잘것없는 성인이다.” 이것이 우리 성직자들의 토론에서 가장 유토피아적인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 모임들은... (오빠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있어) 너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토록 다정하고... 그토록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는 너의 편지에 감사한다... 그건 나를 유익하게 하는구나.

내가 편지를 이어갈게... 내게 이만큼의 말을 하는 데에도 오빠로서는 온 힘을 다해야 했다는 것을 언니는 알아야 해. 나는 화요일 저녁에 이곳에 도착했지만 오빠를 깨우지 않고 이튿날 미사 후에나 오빠를 만나 인사를 했지.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고 무척이나 아름다웠지. 그런데 오후부터 해가 나서 모두 녹아버렸어. 26일, 오늘 아침에 피에르 오빠는 방에서 미사를 드렸고 거기에는 물론 베아트릭스 수녀와 또 다른 수녀 두 명이 함께 미사에 참석했지. 언니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 오빠는 아무 기운이 없어서 이따금 입술만 움직였는데 아니 그건 움직였다고 할 수가 없겠지. 베아트릭스 수녀가 오빠를 대신해서 읽었어. 오빠가 라틴어로 읽은 축

성문마저도 너무너무 작아서 들리지를 않았고, 오빠는 성체를 들지 못해서 베아트릭스 수녀와 함께 성체와 성작을 거양하는데 그때에도 오빠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는 것 같았어... 오늘 코요 신부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 그에게 가끔 와서 오빠와 함께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해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와서 보니 오빠는 더 악화되어 있어서 걷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하고 다리 한 쪽을 들어올리려면 얼마나 큰 일인지 오빠는, “이 땀 좀 봐, 그런데 다리는 꿈쩍도 안 해.” 특히 목소리가 약해졌어. 오빠로서는 대화를 갖는 것도 생각을 계속하는 것도 어려워.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오빠가 어제는 마당에 나가 산책을 하고 싶다는 청을 해서 나는 펄쩍 뛰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고 아무 탈없이 들어와서야 나는 한숨을 쉬게 되었지. 그런데 모두들 얼마나 친절한지! 공항에는 두 장상 수녀가 나를 마중 나왔고 집에서 현 총장 수녀와 전 총장 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로마에 가있는 우리 총장 토마스 아퀴나스 시마다 수녀님 덕분에 두루두루 과자 선물을 나누어주었어. 총장 수녀님 이하 모든 수녀님들에게 적당하게 분배해 드렸고 베아트릭스 수녀 뭍으로도 남겨두었지. 카주코 마에다(Kazuko Maeda)가 신부들을 위해 꼬냑 한 병을 준 게 있는데, 마침 코요 신부가 와서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 나는 온종일 오빠 곁에서 지내고 오빠는 즐기고, 우리는 성무일도를 읽고 아니 내가 오빠한테 읽어주는 편이고 묵주기도를 2단 정도 바치고 등등... 오빠는 의무를 다하는 데는 빈틈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러 오는데 책을 들고는 아무 쪽이나 펴서 읽는 거야. 딱한 피에르 오빠... 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인들과 지내니까 이런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오빠는 식사는 잘해. 식욕이 좋아서 전에 빠졌던 10kg이 다시 쪼어. 잠도 잘 자고, 그런데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언니가 보내준 편지는 고마워. 집에 들어가 보니 언니의 편지 한 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던군, 작년 12월에 쓴 모양이던데... 그리고 그후로도 니스에서 쓴 두 통의 편지도... 잘 쉬고, 언니의 ‘소임’을 위한 기운을 재충전했기를 바래. 나는 마지막 주에 지독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여기에도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일이 저절로 정리가 되어 이렇게 서울에 있게 되었어. 목소리가 아직도 정상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4월 8일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나도 여기서 내 70살을 맞겠어. 정말이지 인생이 어찌나 짧은지. 1월에 파리로 와줘서 고마웠어. 난 로마에 갔던 보고서를 내 총장 수녀님께 올리고 일본어로 쓴 보고서는 요츠수야(Yotsuya) 총장 수녀님께 드렸어. 원장 수녀님은 감사의 표시로 피에르 오빠 앞으로 봉투 하나를 주었어. 언니에게 피에르 오빠와 내가 기쁜 부활을 맞기를 기원하며 언니의 총장 수녀님에게도 우리 두 사람의 인사를 전해줘.

동생 테레즈와 피에르가

1988년 5월 5일, 서울(어린이날)

사랑하는 누이에게

네가 보낸 편지는 4월 초에 잘 받았고, 고맙다. 오늘은 참으로 화창한 봄날이구나. 나는 일어나 앉아서 서재에서 텔레비전을 본다. 몸도 그럭저럭 괜찮고 말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 기분도 괜찮다. 휴가를 떠난 코요 신부가 그림구나. 뒤편(두봉) 주교께서 오늘 아침 나를 보러와서 우리는 함께 ‘천상의 모후(Regina Coeli)’를 불렀단다. 지난 금요일에는 임진각(38선이 있는 곳,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갔었다. 거기서도 나는 노래를 불렀다. 4월에는 스카이웨이로(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의 도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진달래며 다른 봄꽃들을 구경하고 왔다. 봤지, 내 건강은 좋아졌단다. 드네스(D렉뤼, M·E·P 경리부) 신부가 방문하면서 내게 초콜릿을 갖다 주었다. 펠리스(P랑isse) 신부는 프랑스에 가있다. 매일 마당과 수녀원을 한바퀴 돌곤 한다. 안느 마리와 리제뜨가 보내준 치즈를 어제 잘 받았다. 일본에 있는 테레즈로부터 카드를 받고 오늘 답장을 보냈다.

다시 한 번 네가 보내준 소식에 감사하며 기도 안에서 일치를 발견한다. 너를 포옹하며. 주소를 한 장만 보내니 이것을 복사하거라.

피에르

생제 신부님은 건강하십니다.27)



1989년 3월 13일, 서울

요한 마리 생제 수녀에게(28)

수녀님의 오라버님을 대신해서 제가 편지를 씁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사흘 전부터 자리에 누워 지내시며 매일 팔에 영양제 주사를 꽂고 계십니다. 제가 신부님께 수녀님의 편지를 읽어드렸더니 신부님께서서는 귀기울여 들으셨고 또 제가 묻는 말에도 억지로 대답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베아트릭스 수녀님의 말씀으로는 신부님께서 식사는 잘 하시는데도 마르셨다고 합니다. 코요 신부님도 앓으셨고(지독한 감기에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외출을 뜬하게 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잠깐 성 신부님을 뵈러 다녀가셨습니다. 펠리스 신부님께서 매일 성가회 수녀원 미사를 드려주시기에 성 신부님을 자주 뵈고 가십니다. 뒤퐁(두봉) 주교님과 드네스 신부님도 이따금 방문해 주십니다. 성 신부님 방에는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새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올해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봄이 와 있군요. 방문 사제가 없는 날에는 원장 수녀님께서 매일 성체를 모시고 오십니다. 드네오 신부께서 일본에 계신 동생 수녀님의 편지에 대신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보르도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녀님의 주소를 알고 수녀님을 뵈러 갈 생각이었으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고 또 급하게 가족들도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그만 자동차는 어느 차고에 맡겨두고 곧바로 기차를 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수녀님의 편지에 감사를 전하시며 당신이 직접 답장을 쓰시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수녀님께서 훌륭한 포교사업을 하심에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며,

피에르

서울 갈멜의 아르멜 뒤랑(Armel Durand)

1990년 12월 28일, 서울

수녀님께

저는 어제 오후에 피에르 신부님을 뵈고 왔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건강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아름다운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수녀님께서 이달 16일에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렸더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더군요. 저는 신부님께 당신이 수녀님의 대부이심을 힘주어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신부님께서 제 말을 알아들으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일전에 신부님께 성화를 두 장 드렸더니 신부님은 그것을 당신을 위해 헌신하며 간병하시는 두 수녀님께 주셨더군요.

피에르 신부님께서 불운을 당하신 것이 어느덧 3년 반 전의 일인데, 그때에는 그것이 이토록 오래 갈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피에르 신부님께서 예전에 10년 동안이나 본당을 맡으셨던 서울의 혜화동 성당 주임 사제에게 연락해서 장례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부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 곁을 떠나실 것만 같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저희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죠. 주님께서서는 신부님이 움직이지 않음의 사도직과 고통의 사도직을 오래오래 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떨어지지 않는 고혈압 때문에 한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많은 약을 먹었지만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저는 퇴원했고, 사람들의 말로는 제 나이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제 경우에 유일한 치료책은 음식에서 소금을 금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의 겨울이 유난히도 혹한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곳의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추위에서 보호를 받았던 편이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온도계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저야 추위에 잘 가려져 있지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질 못하니 안타깝지요.

수녀님께 복되고 거룩한 1991년을 기원하며 편지를 마치렵니다.

코요 신부 드림

### 3. 여동생들에게 쓰신 편지(29)

1952년 12월 31일, 논산

리제뜨에게

폴(30)의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너에게 보내니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편지를 폴에게 전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네가 그 편지를 읽어도 괜찮다. 지난번엔 너에게 편지를 막 부치고 나서 그 날로 네가 보냈다는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엔 돈 까밀로(Don CAMILLO)의 <세계일주(le petit monde)> 한 권이 들어있더구나. 아주 재미있고, 덕분에 선교지를 일주했단다. 그리고 과학잡지와 여행잡지,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서적, 게임용 카드 한 벌 등이 들어있었고 또 치즈 세 조각도 들어있었는데 치즈는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단다. 고맙다, 그리고 그런 건 계속 보내주어도 괜찮단다. 여긴 프랑스 잡지라고는 한 권도 없고 있다 해도 일년 전 잡지들이나 있으니 네가 잡지를 보내주면 선교사들에게 행복을 주는 셈이지. 그렇다고 소포 무게를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말거라. 나는 1월 12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드디어 자주권을 얻은 나의 수녀들에게 간단한 피정 강론을 할 것이다. 내가 뽑은 첫 수녀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단다. 여기는 큰 추위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덮을 게 다 있으니 내 걱정일랑 하지 말아라. 너와 또 식구 모두를 포옹하며, 복되고 거룩한 새해를 기원한다. 필립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편지를 기다린다는 몇 마디 적어 재미있는 그림의 카드만 한 장 보냈다. 상렉 르페르(P. Senlecq Lepers) 부부 주소 앞으로 보냈다. 최소한의 인사는 띄운 것이니 그가 답장을 보내오면 그때 나도 길게 편지를 쓸 것이다. 그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 그가 먼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폴에게 내 주소를 다시 알려주어라.

피에르

모두들 내 편지는 받았대니?

11월 2일, 논산(연도미상)

췌 주소가 약간 변경되었다.

리제뜨에게

며칠 전 너의 10월 14일자 편지를 받았단다. 편지가 일찍 들어왔더구나. 네가 보냈다는 소포는 아직 받지 못했다.

11월 2일! 모든 죽은 이들을 기리는 날이구나! 온통 아빠와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온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 기도하며 내일 당연히 두 분을 위해 미사를 드릴 것이다. 옛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 분은 참으로 선하셨고 아름다운 분들이셨다. 두 분은 완벽하지는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겠니? 두 분처럼만 산다면 나도 구원을 확실히 받을 텐데 말이다!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이셨다. 네가 빈 집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읽고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자, 이제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건 지나간 과거이니 미래를 바라보자꾸나. 우리의 시간을 우

는 데 보내지 말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빠, 엄마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겠니?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이란단다. 나도 너의 모든 마음 고생을 다 이해하고 또 너의 용기에 감탄한다. 그래, 네가 이곳에 올 수 있다면 네가 할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녁엔 네 방에서 혼자 고독한 건 마찬가지일 거다.... 네가 어디 가서 알아보면 좋을까.... 적십자사나 UN 의료봉사기구 같은 곳에 알아보아라. 아니, 그런 곳은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가 볼 필요도 없겠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로마에 있는 관계자들과 서신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이란단다! 몬시뇰이라도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 하나를 창설해 달라고 청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잘 될 것 같다. 내가 청한 사업은 ‘엘렌느(헤레나) 성녀’ 라고 칭했는데, 너는 그 이유를 짐작하겠지. 물론 나는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엘렌느(헤레나) 성녀께서는 십자가를 찾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구했으니 우리도 십자가의 열매, 즉 구속된 영혼들을 찾고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했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의 출발이 좋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선교사들이 유럽의 교우들에게 눈요기 감으로 사진을 보내는 대신 교우들이 선교를 주제로 한 좋은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우리의 사목을 돕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맡을 조직을 청한 것인데 그 조직에서는 매달 10장 내지 20장의 확대 사진을 선별하여 그것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교회 현관이나 학교 출입구에 이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외교인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서로 일치시키는 효과도 볼 것이고 말이야.

갑자기 내 머리 속에 떠오른 이 착상이 어쨌든 로마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신앙부(agence Fides)에서는 내 편지를 “사도직에 봉사하는 사진. 한국의 어느 선교사로부터...” 라는 제목을 달아 인쇄물로 발간했다. 전 세계의 마리아 연합회를 맡고 있는 폴뤼센(Paulussen S.J) 신부는 이 구상을 받아들여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단다. 신앙부 부장은 이 계획을 심도 있게 받아들인 것 같다. 만일 이 일이 성공한다면 난 정말 기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만 되면 지역적이고 편협한 정신은 사라질 것이고 대신 보편적인 가톨릭 정신이 자리잡히겠지.

필립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장례일에 샴페인을 마시다니, 그게 될 말이나! 나는 내일 아침 공소로 떠난다. 내 본당으로 임시 병합된 본당에서 11월 25일에 견진성사가 있어서 라리보 주교님께서 견진을 주시러 오시기로 되어 있다. 오늘은 대어를 낚았다. 생전 처음으로 기도문을 암송하러 온 사람이 있었거든.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는 군재판관이란단다! 모두들 그 사람 앞에선 벌벌 떠는데 오늘은 그가 내 앞에서 떨어뜨렸다!! 나는 12월 6일에나 돌아온다. 그동안 잘 있고 용기를 내거라. 아기의 미소처럼 순진한 미소의 리제뜨! 너를 하느님께 위탁한다. 그분은 당연히 너를 사랑하시거든. 너를 사랑하는 오빠가.

피에르

1953년 1월 28일, 논산

마들렌느 누님과 르네 매형 그리고 안느 마리와 리제뜨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다시 일을 떠나기에 앞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을 판공과 성탄 축일, 연말보고서 작성, 두 번의 피정 지도로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을 지도해 주러 가 있었구요. 수녀들이 드디어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님이 우리 수녀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와 함께 처음으로 시작한 수녀가 장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일로 인해서 수녀들 사이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곧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수녀들은 선의로 충만해 있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을 한답니다. 수녀들은 현재 약 200명의 여아들이 (남아들은 몇 명 안됩니다) 있는 3개의 고아원을 맡고 있고 또 두 군데 군병원에서도 일을 하며 이제 막 소규모의 양로원 문을 열어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벌써 48명이나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3백만 원(미

화 150달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수녀들은 더 이상 내게 위탁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느님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이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어야만 하는데 그 비용이 제게는 만만치가 않군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풍성한 착상이었습니다. 제가 피정을 지도하는 중에도 사방에서 몰려와 수녀들을 청했습니다! 이제 수녀들은 적지 않은 선행들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을 이끌어 주고 고해성사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떤 때는 3주일 동안 고해성사도 보지 못한 채, 가르침도 받지 못한 채 지내곤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녀들 집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수녀들은 UN군들의 빨래를 해주고 생활비를 벌니다.

저는 벌써 봄 공소를 치르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제의 수요일에 떠나서 3월 19일까지 쉬지 않고 순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 후 첫 주일에 봐야 할 교우촌은 한 군데만 남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소를 한바퀴 둘러보려면 자전거로 약 450km를 달려야 할 겁니다.

어떤 불쌍한 젊은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외교인인 그녀는 나이가 대략 25살 정도 됐는데 남편은 공산당들 손에 죽고 부모도 죽고 남동생, 여동생 다섯을 길러야 하는데 막내 동생은 아직도 아주 어리답니다... 참으로 딱하지요!

매형과 누님께서 안느 마리를 그토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선하신 하느님께서 조만간 두 분께 백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끌레르 일은 정말이지 무서운 일입니다. 자살이든 아니든 간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앤 정말이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 애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욕을 당하는 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두 분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에 대해서는 도무지 대책이 안 섭니다.

안느 마리아, 네가 나를 위해 검은 모자를 하나 사 놓았다구... 그렇지 않아도 너에게 모자 하나를 사보내라고 편지를 적어 막 보내고 나서 모자가 두 개나 생겼단다! 그것도 미제 좋은 걸로 말이다. 그러니 네가 사놓은 모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환불하려무나. 대신 서류꽂이 3개를 보내다오. 25/30cm 크기의 종이에 각각 교우 가정마다 식구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례 날자 등등을 적어 놓은 것이 모두 500여 장이나 된다. 이 종이를 촘촘히 꽂아두어서 낱장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빼서 쓰고 다시 꽂아 두려면 서류꽂이가 필요하다. 그러니 그것을 구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또 내 강론 원고를 주제별로 정리해 둘 수 있는 서류 커버도 10여 장 보내다오. 그래야 타자본 원고들을 손쉽게 꺼내 보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같은 강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게 미사를 보내 주면 내가 여기서 미사를 드려주고 대신 네가 받은 미사 봉헌금으로 내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사서 편한 기회에 보내주면 되지 않겠니. 서류꽂이를 살 때엔 구멍을 내지 않고 꽂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내다오. 왜냐하면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매일 꺼내보아야 하는데 구멍을 뚫게 되면 금방 찢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말이다. 서류꽂이를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더구나. 그러니 그걸 구하려면 선진국에나 가야 할 형편이다. 교황께서 내게 주신 묵주는 단단하지가 못해서 유감이란다. 그 묵주를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그것을 빼앗아 가셨었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껏 사용했다만 매일 조금씩 부서지는 바람에 다른 묵주로 바꿔야 할 형편이다. 그동안 정들었는데, 또 엄마의 손때가 묻은 묵주인데, 아쉽구나. 솔랑주의 편지와 장의 짙막한 인삿말 그리고 딜루가 전한 뽀뽀는 나를 기쁘게 했다. 자끄 형님에 관해서는 비난할 생각은커녕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서류상의 계약도 없이 일을 하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삼촌들도 생각이 깊지를 못하셨던 것 같다. 연세가 있으신 삼촌들이 형님에게 좀더 앞날을 내다보는 충고를 했어야지. 끌로드느 정말 잘 치유되고 있는 거니? 또 르네 매형께서는 파리에서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니? 자끄 형님은 인도차이나에서 돌아오신 후 이제 뭘 하신대니? 그리고 크리스티앙은 어느 부대로 배치됐대니? 서류에 서명을 하러 오늘 우리 회의 경리부 사람이 오기로 해서 그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내야 하니까 이만 편지를 마치려나.

온 마음으로 식구 모두에게 포옹을 전하며.

피에르

1956년 3월 15일, 논산

사랑하는 형님과 누이들에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도무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로 대신할 수밖에 없군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양의 일이 부가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우촌을 모두 방문했습니다(현재 교우촌 수는 더 이상 22군데가 아니라 23군데가 되었으며 가을에는 24곳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교우촌을 방문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글썽, 눈이 오지를 않나 비가 내리지를 않나 길은 진창이 되는 바람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갖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아무 탈없이 잘 치렀으니 마귀만 성이 났겠지요.

요즘은 본당 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엔 꼬마 사내아이들이 교리시험을 치르러 왔었고 화요일엔 여자아이들이 다녀갔고 어제는 남학생들과 조금 큰 아이들 차례였으며 오늘은 여학생들 차례입니다. 다음 주 중엔 오로지 예비자들만 볼 것입니다. 예비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저는 그런 현상을 전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매 주일마다 제 방은 예비자들로 넘쳐나고 저는 그들의 출석 카드에 도장을 찍어주는 데만 한 시간 이상을 보낸답니다.

성토요일엔 분명 50명이 넘게 세례를 받을 터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 교황청에서 성토요일의 전례를 바꾼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바뀐 전례를 공부하고 성가도 프린트해야겠습니다. 성토요일에 저의 조그마한 본당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 미어지는데 그 많은 영세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고해성사만 해도 벌써 극도로 지칠 터인데 게다가 긴 성야 예절까지 하면 어떻게 될는지요?

저는 또 공사를 한창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1. 교실-비용은 학교와 주교님께서 대셨습니다. 넓은 새 부지 위에 교실 4개를 신축하는데(1층에 2개, 2층에 2개 그리고 계단) 이번엔 벽돌로 짓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그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마련될 때 할 것입니다.
2. 양로원-비용은 미국인들이 지원합니다.
3. 보다 비중이 있는 교우촌으로 교우 수는 너무나 많은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교우촌에다 소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전에 제가 어느 비좁은 방 안에서 세 쌍의 혼인식을 치르면서 미사 중에 장궤를 하다가 그만 신부를 발로 차버린(!!!!) 일이 있었던 그 마을입니다. 공사 비용은 저와 그곳 교우촌에서 마련합니다.
4. 연산에 집 한 채를 매입해서 (비용의 큰 몫을 에델의 수도원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일에 교우들이 한 데 모일 수 있고 또 저 자신도 어딘가 갈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5. 은진에서는 4년 전에 지은 소성당 곁에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엘 가면 제가 머물 곳이 없었고 또 성당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요즘엔 특히 고해성사를 주고 예비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언제나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청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4월 10일에는 미국인 사제가 주임으로 맡고 있는 본당에 가서 강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에는 춘천에 있는 사제들(아일랜드 사제들이지요)에게 피정지도를 해 줄 것입니다. 오는 5월 3일엔 파리에서 파견된 새 동료 3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저를 위해 아무 것도 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저에게 무언가를 사주시고 싶으시면 책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컬러판 그림책들을 사주십시오. 아니면 소시지들을 좀 사보내시든지요!!!!

미국인들이 아직도 우유와 버터, 현 옷가지, 신발들을 한 트럭 실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바람에 온종일 배급을 타러 온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저는 그것들을 처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만 식구들과 헤어져야겠군요. 모두를 포옹합니다. 저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주세요. 식구들의 편지를 받아 읽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휴식이랍니다! 제 염려는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건강하고 잘 먹으며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어요. 4월 15일은 서울에서 연례 피정을 갖습니다. 식구들 모두를 깊이 사랑

하는 당신들의 형제가 애정 어린 키스를 전합니다.

피에르

1958년 10월 4일, 논산

테레즈에게

어제는 예수 아기의 성녀 테레사의 축일이었다. 며칠 후면 너의 주보성녀이신 대테레사의 축일이니 미리 너의 축일을 기억하며 형제 안에서의 사랑과 기원과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나의 기도를 보낸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나는 조만간에 공소방문을 떠나야 하고 공소는 30여 곳이 되는데 보좌 신부가 아직도 한국말을 못하니 거의 나 혼자 공소 일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다음 주엔 새로 지은 사제관을 축성해 주시러 오신단다. 사제관 1층은 임시 성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건물은 앞으로 군부대 옆에 있는 본당이 될 것이며 성베드로관이라고 칭했다. 주교님께서 사제 한 명을 발령 내어 주신다면 나는 그 사제에게 공소 몇 군데와 1000여 명의 교우들을 넘겨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의 일이 좀 덜어지겠지.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의 장엄한 첫영성체가 있었다.

지금까지 309명의 영세자가 나왔으니 올해 안으로 영세자 수는 400명이 족히 될 것 같구나. 내 바람이야 크지만 너를 보러 갈 시간이 없겠구나. 하지만 네 쪽에서 한 보름간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온다면 내가 내 사제관에서 묵으며 내 식복사에게 요리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사제관을 보다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도 가르쳐 주면 좋으련만!!! 1960년 7월 7일, 그러니까 일 년 반 후면 내 사제서품 은경축을 기념할 터인데 그때엔 조출하게 가족끼리 하고 싶구나. 너와 함께 말이다. 그러니 미리 일을 알아보고 누구에게 (휴가를) 청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아라.... 물론 회칙상으론 그런 일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하겠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너도 투표를 했을 테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겠구나. 드골(De GAULLE)이 승리를 거두었으니 공산당들의 입이 썩 들어갔겠지! 그의 헌법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전반적인 그리스도의 정신과 형제애 그리고 현실적인 공동체 정신이며 간단히 말해서 현 세계를 분열시키는 그 모든 독트린을 넘어서 열렬함과 사랑을 자극시키는 그의 독트린이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꾸나. 이곳에 있는 선교사, 군인, 프랑스 교민 51명의 유권자 가운데 4명이 기권을 행사하고(대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우편 연락을 받지 못한 2명의 선교사가 그들이다), 39명이 찬성을 했고 8명이 반대를 했다.

요즘엔 새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겁이 난다. 건축 설계사는 설계하는 데만 1,150,000원을 요구했다!!! 결국 750,000원으로 깎아 주기는 했지만. 나는 100,000에서 200,000원을 예상했는데 말이다! 다행히도 나에게 그를 소개해 준 이가 자신의 돈으로 모두 내주기로 했다. 그는 바로 내가 예전에 맡았던 서울 본당의 교우이며 공화국의 부통령이란다. 성전 건축비용으로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구나! 그만한 돈이 내겐 없지만 하는 수 없지, 갖고 있는 돈으로 시작을 해서 기초 공사만이라도 닦아 놓고 조금씩 이어가야지. 한 10년은 걸릴 것 같구나.

요즘 나는 낙담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인들의 사냥터가 돼버려서 미국 가톨릭 선교사들은 금방석 위에서 뒹굴며 자동차도 소유하고 건물을 척척 짓는데 이 땅에 천주교를 시작하고 조성해 온 우리들 프랑스인 사제들은 혹독한 매만 맞더니 이제는 걸인들처럼 돼버렸고 그들 못지 않게 성과를 올리며 일을 하는데도 걸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대륙이나 다른 곳에서 사냥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니, 이곳에 산적해 있는 일들과 애로점들 앞에서 나도 결국 될 대로 되라지 하며 그 날 그 날 살아간다. 다행히도 나는 건강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요즘 이곳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교 축제 기간이라 온종일 축제가 벌어져서 갖가지 게임과 경연대회가 열리고 주민 모두가 축제 마당에 온단다. 우리 학교 학생 110명과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참가하는 바람에 그 애들에게 흰 해군복 차림으로 입혀 놓았더니 얼마나 깜찍하던지.

너는 여전히 건강한지? 주느비에브 형수님으로부터 식구들 모두의 안부를 전해주는 편지를 방금 받았

다. 그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브가 방데 지방 출신의 처녀과 약혼을 했단다. 파리에 있는 여동생들은 만족해하는 모양들인데 그 애들은 도무지 편지를 써보내지를 않으니 나오서는 걱정이 된다.

안녕을 전하며, 너의 오빠 피에르

1959년 5월 29일, 논산

안느 마리와 리제뜨에게

내일, 5월 30일이 어머니의 기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향하고, 너희들에게 오빠의 마음을 몇 마디 적어보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구나. 내일 아침에 부모님을 위해서 미사를 드릴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으나.

안느 마리에게서는 도무지 한 마디도 받을 수 없으니 예전의 안느 마리가 아니로구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 내가 그 애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도 있는 건지? 그 애의 침묵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마리 끌레르 때문에 우울한 건가? 리제뜨가 끌레르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소식을 전해온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다만 난 그럴 줄 알았다. 오늘 그 애한테도 편지를 썼다. 그 애 주소를 몰라서 너희에게 부치니 그 편지를 그 애에게 전해다오.

난 요즘도 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으면서도 건축 중에 있다. 하느님께서 그 돈을 마련해 주시기를 빌며 라리보 주교님과 로마 교황 대사의 서명을 받아 로마에 신청을 했다. 성당의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데, 크립트(지하 소성당)와 제의실을 짓고 그 위에 예비자 교리실을 짓는 중이다. 하지만 성전 본 건물은 기초공사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이 없다. 돈이 생기는 대로 기초를 다진 곳 위에 놓을 주춧돌(4개)과 계단만이라도 만들 거다. 현재 일꾼들이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공사는 7월 초에 끝이 날 거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학교란다. 교장이 어찌나 학교를 늘리고 싶었으면 부족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벌여놓았으니 만약 교사들 월급이라도 못 주게 되는 날엔 그는 물론 나까지 욱보게 생겼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 내 보좌말이다! 마르탱 신부가 신경성 질환 우울증에 걸렸단다. 음식, 생활 습관, 언어 공부 등등의 문제로 그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잠을 못 자는 게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으니 그러다가 정신이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난다. 주교님께 보고를 올렸으니 그를 한두 달 바닷가 근처로 휴양을 보내겠지. 그동안 나는 보좌 없이 지내야 할 테고 말이다.

정부와의 관계는 호전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문 하나를 폐간시켰단다.

너희는 매번 편지에서 나보고 프랑스로 들어오라고 한다만, 이미 말했다시피 나도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곳에 사제가 부족해서인데 예비자들은 한창 불어나니 그렇지 않아도 이곳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주교님을 걱정 더미 속에다 넣을 수는 없잖니. 게다가 이곳에 공사를 벌여놓았으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도 보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예당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지경에 놓인 마리 끌레르를 보느니(그 애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했다) 비록 문제와 걱정 더미 속에서라도 이곳에 남아있는 편이 낫겠다.

안느 마리에게 부탁하는데 긴 팔 겨울 내의 3벌만 사 보내주겠니? 입고 있는 내의는 다 닳아서 올까지 헤진 바람에 더 이상은 입지 못하겠다. 그리고 흰 셔츠 6장도 부탁하는데, 목 없는 걸로(수단 밑에 입으려면 목 있는 셔츠는 곤란하니까) 물빨래 할 수 있으며, 길이는 아버지가 입으시던 것처럼 길고 늘어지는 것 말고 허리 약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짧은 길이에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오픈된 걸로 말이다. 소매통은 넓은 걸로 부탁한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알려주는데 내 허리 사이즈는 1m 05이다!! 봤지, 난 똥보란다! 목 치수는 0.43이다. 그리고 빵칼 한 개와 식탁용 나이프 6자루도 부탁한다. 내년 7월이면 내 사제생활 25주년을 기념하느라 이곳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 관습대로 동료 사제들을 대접해야 할 텐데 기왕이면 소시지, 햄 등의 프랑스 식료품과 음료수로 음식을 만들고 싶으니 준비하기 쉽고 풍성한 식단

을 만들어 보내다오.

이브의 결혼식에 갔다 왔니? 결혼식은 어땠는지? 그는 정확히 파리에서 뭘 한다니?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인다니? 파리 어디에서 산다든? 마리아 숙모님은 어떻게 되셨다든? 지금은 많이 늙으셨겠지? 아직도 옛날처럼 숙모님한테 그런 말하는 거 금지니? 숙모님은 아직도 이태리 광장 근처의 아벨 오브라끄가(rue Abel Hovelacque)에 사시니? 너희는 숙모님 자주 뵈러 가고? 너희의 이번 바캉스 계획은 어떤 거니? 나의 여름 휴가는 두 차례 피정 지도를 해주는 건데 서울에 있는 내 딸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을 지도해 주고 또 한 차례는 남쪽 바닷가 포항에 있는 데랑드(Deslandes) 신부네 수녀들에게 피정지도 해줄기로 했다. 피정 자체는 휴식이나 다름없지만 고된 건 피정을 준비하는 일이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 준비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내 보좌 신부처럼 그때 15일간을 잠을 못 잤단다.

이곳에 피붙이라곤 한 명도 없는 내 주위에 늘 맴도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볼 수만 있다면... 문 밖에 나서면 1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내 수단을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앉으면 무릎에 올라와서 앉고... 중학생들은 내게 와서 재잘거리고, 그러니 나는 도무지 심심할 시간이 없단다. 어제는 이곳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사는 어느 여인에게 종부성사를 주러 갔다 왔다. 어제는 마침 성체 대축일이었으니만큼 나 혼자 성체를 모시고 거동을 한 셈이 되었구나.

힘내서 즐겁게 살기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한다.

1961년 11월 11일, 논산

가족들에게

저는 공소사목을 돌던 중 오늘은 주일미사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다시 떠나야 합니다. 써야 할 편지도 산적해 있고 장부 정리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 마디만 적어서 보내려 합니다. 이 한 마디가 식구들을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베트남 호’ 선박으로 좌석이 잡혔어요. 2월 6일에 요코하마 항을 떠나서 3월 9일에 마르세이유에 도착합니다. 리제뜨보고 친구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이제 다들 아셨죠! 누이들과 형수님께 번거롭게 일을 얹혀드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도 미리 전합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그것이 정말이지 마음에 걸리는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항공편으로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그 안에 다 프랑스돈을 지폐로 한 장씩 넣어보내 주세요. 노자돈으로 쓰게 말입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말인데, 안느 마리아, 여기 있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해주겠니? 차고는 있니? 면허증은 땀니? 난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교습학원에서 배워야 한다. 차를 살 돈은 있니? 차를 사려면 큰 차는 사지 말고 튼튼한 차를 사거라. 아무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았다. 축성식 때의 사진을 받았다니 다행이다.

식구 모두를 다정하게 포옹하며,

피에르

1964년 4월 15일, ‘라오스’ 호 갑판에서

르네 매형과, 마들렌느 누님, 솔랑주, 오딜

그리고 안느 마리, 리제뜨, 테레즈, 프랑수아즈에게

오늘 아침 바에서 편지를 썼는데 배가 어찌나 흔들리던지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지경이라 다시 타이프로 칩니다. 포트사이드에서 냉제씨 주소로 부친 편지는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편지에서도 썼듯이 우리는 지중해를 향해하는데 파도가 일고 안개도 있고 특히 추워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포트사이드 입구에선 다른 배들과 함께 5시간 이상을 바다 한가운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다리다 그냥 잠자러



들어갔는데 어찌나 깊이 잠이 들었었는지 중간에 사람들이 내리느라 소리가 났을 텐데도 아무 것도 듣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 벌써 운하에 들어와 있더군요! 88마일이나 되는 긴 운하를 천천히 통과하느라 하루 종일이 걸렸답니다.

우리 배는 어느 탑에 정박하여, 올라오는 일단의 선박들이 지나가도록 6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수에즈에 도착해서 7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밤이 되어 곧바로 다시 출발했지요. 그래서 포트사이드에 기항한 시간과 정박하는 데 걸린 시간을 포함해서 운하를 통과하는 데 하루가 꼬박 걸린 셈이며 선박은 24시간에 480마일을 향해했습니다. 그때부터 더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있어야 했지요. 선실 안에는 냉방기를 가동시켜서 너무 추울 지경이라 일본인 사제는 감기가 다 걸렸답니다. 바다는 온순하고 가끔 고래가 튀어 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덴(Aden)에 정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2프랑 50상팀짜리 유람선 티켓을 사두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거기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다니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포트사이드에서는 젊은 트라피스트 수녀 한 명을 포함한 몇몇 사람이 새벽 1시에 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카이로와 피라미드가 있는 곳엘 가서 여러 박물관을 둘러보고 저녁나절에 수에즈로 와서 우리 선박에 다시 합류했어요. 그것도 좋지만 약 400km나 되는 긴 관광코스를 짧은 시간 내에 둘러보는 것은 너무 바쁘고 몹시 피곤한 일이라 내게는 별로 흥미롭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나는 빠졌던 거지요. 승객 가운데 어느 노인이 있는데 그는 예전에 파리에 있는 ‘가스전기공사’ 직원이었는데 지금 혼자서 세계일주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는 8월에나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랍니다. 그것이 오래 전부터 그의 꿈이었답니다. 이 배로 마르세이유에서 요코하마까지 가고 요코하마에서 홍콩을 들러 마닐라, 시드니로 간 다음 시드니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래요.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가 더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틀씩 머무르려고 한답니다. 이 홍해 바다는 향로가 오직 이곳뿐이라서 그런지, 다른 어떤 바다보다 유난히 많은 선박들을 만나고 추월하고 뒤따르고 하는데 특히 유조선들이 많군요.

내가 떠난 뒤로 가족 모두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리라 믿어요. 가족 모두가 내게 베풀어준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 마르세이유까지 배웅해준 것도 고맙고 그동안 있으면서 내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나의 질병과 무료함과 모든 일에서 정지된 상태에 있다보니 내 정신이 아 니었습니다.

코발트색, 빨강, 초록 등 갖가지 색깔의 사리를 한 인도 여인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또 이 선박에 품위를 더해주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등 칸은 마치 해변가처럼 사람들 차림이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또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일전에 포트사이드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지, 또 오늘 보내는 편지를 받으면 답장에 받았다고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가 내게 베풀어 준 섬세한 형제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마치렵니다.

피에르

1964년 4월 22일, ‘라오스’ 선박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현재 봄베이에서 콜롬보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콜롬보에서 기항할 것입니다. 날씨는 몹시 덥습니다. 봄베이 사람들 말로는 이 더위가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포트사이드에서도 그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내가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받았는 지요. 난 마들렌느 누님이 보낸 편지를 봄베이에서 받았어요. 그 편지가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 지 편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주시겠지요. 폐낭에서의 내 주소는 이렇습니다: R.P. Peter SINGER... (미판독) general. Pulau Tikus. Penang. Malaya.

포트사이드까지는 추웠는데 이제는 그때의 추위를 완전히 만회해서 나는 냉방이 되는 선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민족들 간의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나는 이제야 이해할 것 같군요. 더위는 사람

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요. 우리나라는 거의 덥지 않으니깐 건축에서도 햇빛과 일조량을 찾는 데 비해 이곳은 반대로 그늘과 시원한 곳을 찾는답니다. 주거 형태도 달라서 이곳에서는 건물 정면에 회랑이나 복도를 두어 집 안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해서 방 안이 어둡고 점심을 먹은 후엔 낮잠을 자고 더위로 입맛을 잃으니깐 식욕을 돋구기 위해 음식도 아주 맵고 사람들은 일도 적게 하고 옷차림도 다르고 합니다….

아덴은 주요 도시가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거기엔 암벽산들이 있었는데 산에 오르면 그 도시의 또 다른 경관을 볼 수 있다지만 나는 도저히 암벽산에 오를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상점에 들르니 타자기가 새 프랑으로 180프랑밖에 안 되고 카메라도 일본보다 훨씬 싸어요. 그곳도 포트사이드나 지부티, 싱가포르, 페낭처럼 세금이 면제된 자유무역 도시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경쟁 또한 치열했구요. 그곳은 검은 바위와 석호, 유전 공장들로 에워싸인 도시입니다.

봄베이까지 항해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느라 매일 영화를 봤어요. 봄베이에 도착하니깐, 맵소사 인도 군함 한 사단이 거기에 모여 사열하는 것 같더군요. 비행기 수송함 한 척과 소형 구축함 15척 그리고 수뢰포함 3척이 있었지요. 그 모든 배들이 수많은 깃발 장식을 하고 전기불의 인도를 받으며 항구에 열을 지어 있었습니다. 봄베이에서 나는 어느 인도 사제와 함께 시내를 관광했어요. 일단 근교행 기차를 타고 시내에서 15km 밖까지 나가서 1560년, 1580년에 지어진 오래된 포르투갈 성당을 방문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덤의 평석을 밟고 들어가야 합니다… 봄베이 근교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시내엔 부자층과 빈곤층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 계단에서 개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지요!

배 위에는 유럽인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영국인 부부 몇 쌍만 보일 뿐 모두 인도 남자, 인도 여인들이며, 프랑스인은 세계일주를 하고 있다는 그 노인과 사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무지무지 뚱뚱한 부인뿐이랍니다. 일등실엔 젊은 트라피스트 수녀가 여전히 있는데(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곁에서 선원 몇몇이 짓궂게 굴고 있어요. 사이공에 도착하기 전, 주일엔 내가 미사 강론을 해야 할 것 같군요. 비록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겠지만요. 나는 내 선실에서 구속주회(Redemptoriste) 베트남 수사와 함께(그와는 아주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내 선실 안에 있노라면 조용하게 머물 수 있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이들은 선실 바닥이 덥다든가(엔진실 바로 위에 위치하니깐요), 실내 온도조절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든가, 소음이 심하다든가… 등등 불만이 많지요. 나는 바닥도 차고 온도 조절기도 썩 잘 가동되고 기계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고 추울 땐 금방 실내 온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다만 세면대의 물이 조금 새는 바람에 욕조에 물을 받아쓰기가 힘들다는 게 불만이라면 불만이죠.

온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며, 모두가 건강하길 빌며(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니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또 얼마 있으면 시작될 휴가도 잘 보내기를 빌며 편지를 마치립니다. 시험 결과와 집안의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 꼭 편지로 알려주세요.

피에르

1965년 2월 8일, 홍산

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또 펜을 든 이유는, 벌써 오래 전에 너희가 보냈다는 큰 소포를 막 받은 참이라 더 이상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서 빨리 소식을 전하고 또 즉시 너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소포에는 식량으로 가득 차 있더구나. 건과일, 콩, 각종 통조림, 분말 수프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와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더라. 세관에서 손상을 입힌 상자가 몇 개 되고 특히 녹말 가루 상자가 그랬는데, 하지만 세관에서 돈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겨우 2프랑만 요구했는데 그거야말로 기적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못된 물건이 딱 하나 있단다. 그것은 세관 탕도 아니요, 우체국 탕도 아니요, 보낸 사람의 잘못 때문인데… 바로 구두말이다… 글썽 구두 두 쪽이 다 윈

발에 꼭 맞으니 말이다. 왼쪽으로만 한 켄레를 보냈더구나!!!! 한 쪽엔 ‘Flexor’ 라는 상표가 찍혀 있고 다른 한 쪽엔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두 쪽 다 밑에 ‘아스콤 고무(Ascom 럽astom뤼에)’ 라고 적혀 있다. 내게는 무용지물이 됐으니 아깝구나. 두 개 다 오른쪽을 찾아서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겠니? 누가 부친 거냐? 안느 마리냐? 리제뜨냐? 신발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팔았던 게지... 신발을 되돌려 보낼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우습기만 한 일이니 너희도 이번 일을 그렇게 생각하거라. 마도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렴. 난 원망은커녕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너희에게 뽀뽀를 해주고 싶단다. 게임은 받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켄레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이야? 요즘엔 허가 너무나 아파서 담배를 끊었다. 이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벌써 4일째 한 대도 피우지 않았으니 대단하지? 허는 이제 아프지 않은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 식복사가 며칠 동안 친구를 보러 가서 어린 여자애가 내 식사를 준비한다. 목요일엔 베르몽 신부님의 85회 생신을 축하하러 가는데 그 기회에 동료들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덕분에 외출할 거리가 생긴 셈이야. 지금은 길 사정도 나쁘고 또 내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자동차로도 외출을 자주 하지 않는 셈이거든. 3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포항에 있는 수녀들에게 피정을 해주러 간다. 알레(Haller) 신부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돌아와서는 교우들과 회장들에게 이틀간 피정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공소사목을 하러 갈 텐데 그때쯤이면 부활축일이 되겠지. 파리 날씨가 너무 덥지 않고 습기도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8일 전부터 예방책으로 한 달간 결핵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좀 아프기는 해도 그렇다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 복용한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서울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

너희들을 꼭 껴안으며 이만 펜을 놓는다. 예전에 루르드에서 나를 들 것으로 실어다 준 사람에게서 받은 엽서를 내게 전해준 것도 고맙다.

피에르

1965년 2월 16일, 홍산

누이들에게

방금 전에 리제뜨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편지, 고맙다. 수도원장 신부에게는 벌써 장문의 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나한테는 굉장한 소식이구나. 진작에 알았으면 편지에 쓸 걸 그랬는데. 내게 특별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있던 지도 한 달이 지났건만 베르트랑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구나. 그 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일전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틀 후에 공놀이 게임 소포상자를 받았다. 그러니 안느 마리아,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하니까 세관에 무는 세금이 거의 없구나. 너희가 보내준 왼쪽 발 구두 한 켄레는 멋진 새 구두인데도 신을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여기 있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일전에 내가 편지에서 어찌면 나는 수녀들 있는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썼는데, 우리 수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녀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 수녀들도 나를 청했는데 그들의 말은 듣지 않더니... 다른 곳 수녀들이 나를 청하니까 나를 거기로 보내려고 한단다... 그게 특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행히 행정위원회에서(Administrateur Apostolique) 반대를 하고 있다만(현재 주교가 공석이라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알레 신부와 교신을 새롭게 하는 것도 불편하다. 그는 내가 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거절하려고 핑계를 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다. 나야 악만 고래고래 쓰지 순명을 거절한 적은 없는데 말이다. 그 증거로, 내 앞으로 온 어떤 편지들이 벌써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 보내야 할 형편이란다.

한 젊은 동료 신부의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단다. 그분은 딸들을 모두 시집보내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들의 살림도 돕고 사목도 도우기로 했단다. 그분은 냉게쎄(la rue Nungesser)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라이(Sarrail) 가나 뫼라(Murat) 가에 사는 것 같고 데상(Deschamps) 부인이라고... 벌써 일 년 넘게

파리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단다. 젊은 동료 신부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아직은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 둘 모두를 포옹하며,  
피에르

1966년 3월 18일, 홍산

내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드디어 안느 마리의 편지를 받았구나! 길이 기억에 남을 날이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울적한 기분이 괴물처럼 짓누른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 나도 몇 해 전부터 울적한 기분이 들어 실컷 썩고 있으니까. 한국인 주교를 모시면서부터 우리 선교사들의 상황은 더 이상 화창하지가 않단다. 네 말처럼 나도 혼잣말로 ‘내 나이 56살이니 사양길에 들어선 사람이지. 그러니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 그러면 다 좋게 해결될 거고…. 웃는 날이 다시 오겠지’ 라고 마음을 다독거린다. 얼마 전엔 장미 나무를 다듬다가 가시가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박혔는데 가시를 찾지 못해서 빼내지도 못하고 손가락은 아프고 부어오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것도 그저 기다리자, 참자 이라고 있단다.

오늘 빅 뉴스가 있다. 새 이웃이 왔는데, 올리비에 신부라고 부르따뉴 사람이란다. 내가 있는 곳은 부여군에 속하는데 이 군 관할에 들어가는 본당이 홍산 본당, 금사리 본당 그리고 규암 본당이다. 금사리 본당과 강가에 있는 규암 본당은 한국인 사제가 주임으로 있어서 나도 당연히 자주 보아왔었지. 그런데 이번에 이 두 사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그 자리에 올리비에 신부 혼자 후임자로 왔으니 그가 두 본당을 이끌어내야 할 테고 나도 그를 좀 도와야 할 거다. 한국인 사제 3명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 교구를 떠나 다른 교구로 갔는데 또 네 번째가 곧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니 주교님이 좀 곤란하게 되셨다. 올리비에 신부는 눈물의 작별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어제 이곳에 와서 선임자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어제 우리는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정오경에 규암 본당 사제가 떠난 후에 그를 모시러 사람이 왔더라. 난 이제 고해성사만큼은 프랑스어로 볼 수 있게 됐다.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15km 정도이니 자동차로 25분 거리다. 나는 공소가 6개뿐인데 그는 드러나는 일만 해도 공소가 27곳에 본당 두 군데, 4000명이 넘는 교우와 적지 않은 예비자들을 맡은 셈이지.

나는 22일부터 29일 아침까지 공소 방문을 떠날 예정이고 그 중에 주일은 물론 여기서 지낼 것이다. 3월 30일에는 이곳에서 80km 떨어진 장소로 가서 다블뤼 주교와 2명의 선교사 그리고 2명의 한국인 전 교회장의 순교 100주년 기념 미사를 드릴 것이다. 그분들은 1866년 3월 30일 그곳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참수(梟首)형에 처해져 아가셨다.<sup>31)</sup> 날씨가 좋으면 거기에 갈 사람이 꽤나 많을 것 같다. 결정은 주교님께서 하셨지만 그 말을 처음으로 꺼낸 곳은 여기란다. 다블뤼 주교님이 아미앵 교구 출신이시므로 나는 게리 레이에(Gery LEUILLET) 주교님께 편지를 띄웠더니 늦게나마 아미앵에서도 뭔가를 할 것이라고 하셨다.

부활절엔 최소한 10여 명의 영세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중엔 아버지, 엄마, 아이들 6명 일가족 모두가 영세를 받는 가정이 있단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내 본당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교우가 될 것이다! 전례가 새롭게 바뀐 후로는 그런 교우가 없으면 수족이 잘린 거나 다름없어서 그런 교우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성탄 전의 프랑스 날씨처럼 요즘 이곳엔 줄곧 폭우가 쏟아져서 감자 심는 일도 중단해야 했다. 나는 내가 청했던 소포 두 꾸러미를 인내롭게 기다리고 있단다. 동생들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을 담아 보낼까? 다음 번엔 무찌 조금하고 카네이션씨를 좀 보내다오. 그리고 행주와 고기 썬는 식칼을 보내되 전기칼 말고 옛날식 칼을 보내고 계란 짓는 것도 보내다오. 최근에 신문을 읽어보니 드골이 프랑스 내의 미국 군인들은 프랑스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하잖니. 영국 내의 미국 군인들은 영국의 지휘 하에 있으니 우리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해서 프랑스의 영예를 당연히 찾아야지…. 그의 회고록을 읽어보니 전쟁 중에 동맹국들이 얼마나 그를 고생시켰는지 그

가 그들에게 치를 떠는 것도 이해가 간다.

쟈끄 형이 너희 소유인 아파트(32)를 요구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만 나도 네 생각처럼 네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끄 형이나 형님네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너희들은 혼자 몸이고 만일 너희가 난처한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니? 그리고 다른 조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단 한 명만 편애할 수는 없다. 혹시 라로쥬(La loge)에 있는 농지를 이번 일에 내놓을 수 있을까 몰라도... 그럴 경우엔 네 유언장에 자끄 형네 아이들은 그 농지를 나눠 갖는 대신 너희 아파트에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명백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겠지만 이런 일을 편지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너희 둘을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너희에게 기쁨과 휴식과 평화와 열의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성서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좋은 그림들이 있는 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보내다오.

1966년 9월 1일, 홍산

누이들에게

그래, 휴가를 보내느라 돈이 들겠구나! 독일로 그리스로... 다음엔 어디니? 아빠와 엄마가 살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세월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 교통 수단이 공상으로 그치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데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밖으로 나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어쨌든 잘 된 일이다. 다음엔 여행 가면 좀더 상세하게 적어 보내려무나. 무사히 여행을 마쳤기를 바라며 둘 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덕분에 다시 즐겁게 일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특혜를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번 프랑스-한국 여행이 8년 동안 내 욕망을 채워주는구나! 너희가 있던 곳은 더웠는지 추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찌나 더웠던지 8월에 그렇게 더운 날씨는 드문데 말이다. 나는 버스를 한 대 빌려서 교리반 아이들(52명)하고 바닷가에 다녀왔단다. 수영도 했지만 특히나 난생 처음으로 바다를 구경하는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을 감시하느라 옷을 벗고 있었더니 목이며 팔, 종아리에 화상을 입어서 요즘은 살갓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란다!

너희에게 몇 가지 청할 것이 있단다.

1. 동료 신부 데랑드(Deslandes) 신부가 장뎬느(Gentinne) 신부로부터 커다란 소포 한 꾸러미를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모두 그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혹시 내게 보내라고 너희가 장뎬느 신부에게 부탁한 물건은 없는지? 혹시 그랬다면 어떤 물건들인지 빨리 알려다오. 그래야 데랑드 신부에게 가서 내 물건을 찾아오지 않겠니...

2. 워터맨 만년필 심을 보내다오. 마크는 "Pantabille A 146-321" 이다. 심이 없으면 엘리사벳이 보내준 만년필이 쓸모 없게 돼버리잖나.

3. 몬테 카를로, 1 rue de Suffren-Reymond, S.A.P.E.C로 편지를 띄워 'self propelled Fisch lure' 두 개와 2년 동안 쓸 수 있는 보충 연료를 주문해서 보내다오. <P랑erin> 1966년 8월호에 나온 가격은 49 프랑 30상팀이더라. 색상은 흑백 하나와 노랑 흰색으로 하나 부탁한다. 편지 하단에 꼭 "수표를 동봉함"이라고 써야 한다. 물건을 받고 값을 지불하려면 3프랑 50상팀을 더 내야 한다. 너희 이름과 주소를 잘 적어야 한다. 고맙다. 낚시에서 미끼를 놓는 데 쓰이는 장치란다.

소포나 신문, 잡지를 받아 본 지도 꽤 되는구나. 조만간에 소포 하나 받게 되겠지. 너희가 내게 달콤한 것에 습관을 들여놔서 소포를 받으면 금새 다음 번 소포를 눈빠지게 기다린단다. 안느 마리보고 밀가루, 과자 만드는 반죽, 플랑 과자, 과일 말린 것(말린 무화과는 괜찮아) 같은 단 음식은 줄이고 대신 말린 소시지와 깡통에 들은 살라미 소시지, 치즈를 넣거라. 꾸브(Kube)33) 고기는 튼튼한 통에 넣어야지 지난번엔 통이 터지는 바람에 소포 상자 안에 전부 쏟아져 버렸단다. 지난번에 소포를 받고는 여기 놀러 온 동료 사제들에게 "프랑스에서 온 좋은 치즈로 자네들에게 한턱 쓰지" 하고 맛을 보였더니, 이 눈치 빠른 친구들이 독일산 미국 크래프트 치즈를 프랑스에서 사서 한국에서 먹는다고! 프랑스 물건을 애용하자고!

여기 있는 나는 나날의 일을 계속한다. 사무일을 도와 줄 수녀 두 명을 우리 수녀회에 청했으나 이젠 꿈쩍없이 넓은 대지에 수녀원을 하나 작게 지어야 할 형편이다. 이제 난 두 손 다 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 농사를 짓게 할 생각이 없다.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고 특히나 지극히 열심인 내 식복사에 게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다. 매일 일꾼들 밥해 먹여야지, 일하는 것 감시해야지, 비료 사대야지 등등... 차라리 땅을 누구에게 빌려주면 돌아오는 수입은 훨씬 줄겠지만 걱정도 줄어들지 않겠니. 봄에 산 새끼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얼마 전엔 비둘기 두 마리를 얻어서 근사한 비둘기장에 넣었더니 벌써 한 놈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6개월간 시험을 해보고 레지오 마리에 단체를 2개 두려고 한다.

식구들 모두로부터 카드며 편지를 많이 받았다. 미미, 폴, 마르그리뜨, 테레즈, 게다가 너희가 보낸 두 통의 편지며... 그런데 리제뜨 편지는 6월 18일자로 돼있건만 항공으로 보낸 편지인데도 겨우 보름 전에야 받았구나. 룰루 숙모님과 마리아 숙모님께 얼마 전에 편지를 띄웠다. 모리스 삼촌과 쟈느 숙모님께는 벌써 오래 전에 편지를 보냈다. 마들렌느 누님만 바쁘신지 편지가 없는데, 그 집 소식이 궁금하고 특히 르네 매형의 사고 소식 후 도대체 사고가 어떤 건지, 매형은 어떠신지, 두루 소식을 물어 편지를 보냈건만 아무 답장도 없구나. 오딜이 이스라엘에서 내게 엽서를 보내왔더라.

너희 둘을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편지를 마치려나.

피에르

1967년 12월 1일, 홍산

안느 마리와 엘리사벳에게

지난번 편지 이후로 어떻게들 지내는지? 언제나 건강하고 모든 일에 부지런할 줄로 믿는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공동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쓴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너희이니까... 다른 식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다른 걱정들이 있고, 그들은 더 이상 나한테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너희들이야 그야말로 아직도 “내 사람들” 이잖니? 혹시 가족 공동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싶으면 누가 받았는지 알아봐서 읽어보렴.

<마취 Match>를 통해 보낸 소포 꾸러미는 고맙다. 모두 잘 받았고 내게도 반가운 소포였지만 동료 신부들도 여간 반기질 않아서 그들도 고맙게 잘 애용하고 있단다. 이젠 수에즈 운하가 문을 닫아서 소포가 도착하는 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는구나. <크루아 Croix>지를 구독신청했는데 8월말부터 9월 초분의 크루아지 봉치를 이제야 받았단다! 글썄, 12월 1일에 말이다! 그러니 앞으로 소포에 부패될 물건은 넣지 말고 그런 것은 항공편으로 보내다오.

성탄 때엔 뭘 보내줄 거니?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워터맨 볼펜심을 보내다오. 건본으로 심 하나를 편지 안에 같이 넣어 보내니, 초록색은 말고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내다오. 지난번에 너희가 보내 준 것은 만년필 심이란다. 내겐 그런 만년필이 없으니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밖에. 볼펜심을 사보내는 김에 혹시 너희가 그 만년필도 사주면 또 모르지.

최근엔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루앙(Rouen)에 산다는 어느 미혼녀로부터 훌륭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단다. 그녀는 이제는 고인이 된 의사의 딸이고 현재 어머니와 역시 독신인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단다. 나이는 41살이며 사립학교의 교수란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특히 리제뜨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너희 둘 다 이 얘기는 비밀로 해두어야 한다. 이 여자는 2, 3살 된 혼혈여아를 입양하고 싶다는데 자기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 독신이라도 법적으로 입양의 자격이 있음에도 실상 부부에게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있어서 그 여자가 여러 차례 신청을 해봐도 가는 곳마다 거절하더라는구나. 그런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고아들에 관한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의 여아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는데 왜 나한테 편지를 썼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는 다만 그 여자에게 편지를 받았기에 답장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내 쪽에서도 가능성을 알아보고 1월 초에 다시 답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아이를 보내는 일은 국제 적십자사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비용은 신청인이 내야 한다. 내가 리제뜨의 주소와 리제뜨 담당 복지원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니 어쩌면 그 여자가 리제뜨에게 편지를 보낼

지도 모른다. 어쨌든 리제뜨는 지금부터 은밀하게 비밀리에 조사를 해봐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경제적 조건은 어떤지, 정신 건강은 어떤지 등등을 좀 알아보렴. 서둘러 알아보고 내게 답장을 다오. 만일 그 여자가 너에게 편지를 하면 그때엔 내가 판단해서 하려무나.... 혹시 네가 입양아를 동반해 데려오는 자격으로 적십자사에 등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를 한국에서 하루 이틀만 봐도 얼마나 반갑겠느냐! 더 운이 좋으려면 다른 입양아 두세 명을 더 찾아야겠지.... 정말로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온 그 여자의 이름과 주소는 이렇단다: 이베뜨 르 로이 양(Mlle Yvette Le Roy), 1 rue Traversiere 76 Rouen 약 3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도서관을 시작했더니 매주 일요일에 아이들이 최소한 50권의 책을 빌려갔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 반납한단다. 이것 역시 새로운 사도직이라고 생각한다. 글은 아주 적게 들어가고 그림이 많은 성인전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학 동안 신학생들을 시켜서 번역하도록 하고 싶다. 이번에 또 13세 된 남아를 신학교에 보냈단다. 그래서 우리 작은 본당에서 벌써 5명의 신학생이 나왔다! 이 남학생은 아주 튼튼하고 아이가 8명이나 되는 집의 둘째인데 3년 전부터 아주 열심히어서 추운 날에도 매일 미사 때 복사를 해왔고 특히 학교 성적이 뛰어나 자기 반의 반장은 물론이고 1,800명 학생의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적도 있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애의 아버지 직업이 용기장이인데, 이 나라에서는 좀 천한 직업이거든.

우리의 새 장상은 오를레앙 출신의 뒤퐁 르네(Dupont REN?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부친께서는 그곳에서 원예가이시다. 38세이다. 알레(Haller) 신부께서는 다시 평사제로 돌아오셨다. 알레 신부는 요즘 건강이 시원치 않은데, 내 생각에 10년 전 수술 받은 암이 퍼졌는지 혈압도 떨어지고 식욕도 잃고 안색이 창백한 채 현기증도 있단다. 집에서 거의 외출도 하지 않으신다. 나의 오랜 친구 베르몽 신부께서도 82세로 선종하셨다. 사제는 세속인(자끄 형)과 반대로 점점 더 혼자가 되는구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오빠가 키스를 보내며,  
피에르

1968년 7월 31일, 홍산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이제 곧 바캉스를 떠나겠구나, 아니 벌써 바캉스를 갔다 왔는지?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곳의 날씨가 어쩌나 더운지 시원한 바캉스가 아니면 바캉스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란다. 너희 둘 다 건강하리라 믿으며 그리고 5월 사건으로 너희가 너무 동요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리제뜨가 보낸 편지도 잘 도착했고 테레즈가 보낸 똑같은 내용의 편지도 잘 받았단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점점 인류의 단일화를 향한 여정이 아닌가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더 이상 다른 국민도 없고 국경도 없고 다만 인구 통계학 차원에서 주(州)들을 둔 채 하나의 종교에 하나의 표준된 삶 등등. 예전에 프랑스도 소국가라 할 수 있는 여러 주(州)들이었지만 단일 국가로 통합되었듯이 말이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전의 프랑스 주(州)들 보다도 더 서로 가깝게 인접해 있는 셈이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단일화를 향한 흐름이고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져 지나친 민족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 “체제 보존주의자”, “구태의연한 사람” 소리를 듣게 되겠지....

요즘엔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혀가 아프고 벌써 몇 달째 아침마다 설사가 심해서 속을 몽땅 비우는 것 같고 해서 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더니 의사가 나를 닷새 입원시키고 X선 사진 촬영도 하고 온갖 검사를 했단다. 의사 말로는 걱정할 거 없다며 결핵균에 감염된 것은 아니고 다만 ‘스프루’라는 구강염과 설사가 따르는 열대병으로 유럽인들이 아시아에서 흔히 걸리는 병이고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렇단다. 사실 예전에 동료 사제들이 이곳에서 그 병으로 여러 명 사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사망했으니 걱정할 것은 없다.

의사는 나보고 가능하면 한국 음식을 덜 먹고 늘 프랑스식으로 식사할 것과 지방이 든 음식을 금하라고

했다.(버터는 어떤지 깜박 잊고 묻지를 앓았구나...) 처방으로 첫째, 우선은 매일 TOLIC ACID (혹은 Talic acid) 20mg 섭취하다가 5mg으로 줄이란다... 아니면 비타민 6으로 대체할 수도 있단다. 둘째, 비타민 12를 매일 30에서 60mg씩 섭취하란다... 리제뜨야, 네가 형제애를 발휘할 때가 왔구나. 처방약은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 네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급히 항공편으로 보내주어야겠다... 그리고 네가 의사를 만나서 ‘열대성 스프루’와 ‘지리적 구강염’에 관해 알아봐다오 (그것 때문에 장 피에르에게 편지를 써보내긴 했다만). 허가 아픈 것은 달리 약이 없어서 소금물을 한 병 만들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입 안을 헹구고 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고 좀 괜찮아진 정도란다.

최근에 성가책 한 권을 발행하여 10,000부를 찍어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일이 잘되면 금방 본전도 찾고 게다가 재판까지 찍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되는 내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경제 사정이 영 말이 아니란다. 책 한 권에 50원에 팔고 있는데, 인쇄하는데 25원밖에 안 든다 해도 책방에 15원씩을 주어야 하니 내가 버는 돈은 겨우 10원 정도란다. 원래 책 한 권 판매에 35원은 만져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 주 6, 7, 8일에는 한창 더위 속에서 교구 수녀들 모임에 강의를 해야 하고 19일부터 24일까지는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를 해야 하며 9월 13일(내 생일)에는 본당에서 약 150명이 견진을 받을 예정이니, 이 모든 일들로 걱정도 많고 왔다갔다할 일도 많고 하니 그동안 내게서 편지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해하기 바란다. 이렇게 바쁘기란 드물게 있는 일이다

심장 수술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마치> 잡지는 잘 받았다. <마치>지를 보낼 때 그 안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써앗도 보내고 또 워터맨 볼펜심도 보낼 수 있잖니. 여전히 그 심이 필요한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단다.

새해엔 일본에 있는 테레즈를 여기로 초청해보려고 한다. 내년에 서울 성가회가(지금은 식구가 200여 명에 달한다) 25주년 기념 잔치를 벌일 예정이거든. 내가 직접 일본에 있는 분원장 수녀에게 편지를 보내 초청 문제를 물어볼 예정인데 분원장들이 현재 로마에서 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좀 기다려야겠다.

지난번 벨기에에서 보내온 기부금 덕분에(브뤼셀 TV 여자 아나운서가 보낸 기부금말이다) 염소 9마리를 사서 빈농의 가톨릭 청년 농민 동맹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단다... 그들은 일년 후에 이자 없이 염소만 내게 돌려주기로 했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또 다른 빈농에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성공할까?

이 오빠가 너희 둘을 다 포옹한다. 비록 우리의 처지는 보잘 것 없으나 언제나 시선은 주님을 향하자꾸나.

1968년 10월 2일, 홍산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너희가 보낸 지난 9월 9일자, 16일자 두 통의 편지 모두 잘 받았고 오늘에야 답장을 띄운다. 너희가 내게 건네 준 따뜻한 말에 고마움을 전하며 나 역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꺾듯이 살아가는 너희가 내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는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너희 두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너희가 보낸 비타민, 잡지 상자들은 받았지만 “부인네들 작업 수첩”이 들어 있다는 상자는 받지 못했다. 혹시 그걸 받으면 곧장 너희에게 돌려 보내주마.

마들렌느 누님과 솔랑주, 장이 보냈다는 편지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장이 결혼 전에도 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새 조카 사진조차 없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인쇄된 청첩장만 달랑 보낸 게 전부니 나도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오딜 문제로 엄청난 상처를 입어 조용하다고 생각했구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막 띄운 참이다. 솔랑주에 관해서는 임신했다는 편지를 받은 것 같고 그 편지를 받자마자 곧장 긴 답장을 보낸 것 같다. 다른 편지들은 다 오는데 왜 그 편지들은 안 오는지 이상하구나. 그건 그렇고 그들의 주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편지를 써도 내게 주소를 적어 보내질 않으니 말이다. 르네 매형의 바뀐 주소는 청첩장을 통해서 알고 있다.



내 건강은 어떠냐구? 그럭저럭 지낸다! 아침마다 속을 완전히 비우게 하는 설사는 여전하지만 잠은 잘 자고 식사도 잘 하며 내 일도 계속 한다. 처방 받은 비타민은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긴 했으나 예전 같지는 않구나.

오는 1월 10일은, 옛날 내가 젊었을 때 낚아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이 설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그 날엔 미사도 있을 거고 조출한 잔치와 축하 인사말이 있을 거다. 현재 식구는 약 200여 명 되고 본원에 짓고 있는 큰 수도원 건물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 관계로 내가 생 모르 부인회(des Dames de St. Maur) 총장 수녀에게 편지를 보내 테레즈를 보내주십사 하고 허가를 요청했다. 일본 본원 주소를 몰라 모원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규칙에 어긋난다면 편지를 그쪽으로 전달해 주시고 아울러 내가 청하는 것이 좀 특별한 허가이니만큼 혹시 총장 수녀께서 이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전혀 불쾌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써보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서 자동차를 팔까 생각 중이다. 여기 신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를 전혀 봉헌하지 않지. 나는 매달 내 생활비며 식복사와 또 식복사 도와주는 사람 인건비며 수녀들 생활비들을 대야 하니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내게 온 미사 봉헌금이 겨우 1,000프랑뿐이다. 일년에 최소한 2,000프랑은 수녀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내가 곤경에 빠져 있으니 내 뭇으로 받아 놓은 소작료 일부를 보내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번 공의회 정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하겠니? 정말이지 선교의 삶이 이젠 예전같지는 않단다. 여기 한국인 주교들은 교리문답과 기도문들을 없애버려서 미사와 강론만 남았다. 신학교에서는, 서울에서든 파리에서든, 신학생들은 아침 미사 후에 강의 3개만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나면 오후엔 자유시간이라 허가도 없이 어디 간다는 메모도 없이 외출할 수 있단다! 이 신세대 사제들이 도 대체 어떻게 되겠니?

라루스(Larousse) 농학 사전도 정말 고맙다. 그 사전을 파리외방전교회에 맡겨 주겠니? 거기서 곧 이리로 출발할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상자 안에 넣어서 항공편으로 보내주든지. 너희도 소식을 들었겠지만 얼마 전에 비에브르(Bièvres)에서 외방전교회 총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3명이 그 총회에 참여했는데, 나의 가까운 이웃들인 뒤퐁(Dupont), 올리비에(Ollivier), 노엘(Noël) 신부들이 그들이다. 총회가 끝나면 몇 달 그들의 집에서 쉬다가 성탄 때나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게다가 어제 출국하신 꾸니(Cuny) 총장 신부님의 보좌로 한국인 사제가 임명되기까지 했단다. 그들은 모두 6일에 로마에서 거행될 24명의 한국 순교자 시복식에 참여할 것이다. 24명의 한국 순교자 중에는 7명의 프랑스인이 포함돼 있고 두 명은 거기서 빠졌다.<sup>34)</sup>

새로 바뀐 규칙들 중 하나는 프랑스 휴가가 8년마다 있던 것이 6년으로 짧아져 횟수가 더 빈번해졌다. 이 항공여행은 이태리 항공사 편으로 하게 될 것인데, 유일하게 이 항공사만이 선교사들에게 가격을 반이나 깎아주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상 가격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은 자리에 한해서 선교사를 태우는 것이다. 나는 1964년 6월 14일에 들어왔으니 원칙대로라면 1970년 6월 15일에 프랑스로 갈 수 있겠구나! 대신 휴가는 겨우 5달로 줄었다!

며칠 후엔 공소방문을 다시 떠난다... 새로 생긴 공소가 2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애버렸다. 내가 여기로 온 지 4년 동안 한 푼도 내지를 않잖니! 신부를 원한다면 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니면 신부의 생활을 돕든지 말이다. 어쨌든 그들 말고도 생각해야 할 사람은 많으니까.

오늘은 일년 중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이다. 여기는 닷새마다 장이 선다.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이렇게 말이지. 게다가 다음주 일요일인 6일은 8월 보름인데, 한국의 모든 성인의 날인 이날엔 산소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식구가 모두 모여, 아이들은 새 옷으로 단장한다. 명절을 앞두고 모두들 장에 나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니, 그 날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같이 고기를 먹는 드문 날이란다... 어제는 도살장에서(바로 내 방 창문 맞은 편에 있거든) 여러 마리를 잡더구나, 오랫동안 도살을 하지 않아서 고기 값이 너무 비싸 반 근에 5프랑이나 댔었거든! 그래서 나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한다.

요즘에 다시 가끔 낚시를 가니까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긴 음식을 보내지 말고 대신 낚시에 필요한 특별하고 기발한 미끼를 보내다오! 그리고 워터맨 볼펜심도 보내고, 다 쓰고 없거든.

우편으로 보내오는 잡지 인쇄물은 잘 도착하고 또 우편 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무게를 좀 덜어보겠다고 광고 페이지를 찢는 일은 하지 말아라. 몽땅 낱장으로 떨어져서 깨끗하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난 일요일엔 평소보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글썄 대답은 이렇더라. 일요일엔 길을 닦아야 해서 한 가구당 5m씩 자갈을 놓는 일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200원(3프랑 50상팀)을 내야 한단다. 물론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었지! 딱한 사람들이지!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인데 게다가 그들의 처지를 이용까지 하다니!

지난 9월 13일엔 주교님이 여기로 오셔서 191명에게 견진성사를 베풀어주시고 1970년에는 여기에 성당을 하나 지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는 등 만족해하시는 빛이 역력하였다.

이 오빠의 온 마음을 다 해 너희 둘을 포옹하며,  
피에르

1968년 11월 1일, 홍산

사랑하는 친지, 벗들, 은인들에게

모두에게 저의 인사와 함께 1969년, 새해를 위한 가장 그리스도인 다운 기원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기원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이번에는 저의 공소에 관한 소식만 전하려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온 힘을 다하여 공소들을 창설하고 공소의 자리가 굳혀지게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들이 따로 본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예비자들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는 예비자들 중에서 자격 있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그들 중에는 먼 곳에 살기에 매주 주일 미사에 올 수 없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도 주님을 흠송해야 하고 가정 내에서나마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임명한 전교회장의 책임 하에 미사를 대신하는 일종의 말씀의 전례인 공동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소의 시초인 것입니다. 처음엔 한두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곧 여러 가정이 됩니다. 개인 집에서, 대개는 전교회장의 집에서 모이곤 하다가 좀더 넓은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한옥으로 소성당을 짓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나, 또는 열 배 혹은 백 배 수가 많은 외교인, 프로테스탄트들 앞에 기죽어 보이지 않고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협력하게 해주고 교리를 익히게 해주며 자기들은 살아 있는, 힘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에 다른 이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게 해 줍니다. 성당에 입교하는 예비자들은 모두 어느 공동체를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자로서의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공소의 층은 다양합니다. 교우수도 얼마 되지 않고 성당도 갖추지 못한 채 모임을 그저 허송세월로 보내며 모임의 합당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약한 공소에서부터 훨씬 중요하고 훨씬 열심인 공소들까지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주로 특히 전교회장의 열심과 수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전교회장이 역동적인 사람이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 복음, 성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참된 영적 양식이 되게 합니다. 어떤 회장들은 심지어 성서에서 느낀 점들에 관해 짙막한 강론까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準) 전례 후에 그들은 교리 공부를 좀 한 다음 나눔을 합니다. 제 생각에 사제들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에게 그들 형제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톨릭 활동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공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곳을 방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침 제가 떠나는 은곡은 여기서 12km 떨어진 산 속에 있는 공소인데 10년 전에 시작되어 35명의 교우가 있으나 그 교우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대여섯 개 마을에 흩어져 있습니다. 공소 방문은 일 년에 두 번 행해지며 또한 병자가 있을 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비를 갖추어 미사 가방을 챙기고 가

방 안에 교우 수첩과 교우들에게 팔 교리책 몇 권과 기도서들, 아이들에게 보상으로 줄 선물들 그리고 개인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를 도울 남자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저런! 비가 오네요. 그래도 떠나야지요! 점심을 먹고 우리는 우리를 산 밑에까지 데려다 줄 버스를 탑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가방이 있을 땐 버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또 나오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우리의 짐을 들어다 줄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전교회장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르는 길은 더디고 계다가 땅은 미끄럽고 경사는 가파르고 제 나이에 짐까지 있으니 모든 것이 우리를 재촉할 뿐입니다. 산꼭대기에 이르러 비는 내려도 좀 쉬면서 담배 한 대씩 피웁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 두 번째 산을 오르는데 이번엔 먼저 번 산보다 훨씬 낮은 산입니다. 거기에 이르니 호사스럽게 나들이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호위하고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내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온갖 재주와 곡예를 부려댑니다. 모임 집에 이르니 교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짧은 기도를 바칩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을 먹으면서 저는 전교회장과 함께 교우 수첩을 보면서 교우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빠진 교우들, 냉담자들, 신입교우들의 이름을 점검하고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짙막하게 양심성찰을 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고해성사를 베풀기 시작하며 모두들 밖으로 나갑니다. 나무관을 이용해서 칸막이를 만들고 제가 고해성사를 주는 동안 저의 협조자는 다른 방에서 기도문과 교리 시험을 치르게 하여 종이 쪽지에다 시험 점수를 매겨 놓으면 한 사람씩 그것을 들고 고해실로 들어옵니다. 저는 한 손에 교우수첩을 들고 있기에 제가 맞이하는 교우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의 가족 사항, 개인적인 사항들을 알고 그리고는 거기에다 그의 노력의 결과를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교우를 가깝게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어서 그에게 모든 면에서 권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아주 유리하고 체계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끔은 저에게도 아주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 식사가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작은 밥상이 마련되는데 저는 바닥에 앉아 밥 한 공기 와 곁들여진 작은 접시의 반찬들(여섯 내지 여덟 가지가 올라 와 있습니다)을 먹는데 그 반찬들은 모두 다소간 매우면서도 다른 맛이 납니다. 모두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교우, 예비자, 호기심에 온 사람들 모두 들어와서 이 작은 방 안에 자리를 좁혀 앉으면 두 자루 촛불이 방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질문에 대답해 주고 모든 이들 앞에서 예비자, 첫 영성체자들을 가르친 다음 한 시간 동안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저녁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화 한 대목을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일과를 끝맺음합니다.

모두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제게는 늦게 온 이들에게 세례와 고해성사를 주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게 얇은 요와 이불을 가져옵니다. 저를 혼자 있게 해주려고 방에 칸막이를 쳐서 방 한 칸을 둘로 나누면 그제서야 저는 바닥에 몸을 누입니다. 그 사이에 저쪽 편에서는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해집니다. 마루판은 바닥을 통해 난방이 되어 있는데다가 신부에게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준 바람에 출기는커녕 오히려 더울 정도입니다...

아침이 되니 제게 대야에 물을 담아 갖다 줍니다. 저는 밖에 나가 세수를 하고 제대를 준비하면 교우들이 도착합니다. 이 나라의 언어로 하는 새 전례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설명하기에 또 따라가기에 가장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강론 후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이 직접 제물의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동안 모두는 제가 그들에게 인쇄해 준 책을 가지고 성가를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제시간에 맞추어 보내려면 아침 일찍 미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을 먹고(여전히 밥이지요) 아침기도를 바친 후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 권고의 말을 하고 가방들을 챙기고 나면 전하신 주님의 나그네인 저는 다음 공소를 향해 떠납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쾌청하고 공기도 깨끗해서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제는 산꼭대기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더니 오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 있노라면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이 넘게 저는 이런 공소방문을 일 년에 열 번 정도씩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되고 절망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신바람이 나서 주님께 저의 소명에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저의 교우촌을 위해 기

도해 주십시오. 제가 맡고 있는 공소는 작년보다 두 군데 늘어나 현재 11개가 됩니다. 전과 같이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십시오.

피에르

1969년 4월 4일 성금요일, 홍산

안느와 리제뜨에게

너희가 보내준 2통의 편지를 이틀 간격으로 차례로 받았다. 부활 관광을 주던 중 교우들은 반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 그 틈을 이용해 답장을 쓴다.

천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너희가 오래 동안 침묵을 지킨다 해도 너희 나름대로 바쁘고 걱정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느낄 테고 하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 나는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믿어달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파문” 까지도 각오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내년엔 프랑스에 한 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볼까 한다.... 이제 선교는 한국인 사제들 손으로 넘어갔고 한국인 주교까지 모시고 있다. 예전 같으면 선교 돈을 쓰는 일이나 내가 맡고 있는 교우들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주저하겠지만 이제 그들이 돈 쓰는 것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는 일만 남았지. 대리사제를 미리 알아봐야 하니까....

프랑스에 가는 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다. 가서 보면 모든 게 변했을 거라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지. 그걸 내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라도 가고 싶다.... 그건 교회의 행복한 전환이니까. 그건 특히 우리 세대에겐 어느 정도 고통은 줄지언정 그러나 풍요로운 변화이니까. 그 변화를 좀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건 “인간답게 되기”의 문제다. 완전한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겸비해야 하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영혼만 생각해 왔다. 하느님의 계명은 결국 오직 이 하나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히 하느님을 사랑할 것만 너무 강조했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라틴어는 교회 전례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고 많은 경우 거만하게까지 만들었다.... 재판관 같은 계명이 지나치게 많았고 그래서 사람이 마치 목을 쇠고리로 말뚝에 붙들어매고 있는 죄인 같았다. 사실 이 계명들이란 부차적인 것인데 말이다. 예전엔 오직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의 먼지 속에서 다소 잃어버린 “그리스도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원문 누락)

최근에 <마치 Match> 잡지를 한 묶음 받았는데, 그 중에 달 사진이 들어 있는 호가 제일 좋았다. 다음번 아폴로 10호, 11호가 달나라에 발사되면 그 사진을 구해서 보내다오.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나! 요즘 젊은애들은 복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실컷 보겠지! 난 괜히 50년이나 일찍 태어났어! 지난달엔 본당에 “신용협동조합(CREDIT AGRICOLE)”을 창설했다. 봐라, 난 그들의 육체적인 양식에도 신경 쓰느라 애쓰잖니!

우리 회에선 그것을 하지 않기에 벨기에 사람 하나가 나와 내 교우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들이느라 애쓰고 있다. 그가 수백여 통의 지원 요청 편지며 또 감사의 편지들을 타이핑하고 나는 거기에 서명만 해서 발송만 하고, 그러면 그가 내게 돈을 보내온다.... 그뿐만 아니라 6월이면 벨기에 가톨릭 구조회에서 벨기에 특산물들을 이곳으로 보내 이제 막 시작하는 협동조합을 도와주기로 했다....!! 봤지, 선교사업에선 별의별 일을 다해야 한단다.

사흘 후면 내 이웃 올리비에 신부가 프랑스로 휴가를 떠난다. 아마도 오를리 공항으로 도착할거다. 며칠 일본에서 지내다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가 너희를 만나러 갈 거다.... 마크 르매르(Marc LEMAIRE)와

폴 달르(Paul DALLE)도 일본에 간다! 그들을 만났으면 했는데 가능하지가 않구나. 편지와 함께 ‘웃는 소’ 치즈도 받았다. 그건 부활 축일에 너희를 생각하며 먹으려나.

이제 온 마음으로 너희 둘을 포옹한다. 용기 내고 건강하거라. 너희가 나를 위해 애써 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피에르

1978년 4월 12일, 서울

내 가장 아끼는 누이들에게

너희가 들으면 반가워할 소식이 있단다... 프랑스에 들어가는 신청을 했고 비행기표는 6월 말 경(6월 25일쯤)으로 잡았다.

너희를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할 걸! 이곳에서의 습관과 안락한 일상을 뒤집고... 비행기 고장이나 공중 납치, 비행기 사고 등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말이다...

날 위해서라면 침대 하나만 준비해다오... 미사는 다른 곳에 갈 것 없이 너희 집에서 드릴 것이니 작은 흰 보만 준비해 주면 필요한 다른 것은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활자가 읽을 만하고 원본인 미사경본을 구하는 일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단다. 휴가는 3개월만 신청했고 그동안 여기저기 갈 곳도 많으니 너희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다.

이쯤에서 너희들이 꿈꾸도록 놔두고 이만 편지를 마치려나. 좀더 자세한 일정이 잡히면 도착일을 알려주마. 홍콩 경리부에서 내 비행기표를 사주기 때문에 나는 항공사 이름도 모른다. 에어 프랑스일까? 코리아 에어라인? 아니면 제팬 에어라인? 어쨌든 제일 싼 항공이겠지. 일본엔 공항이 새로 바뀌어서 일본에 있는 테레즈는 못 만날 것 같다. 예전엔 하네다 공항이라 데넨초푸(Denenchofu)에서 가까운 편이었는데 이제는 “니키타” 35) 공항인가? 사람들이 어찌나 오염을 무서워하는지 그 덕분에 교통만 더 혼잡해져서 자동차로 니키타에서 데넨초푸까지 가는 시간이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항공시간보다 더 걸린다!

곧 보자.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1979년 4월 15일, 부활축일에 서울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드디어 부활축일 잔치도 끝났고... 이제 오후 2시니까 저녁기도와 5시 성체강복만 남았다. 오늘 65명의 지원자, 청원자 그리고 1년차 2년차 수련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기에 점심 때 모두가 고기를 먹었다! 어제 저녁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오늘 부활 성무일도는 모두 노래로 바쳤다. 25명의 장애인 호스피스 식구들 가운데서 노인 두 명이 영세를 받았다. 내가 없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미사를 드려준 한국인 사제 한 분이 여기서 부활을 지내고 싶어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했단다. 아주 멋진 미사였고 나도 행복했지만 “자, 미사가 끝났으니... 알렐루야” 를 한국말로 부를 줄 몰라 혼자 잔뜩 겁을 먹었더니 모두들 웃었단다.

이곳 날씨는 좀 유별나서 날씨는 맑은 편인데 몽고에서 심한 바람이 불어와 춥고 안개같은 게 낀 것처럼 뿌연데 그게 안개가 아니라 모래바람이라 가까운 산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 년에 한 두 번씩 일어난단다. 난 지금 서재에 앉아 있단다. 책상 왼쪽에 누군가 빨간 튜립을 한 다발 꽂아 놓았구나. 꽃병 안엔 얼음을 넣었고. 그렇게 하면 꽃이 싱싱해져서 오래 가는가 보더라.

내일은 케르모알(Kermoal), 롱생(Roncin), 릴르의 꾸브뢰르(Couvreur) 신부들이 여기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부활 휴가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여기 오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한국인 신부의 보좌로 있다보니 서로 만나서 프랑스식으로 식사를 하고 또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 뿐이라서 그런 거지... 그들 처지로서는 손님을 초대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기도 힘들지.

난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나이제리아에서 한국에 주문한 선박 4척을 찾으러 사람들이 왔ندا. 프랑스 조전소 측에서 볼 땐 손님을 잃은 거지...! 여기서 덤핑 정치가 계속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달러 시세는 5년째 500원으로 늘 같은데 생활비는 매일 겁나게 오른단 말이야... 부활절에 페퍼민트 껌을 200통 샀는데 그러느라고 10,000원이 들었다. 내 건강은 괜찮다. 잘 자고 잘 먹는다. 가끔 숨이 찰 때가 있긴 하지만. 의사를 보러 갔더니 그는 내 귀가 어두워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건 토렝(Thorenc)에서 이미 들은 얘기고 결핵 예방약을 너무 독하게 복용해서 생기는 결과일 거다... 그리고 우리 병원 치과도 갔었는데 의사가 내 이 두세 대를 봉해주겠다고 한다. 그는 이미 내 이를 두 대나 해줬는데...

이 병원은 더 커져서 현재 수녀가 30명이나 되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선단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검진을 행하지만 우리도 의사들 월급 주어야지, 수술비 대야지, 간호사 월급 지불해야지, 각 부서의 직원들 월급 등등, 300명 식구들을 거느려야 한다! 또 병원 신축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웃 집을 매입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3억, 4억 원 얘기가 나온다...

꽃씨를 심었더니 대부분 살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불행하게도 온실 담당 수녀가 꽃씨를 심는데만 정성을 기울이고 꽃 사진이 들어있는 꽃씨 봉투를 보관하지 않았구나. 나는 매일 너희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일상의 생활을 그려보면서 너희를 생각하고 특히나 르네 매형 생각을 자주 한다. 자기 아내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참으로 감탄할 만한 그분 곁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아참, 스카티(Skaty)는 어떻게 됐니? 그는 여전히 너희에게 위로자로 남아있니? 리제프는 여전히 너희에게 프랑스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니? 성탄 때나 새해 첫 날처럼 여기서는 부활절에도 선물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한단다. 숨으로 만든 병아리와 색을 입힌 달걀로 둥지 모양을 만들었는데... 내 서재에 잔뜩 있단다!

오빠의 사랑을 담아 너희 모두를 포옹한다.

피에르

1981년 7월 2일, 서울

사랑하는 리제프와 식구들에게

훌륭하게 짜놓은 너의 프로그램을 방금 받았다. 나는 태연하게 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 너는 8월 30일경에 파리를 떠나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 도쿄로 온다고. 그게 가장 빠른 항로이지. 테레즈와 일본을 좀 구경하고 너는 버스로 남쪽으로 내려와 후쿠오카에 와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오겠구나.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는 반 시간도 안 걸린단다... 절대로 부산에서 내리지 말고 서울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한다. 한 시간 더 비행해야 한단다.

난 걱정이 두 개나 있단다. 너를 마중 나가러 김포공항으로 나가는 것도 걱정이다. 너는 도착 시간과 비행기 번호를 내게 알려줘야 한다. 두 번째 걱정은 너를 보고싶은 마음보다 내가 다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볼 일이 걱정되는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달 전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야 한단데! 그런데 너는 그런 걱정은 할 거 없다. 내가 파리-도쿄 왕복 비행기표를 산 여행사에 가서 서울-도쿄 간 자리를 미리 예약해 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김포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 주소를 받아 오면 내게 유리할 거다.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일 에어 프랑스타면 여기에 사무실이 있으니 잘 됐다.

여기서 지내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거기로 휴가를 갔을 때 내가 네 방을 썼으니 여기서 네가 내 방을 쓰고 네 친구는 손님방을 쓰면 된다. 난 서재에서 자면 되니까. 기사에게 부탁해서 자동차로 관광도 좀 하자꾸나. 돈(한국돈)은 내가 쓸 만큼 있으니 걱정 말아라. 요즘 환율 시세는 1프랑에 115원이다.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 요금이 약 5000원 나온다. 내 주소와 전화번호(94-1948이나

92-2078)를 꼭 챙겨 오너라. 두 번째 번호가 더 낫단다. 그리고 내 한국 이름인 성 신부를 찾거라. 네가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나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계 밑에서 서로 기다리기로 하자. 세관은 엄격해서 위험한 물건이나 정체불명의 가방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주시겠지!

지난달에 서울의 110개 본당이 10지구로 나뉘어졌다. 각 지구별로 10개 내지 13개 본당을 포함한다. 지난 6월 14일엔 각 본당의 미사가 없는 대신 모두 종합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합동 미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어느 운동장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운동장이 꽉 찼었다.... 아마 거기에 모인 신자수가 25,000명은 되는 듯 싶더라.... 눈에 눈물이 고이더구나.... 50년 전에 비하면!.... 다른 10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단다. 모두 200,000명의 교우가 모인 셈이지.

베아트릭스 수녀는 두 달간 두 번째 수련기간을 보내고 한 달 후에야 돌아올 것이다. 현재 다른 수녀가 그 수녀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 너나 다른 식구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서 펜을 놓아야겠다. 모두를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피에르

1981년 8월 6일, 서울

리제뜨에게

방금 너의 편지를 받고 곧장 답장을 띄운다. 그러마, 9월 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김포에 나가 있겠다. 세관 출구에 있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9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비행기로 출국 확인도 해놓겠다. 4일 동안 우리가 쓸 자동차도 한 대 구해놓았다. 네가 묵을 숙소는 사제관에 준비해 놓았다. 혹시 공항에서 나를 못 만나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너는 우리 수녀들에게 줄 선물을 물었는데, 우리 수녀가 200명이 넘으니 사탕이나 성화같은 건 말고 레이스 뜨기 책이나 재봉에 관한 책이라면 더 좋겠다. 마치 46년간 기다려온 형제처럼 기쁘게 너를 맞이할 거다!!! 너에게 한국의 '깊은' 모습을 보여줄 거야!

미리 귀땀해 주는데, 넌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걸.... 프랑스말을 할 줄 아는 수녀가 단 한 명도 없거든.... 그리고 모든 수녀들이 창설자 신부의 동생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인사하려고 할 테니까.... 내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베아트릭스 수녀도 보게 될 거다.... 실내에 들어서면 거의 항상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코요 신부는 프랑스에 있단다. 그는 교황 성하를 만나러 갔다. 그의 형님이 암에 걸려 있단다.... 그가 너희 집엘 갔었는데 너희를 못 만났다고.... 너를 만나 진짜로 포옹할 날을 기다리며....

피에르 생제

1981년 9월 19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 동생들에게

이제야 리제뜨가 들어갔구나! 너희도 한 숨 놓았겠다. 너희가 보내준 선물들은 잘 받았다. 안느 마리가 보내준 가톨릭 복지에서 나온 연감과 마리 끌레르가 보내준 테이프 두 개, 잘 받았다. 너희도 내가 너희 앞으로 사보낸 예쁜 이불과(물세탁이 가능한 거란다) 나전 화병을 받았겠지.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리제뜨가 짐이 너무 많아서 더 짐을 지울 수가 있어야지! 그대신 리제뜨가 너희에게 수도원 얘기며 수도원 사업 얘기들을 해 줄 거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그 애에게 보여주었으니까. 그 애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명랑한 게 예전과 같은 모습이더구나! 그 애 말처럼 사흘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내 생의 46년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다. 테레즈도 다녀간 적이 있지만 그 애도 나처럼 선교사니까 별도로 친다면 말이지. 리제뜨는 내 집도 봤고 내 방도 봤고 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그 애

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러니 그 애가 너희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해 줄 거야!

리프랑(Liffrant) 양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어쨌든 그녀의 원대로 프랑스 대사관에 데려다 주어서 대사 비서로 있는 옛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다. 그 친구 또한 그녀처럼 옛날에 소녀단장을 지냈고 까르멜 수녀로 있었기에 그녀에게 어느 정도 콤플렉스를 주었던 것 같다.

오늘 조지 캐럴(Georges CARROLL) 주교의 장례 미사에 갔다왔다. 그는 미국인 사제인데 내가 성전 건축할 때나 수도원 등을 지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준 분이다. 미국에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며칠 후면 총장 신부가 방문하여 중앙 사무국 위원들과 분원장, 모두 2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 이사 총회를 가질 것이다. 선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는 이 행사를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다니! 여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한국인 주교들이 임명되었다. 한국인 사제들은 점점 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외교인은 너무나 많은데 말이다...

리제뜨가 와있는 동안 아주 서운한 점이 하나 있었다. 수녀들이 그 애를 독차지하고 놔주질 않아서 난 그 애랑 얘기할 시간도 거의 없었구나. 일본에서는 테레즈도 그랬겠지. 리제뜨야, 이번 여행이 어땠는지 소감을 써보내다오. 후지산엘 올라갔었다고? 걸어서, 아니면 차로? 케이블카로? 내가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늘상 어느 수녀가 와서 수다를 떨며 내게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단다. 수녀들이야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만 귀찮은 거야 어쩔 수 없잖니! 겨우 사흘밖에 안 되는 휴가를 말이다. 너무 짧았어! 비록 모자라는 점들은 있어도 후진국가가 아니라 유럽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아주 현대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고 갔을 거야.

식구들 모두 건강하며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마리 끌레르도 잘 지내고 다리를 좀 덜 절기를 바란다. 너희 모두를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선물한 이불이 따뜻하게 너희를 덮어주기를 바란다. 그 이불 때문에 특별히 가방도 하나 사지 않았겠니. 이불을 볼 때마다 “피에르 오빠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새기렴.

1981년 12월 1일, 서울

사랑하는 리제뜨에게

새해 인사 편지를 너를 끝으로 마감해야겠구나. 형님, 누나, 동생들 모두에게 방금 편지를 보냈단다. 너야, 네 살과 뼈를 직접 봤다만! 그래도 옛날대로 진지하게, ‘거룩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 해의 남은 시간도 기쁜 성탄과 천국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막상 너를 보내놓고 나니까 등에 아이를 업고 다니는 한국 엄마 모습이나 내가 꾸며놓은 것, 한국 의상 등등 매번 이런저런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지 못한 걸 혼자 질책하고 있단다. 네 편지를 받아보니 내가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내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네 친구에게 보내준 따뜻한 글과 함께 편지를 고맙게 잘 받았다고 전해다오.

네가 떠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신자들의 대단위 집회가 있었는데, 모두 백만 명이 모였단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교황께서 한국에 첫 주교를 발령내셨지. 추기경께서는 이 역사적인 일을 무심히 넘기고 싶지 않아서 특별한 축일로 기리기로 결정하고 10월 18일에 모든 본당에서 의무적으로 대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 날, 주일인데도 본당에서 미사 집전이 금지되었고 모든 사제들은 추기경과 함께 미사를 드려야 했다. 집회 장소는 파리에 있는 콩코르 광장보다 훨씬 넓은 어마어마한 아스팔트 광장이었다!

시간은 10시. 아침 6시부터 사람들이 도보로, 버스로, 전철로, 혹은 기차를 타고 와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본당에서는 버스 10대, 20대를 타고 왔어도 광장이 어찌나 넓은지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더구나! 정말로 백만 명의 신자가 모였으니 첫 기적이야! 처음으로 그토록 많은 열심인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그 많은 수를 확인했으니 그게 첫 기적이야 뭐겠니... 신자들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자리를 잡았고, 그 덕분에 모든 게 질서 있게 진행되었단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700여 명의



사제들과 주교 17명, 추기경님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입장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 붉은 십자가 같은 것이 나타났단다. 군중은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단다. 그 현상은 약 15분 동안 지속되었다. 모두들 깜짝 놀라하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거기 모인 모든 신자들에게 성체를 주어야 했기에 사제들은 각자 성체를 가득 담은 성함을 가지고 와서 미사 때 축성을 했다. 사람들이 온통 그 얘기뿐이다.... 그저 우연한 현상이라고 해도 어찌면 바로 그 날 그 시간 미사가 막 시작되는 순간에 일어나겠냐 말이다.

그리고는 모두들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다. 분명히 이번 성탄 축일에는 고해자들이 무더기로 몰려 올 거야! 매사에 그렇듯이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 벌써 그 날의 미사 사진, 그 날 나타난 십자가 사진... 등을 팔고 있단다. 안느 마리, 리제뜨, 마리 끌레르 너희 셋을 위해 그 사진 한 장을 보낸다.... 기구(氣球)는 오른쪽 상단에 있고 십자가는 왼쪽 중간에 보일 거다.... 검은 먹구름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데 아주 힘들었다. 모든 조건에 어긋나는 상황이었거든.

리제뜨야, 와줘서 고맙다.... 모든 이가 즐거워했단다. 오늘 20명의 청원자들이 피정에 들어가서 다음주 12월 4일부터는 수련자복과 흰 수건을 착용하게 된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매일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달콤한 잠을 이루기를 바란다. 너를 사랑하며, 정말로 이 세상 끝에서 너의 방문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오빠가....

피에르

1981년 12월 1일

사랑하는 안느에게

복된 새해와 좋은 건강 그리고 즐거운 성탄을 기원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엔 천국에 들어가기를 아울러 기도한다. 이 카드는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우리 수녀가 직접 그리고 색을 칠한 것이란다. 현재 3명의 수녀가 로마에, 1명은 마닐라에, 또 1명은 영국에 나가 있다. 신년 연초부터 필라델피아에 집을 한 채 짓기로 했는데, 그건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곁에서 사목활동도 할 겸 또 경리부 건물로 쓸 겸해서란다. 머리 속엔 계획들로 가득 차있지만 글썽 그것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너의 오빠, 피에르

1982년 5월, 서울

사랑하는 마리 끌레르에게

며칠 전에, 네가 8쪽에 걸쳐 뽀뽀하게 적어온 장문의 편지와 책 한 상자를 잘 받았다. <수정을 통해서, Au travers d' un cristal>, <낡은 집, 오래된 종이 Vieilles maisons, vieux papiers (Le Notre)>, <종탑의 시계판, Au cadran de mon clocher (Maurice Michelet)>, <늑대에게 잡힌 지바퀴새들, Des grives aux loups(Claude Michelet)>, <Cestova>, <Normandie>36).... 끌레르야, 네가 베풀어 준 그 모든 배려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보내준 책들은 물론 내게도 행복이었지만 다른 여러 동료들 특히 코요 신부가 무척 기뻐했단다.

최근에 강화에서 찍은 그의 사진 한 장을 동봉해 보낸다. 강화에 관해 설명해 줄게. 강화는 다리 하나로 가까이 있는 물과 연결된 섬이다. 우리와는 사연이 얽힌 곳이지. 1840년경, 3명의 프랑스 선교사(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가 순교했지. 그 소식을 들은 로즈 제독은 상관의 위임도 없이, 처벌성이고 동시에 위협성을 띤 원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특히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프랑스인 3명을 죽였소?” 라고 묻기 위함이었다. 목선(木船)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으로 유럽 함대를 보고는 겁에 질렸지. 프랑스인들은 강화도에 상륙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또 아무 것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몇몇 자료와 오래된 문서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포를 몇 발 쏘았다.... 생전 처음 있는 일인지

라 그 일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 병사들은 겁이 나서 떠났고 따라서 한국 쪽의 대승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란... 단순한 위협이었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겨우 고서(古書) 몇 권만 가져갔을 뿐인데, 그것도 프랑스 사람들은 관독도 할 수 없어서 현재 국립 도서관에 있는데 말이다... 더군다나 한국엔 역사 기념물이 별로 없어서 기념물들을 만들고 있단다. 최근에 강화도도 심도 있게 조성되어, 옛날식으로 문 몇 개와 요새를 세우고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간 대포까지, 그 정도면 충분히 역사를 만들지. 어쨌든 가톨릭 교회가 외국 정부와 친하게 지내서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코요(Coyos) 신부가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하고 수도원에 차도 있으니 코요 신부랑 나랑 베아트릭스 수녀랑 지난 4월 19일에 강화에 다녀왔단다. 거기서 점심도 먹고 사진도 몇 장 찍고 일찌감치 서울로 돌아왔지. 약 50km 되는 산책이었다.

몇 년 전 파리에서 층층이부채꽃씨를 사와서 심었더니 달랑 한 송이만 피었기에 거기서 또 씨를 여럿 얻어 다시 심었더니 꽤 멋진 화단을 이루었구나. 내가 알기에 그 꽃은 파랑, 노랑, 빨강... 여러 가지 색이 있을 텐데... 네가 다른 색 꽃씨를 좀 구해주겠니? 그래, 이제 너희들도 혈압이 있다고? 그걸 치료하는 데엔 달리 방법이 없다, 오로지 음식을 조심하는 수밖에. 소금도 안 되고 버터나 계란도 먹으면 안 된다. 코요 신부도 혈압이 높아서 아주 엄격하게 식이요법을 따르더니 위협에서 벗어났다. 나는 혈압이 다시 오를까봐 강론 준비를 모두 포기했고 대신 8월에 서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 한국 부제가 주일 미사 때마다 와서 강론을 해준다...

네 편지를 읽어보니 너희는 조카 손자들을 돌보고 산책시키느라 심심할 겨를이 없나보구나. 그것도 다행이란다! 그러니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그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할 테고 아무래도 그 애들이 자라면서 실수 같은 것은 저지르지 않겠지. 누가 프랑스 국민 아니랄까봐 너희도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이 많더구나. 어디나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 이쪽 저쪽을 판단하기란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양쪽에 다 세례를 주었으니까... 위게(Hughe)를 생각하노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까?

테레즈와 폴레뜨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팔레스타인에 갔었다면?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그것 역시 큰 행운이다. 하느님이 사셨던 마세다까지 갔었다니 얼마나 큰 은총이냐... 난 정말 그 애들이 부럽다... 너희의 강아지에 대해서는, 난 아주 만족한다. 띠베(강아지 이름)란 놈이 너무 짓어대는 게 불만인데, 이웃들을 생각해야지... 폴란드 계 러시아인 쥐지앙(Georgien)이 도미니코회로 개종하여 사제가 된 이야기를 읽고 그 책을 동료 신부에게 빌려주었다. 그리고 교황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체스토코바의 성모님 이야기도 읽었다. 폴과 그의 식구들에 관해 소식을 전해준 것도 고맙다. 그 집도 대가족을 이룰 준비가 된 것 같구나. 희망을 잔뜩 갖게 해주는구나. 피에르와 모니끄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위커 엘렌느와 에릭. 자비에와 베르트랑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겠지.

총으로 60명을 살해한 경찰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만취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속닥거린다... 이곳 한국에는 늘 대형 사고가 일어나(자동차 사고, 화재, 범죄, 익사 사고 등등...) 수십여 명의 인명 피해를 만들곤 한다. 거의 그 정도의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은 비행기뿐이니 그것은 그리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노르망디에 관한 책자는 매우 흥미롭기는 하다만 보충할 것이 많더라... 예를 들어 사진은 겨우 한두 장만 실려 있어서 리지외 바실리카나 생 미셸 수도원, 캉(Caen)의 벡 엘루앵(Bec Helluin) 수도원에 관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더구나.

이곳의 삶은 예전처럼 계속된다. 우리는 모원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매일 기도, 공동으로 드리는 미사, 강의, 강론으로 지내는데 나는 내가 맡은 강의를 포기해야 했다. 강의 준비로 너무 신경을 쓰면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곳 식구들은 수녀들 외에도 호스피스에 있는 할머니 서른 분 그리고 유치원 원아 100명이 있단다. 어제는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이 우리 유치원에다 자기 아이를 버리고 갔단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

사랑하는 끌레르야, 이만 펜을 놓아야겠구나. 난 도저히 너처럼 8쪽이나 되는 편지를 쓸 수가 없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다. 모든 일에서 너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너를 무척이나 아끼고 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오빠가!

피에르

1982년 9월 7일, 서울

사랑하는 형제, 누이들에게

어제 테레즈를 공항까지 배려해주었다. 여전히 수정 같고 진실로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테레즈의 체류가 아쉽게도 너무나 짧았으니, 만 하루도 채 못됐단다! 두 달 후에 다시 와서 그때엔 4, 5일 있다 가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때 와야 오나보다 하는 거지, 뭐! 그 애가 온갖 선물을 내게 전해주더구나, 리제뜨가 보낸 책들, 마들렌느 누님이 보낸 치즈, 옛날 사진첩(마들렌느 누님과 자끄 형의 사진이 돌보이더구나) 등등.... 그런데 너무 세속 냄새가 풍기는 게 안타깝더구나.... 가톨릭 학교에 관한 소식도 거의 없고 400주년 기념을 맞는 본당 사진 한 장도 없으니 말이다. 어쨌든 그 모든 선물들, 고맙고 또 고맙다.

고요하고 평온한 저녁 시간에 우리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마들렌느 누님의 천식은 좀 가라앉으면 좋으려만. 르네 매형처럼 나도 관절통이 아주 심했다. 특히 아침이면 더 심해서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베아트릭스 수녀를 불러 도움을 청할 정도였단다. 그런데 동료 신부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라고 하기에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훨씬 나아졌구나. 이젠 통증은 없어졌고, 혹시 큰 추위가 시작되면 다시 도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절통은 사라진 것 같다.

공사(호스피스 증축)는 거의 끝나간다. 공사장이 바로 내 방 옆이라 3달 동안 매일 온갖 소리를 듣느라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일 9월 8일엔 우리 유치원 원아들이 개학하는 날이다. 원아가 110명이나 되니 애들이 쉬지 않고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야 들어도 즐겁지. 수녀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나는 그 중에 몇 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귀찮게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서원을 받하기 전에 수련기간이 8년이나 되니 그들이 생각을 바꿀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셈이지! 그 공사 때문에 꽃을 심을 시간도, 능력도 없었지만 꽃으로 가득 찬 넓은 온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성탄축일 때나 부활축일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다리 떨림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동할 일이 있으면 항상 총장 수녀에게 허락을 얻어 차를 빌린다. 들으면 너희가 깜짝 놀라겠지만 현재 수녀원, 병원, 호스피스 다 합쳐서 다양한 종류로 8대의 차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리제뜨나 테레즈를 마중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라는 거지! 식구 모두를 포옹하며,  
피에르

보내주신 선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베아트릭스 수녀

1983년 8월 23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오랫동안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구나! 사연이 많았단다. 타자기를 부서뜨렸어.... 손으로 쓰자니 똑바로 깨끗하게 써지질 않고.... 손이 떨려서.... 하느님께서도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또 크나큰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직접 영세를 준 35세 된 곱추 처녀가 그녀의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채 훌륭한 신자로서 선종을 했다. 그녀의 장례미사 때 추기경을 비롯한 다섯 내지 열 명의 사제들이 참석했다! 그녀는 몸이 아주 왜소했고 늘 미소를 지었었지.

나는 운수 사납게도 두 번이나 또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눈(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과 궁둥이를 찢었다. 어쨌든 10여 나라 사람들이 장례 미사에 참석했다! 베아트릭스 수녀가 더할 나위 없이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난 아직은 미사는 드리지만 아주 힘겹게 한단다. 아직은 오랫동안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심각한 일은 기억이 뒤죽박죽이라는 거지. 병원 공사는 마무리되어 10월 말이면 개원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지.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한다. 조만간에 다시 편지를 쓰마.

피에르

코요 신부는 오는 9월 20일에 프랑스로 떠나 6개월 있을 예정이다. 친구들 중에서 제일 팬찮은 사람이라고!

1983년 9월 12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 동생들에게

너희가 지난번 내 편지를 받고 놀랐을 거다. 놀랄 것 없다. 그건 화가 나서, 실망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본 거니까. 나 가끔 그러잖나.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성가회 수녀들은 어마어마한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모든 규모가 거대하다. 약국만 해도 본원에 있는 도서실의 10배가 된단다!!! 진료실 14개에 입원실이 400개다. 그로 인한 걱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있고 지쳐있는지 너희는 짐작이나 하겠나... 내일은 40주년을 축하해 주러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제들이 오시고 또 바자회도 열리는 데... 이 병원이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데에는 할 말이 없다! 병실마다 수녀들이 만든 수예품으로 가득 차 있다. 지방에 있는 수녀들도 온단다. 수녀회 창립 40주년은 대대적인 행사이므로 총장 수녀를 선두로 해서 모든 수녀들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나는 최근에 두 번이나 쓰러져 큰 일 날 뻔했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사했다. 코요 신부를 만나러 가던 길에 갑자기 코를 땅에 박고 땅바닥에 쓰러지지 않았니! 아픈 거야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날 해야 할 일은 다 할 수 있었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름이 지나서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데 그만 땅이 꺼지는 듯 싶더니 또 쓰러졌잖나. 그때는 훨씬 심각했다.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그리고 정확히 두 눈 사이를 돌맹이에 찔어서 다행히 두 눈은 무사했지만 나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서 코 윗 부분을 두 바늘 꿰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의사는 나보고 앞으로는 걸을 때 꼭 지팡이를 짚고 걸으라고 하더구나. 나는 고물이 돼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미사 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서 지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어쨌든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건만 아직도 외출을 할 때면 여전히 지팡이를 짚어야 한단다... 미사 때만 되면 염려가 되는 것도 여전히하고 (나는 빵만 축성하고 포도주 축성은 못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더 이상 강론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

한국에서는 소련 선박인지 비행기에 의해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단다. 그건 터무니없이 오만한 사건이지. 모두들 “복수하라”고 외치지만 어쩔 수 없잖나! 사망한 269명의 희생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도 없으니, 차라리 우리 병원을 생각한다... 얼마나 근사한지! 햇빛에 빛나는 흰색 건물이란! 하루에 최소한 200명의 환자를 받을 것이다! 어쩌면 어느 날엔가는 그 병원을 의사진과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야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어제는 추기경께서 오셔서 우리 성가회 창립 40주년을 기리는 미사를 집전해 주셨다. 참석한 한국 사제들이 최소한 60명이었고 신자가 적어도 200명, 수녀들이 250명이었다. 그 모든 참석자들을 접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튿날 바자회에서는 한 수녀가 짜서 만든 레이스들을 1,040,000원에 팔았단다!!! 추기경께서는 우리 수녀들을 위해 아주 다정한 말씀을 해주셨지. 그분이 ‘성가 소비녀’ 라는 이름에 대해서 풀이해 주셨다.

코요 신부는 다음주 화요일에 프랑스로 떠난다. 그러면 9월 21일에는 프랑스에 도착하겠지. 거기 가서 암 진료를 받을 것이다(이건 절대 비밀이다). 코요 신부는 내 형제와 다름없으니 그를 잘 대접하거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벌써 사두었더구나. 내일은 내 영명 축일이라 동료 신부 몇 명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할 거란다. 40주년 기념 행사 때 지 주교님도 오셨는데, 그분은 공산당들을 도와주었다고 욕살이를 하신 분이다. 그분은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젓가락처럼 마르

셨더군요. 현 정부는 (가톨릭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랄 수는 없고 오히려 냉랭한 편이지만 주요 3종교인 불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에 대해서 평등한 자세를 취하려고 애쓰고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로마에서는 최근에 2명의 감찰관을 임명했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다. 룰루 숙모님께 안부 전해다오.

피에르

1983년 9월 29일

사랑하는 테레즈에게

한 달 동안 무척이나 바빴단다. 우리 성가회 수녀들이 수도회 창립 40주년 잔치를 벌였거든. 잔치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첫날엔 감사 미사를 봉헌했는데, 서울의 추기경님께서 직접 미사를 집전하시며 강론을 해주셨고 또 성재덕 신부에게 축하의 말씀도 하셨단다! “미사가 있는 곳에 만찬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녀원 휴게실에서 푸짐한 식사가 있었단다. 그리고는 커다란 ‘사랑의 장’ 이 썼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바자회라고 부른단다.

사제가 최소한 60명, 평신도가 200명은 넘게 다녀가는 성황을 이루어 이튿날까지 연장해서 열었다. 대성공을 거두었지. 한 노 수녀님이 손으로 레이스 보를 짜서 팔았는데, 첫날 그 수녀 혼자 올린 수익금이 1,040,000원이란다! 수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만해서가 아니라 다만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알기 위해 하는 것이란다. 솔직히 수녀회가 경쟁심을 좋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이곳 서울에는 수녀원이 최소한 40개는 되는데, 오래된 순서로 따지면 생 뽀 샬트르회가 1위이고 우리 수녀회가 2위란다. 요즘엔 곳곳에 수련자 수가 넘치니까 수녀회도 넘치고 있지. 그럴 줄 알았다면 나는 결코 수녀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물론 그것이 내심으론 약간의 자부심도 주지만 나는 매일 떨리는 마음이고 혹시 실패할까, 파벌이 생길까, 재정적으로 파산을 할까, 수도 정신이 결여될까, 등등의 걱정으로 겁이 난다. 그래서 너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란다. 지난 일요일에 성소자 모임이 있었는데 120명이나 모였단다!!! 봐라, 나 역시 꽃밭에서 일을 한단다!!!!

일본에서도 탑승자 269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측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분노하더군요. 그 사건은 오래 전부터 의도적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간 항공을 노려온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도 잘못은 있었던 것 같다.... 비행기가 러시아 안으로 500km나 들어갔다고 하던데....

며칠 후면 20명의 새 수녀들의 피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들은 첫 서원을 하게 되지. 우리 곁을 떠나는 수녀도 있을 테지만 그런 일은 비교적 흔치 않단다. 우연히 지난번에 우리 곁을 떠난 두 수녀는 피아노광이었다. 황홀할 정도로 연주를 잘 했고, 우리는 그것으로 좋은 수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걸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셨다.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크다. 내가 보기에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 한국에서는 교황 성하의 방문 준비가 한창이다. 교황은 6월에 방문하실 터인데 한국 방문 후 캐나다로 떠나신다. 교황의 방문을 기회로 한국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할 것이다. 그 일은 여러 가지 질투를 만들어낸다. 103명의 성인을 모시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사제에 불과한 김 안드레아 복자를 첫 번째로 시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명의 순교 주교님을 앞서서 말이다!!! 새로 시성될 103분의 성인 가운데에는 10분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들어있다. 심지어 일부 한국인 사제들은 선교사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선교사들이 안세니즘의 엄격한 교의와 정적(靜寂)주의(37)를 가르쳤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상한 노릇이지만, 그들은 한국인 순교자들을 프랑스인들과 한데 섞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다!

내 건강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다만 극히 짧은 강론도 할 능력이 없구나. 코요 신부는 만났니? 그가 프랑스로 떠나고 나니 속내를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구나.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한다.

피에르

1983년 12월, 서울

사랑하는 안느 마리에게

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1984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오빠의 온 사랑으로 건강도 기원하마. 건강해야 네가 종교의 의무도, 가정 생활 안에서의 의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작년엔 거대한 병원 건물을 짓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든, 시멘트가 견고한지 어떤지, 수녀들이 꾸어 쓴 돈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만, 아직도 지불해야 할 액수가 환상적이다. 에댕의 수도원 원장 신부님에게서 받은 6,000프랑을 오늘 아침 총장 수녀에게 건네주었다. 6,000프랑을 한국돈으로 환전하니깐 600,000원이 되더구나!!

이젠 어디서 오지도 않는 돈에 신경쓰는 것이 지겹다. 성체강복을 할 때면 복사 아이와 부제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성당으로 나갈 때면 지팡이를 짚어야 한단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서 한 해 한 해 귀결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구나. 테레즈 말대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사하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니.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

롤루 숙모님 만나면 내 안부도 전해다오. 그리고 병원 소식도 얘기해 주고 수녀들이 300명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주는 횟수가 얼마나 될지도 얘기해 주렴. 나는 젊은 날 자전거로 수천 킬로를 달린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기 시작하는구나. 고기 파이 통조림을 더 보내준다면 동료들이 방문했을 때 요긴하게 쓰겠다. 동봉하는 사진은 완공된 우리 병원의 사진이란다. 몇 층이나 되는지 세어보렴. 이 병원 덕분에 수녀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수녀들의 생활도 보장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이어서 라디오에서는 야단법석이란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너의 오빠 피에르

1984년 3월 9일, 서울

내 사랑하는 착한 누이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어쩌면 이토록 착한 누이 동생들을 내게 주셨을까! 한 달 전쯤에 통조림으로 가득 찬 엄청난 큰 소포 꾸러미를 받았잖니. 바보같이 나는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끄 형님이 보냈거나 믿었던단다.... 통조림이 최소한 20개는 들어 있더구나!!! 복되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선교사가 성인품에 오르도록 감시를 하시는구나.

너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늦게 인사를 해서 미안하다. 요즘 자끄 형과 주느비에브 형수님은 대장정의 여행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분들이야 좋은 구경을 실컷 하겠지만 난, 아냐! 나는 고향으로 고생하고 있고 의사는 나보고 방 안에서 조리를 하란다.... 하필 교황 성하의 방한을 앞두고 말이다.

너희도 보다시피 편지 쓰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다행히 나는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허락을 얻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4년 7월 24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 동생들에게

너희에게 편지를 안 쓴 지도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구나. 그래, 타자기는 고장이 났지, 한 줄의 문장을 쓰기도 어렵단다. 난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전 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병원 의사가 내게 백여 개나 되는 약을 먹게 해서 아픈 것은 싹 가졌기에 억지로 백여 킬로를 걸었더니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의아해 할 정도였다!!! 어쨌든 오늘에야 편지를 쓸 엄두를 낸다. 오늘에서야 예전처럼 타자기 앞에 앉아 너희에게 편지 쓸 엄두를 낸다.

원장 수녀의 지시에 따라 베아트릭스 수녀는 내 가까이에 남아서 내게 약도 갖다 주고 식사도 도와준다. 지난번 수술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쨌든 혈압도 없고 열도 없어서 잘 자고 잘 먹는다. 밤새 오래 자고 일어나지만 여전히 피로하고 뿌연 상태란다! 리제뜨는 나보고 활기 있게 지내라고 한다만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봐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니? 성체 분배도 못하고 고해 성사만 겨우 줄 정도이다. 미사는 베아트릭스 수녀랑 드리는데 이젠 혀도 내 혀가 아니라 발음도 정확히 못한다. 나는 마음 고생이 무척 크단다. 톨루 숙모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해다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마. 너희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오빠 피에르가

1984년 8월 21일, 서울

안느 마리, 리제뜨 그리고 마리 끌레르에게

오늘부터 편지 규격을 바꾸려고 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마치 위인이나 된 듯이 내 건강 진단표도 보낼 겸해서 말이다.

8월 18일 퇴원시 혈압 140/80

8월 19일 집에서 140/80

8월 20일 130/80

8월 21일 140/90

22일 130/85

23일 130/85

요즘엔 폭염이 계속되어서 공동체 일부가 휴가의 집으로 떠났다. 37도까지 오르는 숨이 막히는 더위란다. 오늘 코요 신부와 뒤랑 신부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모두가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병실마다 냉장고가 있단다. 굉장히 넓은 마당과 나무들이 있고 하루에 700명을 진료할 수 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건강해졌고 잘 자고 잘 먹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 타자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걸로 쓰긴 했는데 손에 익숙하지가 않구나. 너희를 힘껏 포옹한다. 폴네 아이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은 잘 받았다. 리제뜨야, 넌 어찌면 그렇게 건강하니!

피에르

1984년 10월 8일, 서울

사랑하는 마리 끌레르에게

8쪽이나 되는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너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표한다!!! 장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미사를 계속 집전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호스피스 성당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걷는다. 나는 너무 많이 잘 정도로 잘 잔다. 혈압은 점점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엔 140/80이 되었다.

그래, 너는 잘 있었니? 수녀원에서는 혈압은 빈번히 생기는 흔한 병이란단다. 우리 수녀원의 어느 수녀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는 수녀도 있단다!! 오늘은 40년째 우리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는 쉬로(Sureau) 의사가 방문할 것이다. 네 편지를 읽어보니 너는 적지 않게 여행을 하더구나. 장애를 갖은 몸으로 보쥬(Vosges)에도 가고 알프스 산맥도 보고 살레뜨(Salette)에도 가겠구나.

오늘 수녀들은 피정에 들어가는데 피정 지도를 맡은 수녀는 이 수녀회의 초창기 수녀란다. 숙박 사정상 총 인원의 1/5만 피정에 들어간다. 성탄절엔 분명 보기 좋은 영세자 한 다발을 얻을 것이다. 올 여름엔 35도,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더니 한국은 벌써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장문의 긴 편지를 받고 나는 짧은 답장을 보내 미안하다만, 내게는 너무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라서 말이다. 오는 12월 1일에는 20명도 넘는 수련자들이 착복식을 하게 된다. 언제나 재잘거리를 잘하는 수련자들은 재미있단다. 며칠 전에는 나이 많은 수녀들 집에 가서 내가 미사를 집전했는데, 드디어 자유 기도를 바칠 차례가 되자 어느 노 수녀님이 총장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니? “주님, 총장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장 수녀님은 너무 뚱뚱하셔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녀님을 낯선 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잘 치유되시어 오랫동안 저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진 몇 장을 동봉한다.

피에르

1984년 11월 21일, 서울

사랑하는 나의 누이들에게

11월 13일자 자끄 형님이 보내주신 편지는 반갑게 받았어. 돌아오는 1985년은 ‘금경축’이라고 부르는, 내게는 각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 7월 7일은 내가 서품을 받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때는 잔치를 벌여야지! 그러려면 적당한 잔치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흔히 사제서품식날이나 영명축일, 혹은 생일날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정하는데 나는 1985년 9월 13일로 정했다. 그 날 수녀들은 한식과 양식을 섞어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할 것이다. 그 문제로 상의했더니 원장 수녀는 9월 13일로 정했으니 형제나 누이나 조카를 한국으로 초청하라고 하더구나. 수녀가 날짜를 잘 잡았다! 6월이나 7월은 너무 더워서 땀범벅이 되거든. 이 초청에 응해주겠니? 그렇다면 1985년 9월 13일, 금요일에 오너라. 내가 너희를 조금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프랑스에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하더구나. 올해는 날짜가 상당히 푸근해서 꽃들이 아직 열지 않았단다. 내가 여기서 수녀들에게 대접이나 받으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만 주어진 기회를 마다할 것도 없겠지? 그런 점에선 전 세계 본당 신부들은 불리한 셈이지.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깐. 우리 수녀가 내게 종종 파이를 구워주는 김에 이웃 본당의 신부에게도 자주 보낸다!!! 옛날엔 선교사들이 40, 50살에 죽었지만 지금은 요리사 수녀들 덕분에 70, 75살까지 사는구나!

난 여전히 호스피스 성당에서 앉아서 미사를 드린단다. 그것을 생각해 주는 주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오메르(St. Omer)38의 빠렁띠(Parenty) 주교 같은 분 말이다. 매일 50여 명이 미사에 참석한다. 내 일을 도와주던 수녀는 어제 미국으로 떠났다. 주교들은 미국말을 못하는 수녀들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녀는 성탄 전에 돌아올 것이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5년 1월 13일, 서울

사랑하는 나의 누이들에게

룰루 숙모님을 잃고 눈물 바다가 되었겠구나! 나도 어지간히 눈물을 쏟아냈단다. 숙모님을 위해서 연미사를 올렸는데, 부고장은 1월 11일이나 받았단다. 너무 늦게 받았지. 돌아가시기 전에 숙모님은 미미의 손을 빌려 병실에서 내게 편지를 보내셨단다!! 얼마 전 수녀원에서 성가회 축일을 기념했는데, 그때 나는 숙모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단다. 내 첫 미사 때에 숙모님은 내게 성작을 사주셨다. 파리행 특급열차를 타러 아베빌(Abbeville)까지 나를 배웅해주신 분도 그분이셨다.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길이잖니!” 하시며 위로해 주시던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



요즘 이곳의 날씨는 혹독하게 춥다만 너희의 편지를 받아보니 거기는 여기보다 더 추운가 보구나. 사실 예년의 추위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이지 따뜻한 편이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준 끌레르에게 고맙다. 그동안 안느 마리가 숙모님 곁에서 간병을 들었으니 분명 하느님께서 그 애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다. 도대체 리제뜨는 무료 진료소에서 나온 거니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니?

금경축 잔치는 거창할 것 같은데 수녀들이 다 말아서 준비해서 나는 한마디도 할 권리가 없단다. 그 모든 일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다오. 비록 내가 성공을 거둔 일도 몇 가지는 있다만, 완전 실패를 맛본 경험도 여러 번 되다 보니 당부하는 말이다. 형님과 주느비에브 형수님을 만나면 나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다오. 그분들이 <라 크루아 La Croix> 잡지를 정기구독 신청해 주어서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덕분에 기분전환이 되고 있다.

수도원장 신부님은 어떤 슬픔을 간직한 채 에맹을 떠나시게 되었구나. 예를 들어 그분은 마지막으로 룰루 숙모님께 연도를 주셨으니 말이다. 이제 숙모를 대신해서 안느 마리가 매년 그곳엘 가야만 하겠구나.... 그리고는 해마다 거기서 이야기거리를 모아 와서는 너희 조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겠지.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다. 거룩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모든 근심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갖기를 기원한다.

피에르

1985년 1월 25일

안느 마리, 마리 끌레르, 리제뜨에게

자끄 형님의 편지를 통해서 너에 관한 희소식을 방금 접했다!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너로서는 물론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너의 수호천사에게 의탁하여 겁먹지 말고 떠나거라. 너의 수호천사는 이미 나를 부추겨 너에게 500달러를 보내주라고 속삭여서 지난번처럼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가도록 그저 묵주 몇 단만 바치면 잘될 거다. (내 가족으로는) 테레즈와 테레즈의 원장 수녀 그리고 네가 참석할 예정이다. 400명을 초대할 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곳 총장 수녀는 이곳의 여의치 않은 사정을 살펴서 연회를 다른 곳에도 마련하려고 한다. 나는 수녀들은 물론 수녀들의 부모들과 동료 사제들 그리고 몇몇 특별한 손님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니 샴페인 두세 병을 가져오너라. 여기엔 그런 게 없거든.

베아트릭스 수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이제 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단다! 아침이면 정원을 산책하고 책 한두 권 읽는데, 특히 자끄 형님과 주느비에브 형수님이 구독 가입해 준 <라 크루아>지를 읽고, 점심을 먹은 후엔 낮잠을 자고 성무일과를 바친 다음 TV를 좀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든다. 늘 7시 30분이면 자리에 든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잠이 오는 모양이다. 여기 의사가 내 건강에 특효약을 찾은 모양인데 한 가지 고치지 못하는 것은 매일 쏟아내는 설사다. 하지만 너희에게 그걸 다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같이 왔고 그 위로 추위도 왔다. 벌써 이걸 생각한다는 건 너무 이른 감은 있다만 기회가 있는 대로 네가 타고 올 비행기 번호와 도착 시간을 내게 알려다오. 좋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거라. 파리외방전교회를 통하면 어쩌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를 포옹하며 그리고 너를 기다린다.

피에르

네 전화번호를 알려다오. 내 번호는, 914-2078 혹은 914-4811이다.

1985년 2월 22일, 서울

사랑하는 나의 누이들에게

보름 전에 일반 우편물로 자끄 형님께 편지를 보내며 그 안에 형님이 서울까지 오실 여행비 500불을 수표로 넣어 보냈는데 그 수표가 사라졌다니 난처하게 되었구나. 난 잘 지내니 내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 말아라. 나는 잘 자고 잘 먹는단다. 비록 날씨는 춥고 눈도 온다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의 지시를 따르고 또 병원도 하나 있잖니!! 그리고 자동차로 산책도 한단다. 올해엔 눈이 많이도 내리는구나!!! 코요 신부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다음 주엔 내가 그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차례다. 내일은 한국의 큰 명절이란다. 음력 설이거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아리따운 옷을 차려입고 노래하고 떠들며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어른들은 집에서 조상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 제사를 올린다. 과자도 먹고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묘를 찾는단다. 더군다나 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며느리에게는 시험이나 마찬가지로인 셈이지. 걸봉투 주소는 자끄 형님께 주소로 했다. Mr Jacques Singer 14 rue Faidherbe St OMER 62500. 이 편지를 마르그리뜨에게 전해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2시간 동안 할 일을 버는 셈이거든.

오늘 어린 수녀가 암 검사를 받으러 도쿄로 떠났다. 검사만 받는 것이니까 8일 후엔 돌아온다. 온 마음으로 너를 포옹하며,

피에르

너희에게 <아랍 소녀 마리암 MARYAM. LA PETITE ARABE>이라는 책을 읽을 것을 권한다. 한 소녀의 놀라운 삶을 다룬 책인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 소녀를 성인품에 올릴 것을 생각하고 있나보다. 아메데 브뤼노(Amede BRUNOT, OFM) 신부가 책으로 써냈는데, 그 소녀의 삼촌이 청룡도로 그녀의 머리를 베었는데 성모님께서 그 머리를 다시 붙여주셨다. 그녀의 온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으니, 한 번 읽어 볼만하다. 살바도르(Salvator) 출판사에서 나왔다. 그녀는 뽀(PAU)의 까르멜에서 선종했는데 임종 때 거룩한 향기가 퍼졌단다. 그럼 안녕하며, 테레즈에게 이 편지를 다시 필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 1985년 4월 1일, 서울

안느 마리와 마르그리뜨, 테레즈, 마리 끌레르에게

너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 건강 소식도 전할 겸 또 너희의 안부도 물을 겸해서 몇 마디 써보낸다. 너희는 잘 있는지, 또 너희 아이들과 손주들도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우리 식구는 24명으로 늘어났단다. 나는 늘 잘 자고 잘 먹으니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아직도 앉아서 미사를 드린단다!

수녀들이 본당에 나가 일을 하기에 내가 영세자를 몇 명이나 얻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단다. 지금은 성주간이라 아름다운 전례를 행하느라 애쓰고 있다.

왜 자꾸 자끄 형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형님이 정원에서 씨를 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너희도 내 생각이 나거든 소파에 앉아 <라 크루아>지를 읽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거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셈이고 그렇게 우리 식구는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겠니! 코요 신부는 <히스토리야 Historia>라는 잡지를 구독해 읽더구나. 우리 동료 중에 프로망투(Fromentoux)라는 신부가 있는데 그의 누님은 아노네(Annonay)에 있는 노트르담 학교의 교장이란다. 아노네에는 폴의 아들 자비에가 레옹 블룸 15번지에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니? 알아서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알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다. 프로망투 신부도 그쪽 동네 출신이란다. 그는 조만간에 수술을 받으러 프랑스로 떠난다. 생 모르 자매회(des Dames de St. Maur) 창설자는 시복을 위해 아르데슈로 떠난다. 테레즈나 마르그리뜨가 그를 볼 기회가 있을지 몰라 알려주는데 그는 스페인인이고 이름은 조셉 마니아네(Joseph Manyanet) 복자란다. 그는 나와 같은 또래의 나이인데 은퇴했다. 게리 뫼리에(Gery Leuliet) 주교도 같은 이유로 은퇴했다.

투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예전엔 에맹의 수도원장 신부께서 나 대신 투표를 해주곤 했는데 이젠 그도 없으니!!! 이곳에선 프랑스 대사도 여기서 먼 곳에 살고 있어서 투표를

하려면 택시를 타야만 하니 나로서는 어렵겠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이 편지를 마치려나.  
너희의 오빠 피에르

1985년 6월 8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세 누이를 초청해서 함께 보게 될 기회가 생겼구나! 나는 교황 대사를 맞이할 준비로 한창 바쁘다. 그분은 6월 9일에 치르게 될 성체행렬을 집전하시러 오신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이 여행에 관해서 얘기해보자꾸나. 마리 끌레르가 이 여행에 동참하지 않아서 우리는 늘 애석한 마음으로 그 애를 생각하겠지. 한국 여행에 관해서 내게 너무 이것저것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멀리 있는 너희와 소통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공항에 가서 알아보자니 김포공항은 우리 집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이고 그렇다고 전화로 문의하자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이다. 그러니 간략하게 너희의 출발 날짜와 한국 도착 날짜나 알려다오. 모든 게 정해지면 그때 내게 알려다오. 테레즈, 마르그리뜨, 리제뜨 너희 셋의 항공사 이름과 각각의 도착일, 도착 시간, 등록 번호들을 알려주되 특히 세 사람 것이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거라.

나로서는 너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만 김포까지 가서 헛걸음하는 일은 사양한다. 914-2078로 전화하거라. 내 선물로는 까망베르 치즈 한 개나 두 개를 사다주면 고맙겠고, 수녀들 선물로는 병 한두 개를 검출해내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구를 사되 ‘프랑스’라는 글자가 잘 보여야 한다. 내 주소를 적은 쪽지를 보내니 만일의 경우 서로 만나지 못할 때는 이 쪽지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거라. 폴에게 옷 한 벌을 보냈는데 잘 받았겠지.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5년 7월 10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최근에 보낸 내 편지가 행방불명 된 건지? 아무튼 내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들여다 보거라. 난 기다림의 설레임으로 기쁘지만 하구나. 너희에게 편지를 살펴보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은 자끄 형님이 매번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번호를 매겨두고 중요한 일엔 밑줄을 그어놓는 좋은 습관 덕분이다. 요즘은 준비하는 즐거움 속에 산다.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가능하면 너희들이 도착하는 날짜를 나에게 알려다오. 날짜를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공항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으니, 그땐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묻겠는데, 테레즈가 너희랑 하루 이틀 같이 지낸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며칠이나 지낸다고 하는지? 또 하나 부탁할 것은 금요일, 13일에 오지 말고 그 전이나 그 후에 오는데 되도록이면 후보단 전에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여기 와도 난 너희에게 썩 훌륭한 식사 대접도 말랑말랑한 잠자리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를 한 대 구했으면 좋겠다. 시골 밥상을 차리느니 차라리 통조림 깡통을 차려놓겠다. 너희는 어느 쪽이 좋은지 너희 선택에 맡기겠다. “프랑스 바케뜨”는 내가 마련해 놓을 터이니 걱정 말아라. 온 천지를 뒤져서라도 구해 놓으마. 테레즈 여정이 어떤지나 내게 알려다오. 테레즈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말이다. 급히 답장해 다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1985년 7월 22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그토록 오래 동안 기다리던 편지를 이제야 받는구나.

9월 1일: 서울 도

9월 2일: 안느 마리, 리제뜨는 도쿄로 출발

9월 15일: 3명 서울 도착

9월 16일: 서울 출발

내가 전화를 받지 못 한 것은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횡설수설 떠든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를 포용하며 9월 3일에 만나자.

피에르

1985년 10월 6일, 서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에 돌아와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위에 대해 나도 또 한 번 놀랐다.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음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너그럽게 보아주십사고 청한다.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했다.

몇 달 전부터 두통이 심하기에 그저 지나가는 편두통이려니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더구나.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판단해 주렴. 너희에게 미안하다. 그땐 내가 받은 미쳤던 것 같다. 아니 완전히 미쳤었지. 나를 용서해 다오.

너로서는 쓰기 힘든 말을 썼고, 심지어 끔찍하기까지 한 말을 썼으니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다오!!! 너희를 꼭 껴안으며, 난 고통에 짓눌려 있단다.

피에르

테레즈의 축일을 축하하고 아울러 기쁜 성탄이 되기를 미리 기원한다.

1985년 11월 20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그것부터 말해주지. 난 살아 있고, 건강하고, 잘 자고, 타자기도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이젠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비록 맛은 없었지만 베아트릭스 수녀가 만들어준 라따뚜이유도 먹었다. 너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고장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내 과거의 결과물로 나는 소변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수술 받아야만 했다. 수술은 5분만에 끝났고 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내게 좀 가르쳐 다오. 최근엔 베아트릭스 수녀가 어머니집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다행히 레오날드 총장 수녀가 베아트릭스 수녀 대신 다른 수녀를 내게 보내 주었다.

내가 프랑스로 떠나는 것이 큰 문제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도 큰 걱정이다. 마리 끌레르가 보내 준 책들은 잘 읽었다. 그중에 파리외방전교회 창립에 관한 책과 브라자(BRAZZA)라는 탐험가에 관한 책과 그리고 <칼 막스와 부다의 이름으로>라는 책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즐겨 읽었다. 마리 끌레르에게 감사를 전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희가 자끄 형과 폴과 상의해서 <라 크루아>지를 계속 정기 구독신청해 주었으면 한다. 오랜 은둔 생활에서 내게 많은 평온과 믿음의 열심한 마음을 준다.

나는 이젠 사목 신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드린다. 그러나 더 이상 책임자는 아

니다. JOC를 맡은 젊은 두 사제가 도착해서 그들을 위한 집 한 채를 샀더니 두 사제는 벌써 일에 착수하여 내 이웃이 되었다.

코요 신부가 병이 났는데, 특히 척추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를 보러 갔다왔다. 이웃으로서 이런 부담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또 경리가 새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그 경리가 노인들만 있는 우리 그룹에 젊은이들도 좀 섞어 주었으면 좋겠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너희의 오빠 피에르

1985년 11월 30일

누이들에게

최근의 자끄 형님 건강 소식을 너희는 들었겠지. 나도 너희들에게 간단히 몇 자 전하려고 한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고 건강하며 잘 자고 여러 모로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다. 그런데도 자주 불평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 주는구나. 지난주엔 우리 병원에 가서 일 분만에 수술을 받고 왔다. 자끄 형님 딸 테레즈가 눈물에 젖은 편지를 내게 보내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왔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로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원한 자비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장 피에르가 있으니 그가 형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기를 희망하자. 그리고 리제뜨가 간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지. 리제뜨가 서울에 왔을 때 그 애는 내게 따뜻한 실내화 한 켤레와 넓은 바스크 베레모를 보내준다고 약속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나는 이젠 양로원 성당이 아니라 병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집전한다. 이 매일 미사 준비는 베아트릭스 수녀가 해준다. 자끄 형님이 <라 크루아> 잡지 정기 구독 신청해 주었다. 병고 중에 있는 사제에겐 썩 좋은 잡지다. 코요 신부도 앓고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병원이 아니라 한국인 사제가 세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보름에 한 번씩 내가 그를 보러 가거나 그가 우리 집으로 오곤 한다. 한국 순교자 시성식 때 너의 주교를 보았는데 서로 인사도 못했다.

이곳의 총장 수녀는 나보고 6월에 프랑스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나는 달갑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미사를 드리라고? 더군다나 미사 집전에 대한 규칙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데 말이다. 76살이나 먹은 사람은 쉽게 바꾸지 못하지!!!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려나.

너희들의 오빠, 피에르

1986년 1월 6일

드디어 성탄 축일을 끝내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형님이 회복하셨다니, 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나는 예전처럼 잘 자고 잘 먹는다. 이번 주엔 <생명 La Vie>라는 새 잡지를 받았다. 그것을 보내 준 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마 테레즈가 보내주었겠지. 오늘은 젊은 사제 두 명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오로지 ASO39)를 맡아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

어제는 날씨가 어찌나 춥던지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단다. 옛날 내 성가대 단원이었던 한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다. 어제는 앙드레 부비에 딸에게서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셀레스틴(Celestin) 신부는 루르드 가까이 사니까 루르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상당히. 루르드 성모님에 관한 책이 두 권 발견되었는데 특히 성녀 베르나데뜨에 관한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연한 일이지. 이 책은 여러 모로 시선을 끌었는데, 특히 직접 눈으로 목격한 내용을 엄격하게 다룬 관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제는 폭설이 내려 수련자들이 눈싸움을 벌였고 거기에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이만 마치란다.

피에르

1986년 2월 1일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어제 소포를 받았다. 실내화 한 켈레와 바스크 베레모는 나를 구원해 주었다. 고맙다!! 백 번 천 번 고맙구나. 그리고 잼도 고맙다는 걸 잊을 뻔했구나! 내 주변은 점점 더 침묵만이 짙어간다. 이제 너희의 편지도 읽지 못할 뿐더러 내가 편지 쓰는 것도 어렵게 됐다. 미사 경본 읽는 것도 어려워 베아트릭스 수녀가 충실하게 나를 도와주는 덕분에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나도 정말 이 상태가 지겹다. 너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한다. 보내 준 선물 고맙다.

피에르

1986년 2월 6일, 서울

사랑하는 누이들에게

이 달에 보내준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나는 건강하니 안심들 하거라. 자끄 형님을 잃은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구나. 설사는 하룻밤에도 서너 번은 쏟아진다. 벌써 일 년이 넘게 수녀들이 그렇게 많은 약을 내게 먹이는데도 말이다!! 너희가 보내준 소포는 잘 받았다. 안느마리가 보낸 스웨터 자켓, 리제뜨가 보낸 바스크 베레모와 실내화와 구두. 너희들이 좋은 소포를 보냈는데도 내 쪽에서 아무 응답이 없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다 잘 받았고 받은 즉시 소식을 보내는 거란다. 소포가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게 어디 내 탓이나. 주느비에브 형수님 걱정은 안 한다. 형수님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자주 방문을 하여 위로해 드리리라 믿는다. 부탁이 있는데, 형님 장례 미사 때 틀뤼에(Leuliet)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적어 보내다오.

요즘 이곳의 날씨는 춥다. 이 추위를 받아들여야 하겠지. 정상적인 날씨이니까. 2월은 아주 춥단다.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끼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슬픔을 잘 극복하고 여름이 되면 바닷가든 어디로든 휴가도 떠나고 하렴. 모든 수고를 해준 장 피에르에게 특히 감사를 전한다. 그가 준 약 덕분에 형님이 그동안 견디어 내셨다. 난 여기서 미사를 5대 봉헌했다. 교우들은 수십 차례나 연도를 바쳐주었다. ‘아이고’와 같은 구슬픈 가락으로 말이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한다.

모두에게40)

최근에 리제뜨와 안느 마리의 방문을 받았다. 그 이들의 방문은 나에게 대단히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그 기쁨을 내게 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덕분에 난 많이 활기를 되찾았다. 내 타이핑이 엉망인 것을 양해해다오. 다음 번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별도로 보내겠다.

모두를 포옹하며,

삼촌 피에르

엘리사벳에게41)

얼마 전 리제뜨는 안느 마리가 짠 옷을 받고 상당히 행복해 하는 것 같더라. 아주 가볍고 아주 따뜻하다고 무척 좋아한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다. 옷이 잘 어울리더구나. 감사, 감사, 감사

(Kamsa, Kamsa, Kamsa). 너희가 한국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큰절이라도 했을 텐데!!

지난 번엔 편지를 쓰면서도 성탄 인사와 새해 인사를 하는 걸 깜빡 잊었구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탄은 더러운 인물을 만들어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 축제이지 산타할아버지 축제가 아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친형제, 우리의 가족이시다. 이삭 노인 이야기를 기억하지? 하느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당신을 이삭으로 간주하시고 축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로 간주해야지 사생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80장이 넘는 카드를 받았으니, 이런 일들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올해처럼 피곤한 해도 없다. 내 방은 온통 성탄 카드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동료 신부들도 마찬가지란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쩨42)

나는 잘 자고 식사도 잘 한다.  
자꾸 형처럼 되고 싶구나!  
너희들을 온 마음으로 포옹하며  
피에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어서 슬프다.  
서울에서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다.

안느 마리에게

누가 날 보면 건강하다고 할 거야.  
난 50년은 더 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빌려주신다면 말이야.  
난 여전히 잘 자고 잘 먹는다. 너무 많이 자서 탈이란다!  
난 택시를 타고 근교에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한다.  
그래도 너희들의 이 늙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 생명은 아주 작은 ...(한 단어 미판독)에 온전히 붙어 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수녀들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준다.  
너희들을 포옹하며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피에르

1986년 2월 1일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너희가 보내준 소포는 어제 잘 받았다. 실내화 한 켤레와 바스크 베레모는 내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고맙다!! 천만 번이나 고맙구나. 참 잼도 고맙다!  
내 주위는 점점더 짙은 침묵이 에워싸는 것 같다. 너희들의 편지를 읽지도 못하고 또 너희들에게 편지도 쓰지 못하니 말이다. 글을 읽는 것이 힘들다.  
...(중략)43)...

미사는 베아트릭스 수녀가 충실하게 나를 도와주어서 드리고 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이 지겹구나.  
내가 뭐라고 썼는지 다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부치른다.

너희들에게 고맙고, 온 마음으로 너희들을 포옹한다.  
선물, 고맙다.

1986년 3월 1일

안느 마리에게

전부이신 주님, 모든 영예를 받으소서.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네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네가 살림을 맡아서 해왔으니 네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지구 끝에 와 있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맡아 줄 사람은 거기에 있는 너뿐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소임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솔직히 내게 말해다오.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리카락이다. 오늘은 보름만에 셀레스틴 코요 신부가 방문했다. 점심 때 그가 타이핑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오늘 난 정어리 통조림을 두 개 샀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에서 실내화 한 켈레와 겨울 부츠 그리고 ... (미관독)이 들어 있는 소포를 보내 와 잘 받았다. 안느 마리가 보내준 선물이었다.

너희들을 포옹하며 피에르가  
리제뜨에게

한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너는 식구들 모두의 건강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부드럽고 선하게 대 해주고 또 네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려무나. 그 오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맡은 모든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사람은 병이 나면 건강한 사람에게 질투가 나는 법이다.

나는 <라 크루아> 잡지 한 권도 살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크루아 잡지를 받아보고 있으니 분명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익명으로 구독신청을 해준 모양인데 진심으로 너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나는 그것을 동료 신부들과 돌려가며 읽고 있고 그들도 아주 고맙게 읽는단다. 안녕.

너의 큰 오빠 피에르가

다음에는 마들렌느와 마르그리뜨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1986년 4월 24일, 서울

안느 마리와 리제뜨, 마리 끌레르, 마르그리뜨  
그리고 마들렌느 누님에게

어떻게들 지내는지요.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보다시피 나는 기운을 차렸어요. 염려들 하지 말아요. 나는 잘 지내고 식사도 잘 하며 잠도 잘 잡니다. 다만 이에 문제가 생겨 틀니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해주었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 같더군요.

코요 신부는 프랑스에 가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가 떠나면 나는 더 울적할 것 같아요. 나는 2명의 한국 사람과 함께 정원을 산책합니다!

한 달이 넘게 날씨가 화창해서 모두들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싶어하지요!

나는 누이 모두를 생각하며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누이들을 포옹하며, 그러니까 힘껏 포옹합니다.

피에르

1986년 7월 9일, 서울



마리 끌레르, 엘리사벳, 안느 마리에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는 이 고통을 너희는 상상도 못 할 것이다. 너희도 무척이나 슬피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뒤랑(Durand) 신부의 도움을 받아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의 편지는 잘 받았고, 고맙다. 또한 안느 마리와 테레즈의 편지도 잘 받았다. 병자로 있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구나. 말도 할 수가 없지, 먹지도 못하겠지, 잠도 잘 수가 없지. 너희들은 건강하기를 빈다. 이곳은 벌써 더위가 시작되면서 굵은 비도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50일 동안 부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28일 토요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내 축일에는 수녀들이 내가 작곡한 성가들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무용도 보여주었다. 나와 모든 수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 잔치는 2시간 동안 베풀어졌다. 나는 선물도 받았다. 마지막에는 내가 모든 수녀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그리고 수녀원 대성당에서 대신학교 교수 신부가 집전한 미사에 참석했다.

온 마음으로 너희를 포옹하며,  
피에르 생제

생제 신부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덧붙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꺼이 씁니다. 저는 보름만에 생제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신부님은 젊어지셨어요. 체중은 줄었지만 말씀을 잘 하시고 그리고 ‘어른’ 처럼 잘 움직이십니다. 신부님의 방 겸 서재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실내 온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 60주년 기념을 지내러 7월 25일에 프랑스로 떠납니다. 9월 10일 경에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겠습니다.

아르멜 뒤랑(Armel Durand)

1986년 9월 30일, 서울

동생들에게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약을 다 먹지만 내 병은 끝이 없구나. 잠은 잘 잔다. 식사도 잘 한다. 혹시 류머티즘 약을 내게 보내 줄 수 있다면 고맙겠구나. 그리고 내 쪽에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고 너희도 침묵하지 말고 예전처럼 계속 편지를 보내다오. 코요 신부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더구나. 내 대신 이 편지를 써준 케르모알(Kermaal) 신부께 감사드려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오빠가.

피에르

1986년 10월 19일, 서울

모두에게

너희들을 생각하노라면 내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살아 있다. 잘 지내고 있고, 잘 먹고 잘 잔다. 가족들이 보내주는 긴 편지에 감사한다.

내 서재에는 아빠와 엄마 사진 그리고 삼촌들 사진, 모리스와 아실르 사진, 동생들 사진들이 놓여있다.

이 짧막한 편지를 쓰는 데에도 나로서는.44)

너희 모두를 포옹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편지를 쓰느라 5시간이 걸렸다!

피에르 생제!

1987년 1월 30일, 서울

모두에게

너희들이 보내준 편지들을 잘 받았다. 고맙다. 이곳의 나는 따뜻하게 잘 지내며, 눈은 내리지 않아도 밖의 날씨는 춥다. 난 손을 떨어져 편지는 쓸 수 없지만 너희들 모두를 생각한다. 나는 잘 먹어서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한다. 동료들이 친절하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어서 내 시련을 가볍게 해준다.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싶구나. 너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전에 심심할 때면 너희가 보내준 잡지나 신문들을 좀 들여다 보지만 오래 읽지는 못한다.

나는 내 방에 앉아서 베아트릭스 수녀와 미사를 드리는데, 그 수녀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 베아트릭스 수녀가 너희들이 보내준 잡지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더구나.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니 이 편지를 돌려가며 읽거라. 나는 일요일마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안나의 집에서 미사를 드린다. 어제는 구정이라서 방문객이 많았단다. 오늘은 이만 쓰마. 너희를 힘껏 포옹하며,  
피에르

이 편지를 써주신 신부님께 감사 드립니다.45)

별 말씀은요. 자매님들께 안부 전합니다.

마르셀 펠리스

+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46)

저는 주님 앞에 제 삶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가족 모두를 사랑해왔고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에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영원히 다시 모이게 되겠지요.

저는 제 일생 동안 선교사였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요! 저와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려 주세요.

모범적 삶으로 저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신 아빠 엄마께도 감사 드립니다. 물론 제가 떠날 때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비록 제가 선교사의 본보기는 못되었을지라도 오늘 부모님께서서는 영광과 복락을 상급으로 받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믿음은 어린 시절의 믿음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믿음입니다.

제가 해온 모든 것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지극히 미흡한 것이나 가난한 인간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많은 결점과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희망할 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사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저도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렵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일치만이 힘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으십시오, 선행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보태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병사와도 같습니다. 방어에만 그치지 말고 공격으로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저를 심판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사랑스런 조카들이여 영원히 작별을 고합니다! 머지 않아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살아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가족 모두를 포옹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피에르

4. 기타 편지

1936년 3월 16일, 서울

세 자매에게

안느 마리, 리제뜨, 테레즈에게

쥘르 씨,

테레즈에게47)

저는 방금 전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그렇듯이 저 또한 당신들과 한 식구나 다름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당신들의 슬픔이 곧 제 슬픔이니 저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불가해한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말씀드려 그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악한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선한 이는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쥘르 부인과 앙리에뜨, 엘리사벳은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임종을 맞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며 이 지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복락을 누리면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고 자신들과 합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니,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젖어 한탄할 권리도 없겠습니까? 네, 괴로워하고 우리 인간적인 눈물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 안에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보존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감실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분께로 결합시키려는 그분의 결정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깁시다.

부활절에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리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어떤 면으로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기도 하지만 고통은 특히 이 지상에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탈시켜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갈망하게 하여 오로지 그분 안에서 휴식을 얻게 하고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로를 얻게 합니다. 특히 고통은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받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분을 닮게 하는 것이니, 고통은 구원의 담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들만이 오직 부활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데, 아버지 하느님은 그들 안에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와 완전히 닮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애정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이만 펜을 놓으렵니다.

+ 선교사, 생제

1938년 12월 31일, 제물포

식구 모두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상투적인 짧은 편지 대신 내 습관대로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같은 편지이긴 하지만 좀 긴 편지를 보내어 가능한 한 가족들이 나의 아름다운 선교사 전망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더 잘 묘사해 보려고 말입니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전하면서요. 선교사에게는 거리나 시간이 사랑을 줄게 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인걸요! 가끔 증오를 품기도 하는 이국민 가운데에 있다 보니 가족들과의 옛정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랑이 추억 속에, 고스란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며 위안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 5월에 조용한 시골을 떠나 와 라디오 소리와 자동차 버스 클락션 소리, 공장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들이 들리는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제물포에 있지요. 그 이후로 내가 사는 이 구역을 알게 됐는데, 이 도시 산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편지에는 내가 맡은 여러 공소들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게 힌트를 좀 주자면, 지난 성탄 자정미사 때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우리 성당은 한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성당인데도, 어린 아이 하나가 질식사 죽었습니다! 나는 12월 19일부터 쉬지 않고 고해성사를 주어야 했지요! 오, 더 많은 일꾼들이 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방문한 공동체(여기서는 공소라고 부른다)는 용유도였는데, 그것은 용이 떠도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섬 주민 3,000명에 교우는 2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소죠. 작은 증기선을 타고 10시경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낮은 층인 가난한 용기장이 교우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여러 해 전부터 성체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도 여럿 되었어요. 저녁에는 좀 떨어진 마을로 80세 된 할머니의 고해를 들으러 갔는데, 그 할머니만은 용기장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연로하신 것 외에는 아무 염려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왕에 간 김에 종부성사를 주었고 외교인인 아들에게 어머니 대신 내일 미사에 참석하라고 했지요. 아들은 그러겠다고 내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선하신 하느님께서 어찌면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주실는지요. 저녁에 “면서기(공무원)” 라는 또 한 사람이 내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는 냉담자로서 그저 내게 인사만 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미사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정작 본인은 성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술과 체면 때문이지요. 불쌍한 사람 같으니! 아침 미사에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 날은 증기선이 없어서 작은 돛단배 어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진 날에는 한 시간 반 걸렸던 것이 8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제물포로 돌아왔어요. 이 섬에 좋은 교우촌이 형성되려면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교우촌 자리를 바꾸어야 하겠고 그런 다음에는 농가나 어가에서 몇 가정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기장이 가구들만 교우로 있는 한은 아무도 회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일은 베드로 성인께 의탁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는 가장 큰 공소인 영종도로 떠났어요. 거기에는 교우가 314명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냉담을 하고 있어요. 이 공소의 가장 큰 죄는 혼인 문제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교회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되는 혼인이 많아요. 사제 앞에서 혼인을 치르지 않거나, 교회의 관면 없이 외교인 식으로 혼인을 치르거든요. 그럴 경우 혼인 계약을 맺는 당사자, 부모들은 이곳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사가 막혀” 서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별거하며 보속하고 공적으로 혼인을 취소시켜 상황이 정리되어야 막힌 성사가 풀리지요. 외교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교우들은 이러한 문제에 자유분방하여 왜 성교회의 규율이 있는지 또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청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영종도에서 치렀던 몇몇 사례들을 소개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신부님, 김 비오 씨가 앓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성사를 받고 싶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관면 없이 아들을 외교인과 혼인을 시켰다는 걸 자네도 잘 알잖나!”

“신부님, 색시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복종해서 기도문을 배웠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오라고 하게.”

그래서 며느리 되는 여자가 내게 와서 모든 기도문을 줄줄 암송하겠죠. “아주 잘 했어요. 하지만 부족하니까 교리를 배워요. 교리를 모두 배우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영세를 주고 혼인성사를 배풀 것이고 그런 다음에 김 비오씨에게 성사를 주겠소(사실 그의 병은 위중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예비자 한 명을 더 준 셈이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부님, 채 씨가 신부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아버님이 지난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교우인지라 아버님처럼 성사를 다시 받고 싶은데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지 말해보시오.”

“저는 20년 전에 교회의 관면 없이 외교인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사가 막혔습니다.”

“자녀는 몇이나 되는가?”

“셋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서와 기도서를 집으로 가져가서 아이들과 또 가능하면 아내 되는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지난 날의 죄를 보속하시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성사를 줄 터이니, 그 동안은 다른 교우들처럼 주일을 지키시오.”

또 하나,

“신부님, 학교 여선생이 신부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인사를 나눈 후,

“신부님, 지난 날에 저의 아버님이 저를 외교인 남자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있는데 다시 성사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교우들처럼 주일을 지키고 기도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는데, 한 아가씨가 와서는,

“신부님, 저의 아버지가 저를 어느 외교인과 혼인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주교님의 허락을 얻게 하시도록 당신이 최선을 다 해보시오. 그래도 안 되면 도망을 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대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공소에 가면 찰고나 고해성사 외에도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영종도를 갔다 온 후에는 주안에 갔는데 그곳은 반은 옹기장이들이고 반은 상인들이 있는 공소예요. 거기는 교우수가 150명인데 예비자는 겨우 두 명뿐이더군요. 나는 으악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안에서 고잔리로 갔는데 그곳은 큰 농가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우는 몇 안 되지만 예비자가 많고 그 중에 어느 가정의 장남은 결혼했는데 대세를 받고 임종했어요. 그가 어찌나 평화스럽게 선종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온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모두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연로한 부친은 벌써 모든 기도문과 교리 일부를 익혔어요. 내년 봄에 그의 식구들 모두에게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그곳을 방문한 후에, 교우수가 30에서 50명되는 작은 공소들을 다섯 군데 연달아 방문했는데, 신천(Sintchen), 대야리(Taiyari), 소래(Sorai, 농가), 방아다리(Pang a-ta-ri), 도창(To tchang, 옹기촌)들입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교리 찰고와 고해성사, 세례, 강의, 공소 미사 등을 치렀는데 나중에는 어지간히 힘이 들었던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봉사처럼 벽에 기대고 마루판에 앉아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강화도에 있는 공소 두 곳을 방문했지요. 강화도는 자체 내에 군청을 두고 있고 주민이 90,000명이나 되는 큰 섬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비자는 겨우 백여 명뿐이고 여러 개 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번창하며 각각의 종파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거기에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돌아와서 거기에 파견할 전교회장 한 명을 내게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프로테스탄트 중에는 특히 ‘런던인들의’ 프로테스탄트가 ‘성교회’ 48)라고 자칭하며 우리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하는 바람에 교회사를 모르는 교우들은 심지어 나한테 중부성사를 청하면서 영국인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하느냐고 할 정도니까요. 그들이 나보다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우들이 하는 말이, “그들도(성공회도) 미사가 있고 성체, 고해성사, 삼중기도 등 똑같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또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주세요. 그곳은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매우 신중하

게 다루어야 하는 곳이라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내 강론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만일 내가 너무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자기네의 많은 숫자로 나를 쫓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다수의 예비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은 35년만에 처음으로 내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이미 모든 기도문과 교리문답(320문항이나 되는!)을 전부 익혔어요. 다음 번에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최소한의 열의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그의 아이들과 처에게 교리를 가르치라고 말해 두었죠.

이 편지가 우리 식구들에게 흥미롭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식구들이 선교사의 일을 더욱더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교사의 삶에도 소소한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 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마음의 기쁨, 특히 수확을 거둘 때의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그저 선교사제에 불과하니까요, “선교사의 삶이 위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게브리앙 주교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란 것을 전하며 편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들렌느 누님, 누님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발 드 그라스(Val de grace)에 있는 건가요? 봉급은 올랐어요? 구구절절이 내 생활을 적어 보내니 누님도 내게 긴 편지를 써 보내주겠죠.

선교사, 피에르 생제

1941년 6월 10일, 서울 백동 성당에서

마들렌느 누님과 매형에게

마들렌느 누님이 3월 17일 카사블랑카에서 부친 편지를 이번 주에야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답장을 보내기는 하지만 이 편지가 들어갈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편지를 보내면 얼마 후에 발송할 수 없다는 메모가 덧붙여진 채 반송되어 오거든요... 이 편지는 통과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이제 내게도 매형이 생겼네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면으로나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뻐요. 매형이 해군이라니,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씩씩한 프랑스 해군이라니 더욱 기쁘고, 마들렌느 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는 용감하고 나무랄 데 없는 “기사” 일테니 기쁘기만 하지요. 좋은 혈통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 지난 날의 모든 용기와 헌신을 보아서라도 저의 사랑하는 큰 누님의 선택이 훌륭하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 르네(Ren? 매형, 이 동생 사제가 진심으로 올리는 인사를 받으십시오.

결혼식은 아주 조촐했다고 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진중하고 참된 결혼식입니다. 지금껏 행해진 결혼식들은 거짓이고 위선적이며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식들이란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그저 외형에 불과한 미성숙한 예식들이지 성숙한 사람들의 예식은 아니었지요. 물론 그런 것이 교회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되어 주었지만(나도 이제는 알 건 알아요) 교회가 그런 지나친 외형적인 장식들을 심어놓은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의 결혼식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곳에서는 결혼식을 이렇게 치룹니다. 열심인 신자들이 참석한 평일 아침미사에 신랑 신부가 제대 앞에 놓인 방석에 꿇어 앉아 혼배 성사 예식문에 “원합니다(ouen hamnida)”라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혼인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한 교우가 혼인미사 기도문을 읽고 모두가 성체를 영합니다... 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가족적이고 가장 매혹적인 결혼식이 아닙니까?

누님이나 테레즈를 통해서 듣는 것 외에는 식구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식구들 모두가 그러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계속 그래야 할 텐데요... 페탕 원수(49)는 매력적인 사람이더군요. 그의 연설과 결정 사항들을 읽어보면, 프랑스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명쾌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원들의 연설과는 얼마나 다른지. 말이 아니라 현실이고 진짜로, 이론적인 약속이나 고심한 어리석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니깐요. 그러나 모든 프랑스인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지요.

두 분께 무엇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그게 가능해야죠. 설사 보낸다 해도 100의 99는 거기서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곳 역시 좋은 일은 드물거든요. 혹시 나중에는 모르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님과 매형께서 신문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어쨌든 우리 외국인들은 아주 겸손하게 행동하며 오직 종교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히 문명화된 나라여서 우리와 같은 외국으로부터는 물질문명에 대해서 정말이지 아무 것도 배울 게 없으니 우리는 마치 무역상인처럼 그저 우리의 교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아주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소개하여야 합니다. 또 자선사업은 외교인들이나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자선사업을 통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지적인 대화로써 정신적으로 다가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저의 작은 소임을 하느님께서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는 53명의 성인 영세자를 얻었고 또 거의 같은 수만큼의 교우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임종대세자는 벌써 거의 백여 명에 달합니다. 내가 특히 기뻐했던 일은 성령강림축일 전날에 순교자 후손이며 프로테스탄트 목사였던 사람에게 영세를 준 일입니다. 그의 처와 자녀들은 부활축일 전 날에 이미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애로 사항들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이러한 표현을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보입니다. 어쩌면 교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100번은 더 유용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화단을 손질할 시간도, 독서할 시간도, 양봉할 시간도 없습니다.

교우들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처럼 무디어진 정신은 결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종교가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먹히고 그들을 차지한다는 느낌이 옵니다. 종교는 그들의 마음에서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에맹(Hesdin)의 최고 권위자들만 해도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의 삶은 온전히 물질적인 삶이고 그들은 자신의 뿌리나 목적지, 영혼 구원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잖아요... 오, 어리석음으로 인한 빗나간 판단이지요. “... 그들의 신은 배(뱃속을 채우는 것)이니...” 어떤 열정도 어떤 이상도 없고 오직 관심이 있다면 금이나 잘 사는 것뿐이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선교사가 될 만한 가치는 있는지, 프랑스에서 참 사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이곳에서 느끼는 위안의 1/4의 일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 있다가 제 방 안에서는 관면이 적용된 두 사람의 혼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인 외교인 남자와 지난 부활절에 제게서 영세를 받은 여자 교우가 결혼을 합니다.

누님과 매형은 지난번 제가 겪은 우여곡절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39년 9월에 영사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텐진(Tien tsin)을 떠나 기차로 하룻밤만에 묵텐에 도착했죠. 우리는 거기서 영장을 받은 다른 동료들과 합류하여 당일 저녁에 함께 떠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묵텐의 영사가 자세한 진상을 살펴보니 중국에서는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돌아왔고 1940년 5월에 영사로부터 다시 상해로 소집하라는 영장을 받았죠. 이번에는 상해였고, 그래서 저는 떠났고 상해에 도착했는데 그 날이 바로 파리가 점령된 날이었습니다.50) 거기서는 패주로 모든 서비스 기능이 파손되어 끊겼고, 몇 번의 검진이 있을 후 저를 제대시키기에 저는 찌는 더위로 몸을 치료받고는 9월에 서울로 돌아왔지요. 이곳에 돌아와서는 갖가지 향수를 몰아내느라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제 건강은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위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먹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먹죠. 어제 천주 성삼 축일에 저는 처음으로 세례 갱신식을 집전했어요. 물론 서울에서는 처음이었는데, 부모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마들렌느 누님, 누님은 현재 대식구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하시니, 누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근본적으로 프랑스 여자라면 해야 하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 공은 숨겨져 있어도 하느님만큼은 다 알고 계시

는 헌신을 통한 일이기에 더욱더 훌륭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누님에게 주신 아이들이니 그 아이들을 잘 사랑하세요. 누님이 매형을 사랑하시니까 그 아이들을 잘 사랑하세요. 성서 말씀에 따르면 “여자는 남편과 한 몸”이니 아이들 안에서 매형의 살을 보시고 또 누님의 살을 보시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살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로 성인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러셨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온유하죠…. 나는 결혼의 기쁨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 방은 항상 아이들로 북적대고 제 곁에 아이 5명이 있는 것보다는 20명, 30명, 40명이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두 분을 뵈 날을 기다리며 이만 작별을 고하렵니다.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각을 봉헌하고 (믿음의) 감감한 밤 한가운데서 폭풍의 끝을 기다립시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당신을 거슬러 죄를 지었나이다…” 젊은 세대여, 더욱 아름다운 프랑스를 다시 만들기 위해 용기를 냅시다. 우리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전진! 소심한 겁쟁이들과 미모사같이 예민한 이파리들이나 떠는 거죠.

형제 사랑 안에서 두 분을 포옹합니다.

선교사 생제

1. 혹시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든, 식구들이 제 편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 제가 밤낮으로 식구들 생각을 한다고 전해 주시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식구들의 용기가 저를 고무시켜 제가 일할 수 있으니 식구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큰 시련은 제게 없다고 전해 주세요.
2. 요즘 저는 상해 일간지를 통해 장 바르(Jean Bart)가 어떻게 생 나자르(St. Nazaire)를 떠났는지를 읽고 있어요. 이런 서사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쥘 저는 잘 있으며, 내일 오후부터 피정에 들어갑니다. 제 편지가 두 분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하는 데,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피에르 오빠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한지! 기왕에 열성으로 가득 차려면 오빠처럼은 해야 될 거예요. 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분께 백만 번의 키스를 보내며, 기도와 용기 안에서 일치합니다.

온 마음으로 두 분을 사랑하는 동생 테레즈가

1948년 11월 30일, 파리 모원에서51)

사랑하는 아빠, 엄마, 피에르 오빠, 안느 마리 언니 그리고 모든 가족들께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는 ‘르 샹폴리옹(le Champollion)’ 호에 좌석을 배정 받았어요. 그것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일본까지 가는 배인데 동료 두 명과 저는 중간에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파리에서의 출발 날짜는 짐가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예정대로라면 우리는 12월 3일, 첫 금요일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축일 아침 8시 40분에 모원에서 출발합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폴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총장 수녀님께서 우리와 대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 요한 원장 수녀님께서 가신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과잉보호를 받는 셈이죠…. 마르세이유에서의 출발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10일 전에는 떠나니 아마도 7일 아니면 8일이 되겠죠. 마르세이유에 있는 생모르 공동체 주소는 45, rue Nationale de la Rose Marseille입니다.

방금 리제뜨에게 찰막하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고맙게도 십자가의 성요한 원장 수녀님께서 내일 저녁식사에 리제뜨를 초대하셨답니다. 어찌면 술랑주와 장이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목요일에 올지도 모르는 데…. 제가 그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리제뜨가 저에게 큰 상자 하나를 갖다 주었는데, 그 상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엄마와 안느 마리 언니가 그것을 보내주었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용하게 잘 쓸게요. ‘불랑제(Boulangier)’ 저서 중 저는 1권 ‘교의(Dogme)’ 만 갖고 있는데 2권 ‘윤리(Morale)’ 와 3권 ‘전례와 성사(Liturgie et Sacrement)’ 를 찾



오시거든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동안 미루어 둔 편지 쓰는 일만 남았네요... 생-오메르(St. Omer)에는 지난주에 편지를 쓰고 그 이후로 시간이 없어 편지를 쓰지 못했으니 저 대신 거기에 연락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출발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가슴이 쿵쿵쿵 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그것을 즐기고 있죠. 기다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 역시 작으나마 봉사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지요. 하느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모두를 다시 만나 보았는데 마리 끌레르만 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 잔치에 나오십시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다정하게 해 주셔서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블롱(Blond) 씨에게 제가 잊지 못할 거라고 전해주시고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양쪽 볼에 뽀뽀를 전한다고 해주세요.

일요일 저녁에는 포교성성의 쉬바르(Subard) 추기경께서(저도 모르는 분이대요)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석했어요. 강론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원장 신부님이신 데통브(Destombes) 신부님께서 해주셨는데 훌륭하고 우리에게 꼭 맞는 강론이었지요. 그래요, 피에르 오빠, 우리의 소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사제 1인당 100,000명의 영혼을 돌보아야 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프랑스에서도 사제 400명을 두는 곳에 아시아에서는 1명을 두는 꼴입니다... 내가 강론을 재방송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나오네요. 주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 파리외방전교회의 스맹(Semain) 주교님께서 강복해 주셨습니다. 성가는 성령 사제 합창단에서 맡아 주셨는데 정말로 압도적이었지요. 그분들이 작별의 노래를 불렀을 때, 만일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성당 안은 달걀처럼 짝 찼었답니다.

얼음과 서리를 다시 보게 되어 깜짝 놀랐어요. 8년만에 보는 광경인가 봐요. 덕분에 일본의 추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네요. 난방은 이틀 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춥지가 않아서 온도를 낮추거든요... 분위기 때문인지요.

마르세이유에 가서 또 편지를 쓸게요. 그리고 여행 도중 경유지에서도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서 성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도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들과 같은 배로 가기 때문에 미사는 여러 대 있을 겁니다. 작은 형제와 작은 자매가 함께 여행을 하는 셈이죠! 우리의 좌석은 원래 중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던 자비회의 자매(Sœurs de Charit?들의 자리인데, 그 회의 원장이 현 상황을 고려하여 출발을 보류했다고 해요.

자, 이제 식구 모두에게 양 볼에 뽀뽀를 전하며 작별해야겠어요. 모두를 위해서, 식구 한 사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모두를 사랑하니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조금 해주세요. 피에르 오빠, 우리가 출발하는 날 우리 다섯 명이 모두 ‘용감’ 하도록 미사 때 지향을 넣어줘요. 자, 그럼, 우리 며칠 후에 마리 엘렌느 수녀의 편지 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1951년 3월 5일 보베르에서

경외하올 신부님,

지난해 5월 중순경에, 이제는 작고하신 저의 형으로부터 받은 편지글에서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당할까? 현재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으며 사건의 추이를 두고 보아야겠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얼마 안 가서 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날부터 저의 마음은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온통 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형 앞에 놓여진 운명을 알 수 없어 저녁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펼쳐놓고 공산군 세력의 경로를 따라 가면서 요셉 형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날이 가고 여러 달이 바뀌면서 공산군은 형이 계신 마을을 지나 계속 밀고 나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적군이 후퇴하고 저는 안심을 했지요. 그때쯤엔 형으로부터 소식이 곧 올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파리의 일간지에서 프랑스 신부 몇 분의 사망소식을 알렸는데 그 중에 저의 형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가슴을 태웠지만 여전히 아무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에 신부님께서 저의 형의 사망소식을 상세히 적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포도 수확이 한창 때인 그때 저는 먼 이국 땅에서 가장 잔인한 시련을 겪었을 형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형을 못 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슬픈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 숭고한 희생을 바친 하느님 안에 굳은 믿음을 가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이 포로 상태에 있는 동안 당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1937년에 이곳에 왔을 때, 형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포옹하고는 1950년에 다시 만나자며 저에게 약속했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달리 계획하시어, 형은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땅에 심은 모든 희생의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저에게 유가족으로서 형을 기념하도록 형의 유품을 보내주시겠다는 신부님의 제안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의 성무일과와 십자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작을 신부님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형의 뒤를 이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유품들은 신부님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며칠 전 파리 본부를 통해 주소를 받아서 신부님의 모친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나이는 모르나 프랑스에 오시는 기회가 있거든 꼭 한 번 신부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고향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려주시면 신부님을 포옹하며 형을 다시 뵙는 듯할 것이며, 신부님으로부터 저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몰리나르 신부의 장례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회 장상들과 행정관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저를 대신하여 감사 말씀 전해주시요. 이곳의 형의 본당에서도 대미사를 집전하여 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들이 참석해 주셨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순교자의 영광된 죽음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본당 내에 대리석 기념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구에서는 주교님의 지시로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미사를 올렸고 주교님께서도 주교좌 성당에서 대미사를 올렸으며 끝으로 저희 고향 사제가 몰리나르 신부의 살아 온 길을 회고해 주셔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제들과 교우들이 보여 주신 호의와 성의에 저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알려주시고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몰리나르 Ch

1951년 3월 5일, 보베르에서

총장 신부님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저는 저의 형님이 걱정되어 신문의 기사들을 줄곧 눈여겨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추측해 보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한 마음만 더 해갔습니다.

공산군이 후퇴할 즈음에 접한 소식이 공산군에 의해 살해된 신부님들의 명단이었는데 그 중에 몰리나르 신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형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자 저의 불안한 마음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는 드디어 주교님을 통해 총장 신부님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준 편지 한 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던 형님이셨고 또 온 가족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형님을 잃게 되어 저의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떠난 형님이 남은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그래서 언젠가는 서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몰리나르 Ch.

동봉한 편지 2통을 생제 신부님께 전해주시요.

1967년 11월 30일, 홍산

벗들에게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께 저의 애정 어린 추억을 전하며 건강하시고 더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천 킬로의 머나먼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아도 여러분의 기억은 언제나 생생해서 매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상인들이라면 모두 연말이면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계획을 세우듯이 여러분이나 저로서는 오로지 의무를 잘 완수하려는 노력만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일 뿐이며, 그것이야말로 이미 훌륭한 결실이요, 하느님께 대한 강도 높은 사랑만이 그 결실의 가치를 증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 선교사업에 더 많은 사랑을 쏟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분단되어 있고 공산당들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위험 속에 있지만, 남한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곳에서 사목활동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는 수월합니다.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은 우리의 한국인들을 뒤 흔들어 몇백 년 묵은 무력감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면이나 농업, 산업, 상업, 교육, 모든 차원에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 곳곳에서 건물을 짓고 길도 닦고 철로도 놓고 합니다. 선배 선교사들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아마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사실 이 진보는 피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기회로 삼은 것이거든요. 한국 군인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기술자들도 거기로 일하러 가죠(많은 의사들이 아프리카와 말레이시아 반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주문 받은 물자들은 모두 미국 달러로 넉넉하게 값을 쳐서 한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을 북한에 대한 선전용으로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돈을 모두 내주지 않고 큰 몫을 정부가 챙기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봉급이 같아요. 정부가 이익을 챙기는 분야는 대부분 공장이나 항만 등의 각종 건설 분야이죠. 따라서 국민들 월급이 저임금이니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할 밖에요. 이곳의 남자 직공의 하루 일당은 5프랑이며 여직공은 2-3프랑 됩니다! 아주 부자들만 승용차를 소유하죠. 대부분의 주택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이어서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정부가 인권문제를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사회 제반 문제들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처럼 생각해서 훗날 보다 튼튼한 경제력이 뒷받침 될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물질적 성장은 두뇌와 교육 그리고 자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란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물론 물질적 성장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지만 문화란 무엇보다도 정신과 도덕적인 문제이며 한마디로 종교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한국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껏 종교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라 밖으로 나가면서 눈을 뜨고, 보고, 비교하고, 이해한 것이죠. 20년 동안 교회가 5배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5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어났죠. 3천만 인구 중에서 말입니다. 머지않아 백만을 돌파하겠죠! 그야말로 은총의 시기입니다. 물론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고 곳곳에 가난이 널려 있지만 선교사는 바로 거기서 자신이 완수할 너무나 충만한 성직을 보고 행복에 겨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훨씬 유익한 삶을 가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교사들은 현지인 사제들의 ‘보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지인 사제들은 매년 4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신학교는 학생들로 가득 찼으며 주교들은 주로 한국인입니다. ‘보좌’라는 뜻은 ‘보조’ 혹은 ‘조수’를 말하며 그건 우리 선배들의 업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지인 사제들은 그들의 책임의식을 더 가질 수 있으며 또 젊은 사제들은 나태의 유혹을 덜 받게지요. 젊은 사제들은 혹시라도 작은 소임에 파견되면 나태해지기 십상인데 말이지요. 따라서 오늘날 선교사들은 거의 항상 ‘촌으로(ad paganos)’ 파견되어 거기에 새 본당을 창설하고 그러고는 훗날에 그 본당을 현지인 사제에게 넘겨주죠.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창설합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저의 논산 본당과 그곳의 4,000명 되는 교우들과 학교와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저의 한국인 주교님께서 저를 홍산이라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아주 큰 마을로 발령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닷새마다 장이 서는 곳입니다. 초등학교가 둘에 학생수는 2,500명이며, 중등학교 하나와 학생수는 1,300명입니다. 그리고 명칭이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5개나 됩니다. 제 본당은 4곳의 면(面)과 접해 있어서 주민수가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4곳의 면(面)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20개나 되는데 저는 혼자예요!

본당에는(제 성당은 9×20m 크기의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세자가 350명쯤 되고 일 년에 두 번 방문하는 9개 공소에도 그 정도의 영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은 5명이나 있어서 가장 형되는 학생이 다음달에 군에 입대하죠. 신자들은 모두 선량하고 인심 좋은 촌사람에 농부들이고 거의가 가난하고 학벌도 변변치 않으며 신앙생활도 최근에 시작해서 아직은 나약한 편이죠. 아직은 외교인 가정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은 고작 한 집에 한두 명되는 가정이 태반이니 이미 영세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나 결혼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특히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그들을 꾸짖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1. 그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구실만 있으면, 비가 온다 농번기다 집에 손님이 왔다 등등의 구실로 미사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신실 본당이든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인데, 신자들이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럴 겁니다.

2. 가정 사목은 거의 빵점이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의 종교 교육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함께 모여 기도도 하지 않으며 성서를 같이 읽거나 묵주기도를 같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 미사도 없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없이는 훌륭한 신자가 되기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신앙생활에, 더군다나 다른 식구들은 영세도 받지 않은 외교인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누구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더 흘러야지요.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늘 그들을 부추기고 또 부추겨야 합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크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세 명의 수녀가 (저는 작년에 그들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었지요) 때론 걸어서 때론 자전거를 타고 온 마을을 다니며 임종자를 위해 대세를 주니까 제 일을 많이 돕는 편입니다. 대세를 받은 임종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당이 너무 좁아서 신축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부지는 매입했어요.

예비자는 꽤 많은 편이지만 교리 문답 사항에 순명하는 데에는 더딤니다. 올해 벌써 영세자가 75명이 나왔지만 성탄절에 그만큼의 영세자를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벗들이여, 저는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 제가 사는 곳은 이렇습니다. 벗들께서 실망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또한 벗들께서 인심 좋고 용감한 아시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기도를 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국의 사람들은 4개월 동안이나 혹독한 추위를 겪어서 그런지 더운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기동력이 있고 활동적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앞날을 마련해 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대 저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벗들께서 물질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싶다면 저는 굳이 사양하지 아니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편으로 보내실 경우엔 3kg까지 가능한데, 부패되기 쉬운 물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가 막혀서 희망봉을 통해 오니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아니면 항공 우편으로 보내시던지요. 기부금을 보내실 경우엔 파리에 있는 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내주시되, “한국의 생제 신부 앞으로” 라고 적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벗은 또한 저의 벗이기도 하니 이 편지를 많은 벗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벗들에게 다시 한 번 새해 기원을 전하며 예수 마리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파리외방전교회, 피에르, 생제

1985년 2월 2일

쟈끄 형님과 주느비에브 형수님께

이제서야 안느 마리 간병비로 형님께 약간의 돈을 보냅니다. 뤼 뒤 박 125번지 경리부로 가서 동봉한 500,000짜리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 비유맹(Jean VUILLEMIN) 신부를 찾아가면 그가 영수증을 내줄 겁니다. 그걸 받아서 제게 곧바로 보내주세요. 저는 몸보다는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미사를 집전합니다. 온 마음으로 두 분을 포옹하며,  
피에르, 생제

1985년 5월 1일

쟈끄 형과 주느비에브 형수님께

어느덧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어디로 갈 예정인지요? 두 분은 어찌나 여행을 많이 하는지 제가 황홀할 지경입니다! 이번에는 꼬뜨다쥐르 쪽인가요, 거친 브르타뉴 쪽인가요? 아니면 그저 고향 에댕(Hesdin)으로 갈 건가요? 혹은 파리로? 우리의 대여행가인 쟈끄 형님은 머리 속에 온갖 여행 계획을 짜놓았겠죠. 그러나 안느 마리도 만만치 않은 대여행가입니다. 안느 마리가 바짝 쫓아오니 형님도 조심하셔야 할 걸요. 이젠 여행이 유행이 되었나봅니다! 에댕이요? 파리요? 난 한국에 있는 오빠를 만나러 한국에 갔다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한국보다 더 먼 곳에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수녀원에서는 벌써 초대장을 600부 인쇄했어요. 잔치의 주인공인 제가 모든 일에 참견할 수 없으니 잔치 준비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죠.52) 9월까지는 아직 5달이 남았으니 아직 돌아갈 시간은 있어요. 참석자는 최소한 200명은 될 겁니다. 내가 특히 걱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안느 마리에게 필요할 한국말 몇 마디 적어보낸다.

MERCI - Kamsa hamnida, 감사합니다

BONSOIR - Angniong i tjou mou si yo, 안녕히 주무시오

MANGEZ BEAUCOUP - Man hi tjapsousio, 많이 잡수시오

비행기표 값은 얼마를 달라고 하더냐? 식사는 간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 19시간은 견뎌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견지를 못하면 더 진력이 날거다. 화장실을 가면서 이런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수녀원은 피정에 들어갔어요. 침묵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져 나는 코요 신부 집에 가서 한나절을 보내고 왔지요. Nungesser et Coli 30번가에 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모두를 사랑합니다.

피에르, 생제

1985년 9월 25일

작은 아빠와 고모님들께53)

서울에서 온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느라 서두르긴 한 것인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렴 어때요, 중요한 건 소식만 희소식이면 되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비디오 녹화기는 VHS 방식의 히타치(Hitachi)라서 같은 VHS 방식의 녹화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 피에르(Jean Pierre)와 베르나르(Bernard) 덕도 다른 모델이긴 해도 필립스 V.2000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빠 신부님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식 촬영 테이프를 이 집 저 집에서 복사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보고싶어

했는지 하느님은 아실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그 날은 굉장했었나봐요. 우리도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 싶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작은 아빠 신부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는 잔치 분위기는 바로 그 날의 주인공께서 그만한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저희도 덩달아 뿌듯하답니다! 작년에는 교황께서 방문하시고 시성식을 가졌었는데 올해도 이것은 거의 시성식이나 다름없으니, 서울은 연달아 잔치 분위기네요. 이곳에서는 모두들 잘 지냅니다. 신혼부부들은 릴르에 있습니다. 자비에(Xavier)는 군 입대를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아직 정확한 입대 날짜와 군복무 장소를 통지받지 못해서요. 그래도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당분간은 신혼의 달콤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엄마께서 한마디 적으실 자리를 남겨드려야겠네요. 혹시 이 편지가 고모님들이 다 떠나신 후에 도착하게 되면 원장 수녀님께 비디오 테이프를 잘 받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그곳에 계신 작은 아빠 신부님과 고모님들께 인사 전합니다.

플레뜨 올림

신부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드디어 해내셨군요! 하느님께서 신부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답니다. 신부님이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신부님께 보화를 보장하셨고, 신부님은 벌써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는 염려 마세요. 신부님의 조카들이 모두 알아서 할 것입니다. 모두들 신부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고모님들이 돌아오시면 우리는 파리로 가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곳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가을을 한껏 즐기고 있으며 우리 화단에는 아직 꽃이 만발해 있어요. 이만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신부님을 힘껏 포옹합니다.

형수, 주느비에브

1986년 2월 13일, 서울

주느비에브 형수님께

편지를 쓰기가 무척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형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써보려고 합니다. 제 앞엔 형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형님이 제 앞에 계시는 거죠. 저는 형님을 생각합니다. 형님은 제 곁에서 사십니다. 자끄 형님은 죽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유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기쁨과 친지들과 벗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젊은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죠. 다만 그때가 언제이냐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맵소사, 형수님, 형수님은 참으로 복도 많은 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끔찍하게도 고문받는 것과 같은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나열해서 형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손자들도 무척이나 많이 두셨으니 그 또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곳의 저는 많은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쁨은 갖지 못했지만 그대신 영원하신 분과의 결혼은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그것은 같은 게 아닙니까. 성공한 결혼도 있지만 또 완전히 실패한 결혼도 있거든요.

요즘 이곳은 봄추위가 대단합니다. 봄이 늦게 오는지 뜬을 들이고 있네요. 선종한 동료 신부의 식복사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호스피스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교우들은 벌써 재를 받았어요. 올해는 부활절이 일찍 들었어요.

오늘은 눈발이 날려서 그런지 날씨는 우중충해요. 나도 자끄 형님을 생각하면서 날씨처럼 우울하게 있습니다. 물을 쏟아내듯 울고 싶습니다. 그래도 형수님께 밝은 마음을 주십사고 하느님께 청하렵니다.

1986년 11월 10일

주느비에브 형수님께

저는 용기를 내서 형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저는 형수님께 버릇없이 굴었어요. 만일 형수님께서 저의 지금 상태를 보신다면!! 저는 침을 흘리고, 세상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는 배추만 간신히 먹어요. 제 방에는 수녀 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수녀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으러 옵니다.

저는 형수님과 조카 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에르 올림

1988년 1월 26일, 서울

엘리사벳에게

저는 피에르 신부님을 대신해서 자매님들 각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신부님 건강이 악화되신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좋아지셨습니다. 일주일에 1000cc씩 혈관주사를 맞고 계시고 식사를 조금 하셔서 혈액 순환은 잘 되고 있으며 조금 마르시긴 했지만 혈색은 좋습니다. 신부님은 저희를 알아보시고 몇 마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음식을 드시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화장실에는 4, 5일만에 한 번씩 가십니다. 밤이면 간호사 수녀님들이 교대해서 신부님을 지킵니다. 그리고 베아트릭스 수녀님과 테클라 수녀님은 잘 계십니다. 두 분 수녀님은 신부님께서 작은 반응을 보이셔도 달려오십니다.

엘리사벳 양, 오늘은 제가 클로드 생제(Claude Singer)의 편지를 가져다가 신부님께 읽어드렸더니 좋아하시며 들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으니 온 가족에게 피에르 신부님의 안부를 전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겨울이지만 작년에 비하면 그리 춥지 않습니다. 아무튼 피에르 신부님의 방은 따뜻합니다. 그러니 신부님 걱정은 마시고 대신 신부님께서 인내롭게 견디고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벳 양과 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마르셀 펠리스

매일 오후 1시경에 도미나 수녀님이 신부님께 성체를 모셔다 드립니다.

1988년 11월 10일, 서울

리제뜨 양에게

너무 늦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휴가 여행으로 인해 몹시 지쳐 있었고 또 돌아와서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피에르 신부님을 방문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시다. 어느 한 주일도 신부님을 뵈러 가는 일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신부님을 뵈러 가서 신부님과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님의 건강 상태는 안정된 듯하다고 베아트릭스 수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시경에 신부님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휠체어나 소파에 앉혀드리면 신부님은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보시고 그러다 지치시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 쉬십니다. 피에르 신부님은 기온 변화가 있을 때만 제외하면 오랫동안 잘 주무십니다. 식욕도 좋으시구요. 신부님을 간호하시는 두 분 수녀님께서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십니다. 테클라 수녀님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다시 베아트릭스 수녀님 곁으로 오셨습니다. 베아트릭스 수녀님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신부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때나 또 신부님께서 방 안에서 몇 걸음 움직이고 싶어하실 때에는 두 분 수녀님께서 무척 애를 먹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피에르 신부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당신을 간병해 줄 수 있는 남자 간호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여자들이 당신 몸에 손대는 것을 무척 싫어하신다고 베아트릭스 수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피에르 신부님을 도와 줄 남자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녀님들도 피에르 신부님 곁으로 가기 전에 매일 잠깐씩 쉴 수 있겠지요.

저도 이제 젊다고 할 수는 없지요. 11월 7일 자로 80살이 되었으니까요. 그 날은, 우선 제가 지도 신부로 있는 공동체에서 잔치를 치렀고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 분원에서 동료들과 또 한 번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듯이 저도 저의 “제4의 봄”을 축하했지요.

눈제책에 콜리(Nungesser et Coli)54 집에서 베풀어주신 잔치를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크게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전하며,  
코요(Coyos)

1989년 1월 12일, 서울

엘리사벳 양에게

오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에르 신부님을 방문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엘리사벳 양과 안느 마리 양이 연초에 저에게 편지로써 새해 인사를 보내 주셨기에 이에 감사의 편지를 먼저 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자매님들에게 많은 행복과 특히 건강을 기원합니다. 먼 곳에서 올리는 저의 기원만으로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기에 저는 보잘것 없는 기도 안에서나마 주님께 청을 올릴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님 댁에는 새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가회 지도신부로 계시던 한국인 사제께서 떠나셨고 펠리스 신부님께서 후임자로 오셨습니다. 덕분에 피에르 신부님은 매일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로부터 방문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 또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에르 신부님의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에르 신부님 곁에서 헌신을 다 하시던 테클라 수녀님은 소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녀님은 일전에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의사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보름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다시 기쁘게 피에르 신부님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다시 그 증세를 보이셔서 공동체 내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벨도(Albert) 수녀님이 피에르 신부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녀님이 철통같이 자리를 지키시는 베아트릭스 수녀님과 경쟁하시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피에르 신부님 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름다운 미소와 몇 마디 말씀으로 저를 반기시겠지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저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 크루아> 잡지는 작년 9월부터 끊겼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읽지 못하시니 굳이 연장해서 구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성탄절 밤에 저의 먼 사촌인 실뱅 레샤르두아(Sylvain Lhardoy) 부부를 만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매님들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친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제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에게 베풀어주신 조출한 잔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의 애정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코요 신부

1989년 5월 19일, 서울



리제뜨 양에게

예전처럼 어제도 피에르 신부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방에 들어가 보니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부님의 물품 한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아트릭스 수녀님이 그것들을 책상 위에 나열해 놓았더군요. 잠옷 한 벌, 세수 수건 3장, 바스크 베레 모자 한 개, 초콜릿 두 판, 세수 비누들, 목주 다섯 개, 기적의 메달 한 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지요...

제가 2시경에 도착해 보니 피에르 신부님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더군요. 신부님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상태였으며 그래서 베아트릭스 수녀님과 간호사 수녀님도 혹시 마지막 시간이 왔나 싶어서 신부님 곁을 일 분도 못 떠나고 계셨습니다. 전 날에 신부님께선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셔서 영양주사를 놓아드렸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3시경쯤, 제가 신부님 곁을 막 떠나오려는데 신부님은 다시 종전의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알아보셨고 우리는 자매님이 보내주신 초콜릿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심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자매님께 편지를 막 쓰려고 하는데 펠리스 신부께서 저에게 최근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가회 수녀원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시는 그 신부님이 말입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오늘 아침에 들렀더니 피에르 신부님께서 간밤에 잠을 잘 주무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소식입니다. 저는 어느덧 81살에 가까워지는 늙은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리가 좀 휘청거리는 하지만 어쨌든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3주 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른팔 밑과 허리 위 사이에 난 혹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아프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수술 부위가 금새 회복된 걸 보니 별로 심각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매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저의 애정을 전하며,  
코요 신부

1991년 2월 23일, 서울

엘리사벳 생제 양에게

자매님께서 이달 3일에 보내주신 편지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자매님께는 편지 쓰는 일이 다급한 일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자매님이 할 일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이를 먹어 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해 헌신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이지요. 저는 다만 자매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어쨌면 다음 세대들은 이렇지 않을지도 모르죠!

어제 저는 매주 하는 피에르 신부님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신부님은 자매님이 벌써 3년 반 전에 다녀가시며 보았던 그 상태로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시는 채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의존하시면서 말입니다. 주위 분들의 감탄스러운 헌신은 자매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신부님은 마지막 남은 치아들을 다 뽑고 틀니를 만들었지만 지난번 쓰러지신 이후로는 틀니를 끼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은 신부님께서 오직 살아계시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 들어있는 유동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피에르 신부님은 많이 마르셔서 뼈와 살가죽만 남았더군요! 그래도 몸은 여전히 무거운 걸 보니 뼈가 단단하신 모양입니다. 매일 신부님을 소파에 옮겨 드려야 하는데 가냘픈 수녀님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간병하시던 수녀들 중에 세 분은 심장병 증세 때문에 간병을 포기하여야 했고 오로지 베아트릭스 수녀님만이 깨끗하게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녀님도 몸이 쇠약해지셔서 4달을 쉬어야만 했었는데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헌신을 다 하십니다. 수녀님들은 피에르 신부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새 지도신부를 위해 사제관을 따로 지으셨습니다. 수녀님들은 피에르 신부님의 사제관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창설자 신부님의 기념물들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다. 보세요, 수녀님들은 피에르 신부님에 대해 얼마나 큰 뜻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수녀님들은 피에르 신부님

께서 어떻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알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자매님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매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동생분께서 자매님 대신 하실 수는 없을까요? 네, 피에르 신부님 방에 <라 크루아> 잡지가 있군요. 저는 벌써 바이야르(Bayard)에다 잡지 구독을 끊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말입니다!

저도 190이나 되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4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요...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자매님과 식구 여러분들에게 저의 애정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코요

- 1) 여기에는 어머니께서 성 신부님께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 계셨던 테레즈(헬렌) 수녀님께 보낸 편지 1통도 포함되어 있다.
- 2) 포도주
- 3) 원문에는 Viet minh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Viet nam Doc Lap Dong Minh의 약자로 ‘베트남 독립 동맹’이다.
- 4) 이 안에는 성 신부님뿐만 아니라 테레즈(헬렌) 수녀님께 보내는 편지 1통도 포함되어 있다.
- 5) 2001년 성 신부님 비디오 제작 관계로 김 임마꼴라따 수녀와 김 미리암 수녀가 파리에 있는 성 신부님의 여동생인 리제뜨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시 리제뜨가 소장하고 있던 성 신부님 편지들을 복사하여 번역한 편지글이다. 원본은 파리 리제뜨의 집에 보관 중이다.
- 6) 성 신부님이 본국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보낸 우편엽서이다.
- 7) 성 신부님의 고향 마을 애맹에 있던 수도회의 원장 신부를 말하는데 성 신부님께서는 그와 각별히 친하셨다. 성 신부님의 글에서 종종 언급되는 ‘수도원장’은 그를 지칭한다.
- 8) 대건 중고등학교 신축을 말한다.
- 9)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 10)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뜻으로 ‘C’est le diabl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들어가는 명사 le diable는 ‘마귀’, ‘악마’라는 뜻이다.
- 11) 여기서도 ‘diable(악마)’가 들어간 관용구로 ‘au diable’하면 ‘맴소사, 제기랄’의 뜻을 지닌 탄식어이지만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마귀에게’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를 독립구로 취급하지 않고 앞 문장과 연결짓게 되면 “성체를 마귀에게 주고 왔다”는 말장난이 되어 버린다.
- 12) 마르그리뜨의 애칭이다.
- 13) 곡물을 되는 옛 용량 단위로 약 13리터에 해당한다.
- 14) 마르그리뜨에 대한 애칭 표현이다.
- 15) 편지와 함께 보낸 기사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이 붙여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배가 고파 울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한국은 배가 고프다/ 1953년 8월 24일, 대전”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리고 하단에 “한국에 있는 생제(Singer) 신부에게 후원금을 보냅니다”라는 글과 파리외방전교회 주소와 사서함 박스 주소가 적혀 있다.
- 16) 마르그리뜨의 애칭이다.
- 17) 원문 편지가 중간에 16줄이 잘려나가 번역이 불가능하다.
- 18) 구장염과 설사가 따르는 만성 열대병이다.
- 19) 로드리게(Rodrigue)와 시멘느(Chim꺼e)는 포르네이유의 <씨드>에 나오는 작중 인물로서, 두 주인공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다.
- 20) ‘Chene’가 대문자로 지방 이름을 나타내지만 소문자일 때는 보통명사로써 떡갈나무를 뜻한다.
- 21) 편지 원문에서 12줄의 글이 잘려나가 번역이 불가능하다.
- 22) 정화(正貨)와의 교환이 보증되어 있는 지폐를 말한다.

- 23) 앞뒤 문맥으로 보아 1976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24) 마르그리뜨 수녀의 세례명이다.
- 25) 불리외(Beaulieu, Bernard Louis, 1840-1866) 성인: 순교자 축일은 9월 20일.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신부. 한국명, 서몰례(徐沒禮). 프랑스 보르도(Bordeaux) 교구의 랑공(Langon)에서 태어났다. 1886년 10월 6일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 26) 성 신부님은 원문의 필체를 판독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간신히 글을 쓰셨다. 드문드문 판독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모아볼 때 신부님은 금경축 기념일에 9분의 주교님들과 여러 하객들이 찾아 주었다는 것과 수녀들이 매일 방문하여 즐겁게 해 준다는 내용을 적으신 것 같다.
- 27) 이 서한의 필체는 성 신부님의 필체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받아 적은 듯 하다.
- 28) 요한 마리(Jean-Marie)는 마르그리뜨 수녀의 세례명이다.
- 29) 대개 파리에 살고 있는 성 신부님의 세 자매인 안느 마리, 리제뜨(엘리사벳), 마리 끌레르와 일본에 파견한 테레즈 수녀에게 쓰신 편지들이다.
- 30) 성 신부님의 남동생이다.
- 31) 제5대 교구장 다블뤼 신부, 위앵 신부, 오메트로 신부 등 3명의 프랑스 성직자와 황석두 회장, 장주 기 회장 등 2명의 한국인 교우가 1866년 3월 30일 성금요일에 순교하셨고, 순교지인 충남 보령군 오천면 영보리의 갈매곶은 현재 성지로 지정 되었다.
- 32) 당시 안느 마리, 리제뜨 두 자매가 파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 33) 카라멜 조각처럼 생겼는데 더운 물에 넣으면 모양이 풀어져 소고기 스프가 된다.
- 34) 1925년 기해박해, 병오박해 순교자 79위가 복자위에 오른 것에 이어 1968년 10월 6일에는 병인박해 순교자 가운데 24명이 로마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병인박해 순교자 가운데서는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부주교를 비롯한 프랑스인이 9명 있었으나 7명만 복자품에 올랐다. 이들 103위 복자는 1984년에 성인품에 올랐다.
- 35) 나리타 공항을 잘못 알았을 것이다.
- 36) 책 제목인데 인명인지 지명인지 알 수 없으므로 번역이 불가능하다.
- 37) 외적 활동을 하지 않고 마음의 절대적 정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17세기에 비롯된 신비적 기독교의 교리이다.
- 38) 성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사셨던 도시이고 성 신부님이 다니셨던 생 베르맹 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다.
- 39) 약어이므로 어떤 종류의 일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 40) 이 찢막한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
- 41) 원문 편지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어서 수신자와 편지를 쓴 날짜를 알 수 없으나 봉투의 주소는 엘리사벳 생제 앞으로 되어 있다.
- 42) 이 편지는 두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발신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 43) 편지 원문이 끊겼다.
- 44) 문맥상 뒤에 ‘긴 시간이 걸렸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듯하나 원문은 미완의 문장이다. 1984년 이후의 성 신부님 서한들은 때론 한 문장도 미처 끝내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판독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난필로써 성 신부님의 병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45) 성 신부님께서 편지를 대필해주신 펠리스(배세영) 신부님께 감사를 표하는 말과 이에 대한 펠리스 신부님의 응답이 편지에 그대로 적혀 있다.
- 46) 이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성 신부님의 필체가 불안정하고 편지 내용으로 보아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쓰신 것 같다.
- 47) 테레즈는 성 신부님 앞 집에 사는 동갑내기 여자 친구이다. 이 편지는 테레즈 어머니인 켈르 부인의 선종을 애도하며 쓴 글이다. 성 신부님 맥과 테레즈 여자 친구 집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한다.
- 48) 성공회를 말하는 것 같다.

- 49) PETAIN(Philippe), 1856-1951: 1914년 군단장으로서 마른느 전투, 아르뚜아 전투에서 전공을 올리고, 1916년 베르땡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여 무훈을 세웠다. 그후 육군 원수와 프랑스 요직을 역임하였고, 1940년 5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뒤 총리와 국가 주석에 임명되었다. 1944년 독일인에 의해 납치되었으나 스위스를 통해 돌아오는 데 성공하였고, 법정에 자진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다. 나치에 협력한 혐의로 1945년 8월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사망하였다.
- 50) 1940년 6월 5일부터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독일군은 14일에 파리를 점령하였다.
- 51) 편지 원문에 발신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으나 내용으로 보아서 일본으로 떠난 테레즈 수녀님의 편지인 듯하다.
- 52)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식을 말한다.
- 53) 이 편지는 성 신부님의 큰 형의 딸인 폴레뜨가 성 신부님의 남동생인 폴과 여동생들에게 서울에서 받은 편지 소식을 알리는 글이다.
- 54) 생제 신부님의 여동생들이 살고 있는 파리의 집 주소이다.